

K Auctio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12 APRIL 2017 SEOUL





케이옥션 4월경매

MODERN AND CONTEMPORARY ART & KOREAN TRADITIONAL ART AND CRAFT

경매 AUCTION

2017년 4월 12일(수) 오후 5시, 신사동 케이옥션 전시장
12 April 2017, 5pm, K Auction, Seoul

전시 PREVIEW

홍콩 HONGKONG

2017년 3월 22일(수) – 24일(금) | 오전 10시 – 오후 9시 | 르네상스 홍콩 하버뷰 호텔 그라운드층 보드룸 8
March 22(Wed) – 24(Fri) 2017, 10am – 9pm, Renaissance Harbour View Hotel, Ground Floor Boardroom 8

대구 DAEGU

2017년 3월 28일(화) | 오전 10시 – 오후 9시 | 그랜드 호텔 대구 5층 프라자홀
March 28(Tue) 2017, 10am – 9pm, The Grand Daegu Plaza (5F)

부산 BUSAN

2017년 3월 29일(수) – 30일(목) | 오전 10시 – 오후 9시 | 파크 하얏트 부산 1층 살롱
March 29(Wed) – 30(Thu) 2017, 10am – 9pm, Park Hyatt Busan Salon (1F)

서울 SEOUL

2017년 4월 1일(토) – 12일(수) |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30분 | 신사동 케이옥션 전시장
April 1(Sat) – 12(Wed) 2017, 10:30am – 6:30pm, K Auction
ArtTower, 23 Eonju-ro 172-gil, Gangnam-gu, Seoul

K Auction

경매약관

이번 경매기간 (이하 "경매기간"이라 합니다)에 시행되는 당사경매에서의 응찰을 위한 등록과 신청, 응찰 및 경매물품의 경매는 경매약관과 본 유의사항에 의해 규율됩니다. 경매약관과 본 유의사항 간에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유의사항이 우선합니다. 본 유의사항에 포함된 용어 중 고유명사로 쓰였음에도 정의되지 않은 것은 경매약관에 정의된 바에 의합니다. 응찰 희망자는 경매약관과 본 유의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응찰 희망자는 경매약관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매물품의 경매에 관한 케이옥션의 진술, 보증, 면책, 제한 책임 및 경매물품에 관한 케이옥션의 제한 보증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물품

경매물품은 경매 시점에 "있는 그대로" 출품됩니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경매물품의 훼손 그리고/또는 복원을 포함한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케이옥션은 응찰자가 직접 경매물품의 상태 및 경매도록 등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응찰자로부터 응찰을 수령합니다.

환율

경매도록 등에 제공되는 미국달러, 홍콩달러 또는 중국위안화 표시 금액은 단지 응찰자의 편의를 위함일 뿐이며, 케이옥션과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경매약관 및 본 유의사항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응찰 및 대금 결제는 한국원화(KRW)에 의합니다. 케이옥션은 환율과 관련한 어떠한 과실, 누락 또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응찰 등록

경매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전이 첨부된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경매시작 30분 전까지 응찰 팻말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응찰하는 고객이거나 케이옥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은행조회서류, 신용카드(비자/마스터), 소더비 고객등록카드, 크리스티 고객등록카드 또는 기타 케이옥션이 고객의 재무적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케이옥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응찰을 위한 보증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경매시작 30분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응찰

응찰 희망자는 경매약관 및 본 유의사항에 따라 공개응찰,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응찰 또는 전화응찰의 경우에는 경매시작 24시간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서면응찰의 경우 케이옥션의 담당자는 서면에 적힌 상한가격 이내에서 내정가를 감안하여 가능한 낮은 가격에 낙찰되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서면응찰, 공개응찰, 전화응찰의 응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매약관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 우선순위는 서면, 공개, 전화 응찰자 순서입니다. 만약 두 개의 서면응찰의 응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매약관에 따라 해당 경매물품은 케이옥션이 먼저 수령한 서면응찰의 응찰자에게 낙찰됩니다. 케이옥션은 응찰 희망자가 공개응찰,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로 경매에 응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사유를 불문하고, 그 불시행 또는 지연, 또는 공개응찰,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의 등록 그리고/또는 신청의 처리, 서면응찰 또는 전화응찰의 접수 그리고/또는 서면 또는 전화에 의한 응찰과 관련한 케이옥션이나 그 관리자, 직원, 피용인 그리고/또는 대리인의 오류 그리고/또는 누락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응찰은 녹음, 녹화 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응찰자는 응찰을 함으로써 위 녹음, 녹화, 또는 기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매물품의 경매, 낙찰확인서 및 대금지급

경매계약은 매도인과 낙찰자 간에 성립합니다. 경매계약은 경매사가 최고 응찰자(즉, 낙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하고 경매봉을 두드려 최고가 입찰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경매물품의 낙찰자는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고 낙찰일 당일에 경매장소에 있는 경우) 낙찰일에, (낙찰자가 공개응찰을 하지 않았거나 낙찰일에 경매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최대한 가능한 시기에, 그 낙찰을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경매약관 및 본 유의사항에 따라, 낙찰자는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청구서(낙찰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 이하 동일)에 기재된 총대금 및 청구서 발송 이후 발생한 낙찰자비용을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케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옥션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단, 케이옥션과 낙찰자는 관련 경매물품의 경매 이전에 구매가를 분할지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

다음의 경우 경매물품과 관련된 위험과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 (i) 해당 경매물품의 낙찰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날; 그리고
- (ii) 낙찰자 또는 그에게서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에 의한 위 경매물품의 인수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에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본 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 낙찰일 당일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케이옥션이 경매약관 및 본 유의사항에 따라 경매물품과 관련하여 낙찰자가 부담하는 모든 대금을 낙찰자로부터 하자 없이 완전하게 변제 받지 않는 이상, 경매물품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경매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정송금 및 결제

송금해야 할 은행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주 (Account Holder): (주)케이옥션 (K Auction Inc.)

은행명 (Bank Name): 하나은행 (Hana Bank)

은행주소 (Bank Address): 77 Mugyo-dong, Jung-gu, Seoul, 110-775, Korea

입금계좌번호 (Account Number): 196-910005-07204

스위프트코드 (Swift Code): HNBKNKRSE

은행계정송금 시 낙찰자의 이름과 청구서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약관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개인 또는 회사 수표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수표가 결제될 때까지 낙찰자에게 경매물품이 인도되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약관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 또는 은행계정송금의 경우, 송금이 확인 되면 낙찰자는 경매물품을 즉시 인수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은 즉시 이전됩니다. 여행자 수표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단, 구매수수료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품과 관련된 구매수수료는 낙찰가의 15% (부가가치세 별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구매수수료는 낙찰자가 케이옥션에 지급해야 하는 낙찰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응찰 시에는 반드시 구매수수료를 감안하셔서 응찰가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가 케이옥션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곳에서 부과된) 상품세나 서비스세 혹은 다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낙찰자는 관련법에 의해 요구되는 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판매된 경매물품은 대한민국의 수출 관련 법령 및 관련국의 수입 관련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물품의 해외 반출/반입에 필요한 허가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재 및 유물 등으로 추정되는 경매물품의 응찰 시에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 등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응찰자는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해야 합니다.

구매수수료

낙찰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이 직접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경매물품을 인수하셔야 합니다. 케이옥션과 낙찰자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케이옥션은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만 낙찰자가 낙찰 받은 경매물품을 인도합니다. 케이옥션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인수자의 신원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확인하고, 경매약관에 따라 낙찰자가 (케이옥션에 대한 채무로서 그리고/또는 위탁자에 대한 채무로서) 케이옥션에 지급해야하는 모든 대금을 완납 받은 후, 낙찰자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경매물품을 인도합니다.

영문, 중문 그리고/또는 국문 기재상의 어떠한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이 우선합니다.

세금

수출/입 허가증

경매물품의 보관 및 운송

번역

IMPORTANT NOTICES

(for auctions held by K Auction in Korea)

AUCTION TERMS

The conduct of the Auction, registration and application to place bids, placing of bids and sale of lots in the Auction during this auction period (the "Auction Period") shall be regulated by the Auction Terms and these Important Notices. In the event of any ambiguity or any discrepancy between the Auction Terms and these Important Notices, these Important Notices will prevail. Any capitalised terms used but not defined in these Important Notices have the meaning set out against such terms in the Auction Terms. Prospective Bidders should read the Auction Terms and these Important Notices carefully.

PLEASE READ CAREFULLY CLAUSES 13, 14 and 15 OF THE AUCTION TERMS WHICH SET OUT K AUCTION'S REPRESENTATIONS, WARRANTIES, DISCLAIMER AND LIMITED LIABILITY REGARDING THE SALE OF THE LOTS AND THE LIMITED WARRANTY PROVIDED BY K AUCTION IN RESPECT OF THE LOTS.

LOT

The lots shall be sold on an "as is" basis as at the time of sale of the lots (whether or not the Buyers are in attendance in person at the Auction). The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his/her own research and satisfying himself/herself of the condition of the lo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 and/or restoration of the lots and in respect of any entries provided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K Auction will only accept a bid from a Bidder in respect of a lot on the assumption that the Bidder has satisfied himself/herself of the condition of such lot and in respect of any entries provided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RATES OF EXCHANGE

All amounts in US Dollars, HK Dollars and Chinese Yuan shown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are for reference only and all bids and payment will be in Korean Won (KRW), unless otherwise expressed in the Auction Terms and/or these Important Notices or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y K Auction.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error or omission, however caused,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conversion of currencies.

REGISTRATION FOR LOTS

The Prospective Bidder shall complete a Bidder Registration Form and provide a proof of photographic identity such as passport, driving licence or government issued identification card to collect his/her bidding paddle 30 minutes prior to the Auction commencement. The Prospective Bidders, including first-time Prospective Bidders, and when K Auction deems necessary, have to provide one or more original or copy of the following: bank reference or statement, credit card (visa/master), Sotheby's Client registration card, Christie's Client registration card or relevant supplementary document to confirm the financial credit of Prospective Bidder. Moreover, if K Auction deems necessary, the Prospective Bidder may have to provide deposits. The above procedures should be completed 30 minutes prior to the Auction commencement.

BIDDING

The Prospective Bidders may bid on any Lot in person, in writing or by telephone. The Prospective Bidders should register 24 hours prior to the Auction commencement in case of a written bid or a bid by telephone. K Auction staff will attempt to execute a written bid at the lowest possible price taking into account the Reserve Price, subject to the maximum bid price in writing. In respect of a lot, if a written bid, bid in person, bid by telephone have the same price, bidder has priority in the order of written bid, bid in person and bid by telephone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Auction Terms. If two written bids for a lot have the same bid price, the Bidder of the written bid first received by K Auction will be declared the Buyer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K Auction shall use reasonable endeavours to enable Bidders to place bids in person, in writing or by telephone, but K Auction does not accept any responsibility for failure to do so or delay in doing so or for any error and/or omission by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processing any registration and/or application to place bids, receiving and/or placing written or telephone bids, howsoever caused. All bids placed may be recorded and Bidders, by placing bids, ar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the recording of their conversations or actions.

SALE OF LOTS, INVOICE AND PAYMENT

The contract of the sale of a lot shall be made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The sale of a lot shall occur when the auctioneer accepts the highest bid by striking his/her hammer and calling the paddle number of the highest Bidder (i.e. the Buyer). The Buyer will be asked to confirm his/her purchase by signing the Bid Confirmation on the date of the sale (where the Buyer made his/her bid in person and is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or as soon as practicable (where the Buyer did not make his/her bid in person or is not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In respect of any lot, the Buyer shall pay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accordance with the Auction Terms and these Important Notices the full invoiced amount and any Buyer's Expenses incurred after the invoice sent, within 7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RISK AND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ANY LOT

The contract of sales is between the Seller and Buyer. Such a contract is established when the auctioneer accepts the highest bid by calling the paddle number of the highest bidder (i.e. successful bidder) and striking the hammer. The Buyer shall sign a Successful Bidding Confirmation confirming the purchase by him/her of a lot on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where the Buyer made his/her bid in person and is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or as soon as practicable (where the Buyer did not make his/her bid in person or is not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The Buyer shall pay to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uction Terms and the Important Notice, the full invoiced amount (payable to K Auction and/or the Consignor) in the invoice (which hereinafter may be substituted with a notice of bidding result) and any other Buyer's Expenses incurred after the invoice has been sent to the Buyer,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the date of the sale. K Auction and a Buyer may, prior to the sale of the relevant lot, agree in writing for the Purchase Price of such lot to be paid in instalments.

PAYMENT AND BANK TRANSFERS

The Buyer shall bear the risk associated with,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lot purchased by him/her from the earlier of: (i) the expiration of 7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and (ii) the date of collection of such lot by the Buyer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However, title to the lot will not pass to the Buyer until all amounts due from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respect of the lot under the Auction Terms and/or these Important Notices are received by K Auction in good cleared funds. Please refer to the Auction Terms for further details.

Bank transfers should be made to :

Account Holder: K Auction Inc.

Bank Name: Hana Bank

Bank Address: 77 Mugyo-dong, Jung-gu, Seoul, 110-775, Korea

Account Number: 196-910005-07204

Swift Code: HNBNKRSE

Please include the Buyer's name and invoice number with instructions to the bank.

Subject to the Auction Terms, in case any payment is made by personal or company cheque, please note that the relevant lot(s) will not be released, and title to such lot(s) will not pass, to the Buyer until such cheque has been cleared. Subject to the Auction Terms, payment by cash or banker's draft will enable immediate release of, and transfer of title of, such lot(s) to the Buyer once the transfer is confirmed. Travellers' cheques or payment by credit card will not be accepted. However, credit card will be accepted for the payment of the Buyer's Premium only.

BUYER'S PREMIUM

In respect of any lot, the Buyer's Premium shall be 15% (excluding Value Added Tax) of the Hammer Price and the Buyer's Premium is exclusive of any Buyer's Expense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The Bidder should determine the bid price considering the Buyer's Premium when placing the bid.

TAX

All sum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are exclusive of any goods or service tax or other value added tax (whether imposed in Korea or otherwise). The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paying such tax at the rate and time as required by the relevant law.

EXPORT/IMPORT PERMITS

Lot(s) sold at the Auction may be subject to laws governing export from Korea and import restrictions of the relevant countries. It is the Buyer's sole responsibility to obtain any relevant licences required for the export/import of the purchased lot(s).

In particular, bidders bidding on the lots considered to be traditional Korean relics and treasures must fully understand the terms of Korea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Law, which prohibits exportation of traditional Korean relics and treasures.

COLLECTION AND STORAGE

It is the Buyer's responsibility to arrange for collection of the lot(s), by himself/herself or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etween K Auction and the Buyer, K Auction will only release the lot(s) to the Buyer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K Auction will only release the lot(s) upon receiving (i) proof of identity and authorisation (in the case of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collecting) satisfactory to K Auction and (ii) the full amount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respect of the lot(s) pursuant to the Auction Terms.

TRANSLATION

In the case of any ambiguity or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Chinese and/or Korean text in this catalogue,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Lot 65

소득세(기타소득세) 부과

2013년부터 개인이 서화(書畫)·골동품을 양도할 때, 그 양도 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라도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서화(書畫)·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C O N T E N T S | **차례**

유의사항 02 | 인덱스 09 | 근현대 미술 10 | 해외 미술 178 | 경매약관 222 | 응찰등록신청서 232



근현대 미술

곽인식 15
권기수 80
권영우 20, 21, 50
김기린 16, 22, 52
김종학 70, 72, 74
김창열 12, 13, 26, 27
김홍주 79
김환기 2, 7, 39
남관 14, 25
도상봉 67
류경재 4, 23, 24
문신 78
박서보 9, 40-42
박수근 66
산정 서세옥 1, 5, 43, 44
서승원 55
신성희 54
오지호 68

해외 미술

오치균 61, 62
윤명로 19
윤형근 11
이강소 3, 59, 60
이대원 63, 64, 73
이성자 17
이영배(이배) 56
이왈종 75, 77
이우환 6, 33-38
장옥진 65
전광영 57, 58
정상화 28-32
정창섭 8, 45, 47, 49
조용익 53
천경자 69, 71, 76
최병소 51
하종현 10, 18, 46, 48

게르하르트 리히тер 85
나티 우타릿 92
데미안 허스트 84
마르크 샤갈 89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98
사라 모리스 83
스테판 발켄홀 93
야요이 쿠사마 81, 82, 86-88, 96, 97
요시토모 나라 95
조지 콘도 90
팀 아이텔 94
패트릭 휴즈 91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한국 근현대 미술



LOT 1-80



1

산정 서세옥 b.1929
Suh SeOk 山丁 徐世鉉

사람들 People

ink and color on paper
47x47cm, 18.5x18.5inch
signed on the lower right corner

KRW 5,500,000 - 20,000,000

USD 5,000 - 18,000

HKD 38,000 - 138,000



2

김환기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무제 Untitled

gouache on paper
11x16.3cm, 4.3x6.4inch
1960s
signed on the lower center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10,000,000 - 30,000,000

USD 9,000 - 26,000

HKD 69,000 - 207,000



3

이강소
b.1943
Lee KangSo 李康昭

From an Island-03137

oil on canvas
45x45cm, 17.7x17.7inch
2003
signed on the side

KRW 7,000,000 - 25,000,000
USD 6,000 - 22,000
HKD 48,000 - 17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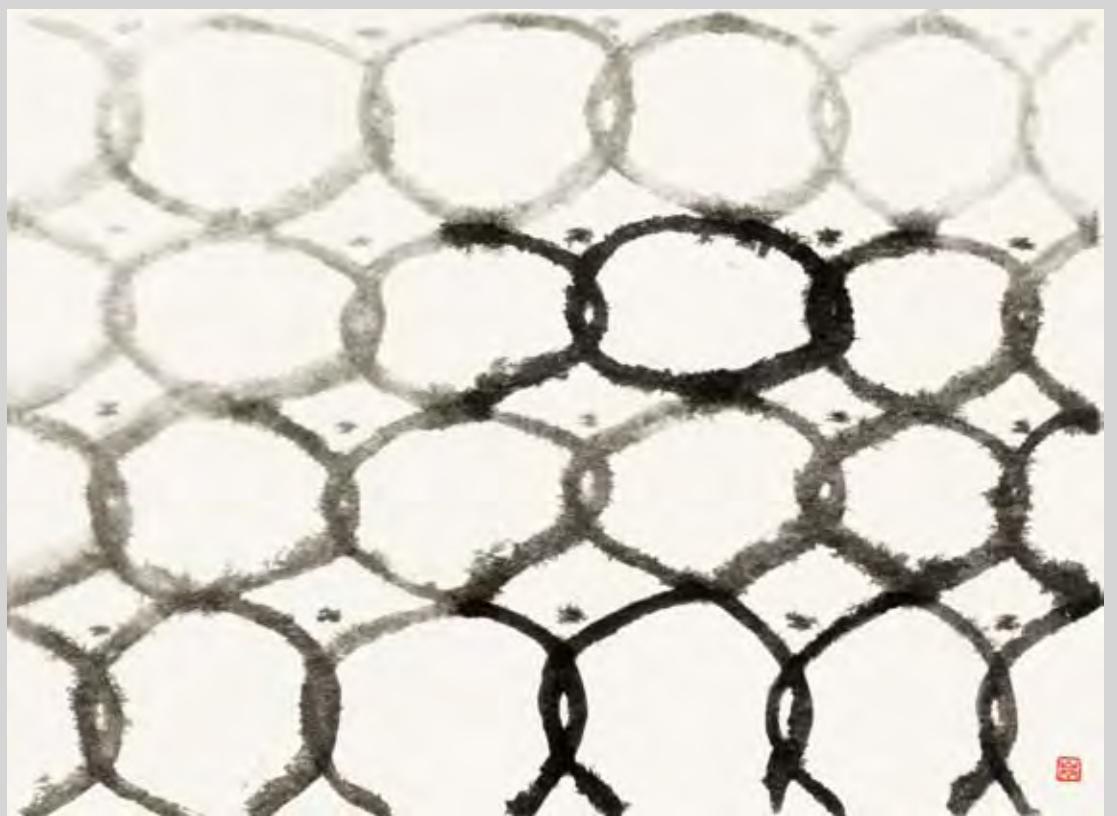
4

류경채
1920 - 1995
Ryu KyungChai 柳景採

초팔일 76-11 The 8th Day of the Month 76-11

oil on canvas laid on hardboard
33.4x19cm (4), 13.1x7.5inch
1976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8,000,000 - 15,000,000
USD 7,000 - 13,000
HKD 55,000 - 103,00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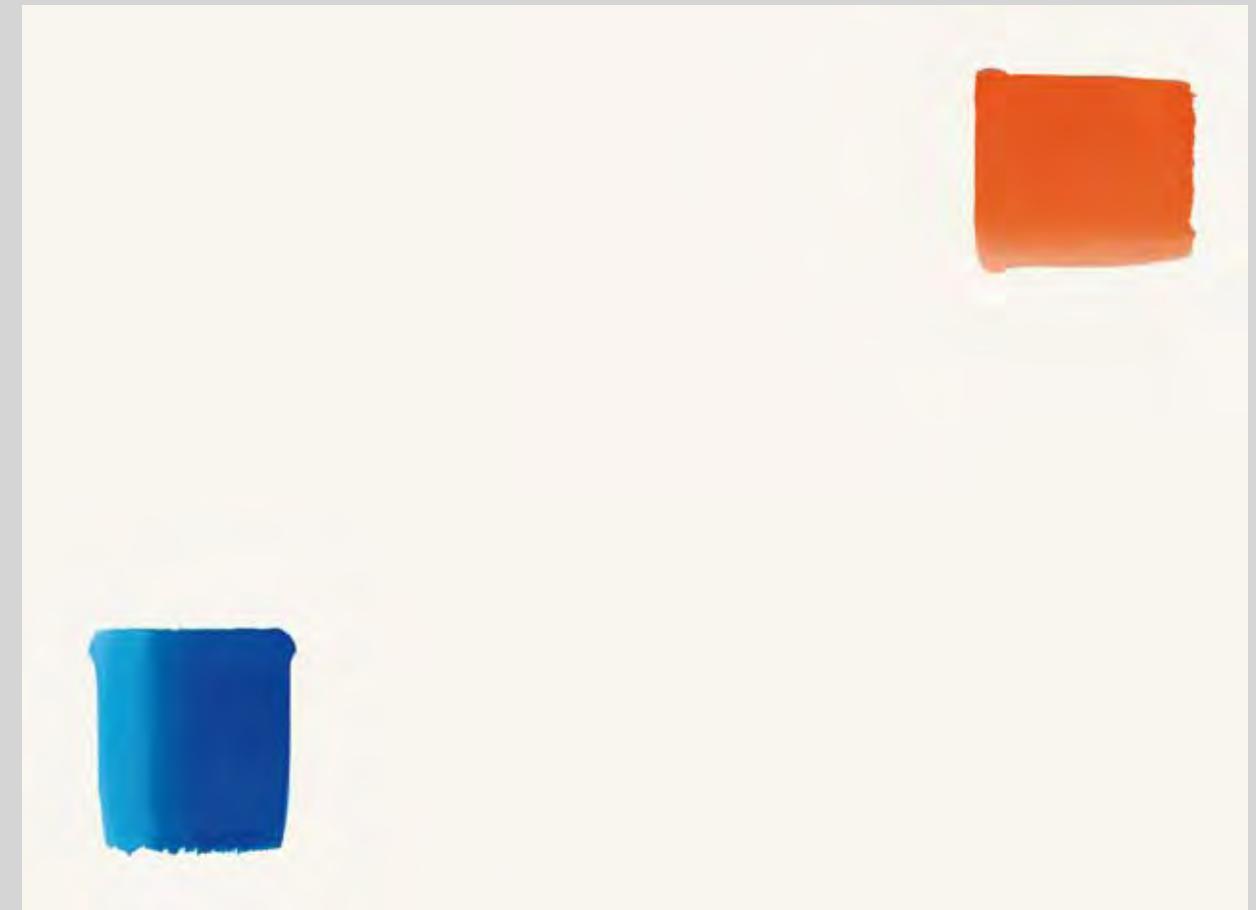
산정 서세옥 b.1929
Suh SeOk 山丁 徐世鉉

춤추는 사람들 Dancing People

ink on paper
32.5×43cm, 12.8×16.9inch
sealed on the lower right

KRW 4,000,000 - 16,000,000

USD 4,000 - 14,000
HKD 28,000 - 110,000



6

이우환 b.1936
Lee UFan 李禹煥

무제 Untitled

watercolor on paper
57×76cm, 22.4×29.9inch
2005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18,000,000 - 30,000,000

USD 16,000 - 26,000
HKD 124,000 - 207,000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7

김환기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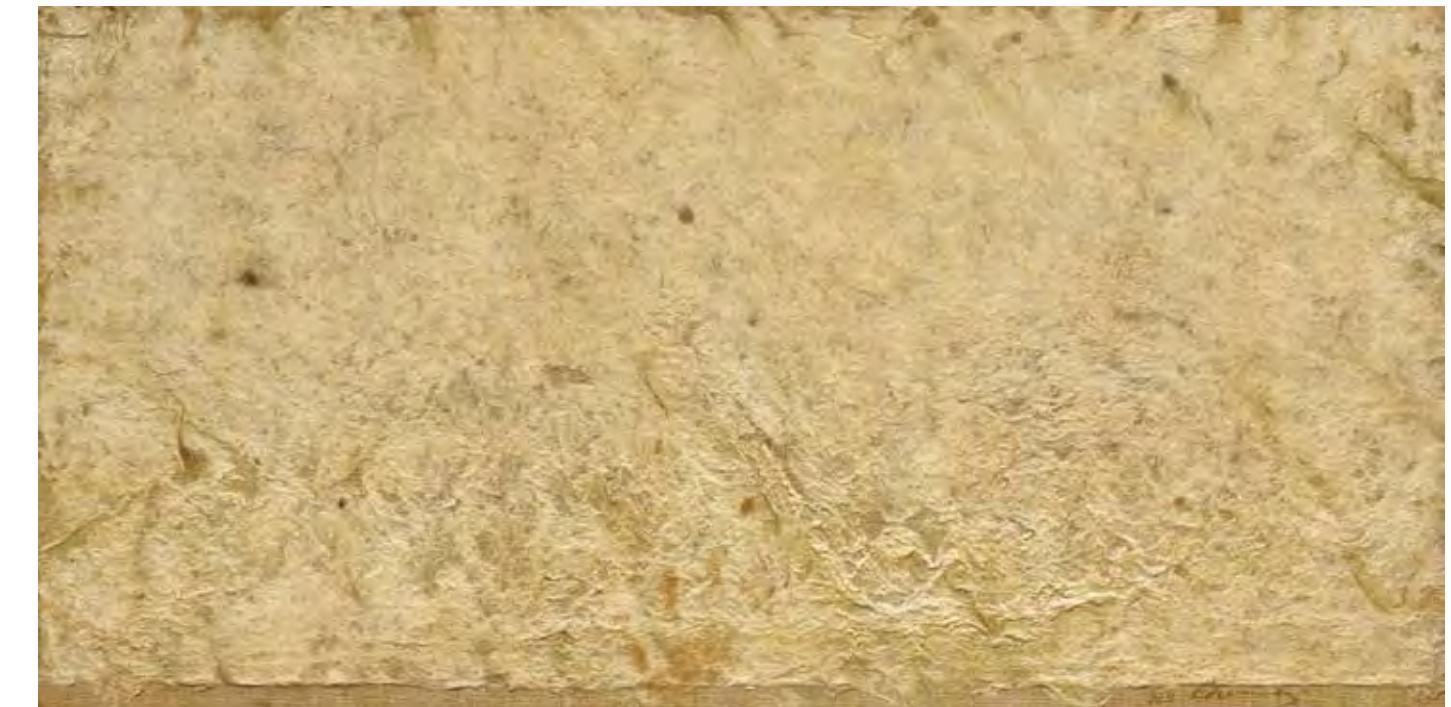
산월 Mountain and Moon

gouache on paper
24x26.5cm, 9.4x10.4inch
1964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30,000,000 - 50,000,000
USD 26,000 - 44,000
HKD 207,000 - 345,000

LITERATURE

『Whanki Vie Et Oeuvre Life and Work』, Maeght Editeur, 1992, p. 5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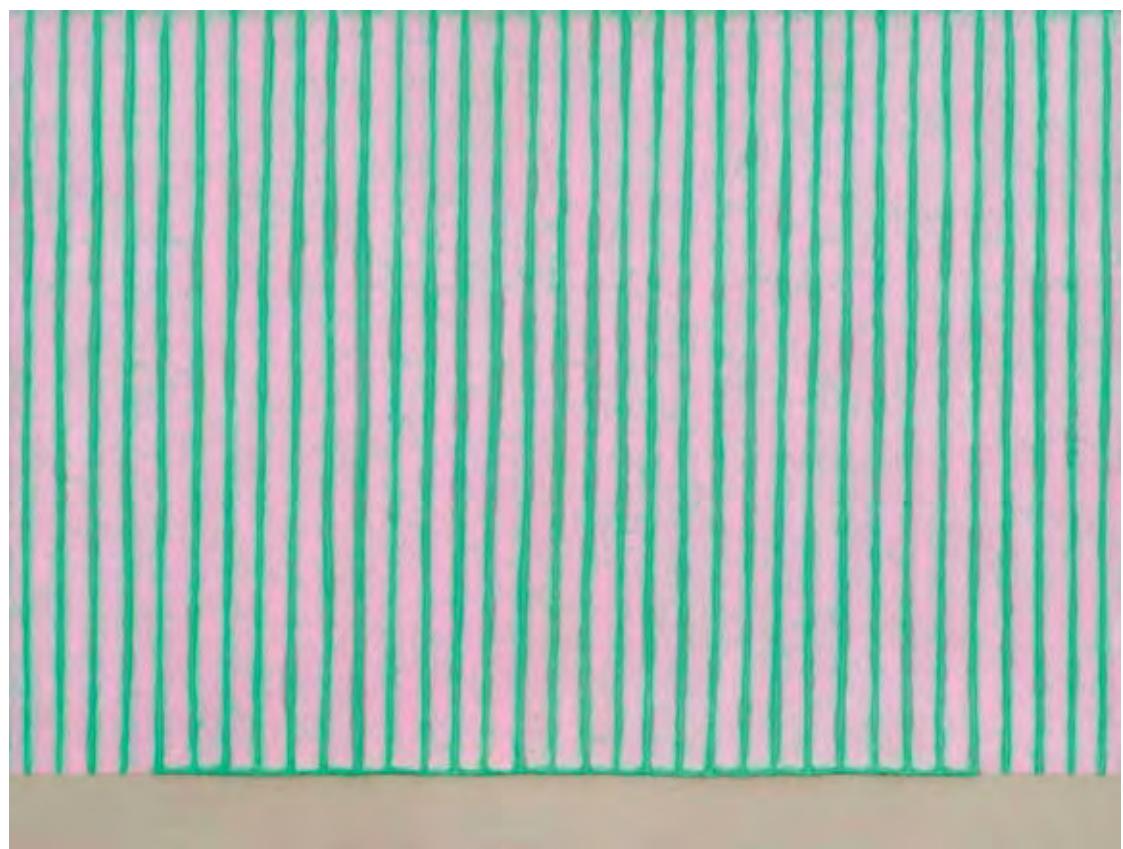
정창섭 1927 - 2011
Chung ChangSup 丁昌燮

귀일(歸一) 82G Return One 82G

tak fiber on canvas
40x80cm, 15.7x31.5inch
1982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命還歸一 82G 一九八二年九月 丁昌燮作

KRW 28,000,000 - 60,000,000
USD 25,000 - 53,000
HKD 193,000 - 41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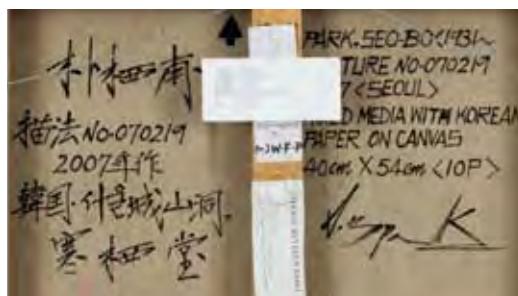
9

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묘법 No. 070219 Ecriture No. 070219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40.9x53cm (10), 16.1x20.9inch
2007
signed on the reverse

KRW 20,000,000 - 60,000,000
USD 18,000 - 53,000
HKD 138,000 - 41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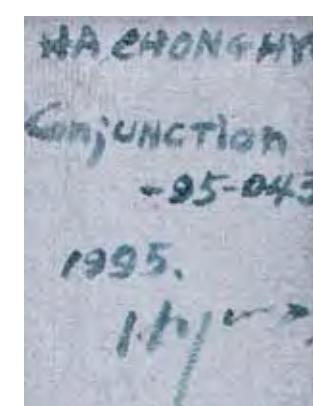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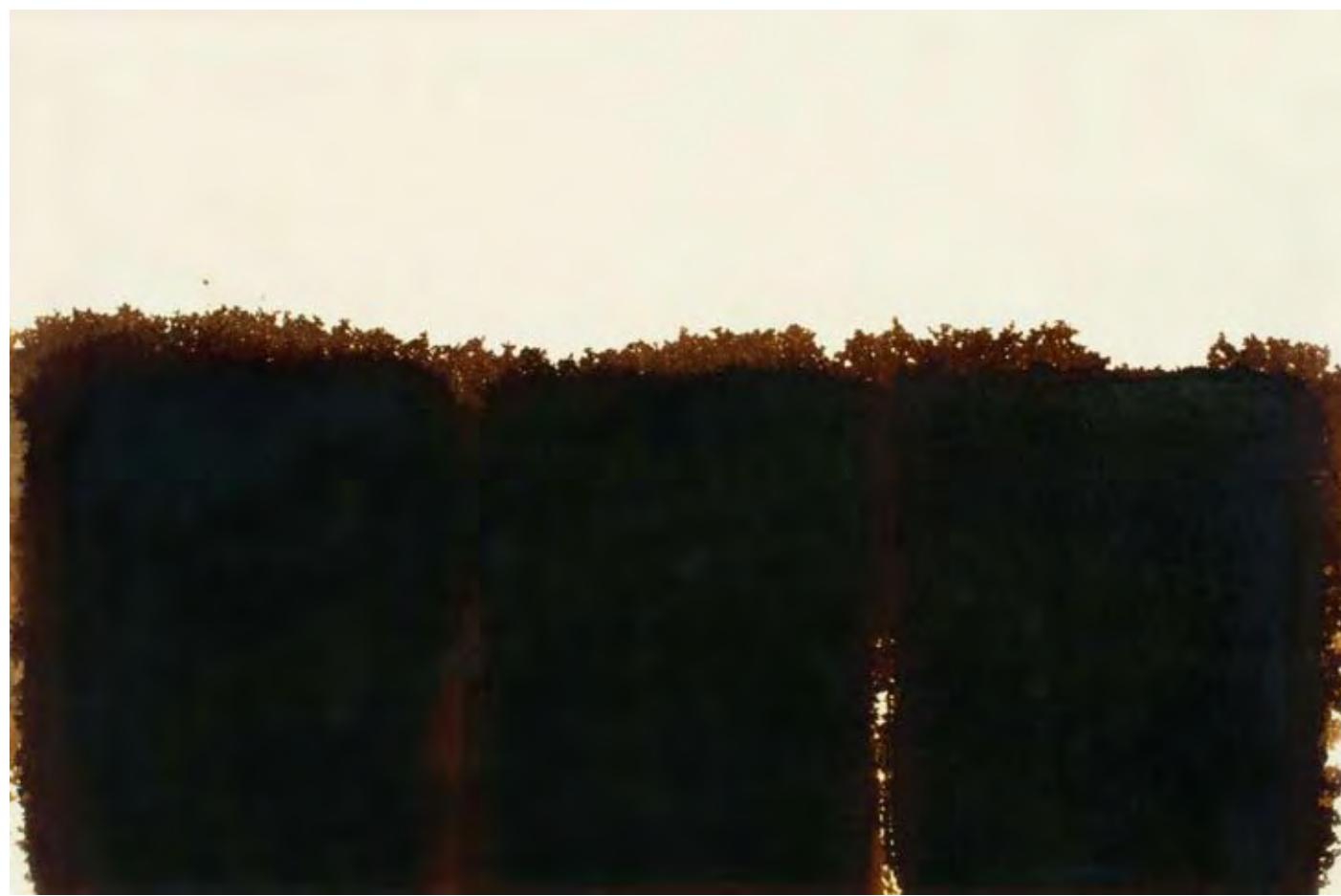
하종현 b.1935
Ha ChongHyun 河鍾賢

접합 95-043 Conjunction 95-043

oil on hemp cloth
100x45cm, 39.4x17.7inch
1995
signed on the reverse

KRW 35,000,000 - 70,000,000
USD 31,000 - 62,000
HKD 241,000 - 483,0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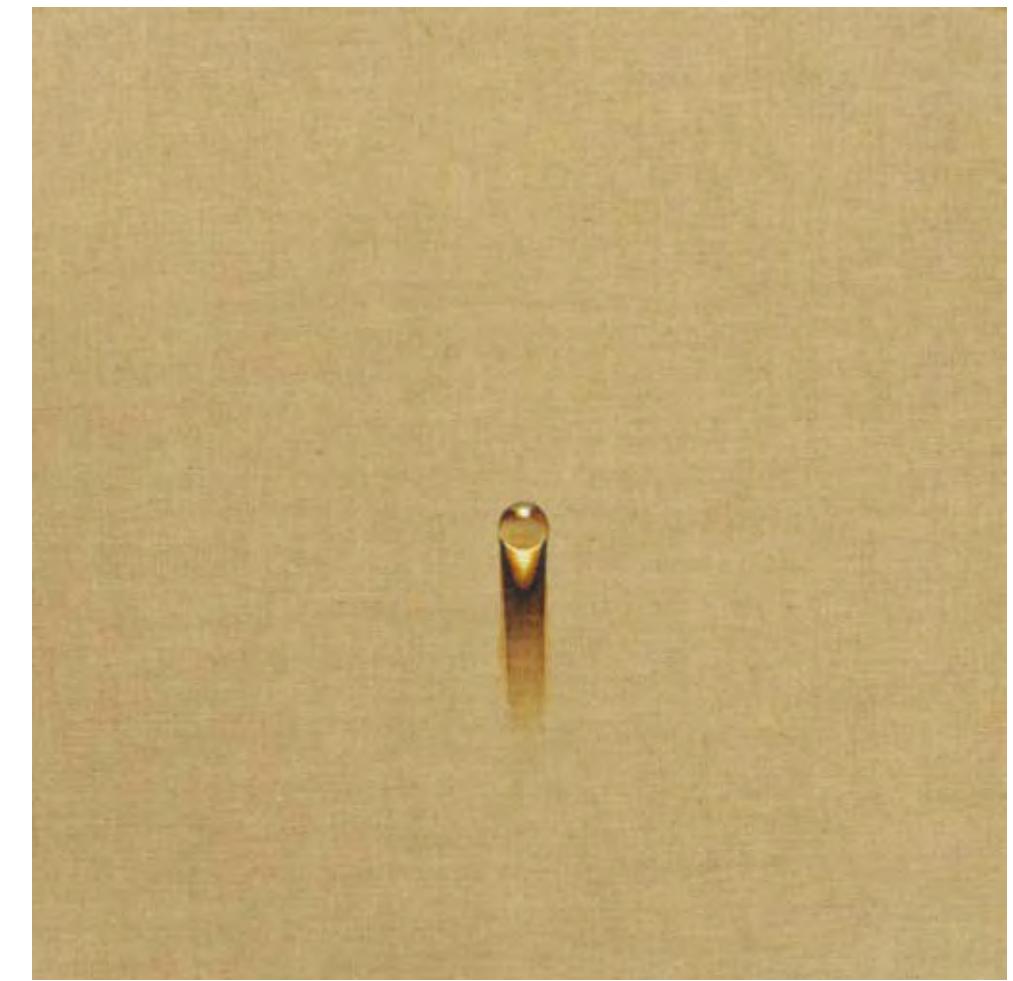
윤형근 1928 - 2007
Yun HyongKeun 尹亨根

무제 Untitled

oil on linen
53×80.3cm (25), 20.9×31.6inch
1990
signed on the reverse

KRW 20,000,000 - 70,000,000

USD 18,000 - 62,000
HKD 138,000 - 483,000



12

김창열 b.1929
Kim TschangYeul 金昌烈

물방울 Waterdrop

oil on hemp cloth
50×50cm, 19.7×19.7inch
1977
signed on the revers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25,000,000 - 50,000,000

USD 22,000 - 44,000
HKD 172,000 - 3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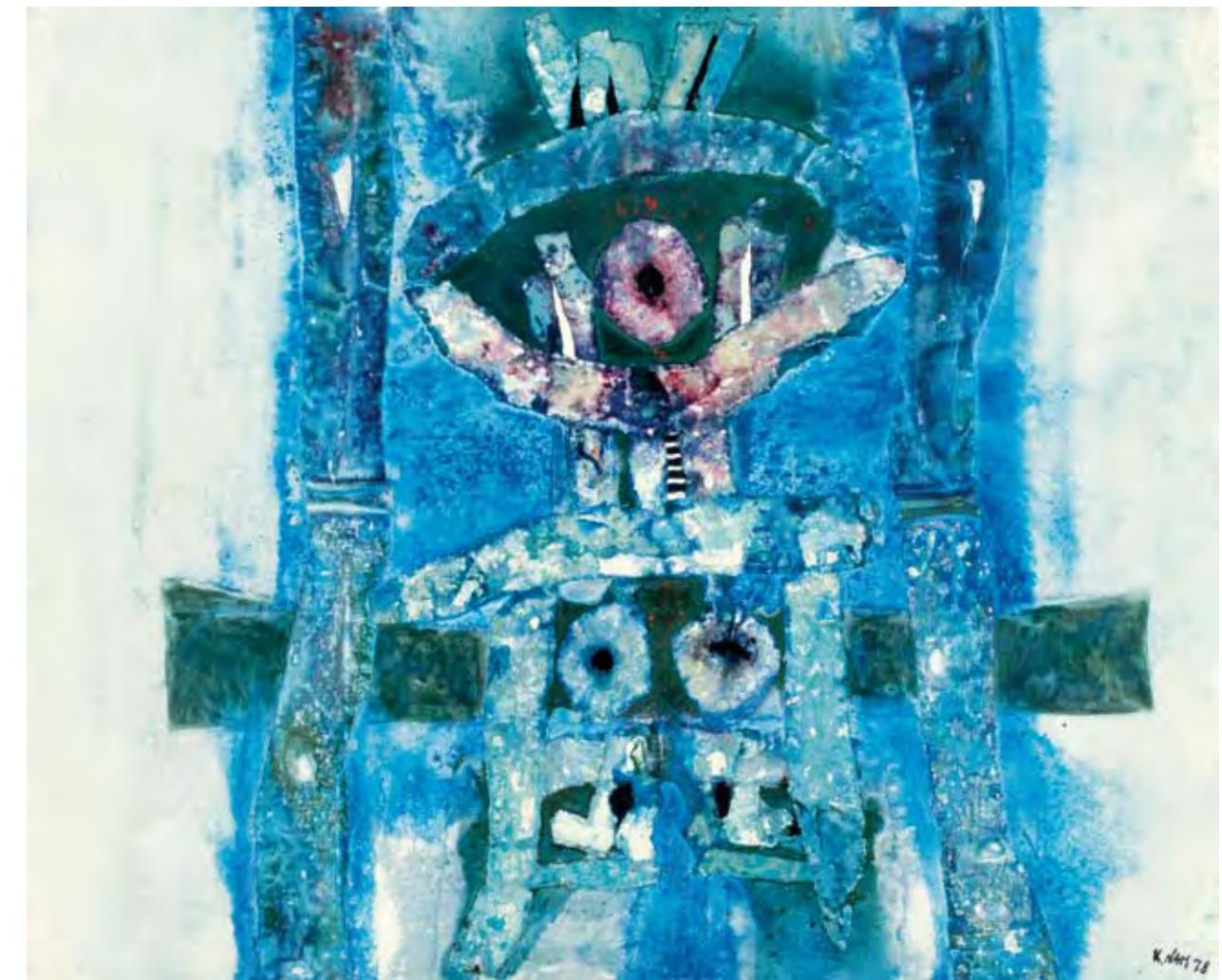
13

김창열 b.1929
Kim TschangYeul 金昌烈

무제 Untitled

oil on canvas
25x25cm, 9.8x9.8inch
1969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18,000,000 - 30,000,000
USD 16,000 - 26,000
HKD 124,000 - 20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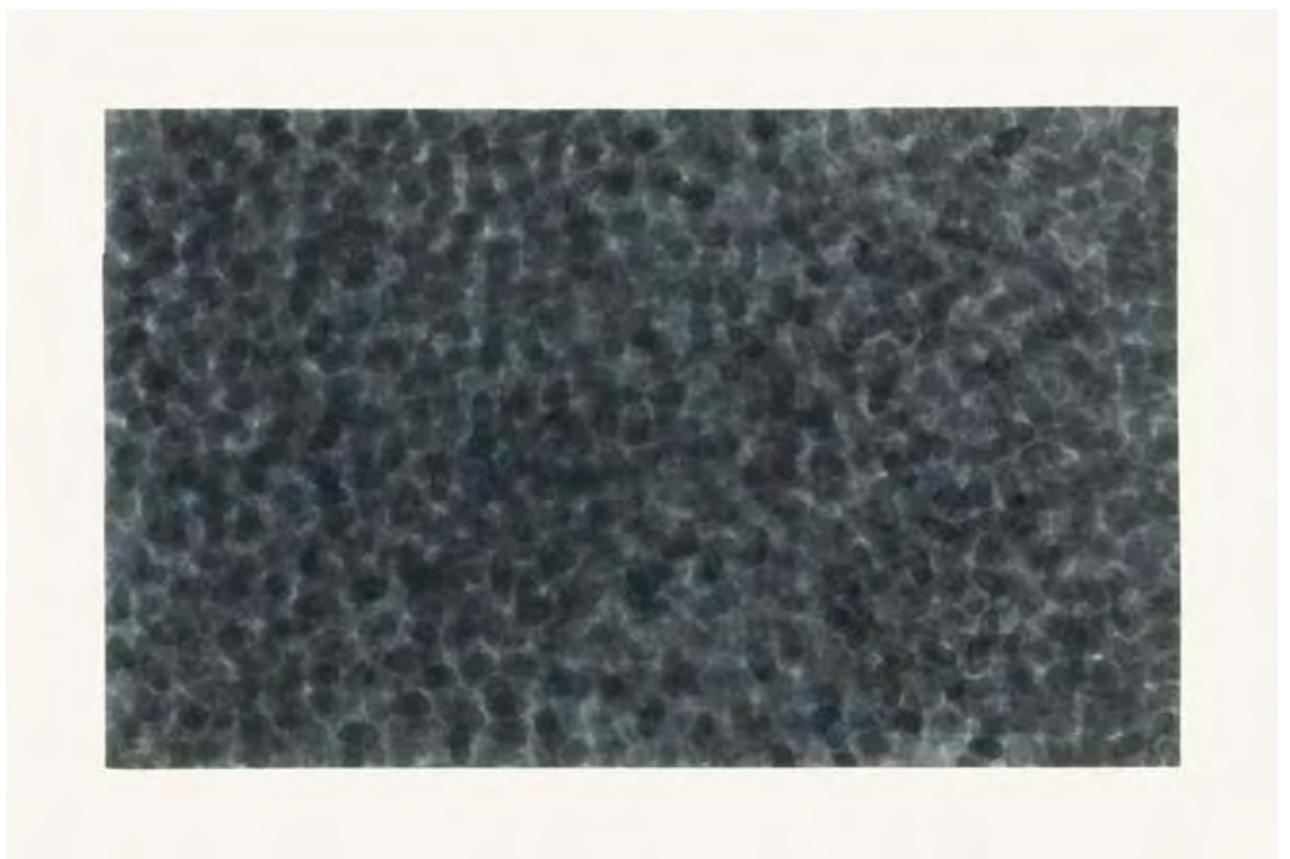
14

남관 1911 - 1990
Nam Kwan 南寬

묵상 Silent Image

oil on canvas
60.6x72.7cm (20), 23.9x28.6inch
1978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25,000,000 - 40,000,000
USD 22,000 - 35,000
HKD 172,000 - 276,000



15

곽인식 1919 - 1988
Quac InSik 郭仁植

Work 79-3-1

color on paper laid on canvas
55×82cm, 21.7×32.3inch
1979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everse

KRW 20,000,000 - 40,000,000
USD 18,000 - 35,000
HKD 138,000 - 276,000

PROVENANCE
Song Art Gallery, Seoul
Duson Gallery,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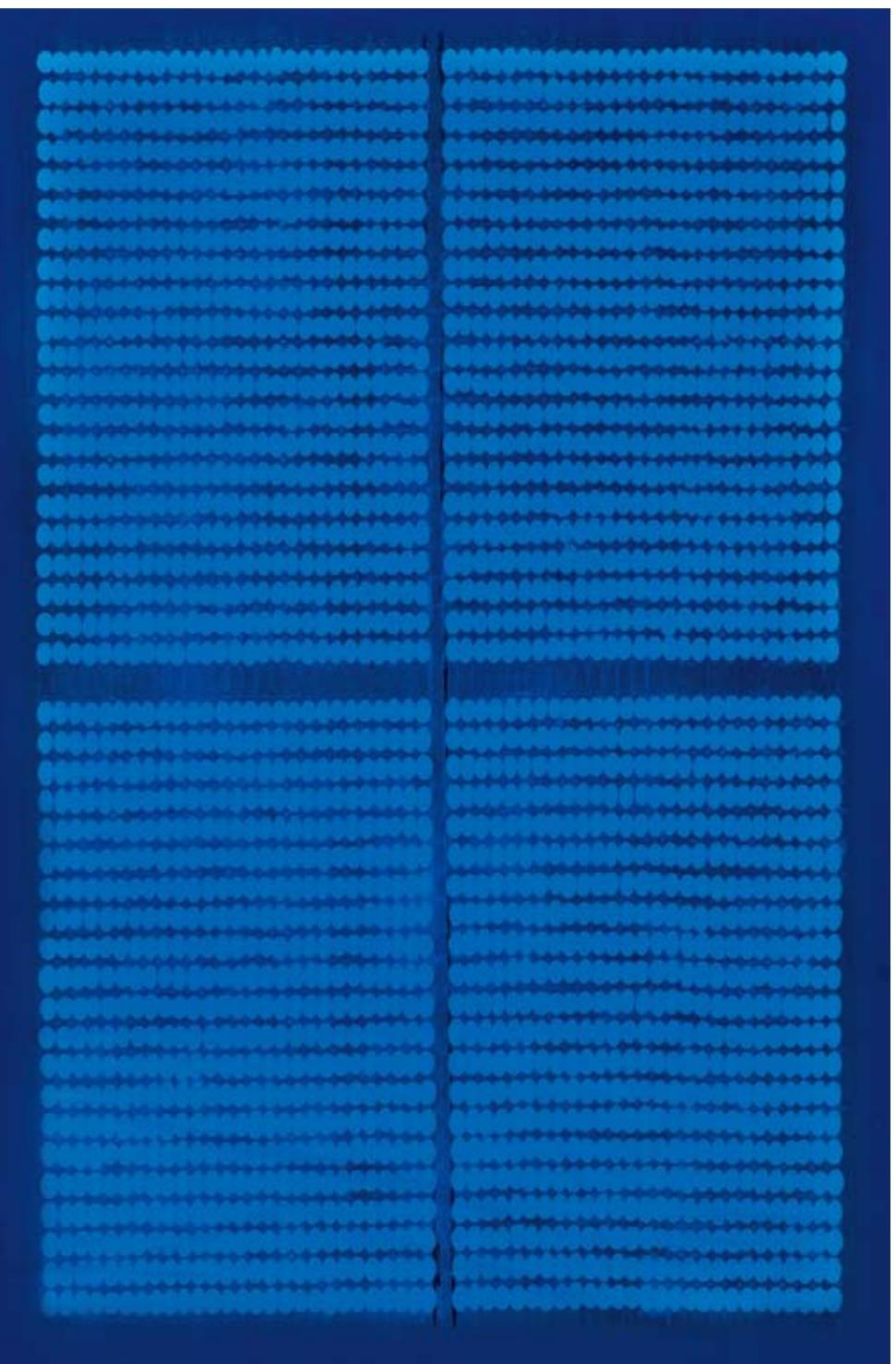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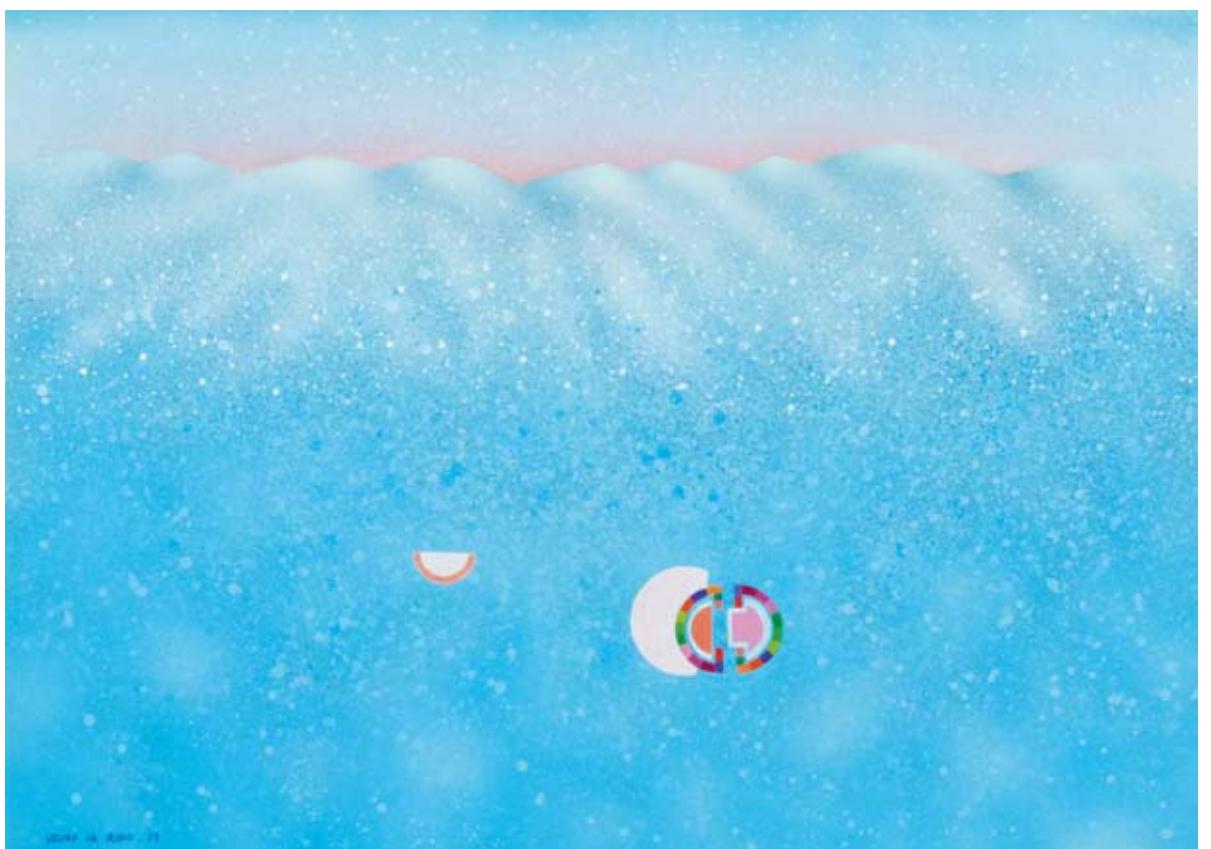
김기린 b.1936
Kim GuiLine 金麒麟

무제 Untitled

oil on paper
121×81cm, 47.6×31.9inch

KRW 20,000,000 - 40,000,000
USD 18,000 - 35,000
HKD 138,000 - 276,00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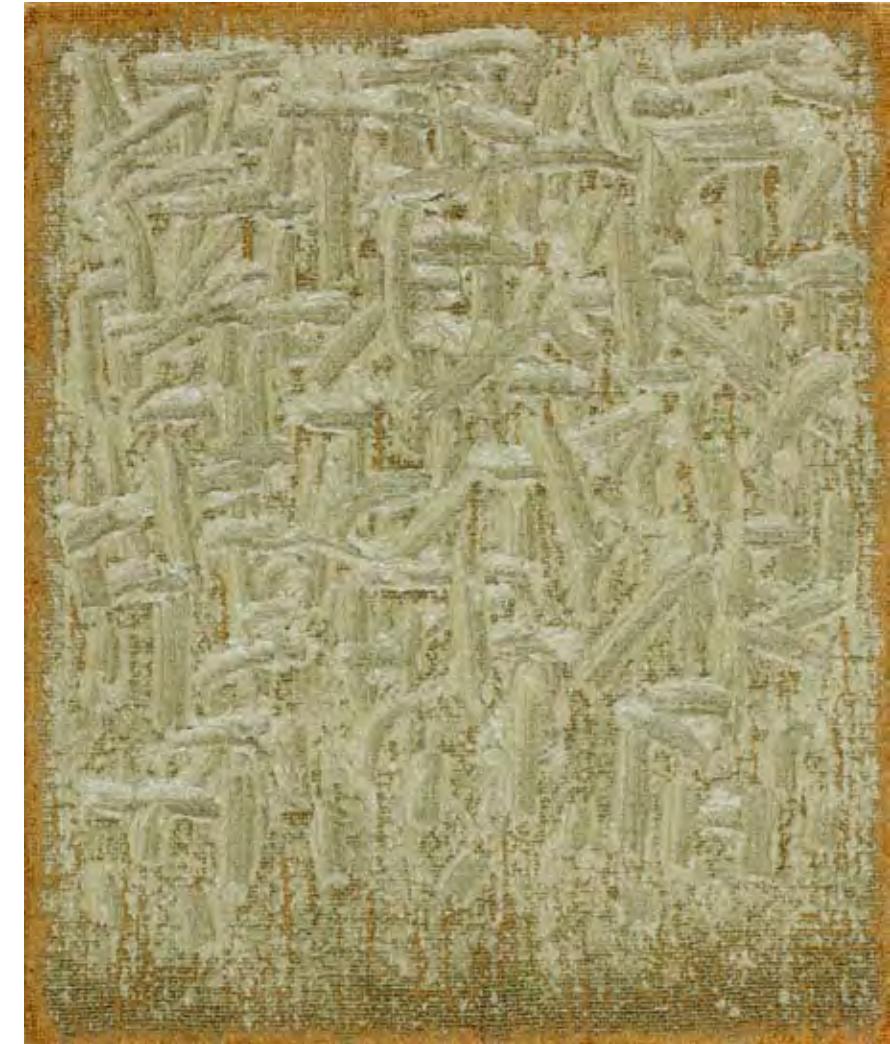
이성자 1918 - 2009
Rhee SeundJa 李聖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길, N°3 Le Chemin Des Antipodes, N°3

acrylic on canvas
65.1×90.9cm (30), 25.6×35.8inch
1979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everse

KRW 20,000,000 - 40,000,000
USD 18,000 - 35,000
HKD 138,000 - 276,000

LITERATURE
『SeundJa Rhee』, Hyundai Hwarang, 1981



18

하종현 b.1935
Ha ChongHyun 河鍾賢

접합 98-111 Conjunction 98-111
oil on hemp cloth
72.7×60.6cm (20), 28.6×23.9inch
1998
signed on the re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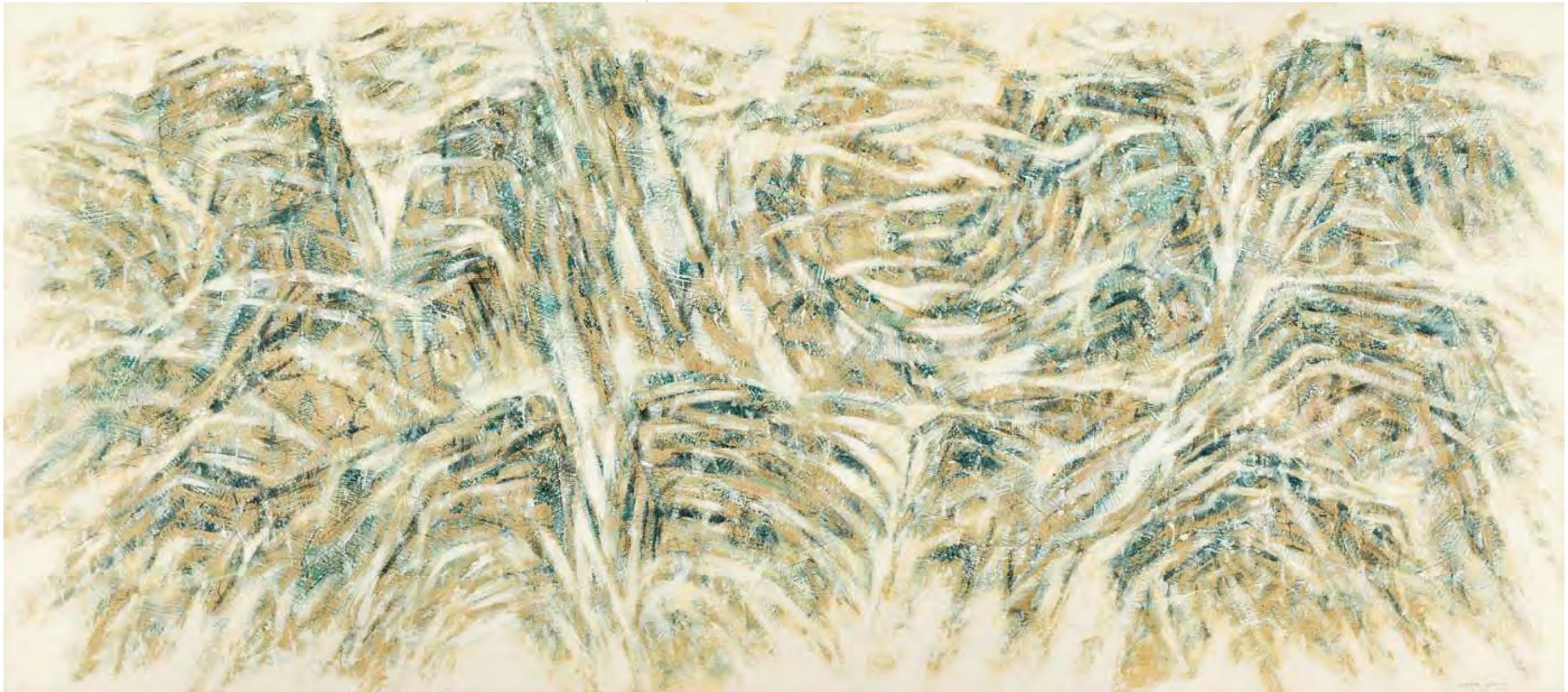
河鍾賢
HA, CHONG-HYUN
接合 98-111
Conjunction 98-111
73×60 cm
1998.

윤명로 b.1936
Youn MyeungRo 尹明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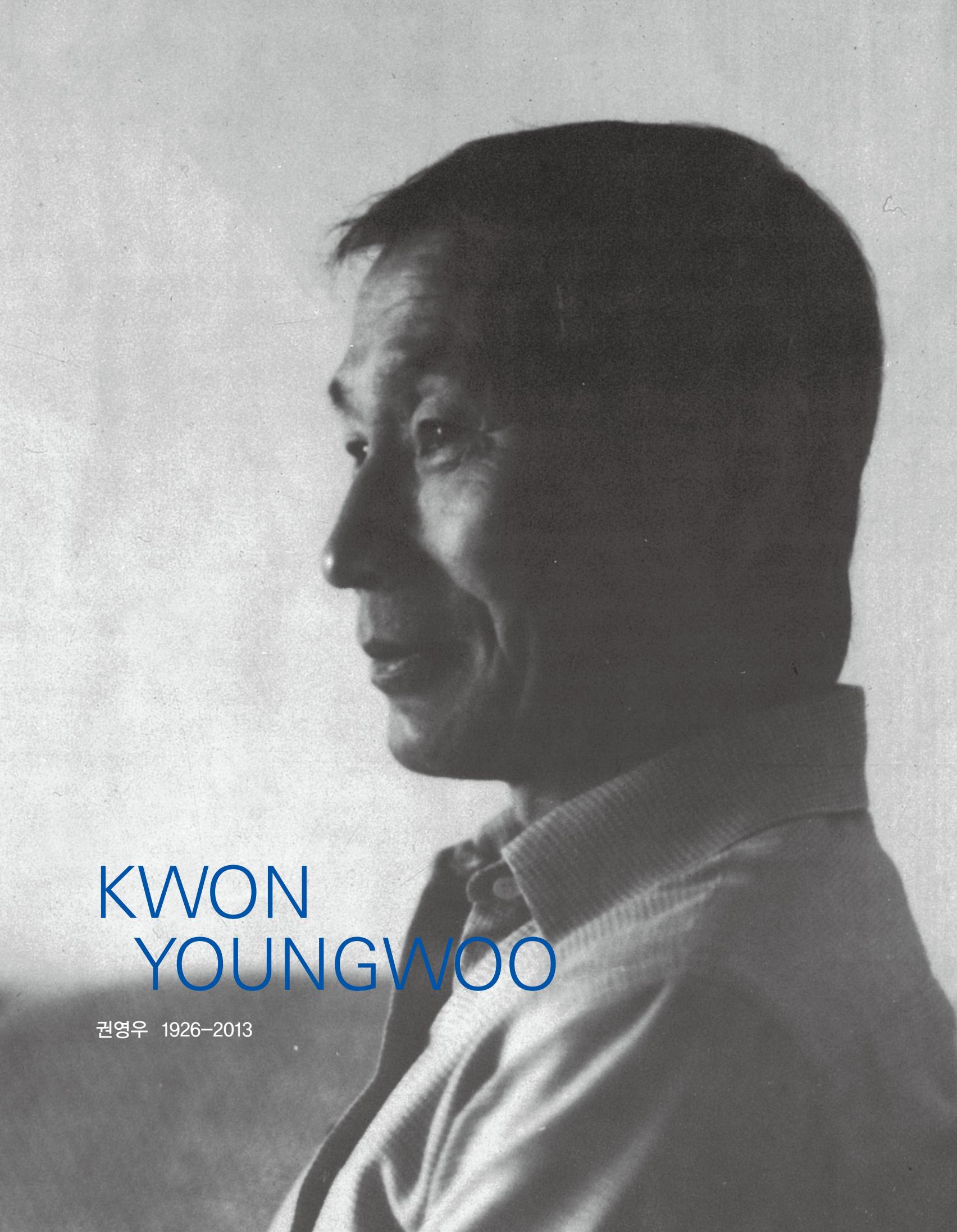
영산 (靈山) Holy Mountain

acrylic, India-Ink on canvas
180x400cm, 70.9x157.5inch
1985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60,000,000 - 300,000,000
USD 53,000 - 264,000
HKD 414,000 - 2,070,000



윤명로는 195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독창적 주상회화로 〈균열〉, 〈얼레짓〉, 〈익명의 땅〉, 〈겸재예찬〉 등의 연작을 선보이며 한국 화단의 한 분야를 개척해 왔다. 작업의 초기라고 볼 수 있는 60년대에는 주로 인류역사의 보편적인 주제인 〈석기 시대〉, 〈원죄〉 등을 다뤘다. 그 후 그는 모더니즘의 미학으로부터 출발해 어떠한 네러티브도 배제하려 했고, 이는 70년대의 〈균열〉연작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80년대부터는 성근 얼레빗의 자국처럼 반복적으로 미세한 짧은 선들이 서로 겹쳐진 〈얼레짓〉연작, 90년대부터 〈익명의 땅〉연작을 발표했는데, 이는 작가가 1990년 충북 부강의 대형 창고에서 시작한 연작으로, 거대한 자연의 응축된 에너지를 화폭에 분출시키는 듯한 회화를 선보인 작품이다. 태초의 생명력이 역동적 산맥의 움직임과 함께 표출되어 작가가 교감한 원시 자연의 경외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후 2000년대에선 〈겸재예찬〉연작을 발표하였다. 작품에서의 “겸재”는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정선에 대한 경의를 포함으로써 잊혀가는 한국미술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향한 물음을 던졌다.



KWON YOUNGWOO

권영우 1926–2013

책상너머 유리창 위에서 펼쳐지는 비의 향연은 문득 필자에게 권영우의 작품들을 떠올리게 한다. 한지를 매체로 삼고 있는 그의 화면은 비록 비재현적이며 비대상적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관객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권영우의 한지조형은 나름의 상상적 의미구조를 자체에 지니고 있으며 때로 그것은 완결된 풍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위의 단상(斷想)에서처럼 필자가 사각의 화선지에 새겨진 선과 반점을 자연의 법칙(중력)에 따라 낙하하는 비의 형상이나 물질화된 에너지로 연계시켜 바라보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근거에서이다. 화면 위에 고착된 허상적 이미지로서 빗줄기와 그것의 떨림새는 관조자의 주관에 의해서 관념적 세계로 변주된 대상일 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작가가 의도하는 현상과 관념 사이의 긴밀한 내적 연관성이 담겨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김영호 (중앙대 교수, 미술사학자)

참고문헌

『올해의 작가－권영우』, 국립현대미술관, 1998

“What I do is I take white hanji(traditional Korean style of paper) and apply it onto the canvas, and then before the glue dries, I rub and scratch and push and tear the paper before applying another layer on top of it all or sometimes puncturing holes into the surface. Thus the surfaces in my works are no longer flat but filled with protrusions, making them somewhat three-dimensional. In this practice, my most important tools are my fingers, but I also utilize many different objects as and when needed. Sometimes I try from the outset to link the background of the canvas itself to the final result, in which case I create variations in the density of white light emitted by the canvas by varying the layers of paper I apply on it.”

Kwon YoungWoo

權寧禹在1975年東京畫廊舉辦的《韓國五人畫家,五種白色》作為韓國畫壇的主流,被稱為五人之一的“紙畫家”,一直都以宣紙主材料開展抽象作品的創作,衝破韓國畫傳統材料——紙筆墨的表達限制,通過採用紙張的撕裂、粘貼、鑽孔等具備劃時代意義的造型手段開展創作。他的作品被普遍評論為“將當代視野投映于韓國傳統思維之上”。究其原因,權寧禹以“進步的傳統”為理念,通過開展多種多樣的實驗性嘗試就傳統與現代之間的矛盾要素予以克服,開啟了當代韓國畫的新時代。

20

권영우 1926 - 2013
Kwon YoungWoo 權寧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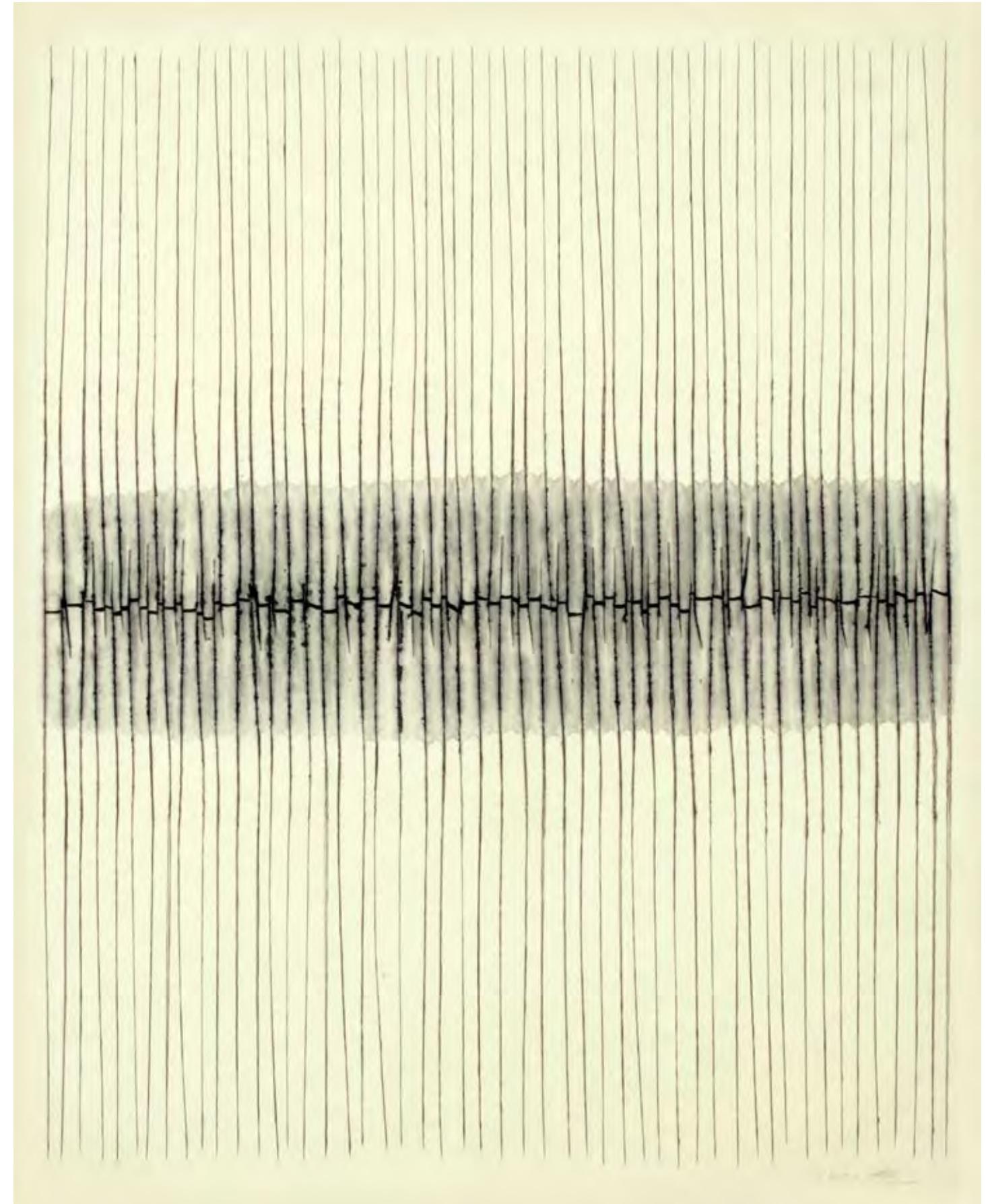
무제 Untitled

gouache on paper laid on canvas
162.2×130.3cm (100), 63.9×51.3inch
1984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60,000,000 - 150,000,000
USD 53,000 - 132,000
HKD 414,000 - 1,030,000

‘권영우의 작품은 전체적으로는 한지를 통해 우리의 민족성처럼 강연하면서도 부드러우며 깨끗한 뿐만 아니라 특유의 온화한 정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투박하지만 질감과 빛깔이 곱고 한지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배어 있다. 즉 우리 선조의 고고한 지조가 생명처럼 드러나면서도 소박한 가운데 품위를 잃지 않으며, 현대적 조형어법 속에서도 전통의 체취는 묵향처럼 은은하게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지켜오고 있다. (중략) 그의 작업은 한지에 구멍을 내고 다시 뜯기거나 찢어진 화선지가 만들어내는 선묘에 먹과 과슈의 혼합채색을 가함으로써 평면으로서의 심도는 깊어지고, 자연발생적인 농담은 은은한 운치로 작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은은함과 종이의 예리한 찢김은 서로간의 대비를 통해 그의 화면에 긴장감을 제공하는 놓치기 쉬운 주제의 하나를 이룬다.’

정준모 (미술평론가)



21

권영우 1926 - 2013
Kwon YoungWoo 權寧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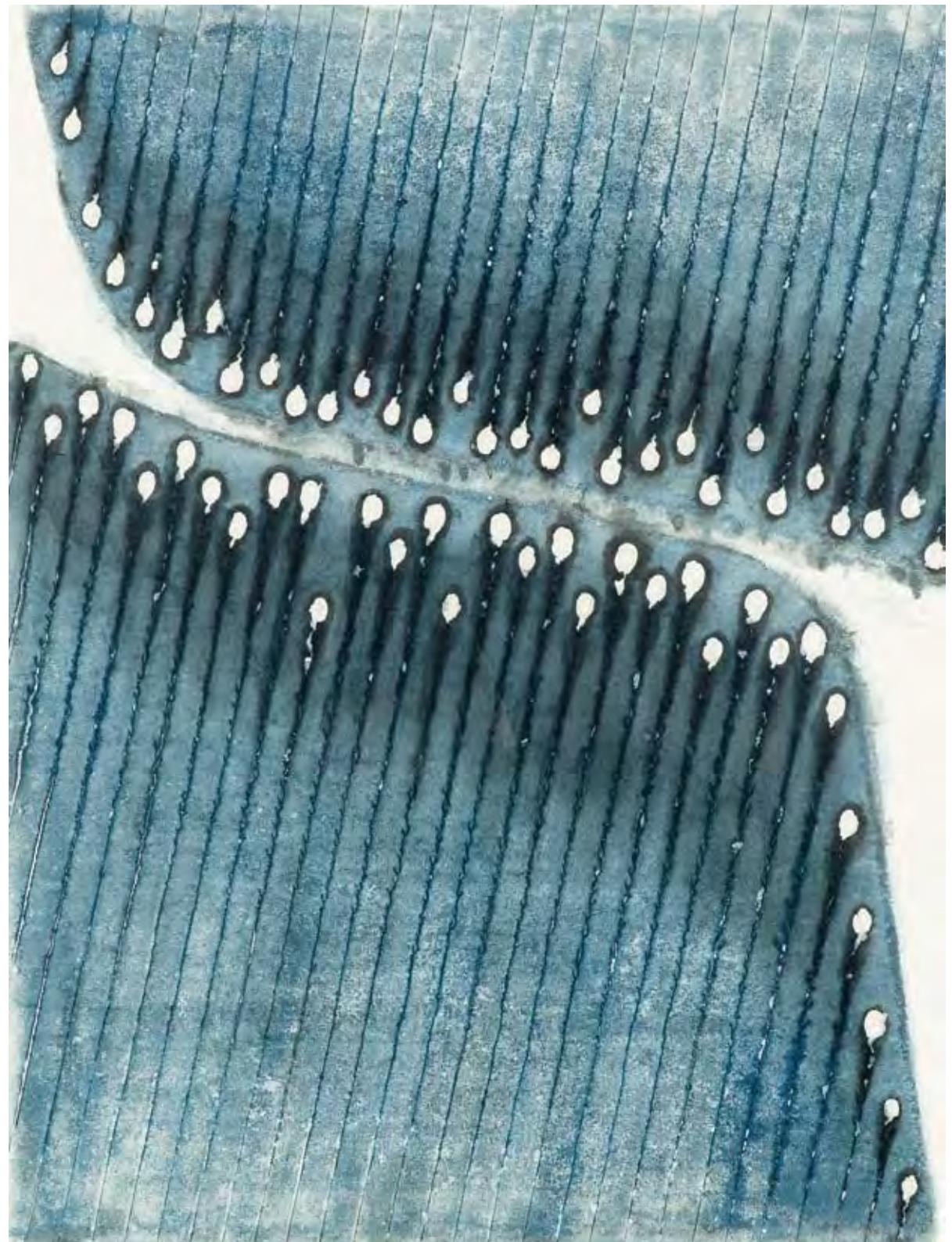
무제 Untitled

ink and gouache on paper
113x85cm, 44.5x33.5inch
signed on the center right

KRW 40,000,000 - 80,000,000
USD 35,000 - 70,000
HKD 276,000 - 552,000

“나의 작업은 화선지로 캔버스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 한 장 두 장 또는 여러 장을 겹쳐 바른 후, 그것을 찢고, 뚫고, 그리고 채색을 한다. 화면의 앞에서도 칠하고 뒷면에서도 칠하며 앞으로 벗져 나오게도 한다. 겹쳐지는 화선지의 수도, 바르는 풀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찢기고 뚫릴 때 그 상황이 각각 다르고, 채색을 할 때 채색을 받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것은 그때그때 새롭게 또는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을 기대하고 발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권영우



김기린 b.1936
Kim GuiLine 金麒麟

안과 밖 Inside, Outside

oil on canvas
97x193.9cm (120), 38.2x76.3inch
1989
signed on the reverse

KRW 55,000,000 - 100,000,000

USD 48,000 - 88,000
HKD 379,000 - 690,000

80년대에 들어서 김기린은 사각의 캔버스 안에 달걀형 점을 기본단위로 한 평면 회화를 강조한 〈안과 밖〉 연작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빨강, 노랑, 녹색과 남색 등 원색 계열의 빈 세계가 등장하고 거기에 다시 채워진 색 점들은 화면 자체의 균원과 본질을 부각시켰다. 빈 색면의 바탕에 반복적으로 나열된 점들은 감춰진 '안'의 공간을 '밖'으로 암시하며 내부와 외부의 상호관계를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본 출품작 〈안과 밖〉은 1989년에 완성한 작품으로 서양에서 색으로 여기지 않는 검정을 새롭게 화면에 옮겨놓았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흑색 점 하나 하나를 들여다 보면 각각의 호흡이 규칙적이면서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과 점 사이의 호흡은 정적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다음 공간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으로 다가오며, 한 두 걸음 뒤로 물러나 전체 화면을 바라보면 수 많은 점들이 물결이 되어 안과 밖이 일렁임을 느낄 수 있다.

참고문헌

『THE ART OF DANSAEKHWA』, Kukje Gallery, 2014
『KOREAN ABSTRACT PAINTING』, Gallery Hyundai, 2014





RYU KYUNGCHAI

류경채 1920-1995

‘류경채의 자연에 대한 애착심과 예술가로서의 감홍은 예민한 직관력으로 연결되어 서정적인 시상(詩想)을 그의 작품에 반영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그는 세계의 영상(映想)으로 자극 받은 자신의 내적인 충동을 통하여 자연으로 하여금 그 상태를 대변케 하고 있다.’

임영방 (미술평론가)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한국 현대 추상미술의 선구자격인 류경채의 작품은 자연에서 시작되었다. 1940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초기작품을 보면 작가가 관찰한 자연의 모습을 그만의 색깔을 입혀 재현해 내곤 했다. 이 시기에는 일본 유학시절 배운 서정적인 리얼리즘을 구사하며 주로 감, 호박, 풍경 등의 작품들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참고도판 1). 비록 구체적인 형상은 색채와 구성의 자율성에 의해 묻혀졌으나 자연에서 출발하고 자연에의 감동을 저버리지 않는 깊은 심미감은 이후 추상 세계로도 이어져 류경채만의 독자적인 예술을 보여준다.

국전의 보수성에 문제의식을 느낀 류경채는 1957년 '창작미술협회'를 결성하며 작품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의 초기작에서 보이던 소재는 점점 사라지고, 구성이 자유로워졌으며 형태와 색이 단순해지는 비구상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참고도판 2). 류경채의 작품은 1960년대가 되면서 구상의 형태가 점차 사라지고 자연의 균형과 명상의 세계를 탐구하는 비구상으로 나아간다(참고도판 3). 물성적 측면에서 보면, 작가는 물감을 두텁게 바른 다음 군데군데 짙어내고 다시 바르면서 독특한 면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때 제

작한 작품들은 풍화, 계절, 비원의 낮 등인데 이를 보면 작가가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일관된 기조를 잃지 않고, 자연의 힘을 화면에 표현하는 것을 즐긴 것을 볼 수 있다.

류경채는 70년대 후반부터 깊각의 세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화면에 선과 면에 의한 최소의 조형요소만 남김으로서 기하학적 형태, 색면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출품되는 〈축전 88-4〉 제10회 예술원 미술분과 회원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으로 여기에는 절대자에 귀의하고자 하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 있다. 작품 중앙에 위치한 여백은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닌 일종의 무한의 공간, 또는 비물질적인 투명한 정신 공간을 나타낸다. 반면에 모퉁이에 자리잡은 제한된 색면적 공간 구성은 규격화되거나 획일적인 모습이 아닌 대칭적이며, 그 구성의 틀을 단색이 지배하는 색면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의도적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계절의 여운—류경채』 국립현대미술관, 2002
『류경채』 갤러리현대, 1990

참고도판 1 〈호박〉, oil on canvas, 50×64cm, 1948
참고도판 2 〈새와 소녀〉, oil on canvas, 130×97cm, 1960
참고도판 3 〈입춘〉, oil on canvas, 162×130cm, 1977

23

류경채 1920 - 1995
Ryu KyungChai 柳景塙

축전 88-4 Celebration 88-4

oil on canvas
195x195cm, 76.8x76.8inch
1988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50,000,000 - 150,000,000

USD 44,000 - 132,000
HKD 345,000 - 1,030,000

LITERATURE

『RYU KYUNG-CHAI』, Gallery Hyundai, 1990, p. 225
『The Echoes of the Season - Ryu Kyung-Chai』,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02, p. 115



24

류경채 1920 - 1995
Ryu KyungChai 柳景塙

비원 80-3 Merciful Prayer 80-3

oil on canvas
145.5×112.1cm (80), 57.3×44.1inch
1980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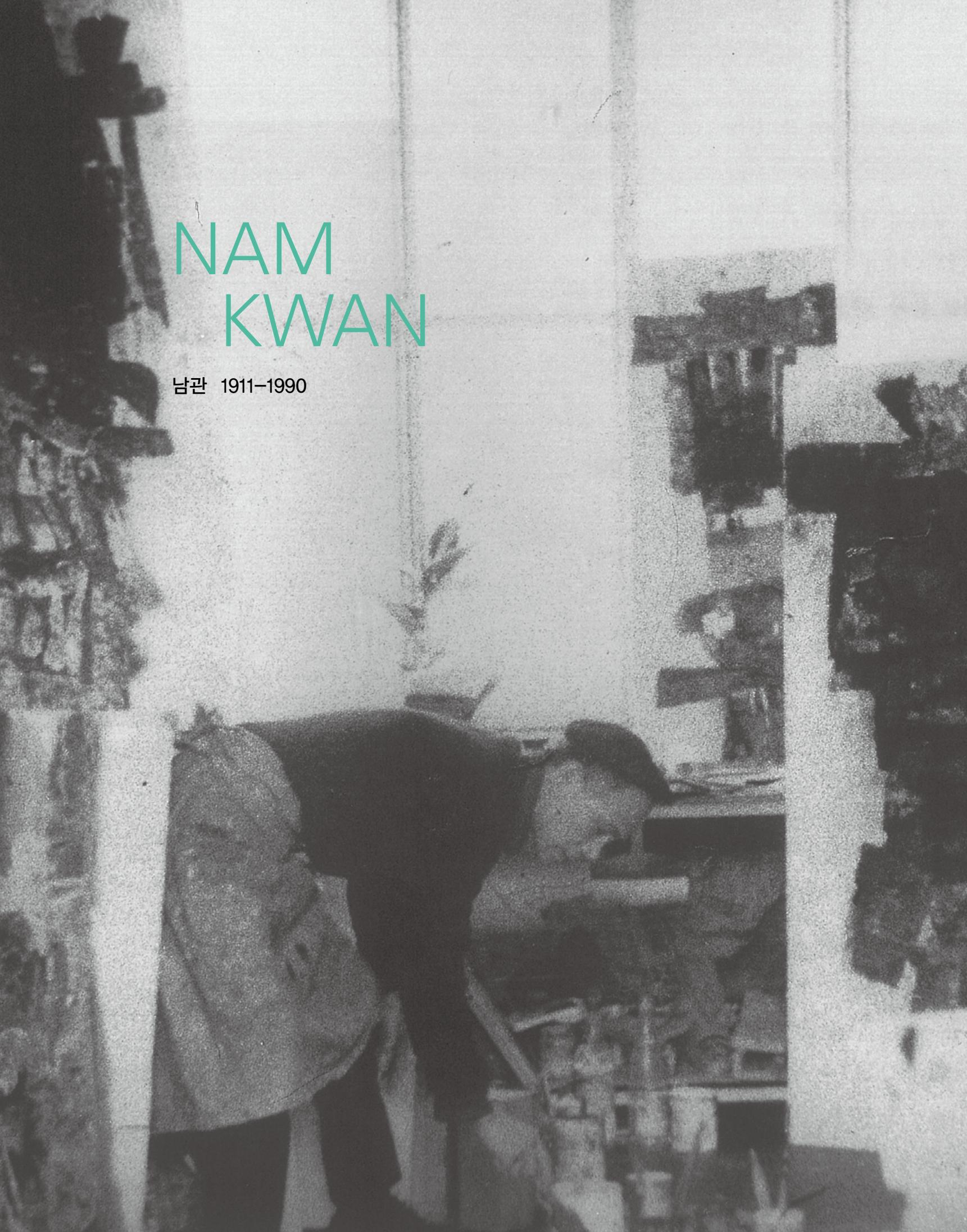
KRW 38,000,000 - 80,000,000
USD 33,000 - 70,000
HKD 262,000 - 552,000

LITERATURE
『RYU KYUNG-CHAI』, Gallery Hyundai, 1990, p. 164



NAM KWAN

남관 1911–1990



‘남관의 회화에서 우선 눈을 끄는 것은 고도의 세련된 색채이다. 실제로 그는 어쩐지 피상적인 기교의 숙달에 빠져 있는 파리 체류의 일군의 극동(極東)화가들 중에서 빼어날 뿐만 아니라, 헤프고 구제할 길 없는 텅진 상태의, 이른바 앵포르멜 화가들의 내적 빈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그의 청록색의 반짝임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명상(瞑想)』을 유발하며, 그 명상은 그린다는 행위 못지 않게 삶의 행위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호세 피에르(Jose Pierre)

“순간적인 인스파리이션을 잡는 힘을 갖지 못하면 미술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작품활동을 하는 남관은 사물의 내면 탐구를 위한 명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찰나의 영감을 오롯이 작가의 심상을 통해 표현한다. 그렇게 마음속에 그려진 형상들은 남관의 독자적인 상형문자와 같은 이미지로 구축되고, 매혹적인 색감으로 구성 된 캔버스 위에 차분하고 부드럽게 어우러진다. 남관은 유채라는 지극히 서양적인 화법(畫法)을 사용하여 동양적인 감성을 담아내는데, 이러한 남관의 독특한 화풍은 그가 파리에서 습득한 서양의 화법과 그의 몸에 녹아있는 동양적인 미의식에 대한 표현성이 조화롭게 조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NAM KWAN』, 갤러리 현대, 1995
- 『幻念像想—남관의 예술과 생애』, 환기미술관, 2011

As one of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abstract artists, Nam Kwan has left an undeniable legacy in the history of Korean art. In 1954, after returning from Japan, Nam decided to move to Paris in order to develop his own visual language by learning from Western masters, and also practice his art in a new environment. Through extensive experiments with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in Paris, by the early 1960s, Nam began to develop his signature oeuvre: unique shapes evoking letters, historical remains, stones, crowns from the Silla Dynasty, and Korean traditional masks. As his signature ideogram style continued to evolve, his works became instantly recognizable as a unification of chaos and order, history and reality, and elements that stemmed from his personal experience.

在南寬的創作生涯中一直秉持著“錯過瞬間的靈感就意味著失去了美術的意義”的理念,執著于探究事物的內在,將其在冥想時浮現於腦海中的剎那間靈感進行完整地描繪表現。那些原本存在於畫家腦海中的形象就這樣通過南寬獨創的如同象形文字一般的圖像表現了出來,與帶著迷人色調的畫布溫和地融合在一起相得益彰。南寬採取油彩這種極其西方的繪畫手法來表達東方神韻,南寬的這種獨特畫風可以看作是畫家將其在巴黎習得的西洋畫法與自身蘊含的東方審美表達的融匯貫通。

25

남관 1911 - 1990
Nam Kwan 南寬

무제 Untitled

oil and collage on canvas
130.3x193.9cm (120), 51.3x76.3inch
1990
signed on the lower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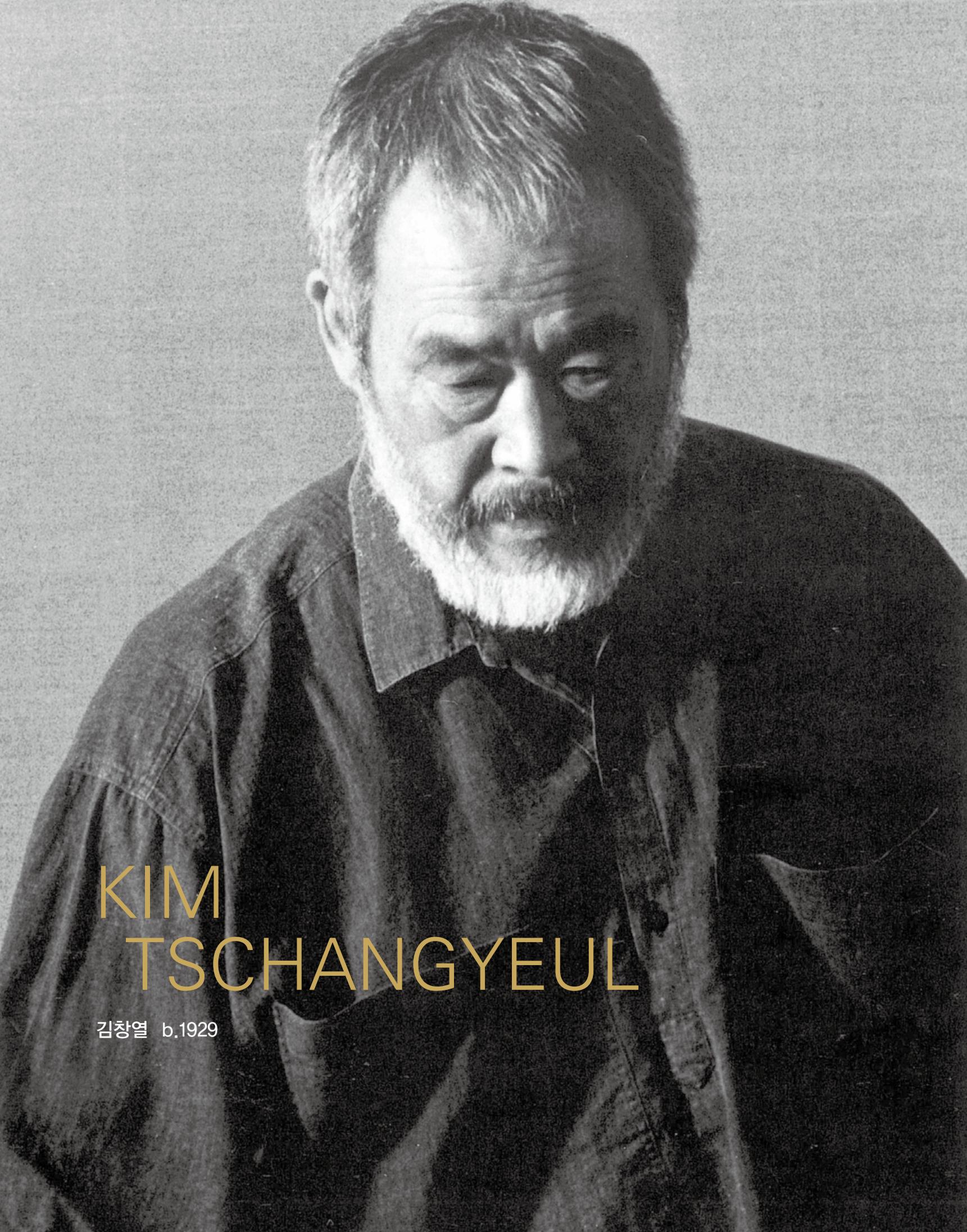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110,000,000 - 250,000,000
USD 97,000 - 220,000
HKD 759,000 - 1,720,000

남관은 내면적인 시각과 조형적인 표현을 함께 있어 굉장히 깊이 있고 세련된 화면을 선보였다.
색상과 공간의 분위기 구성이 농밀함뿐더러 순수한 구성적인 이미지에 동양의 고대 상형문자를
연상시키는 문자성을 더함으로써 독보적인 화면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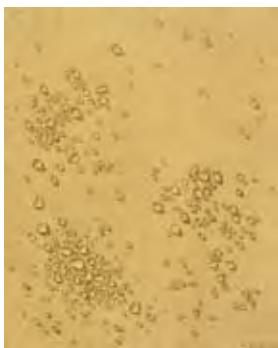
참고문헌
유재길 윤익영,『南寬-80년의 생애와 예술-』, 갤러리현대, 1991





KIM TSCHANGYEUL

김창열 b.1929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사진 1

김창열이 40세 당시 그려낸 물방울은 미니멀하면서도 반복적이고, 단일 개체에서 수많은 개체로 등장하는 등 여러 모습을 띤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다. 초기의 응집력이 강한 영통한 물방울에서부터 표면장력이 느슨해진 물방울에 이르기까지 한 소재만을 천착해온 이유에서인지 김창열은 물방울 하나로 자신만의 조형 세계를 정립하고 국내외에 널리 인정 받고 있다.

물방울 작품은 1972년 파리 살롱 드 메(Salon de mai) 초대전에 출품되어 파리 화단에 첫 모습을 드러내었고, 이후 이어진 개인전을 거쳐 국내에도 소개가 되었다. 76년에는 서울과 동경에서도 개인전을 크게 가졌다(참고사진 1). 당시의 신선한 충격을 미술평론가 이일은 아래와 같이 평했다.

‘1976년, 서울에서의 김창열의 첫 개인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어쩌면 저렇게도 희한한 물방울인가?’ 또는 ‘어쩌면 그렇게도 실물 그대로의 물방울일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반응은 그의 작품이 물방울이기 이전에 ‘그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가상의 물방울의 존재를 영원화 시켰다는 것이 놀라움의 원인이었다(참고도판 1). 또한 이 시기 한국현대미술은 모노크롬 회화가 중심적 경향으로 풍미되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구상적 이미지가 명확한 김창열의 작품이 모노크롬과 함께 인식이 되었다는 것은 물방울을 실체가 아닌 개념으로 보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작가는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물방울을 ‘에고(ego)의 소멸’이라 밝힌 적이 있다.

“물방울을 그리는 행위는 모든 것을 물방울 속에 용해시키고 투명하게 ‘무無’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행위이다. 분노도 불안도 공포도 모든 것을 ‘허虛’로 돌릴 때 우리들은 평안과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혹자는 ‘에고(ego)’의 신장을 바라고 있으나, 나는 에고의 소멸을 지향하며 그 표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김창열, 일본 동경화랑 개인전 때 쓴 ‘때때로 생각하는 일’ 중에서, 1988.11

따라서 물방울은 허공에 맺힌 비현실적 허구이며 비대상물이자 하나의 ‘옹시’를 위한 개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물방울의 양태와 그것이 투영한 여백공간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한자체의 단편들과 천자문의 등장은 바탕으로 머물지 않고 회화적 요소가 된다. 활자체는 규격화된 획과 함께 인쇄된 문자로, 서예체는 자유로운 운필의 글씨로 나타나는 양상을 띤다. 그리고 90년대 들어 서면서부터 그는 ‘회귀recurrence’라는 표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물방울과 한자로 채워지는 화면들과 새로운 제목을 유추해 보면(참고도판 2) 그 발상의 근원에 동양적 사유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재현적 물방울 이미지와 비재현적 한자의 대비는 곧 허와 실, 음과 양 또는 무한과 유한의 합일이라는 동양적 발상을 바탕에 깔고 있으며 우주적 상징 체계의 원천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이다.

참고문헌

『Kim Tschang-yeul』, 현대화랑, 1993
『Kim Tschang-Yeul』, 부산시립미술관, 2009



Lot 26

Born in 1929, Kim TschangYeul learned classical Chinese calligraphy and Asian philosophy from his grandfather. At the same time, Kim was exposed to Western art by his mother, who passionately encouraged his interest in the arts. Influenced by this early education, Kim majored in painting at the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earning his B.F.A. in 1950. He resumed his study at the Art Students League of New York from 1965 to 1968. After completing the course in New York, Kim decided to move to Paris in order to practice his art in a new environment. Settling in Paris in 1970, Kim developed his signature style and motif: the representation of the water drop. Water is a nearly universally recognized symbol, embodying ideas of purity and spiritual cleansing, emptiness and the infinite. These symbolic properties can be found not only visually but in the extended, deliberately meditative practice of Kim TschangYeul. The flatness of the canvas is enlivened by the seemingly random scattering of drops; they are perfectly rendered, each with its distinct shape, size, and gravitational destiny. Some appear to dissipate, on the brink of evaporating; others lean into their shape, as if about to relinquish their attachment to the canvas and descend towards the ground. As such, Kim also offers the viewer a temporal paradox; this seemingly ephemeral moment, so brief that it is hardly noticed or captured in nature, is crystallized here for eternity, and the clarity of the water drops monuments to the transience of time in Kim's deft handling of the viscous oil paint. The following works are emblematic of Kim's oeuvre, which he employs through his expert handling of brush and medium.

金昌烈 40 歲時描繪的水滴簡練而反復，其由單一個體到多個個體交替的多樣風格一直延續至今。從最初的帶有強烈凝聚力的璀璨水滴到鬆鬆垮垮機具表面張力的水滴，畫家一直以來都堅持著一貫主題的原因我們雖不得而知，但金昌烈僅用了一滴水滴就奠定了自身的造型藝術世界並蜚聲海內外。

畫家 1972 年曾受邀攜作品參加了巴黎五月沙龍(Salon de mai)，由此在巴黎畫壇嶄露頭角，其後曾多次舉辦個人畫展并在國內廣為人知。76 年畫家分別在首爾和東京舉辦了盛大的個人畫展。他的作品之所以廣受關注就在於其繪就了成為水滴之前的物體，將假想的水滴的存在化為永恆。另外，這一時期正值單色畫風靡韓國現代美術界之時，主題鮮明而具象的金昌烈作品之所以能夠與單色畫一起為人所熟知，應該就緣于畫家並未將“水滴”視為實體而是作為概念性的存在。對此，畫家曾稱自己的水滴為“自我(ego)消亡”。

因此，水滴可以說是畫家基於虛無的非現實性虛構，而非實體的對象，只是一種用於“凝視”的個體。自 80 年代中期以後，水滴的樣式及與其投映的留白空間之間的關係也開始發生變化。短篇漢字和千字文的登場不再只是簡單地用於基礎背景，而是構成了繪畫元素。活字體採用標準化筆劃一般多用於文字印刷，而書法體則一般運筆自由奔放。進入 90 年代以後，畫家開始使用名為“回歸”的標題。由畫家作品上遍佈水滴和漢字以及全新的標題可以看出其構思的根源分明就來源於畫家的東方思維。猶如實景再現一般的水滴形象與非再現性的文字所形成的對比，正是基於將虛實、陰陽、無限有限合二為一的東方思想，意圖“回歸”到象征著宇宙世界的泉源。

김창열 b.1929
Kim TschangYeul 金昌烈

물방울 Waterdrops

oil on hemp cloth

79x79cm, 31.1x31.1inch

1974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120,000,000 - 200,000,000

USD 106,000 - 176,000

HKD 828,000 - 1,380,000

“파리 가난한 아틀리에에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유화 색채를 떼어내 재활용하기 위해 캔버스 뒤에 물을 뿌려 놓았는데 물이 방울져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존재의 충일감에 온몸을 떨며 물방울을 만났습니다.”

김창열

마포 위에 영롱하게 방울져 있는 김창열의 물방울은 실제의 물방울 보다 더 물방울처럼 표현되어 시각적 긴장감을 자아낸다. 김창열은 파리 체류 4년째인 1972년부터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해 그는 파리에 머무르며 권위 있는 전위 미술 전시회인 파리 살롱 드 데(Salon de Mai)에서 첫 물방울 작품을 선보였고, 이로부터 4년 후인 1976년에 현대화랑 개인전을 통해 국내에 첫 선보였다. 작가는 물방울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7~8m 떨어져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물방울과 그림자의 형체가 멀리서 볼수록 더 완벽하게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번 출품작은 영롱하게 빛나는 물방울이 마치 유리구슬처럼 정 원 형태로 맷혀 있는 작품으로 그의 70년대 초기 작품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참고문헌

『김창열 작품집』, 현대화랑, 1993



김창열 b.1929
Kim TschangYeul 金昌烈

회귀 SMM93016 Recurrence SMM93016

Korean paper and acrylic on canvas
181.8×227.3cm (150), 71.6×89.5inch
1991
signed on the side and reverse

KRW 200,000,000 - 350,000,000
USD 176,000 - 308,000
HKD 1,380,000 - 2,410,000

EXHIBITED

Seoul, Gallery Hyundai, After Drawing, May-July 2016

LITERATURE

『Kim Tschang-Yeul』, Busan Museum of Art, 2009, p. 79
『After Drawing』, Gallery Hyundai, 2016, p. 66

“회귀… 계속되는 이 기나긴 회귀 시리즈의 대형 캔버스는 모순적이기도 장
식적이면서 끝없는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즈느비에브 브레레트(미술평론가)

작가는 1980년대에 캔버스에 전체 혹은 부분 부분을 천자문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제작하며 그 작품에 “회귀”라는 제목을 붙였다. 작가는 천자문을 배경으로 하게 된 이유를 북녘에 자리한 어느 산촌(맹산)에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시던 서예에 관한 ‘향수’라 한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천자문은 그의 작품배경으로 쓰여왔다. 이렇게 천자문을 배경으로 작업 해 나가면서, 작가는 작가의 사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깊이 있게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자취, 그리고 전통의 상실의 모든 범위를 넘나들며 자신의 문화의 뿌리를 재확인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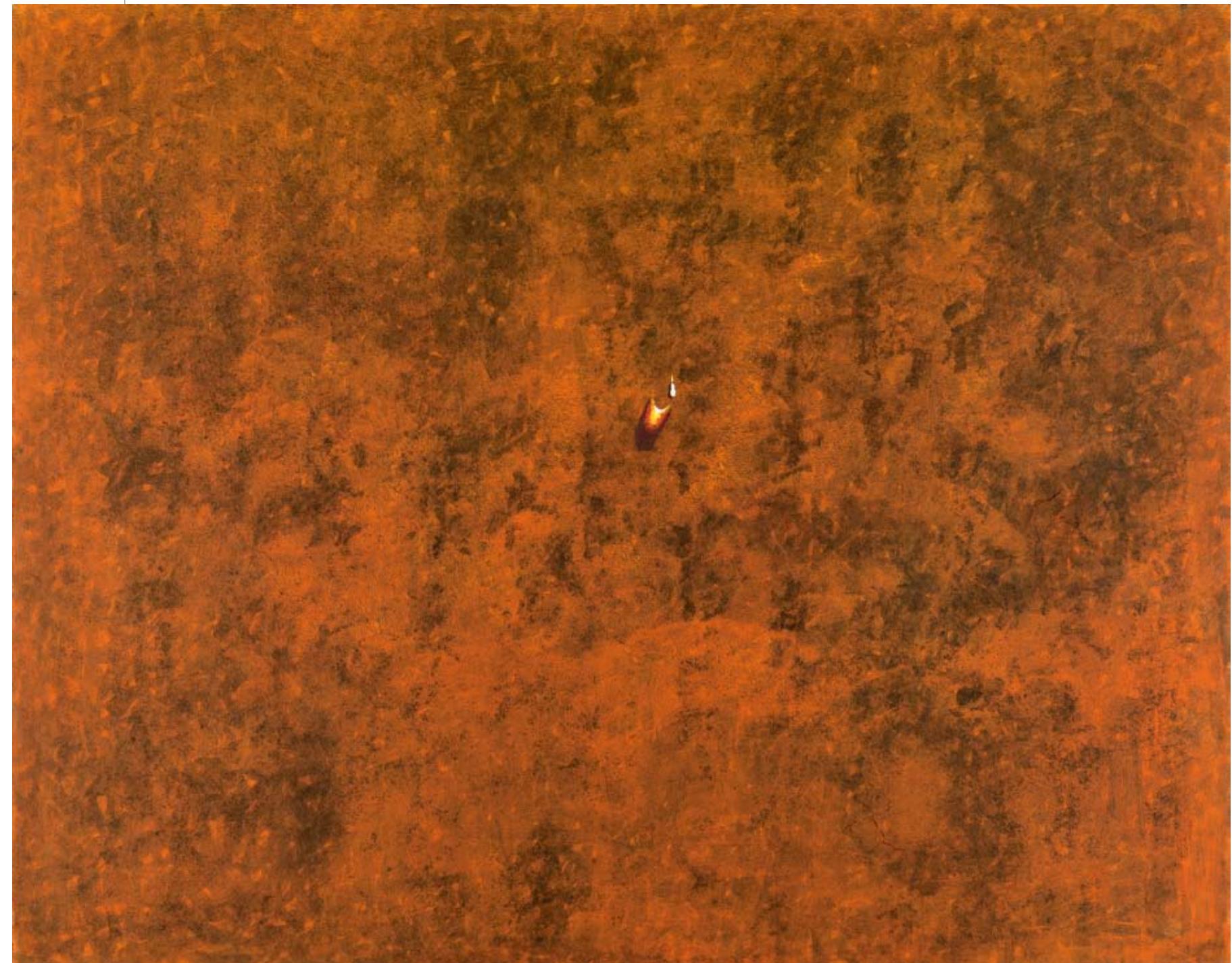
출품작 〈회귀 SMM93016〉는 젖은 한지를 콜라주해 입힌 후 그 위에 물방울을 그려낸 대작으로 문자들은 물방울들과 짹을 지으면서 형체가 해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6년 이래 김창열은 캔버스와 물방울, 화면의 표면과 형태와의 관계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기법으로 제작된 다른 대작 작품은 현재 프랑스 파리 풍피두 센터에 소장 되어 있다(참고도판 1).

참고문헌

『Kim Tschang-Yeul』, Busan Museum of Ar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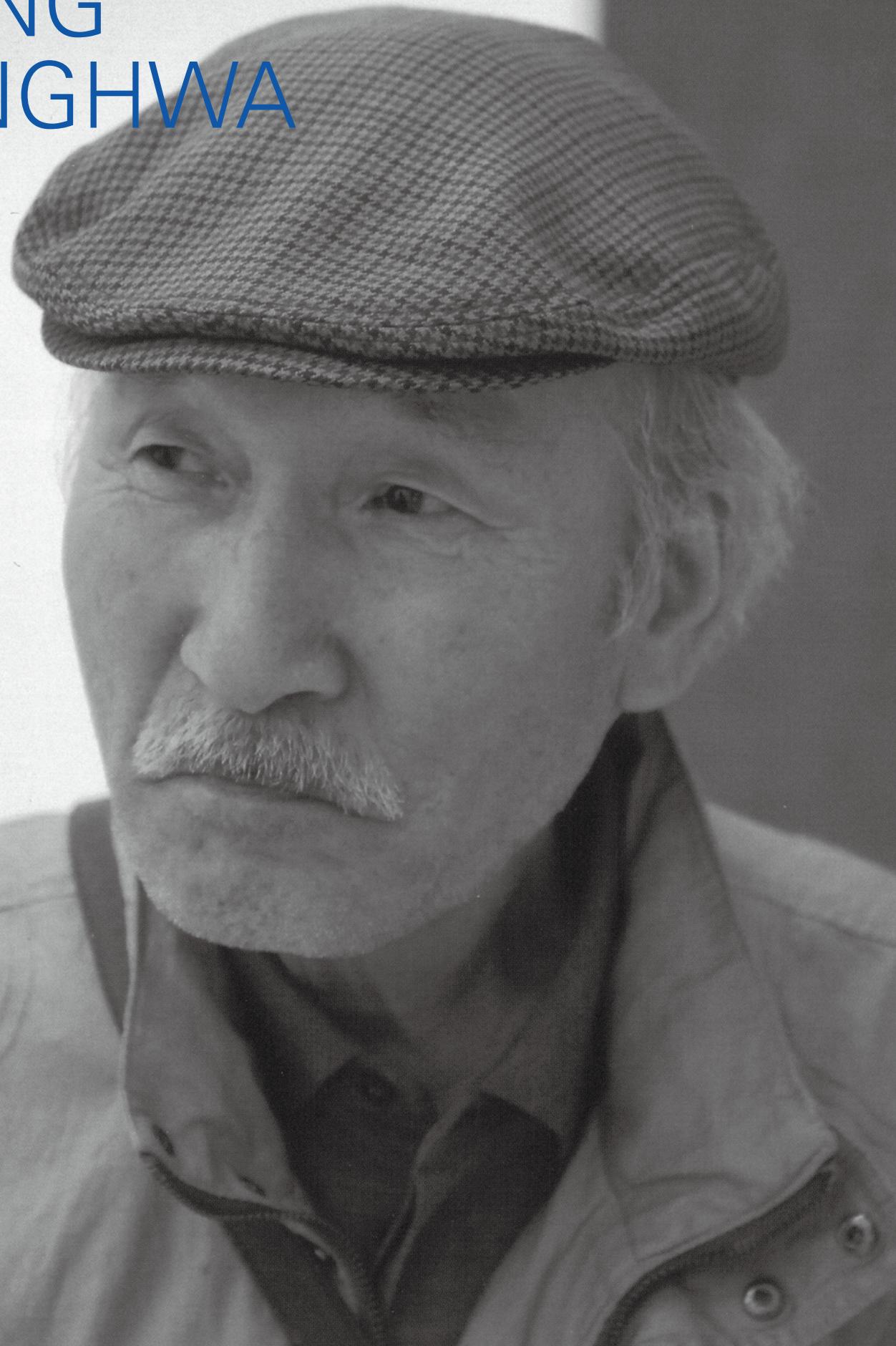


참고도판 1
〈회귀〉, 252 × 200cm, 1989



CHUNG SANGHWA

정상화 b.1932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참고도판 4

“캔버스의 표면을 채우고 지우는 연속 작업이야말로 현대인의 반복적인 일상의 숨결과 같아요. 화면 위의 요철은 무수한 높낮이의 우리 삶을 상징합니다. 봄이라는 계절도 새로운 요철이지요. 그래서 제 화두가 새로움입니다.”

정상화

정상화는 일본과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엥포르멜’에 바탕을 둔 회화세계를 구축하였고, 5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되어온 한국 현대미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60년대 그는 전후 어두운 사회 분위기와 동족상잔의 비극을 요동치는 화면에 어두운 색조로 거칠없이 표현했다(참고도판 1). 이후 7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의 화면은 원색이 점차 사라지고 무채색으로 변화한다. 70년대 초기에는 흐르는 물과 같이 유연한 곡선이 드러나지만(참고도판 2), 중반부터는 완전히 형상을 벗어나 독자적인 추상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백색 모노크롬 회화는 이후 작가의 대표적인 회풍으로 자리 잡는다.

80년대 이후로는 백색뿐만 아니라 블루, 브라운, 짙은 먹색의 화면도 등장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청색의 작업이 두드러지는데, 모노톤의 블루가 아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작품도 등장한다(참고도판 3).

2000년대 이후로는 크고 작은 소단위의 네모꼴을 다시 나누는 그리드가 등장하는 등 화면의 구분에 그 변화가 보인다. 이런 변화들은 70년대로부터 출발한 작가 의지의 발현으로, 작가 고유의 작업 방식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백색 모노크롬’으로 분류되는 〈무제〉 시리즈는 가지각색으로 갈라진 아크릴 물감의 편린으로, 출품작 〈76-7-26〉과 같이 백색의 은은한 기품이 잘 드러난다. 더불어 〈무제 93-2-6〉과 같은 작품은 서정성 속에 역동성이 담겨 있다(참고도판 4).

얼핏 단색으로 덧발린 듯 보이는 캔버스는 여러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는데, 고령토로 초벌칠하고 말린 뒤, 칸칸이 접어 균열을 내고 고령토를 떼어낸 자리에 아크릴물감을 채워 넣는 ‘뜯어내기’와 ‘메우기’의 반복을 거쳐야 완성된다. 그로 인해 생긴 물감 평면의 높낮이는 빛과 반응하여 잔잔한 입체감을 형성한다. 그의 작품은 제작과정 그 자체가 곧 작품이며, 물질이 아닌 정서로서 물감의 스며듦을 보여주고, 감상자를 명상의 세계로 이끌고 간다.

참고문헌

『CHUNG SANG-HWA』, Gallery Hyundai, 1989

『CHUNG SANG-HWA Painting Archeology』, 연미술, 2009

『CHUNG SANG-HWA on TIME and LABOUR』, Woonsoo Gallery, 2012

참고도판 1 〈Untitled〉, acrylic on canvas, 162 x 130cm, 1965

참고도판 2 〈Untitled〉, acrylic on canvas, 195x130cm, 1970

참고도판 3 〈Untitled〉, acrylic on canvas, 130x97cm, 1985

참고도판 4 〈Untitled〉, acrylic on canvas, 130 x 97cm, 2005

CHUNG SANG-HWA links his work process to the creative effort and intrinsic immanence of man. Through his work, the artist exposes the hidden layers of collective memory and makes the viewers get immersed in the memory. Through the process of immersion, they feel the pictorial metaphor intended by the artist and experience intense spatial appreciation.

While staying in Japan and France, he has established his own world of painting based on 'Art Informel' and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Korean contemporary art since the late 1950s. Even now when Monochrome has gained worldwide attention after the 1960s and 1970s, he is still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ioneering of contemporary Korean art.

In the 1960s, he was outspoken in expressing the tragedy of a fratricidal war and the gloomy social atmosphere after the Korean War, in a dark tone on the turbulent canvas. (plate 1) Since then, primary colors have gradually disappeared from his canvas and instead achromatic colors have become predominant. In the early 1970s, we see flexible curves like the running water (plate 2); yet since the mid-1970s, his painting has completely turned away from form and begun to build its own abstract world. White monochrome painting, which began to form a full-fledged shape from this period, later has become the primary style of the artist.

Since the 1980s, not only white but also blue, brown, and dark Chinese ink colors have appeared. Particularly, works in blue color are prominent, and some of them have gradations of blue instead of blue monotone. (plate 3) Since the 2000s,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composition including the appearance of the grid that subdivides the small units of quadrangles. (plates 4, 5) These changes are the manifestation of the artist's will starting from the 70s, which is derived from his own unique working style.

"Coming out after the interview, I saw a small pond in the corner of the yard. The water flowing down from the mountain was arranged so that it could rest for a while before it flew downwards again. He told me he put a few stone morokos in there. 'They usually have colored carps in pond,' I said. He replied, 'I don't like carps that stand out.'"

- "CHUNG SANG-HWA Speaks of Himself"

Joongang Sunday, 2011, Jeong Hyeong-mo during an interview with the artist at the workshop in Yeoju, Gyeonggi-do

CHUNG SANG-HWA has begun to establish his own working method and unique stylistic features with the Untitled series, which he produced in the 1970s while staying in Kobe, Japan, and which is now classified as a typical 'white monochrome'. The work of white monochrome seems to derive less from his stoic taste in colors than from his intention to expose the texture of the

canvas more prominently. Various fragments of cracked acrylic paints. The effect of the subtle hue of white, like in the entry Untitled 90-1-A, seems like a poem of a serene light. This subdued elegance emits a lyrical aura coming from the white porcelain of Korea. In addition, works like Untitled 93-2-6, which combined dynamism to lyricism, well represent the artist's idea of space. (plate 6)

The canvas, which at first glance seems to have been painted over with a single color, is actually finished only after repeated process of 'peeling off' and 'filling in', which involves coating the surface with kaolin (china clay), drying it, and then folding the surface bit by bit to create cracks on the surface, peeling off the kaolin, and finally filling in the spaces where kaolin was removed with acrylic paints. The resulting height of the plane of the painted surface interacts with the light to produce a placid three-dimensional quality. The process of producing his work is itself a piece of work. It shows the permeation of paint not as a material, but as an emotion, and takes the viewer to the world of meditation.

REFERENCE

CHUNG SANG-HWA, Gallery Hyundai, 1989
CHUNG SANG-HWA Painting Archeology, Yon Art, 2009
CHUNG SANG-HWA on TIME and LABOUR, Wooson Gallery, 2012

出現在鄭相和畫面上的四邊形或三角形這些小單位形狀都是經過畫家無數次反復地撕除和重新塗畫而遺留下的痕跡。畫家超脫了意圖表現某種事物的一般繪畫次元，通過不斷反復而獲得了畫布的附加物。他的作品是通過不間斷的勞動而獲得的累積和成果，繪畫平面上行為的蓄積中蘊含的是東方精神。

畫家的創作過程是首先在畫布上塗上鋅顏料，乾燥後將畫布折出或橫或豎的皺褶，由此產生龜裂的過程十分重要。用刀將這種皺褶龜裂所產生的顏料碎片剔除，再用丙烯顏料填充這些空白。不斷重複這一過程，直到堆積的丙烯顏料形成如同陶瓷鑲嵌一般的表面。經過如此嚴肅的機械化和規範性勞動而創作出來的作品，無論是在偶然還是錯覺的現代美術手法中都是難得一見的。

經由畫家重複的體力勞動而產生的作品，層層剔除又填滿的丙烯顏料的物性正是構成其作品的精髓所在。鄭相和的畫布中飽含著發生在創作過程中的理性勞動和時間流逝所帶來的變化。畫面整體呈現出來的單純而不經意的風格就如同乾燥的泥土、破裂的河堤、破舊的牆壁、石頭或是樹根一般充滿著大自然的質樸感覺。從自然中生成的物理性、化學性變型在喚起人們對時光流逝的聯想的同時，不僅生成了其作品中特定的構造，有時也會反過來對其進行破壞。通過如此矛盾的特徵，我們能夠試著推測出畫家在美學上的、人文上的本質。事實上，鄭相和的繪畫作品並不是那麼的平易近人。但一旦經過時間的洗禮和品味，就能領略到其他任何繪畫作品所無可比擬的獨特視覺效果的深沉氣韻。換句話說，他的作品既是斗方的堆積和重疊，更是整體凝聚於一處又無限擴展的隱秘空間。

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무제 76-7-26 Untitled 76-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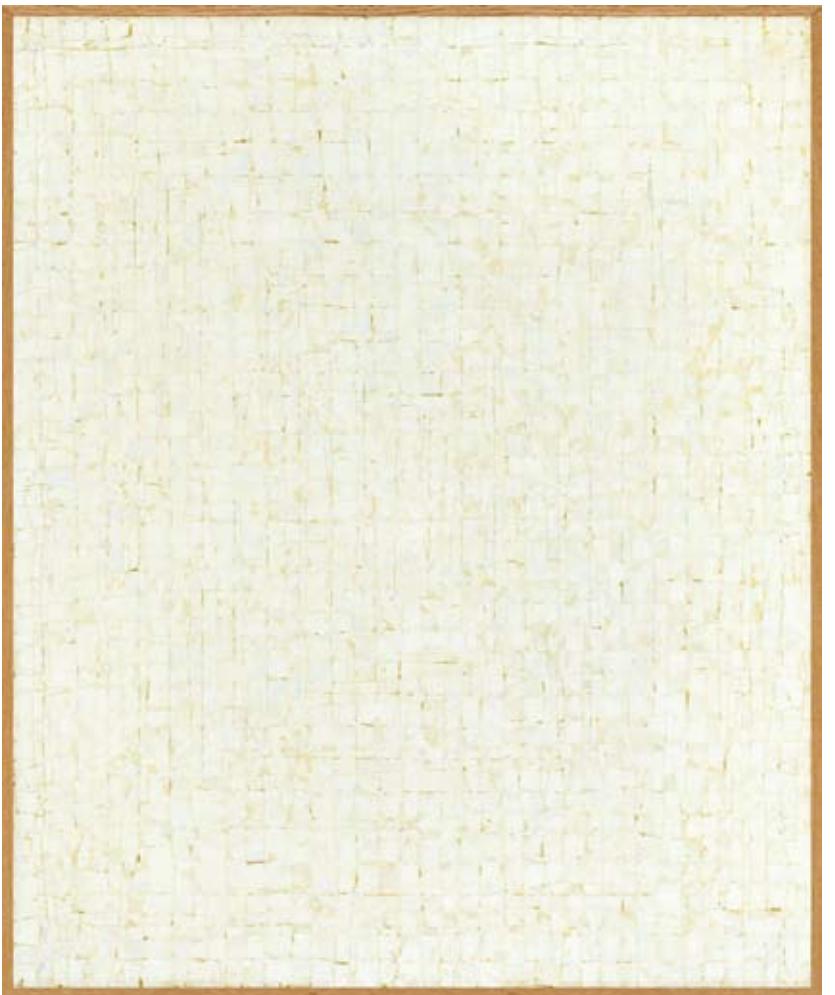
acrylic on canvas
130.3x97cm (60), 51.3x38.2inch
1976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everse

KRW 450,000,000 - 700,000,000
USD 396,000 - 617,000
HKD 3,100,000 - 4,830,000

‘정상화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단순함, 객관성 및 무심함은 마치 건조한 흙, 갈라진 강둑, 오래된 벽, 돌이나 나무뿌리와 같은 자연 속의 대상이 주는 느낌과 닮아 있다. 자연의 대상 속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화학적 변형은 시간적 흐름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작품 상에서 특정한 구조를 생성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파괴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과정이 전개, 발현, 구조형성 및 파괴 중 어떠한 과정으로서 인지되고 평가되어야 하는지는 감상자 개인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인생경험과 그에 따라 잠재된 세계관에 따라 결정 된다.’

로랑 헤기 (Lóránd Hegyi, 前 프랑스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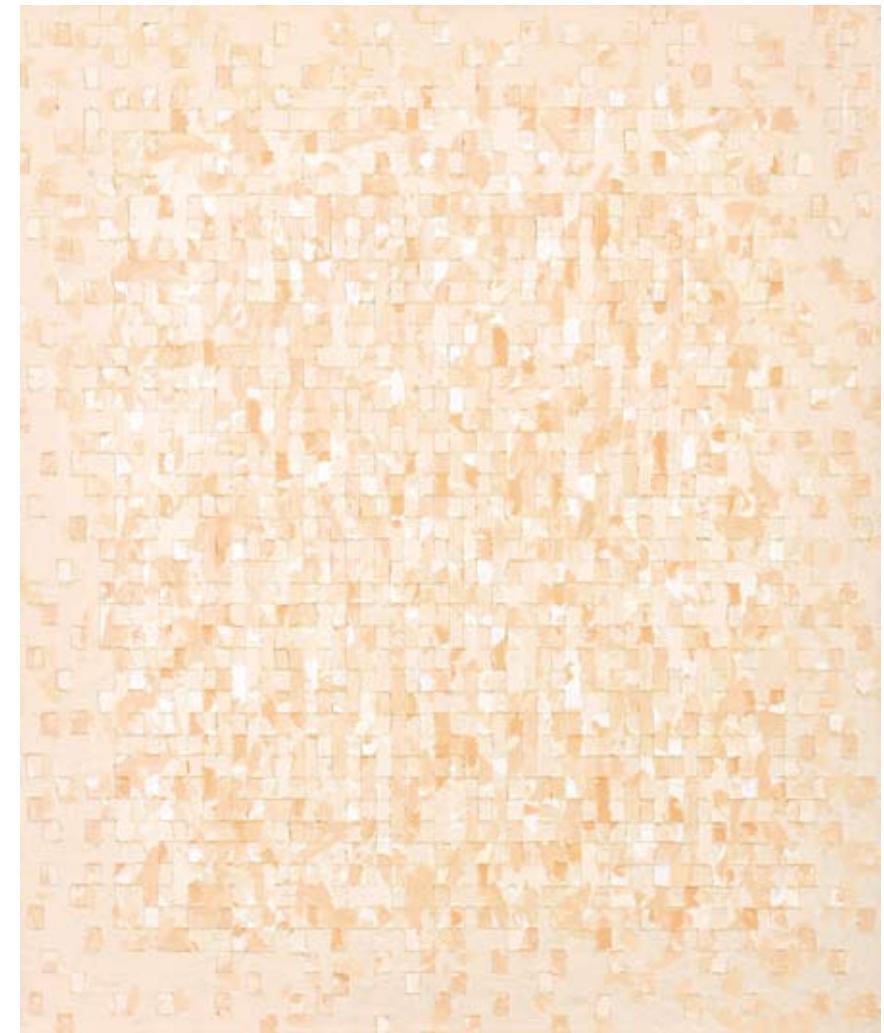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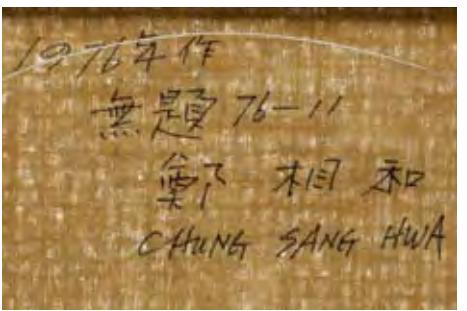
29

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무제 76-11 Untitled 76-11

acrylic on canvas
60.6x50cm (12), 23.9x19.7inch
1976
signed on the reverse

KRW 100,000,000 - 200,000,000
USD 88,000 - 176,000
HKD 690,000 - 1,3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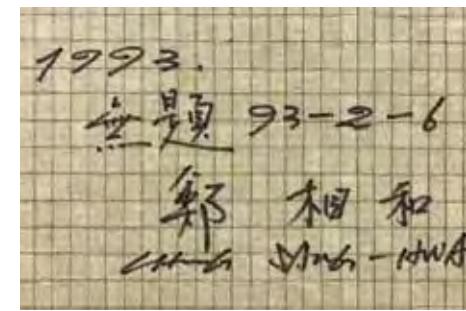
30

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무제 93-2-6 Untitled 93-2-6

acrylic on canvas
72.7x60.6cm (20), 28.6x23.9inch
1993
signed on the reverse

KRW 160,000,000 - 280,000,000
USD 141,000 - 247,000
HKD 1,100,000 - 1,930,00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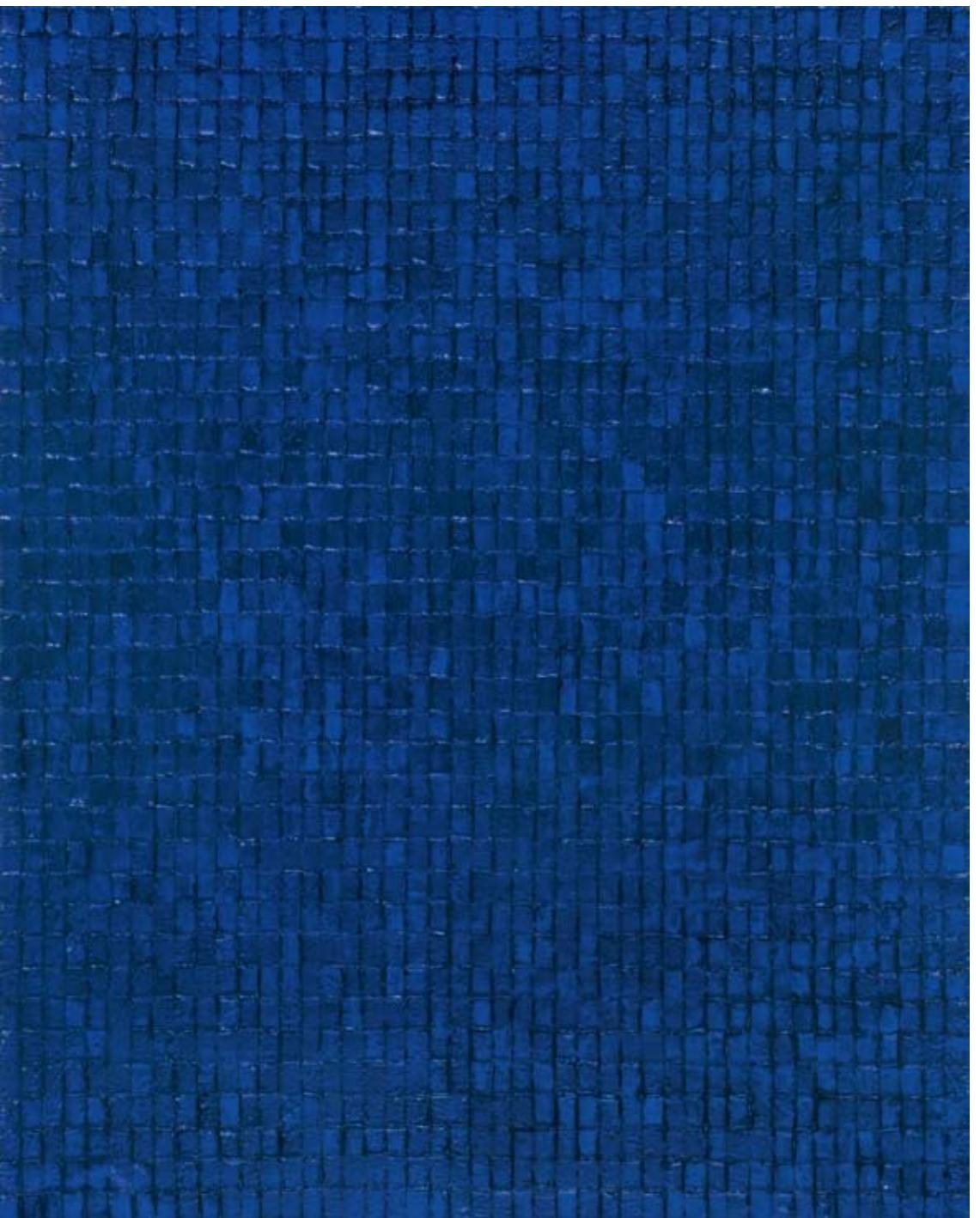
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무제 06-3-10 Untitled 06-3-10

acrylic on canvas
116.8×91cm (50), 46×35.8inch
2006
signed on the reverse

KRW 260,000,000 - 350,000,000
USD 229,000 - 308,000
HKD 1,790,000 - 2,410,000

2006年
無題 06-3-10
鄭相和
Chung SangHwa



정상화 b.1932
Chung SangHwa 鄭相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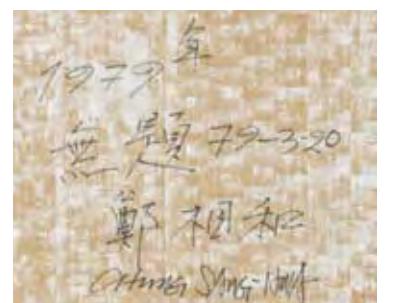
무제 79-3-20 Untitled 79-3-20

acrylic on canvas
162.2×97cm (100), 63.9×38.2inch
1979
signed on the reverse

KRW 320,000,000 - 600,000,000
USD 282,000 - 529,000
HKD 2,210,000 - 4,830,000

'첫 인상으로서의 정상화의 회화는 추상적이고, 무관심적이며, 물질적이고, 단조로운 형식적 구조와 정신적인 지각을 환기시키고, 일차적 구조의 자기-지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작품은 맥락과 무관하고, 추상적이고 비지시적인 것으로, 비(非)시각적인 경험들과 복잡하게 연결되는 재현들이나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는 심오한 화면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적으로 보이는 일차적 구조들은 회화적 실천을 순수하게 이론화시킨 것이나, 물질주의나 형식적 구조를 기술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또는 단순히 회화적 구조의 실험으로서 이해되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것은 실질적이며, 물리적 작업과정의 결과로서 제작에 있어서 작가의 즉각적인 개입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처럼 심오하고 진정한 해석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관여와 공들이 노동은 감각의 '잠재된 시간성'과 다양한 충위들의 중첩을 통한 물질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신비롭고도 풍부한 구조를 창출한다.'

로랑 헤기 (Lóránd Hegyi, 前 프랑스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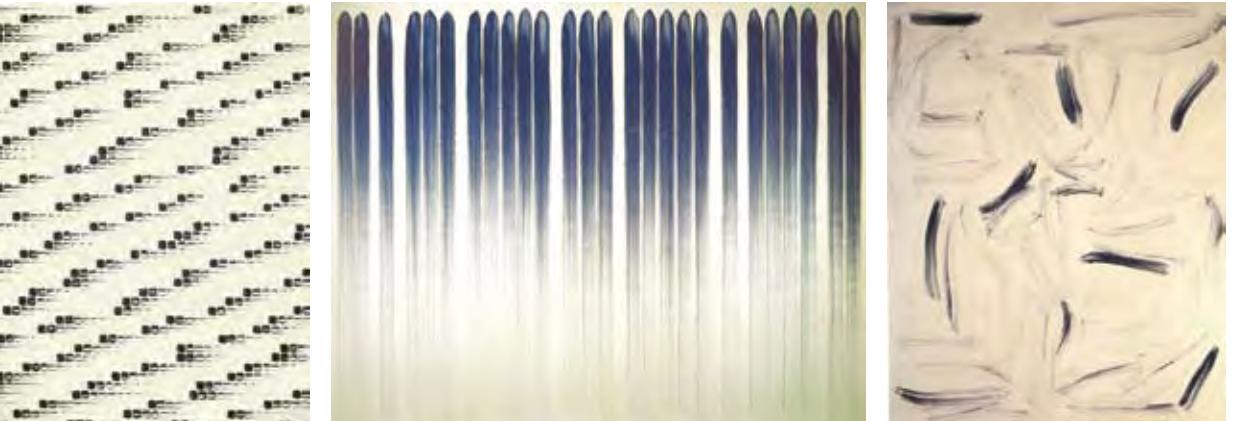
LEE UFAN

이우환 b.1936



“바람은 바깥에서 다른 사물들에게 불어와 그들을 깨워서 소리를 내게 한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변의 공명과 울림, 촉각 등에 의해 느낄 수 있다.”

이우환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서구의 전통적인 이성주의, 인간중심주의의 토대를 해체하고자 하는 하

이데거, 교토학파의 철학사상 등에 영향을 받은 이우환은 이를 작품창작에 도입하여 '제시'가 '창조' 보다 진리에 더욱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무엇을 창조하는 대신, 존재하는 실제 사물을 제시함으로써 사물의 물질성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이질적인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만남'과 '무한'의 미학을 구체화한 그의 예술세계는 서구의 미니멀리즘이나 개념미술과는 달리 동양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동서양 최초의 자생적인 현대미술운동인 모노하 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1958년경부터 시작한 작품활동은 동양화의 기본 흐름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일정하게 흐름을 반복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화시킴으로써 점과 선의 개념, 선의 지율성, 더 나아가 무한한 시공간 개념을 화폭에 담아 냈다. 사물의 본질에 대한 그의 철학이 회화적으로 드러난 건 1973년 동경회랑에서의 개인전 부터다. 그는 안료를 봇에 먹여 그것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캔버스나 종이에 점을, 또는 선을 그린 〈점으로부터〉(참고도판 1)와 〈선으로부터〉(참고도판 2) 시리즈를 처음 선보이게 된다. 점과 선은 조형 작업에 있어 최소한의 단위다. 작가는 행위를 작은 단위로 분절시켜 무한히 반복하며, 행위 그 자체에 좀 더 집중한다. 그는 “하나의 점

을 찍으면 갑자기 주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면의 상공에 생기 넘친 공기가 맴돈다” 라며 낯설고 싱그러운 환상의 체험이 마침내 자신을 화가로 만들었다고 고백하였다.

빈 캔버스에 점과 선, 여백을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했던 작가는 1970년대의 절제되고 엄격한 추상 양식을 지나 1980년대에 이르러 보다 자유분방하고 다채로운 세계로 옮겨가게 된다. 1982년부터 시작된 〈바람〉 연작에서는 점과 선 시리즈에서 보여준 일률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보다 자유로운 운율에 따라 해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참고도판 3). 즉, 이전의 점과 선에 의존하여 기본 요소에 집중하던 틀을 깨고 무정형의, 보다 생기 넘치는 회화가 되면서 봇 자국은 거칠없이 자유로워지고 바탕 면과 함께 호흡하게 된 것이다. 경매 출품작 〈바람과 함께(With Winds)〉는 선이 유연해지고 바람이 화면상에 분명히 느껴진다. 일필일획의 힘은 점점 사라지고, 바람의 흐름에 따라 선들이 춤추는 듯한 움직임으로 화면을 채우고 있다. 자유로운 봇 터치의 화면은 그 안에서 균형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이우환』 갤러리현대, 1987

『이우환』 국립현대미술관, 1994

『이우환-만남을 찾아서』 삼성미술관, 2003

참고도판 1 〈점으로부터〉, glue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227×182cm, 1976

참고도판 2 〈선으로부터〉, glue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182×227cm, 1998

참고도판 3 〈바람으로부터〉, oil and mineral pigment on canvas, 227×182cm, 1985



Lot 33

Influenced by Martin Heidegger's (b.1889- 1976) existentialism and the teaching of Kyoto school of philosophy, Lee applied his philosophical agenda by presenting an existing object in its own natural form rather than creating something artificial. Lee experimented with pigments and glue, which involved pulling a round-tipped brush, normally used for ink painting, from the top edge of a canvas to the bottom. The way Lee pulled the brush left a residue on the canvas so that the paint itself became a record of somatic activity. He first showed his *From Point* and *From Line* series in his solo exhibition in Tokyo gallery in 1972. One conclusion we can draw from these early works is that Lee came to Japan to increase the scope and depth of his practice. Another is that he wished to fortify his artmaking by practicing it within the context of a foreign culture. We discover that regardless of the transitions he made in modes of expression, his views on art and artmaking remained unaffected by his new surroundings. When looking at his *From Point* or *From Line* series, one is urged to feel the negative space both within and outside the work. If we see Lee's consistent use of points as a mean for activating the planes of his paintings, then his canvases become none other than screens for disclosing the world. While Lee continued to make some work for the above two series in the 1980s, his chief interest shifted to the *From Winds* series in 1983, and later to the *With Winds* series in 1987. These series featured a new artistic direction where he experimented with briskly done irregular points and lines as can be seen in lot 32. Unlike the *From Line* series, this work deteriorates into untidy and bent shapes in an aggressive manner. It is important then to examine two of Lee's most specific goals as an artist. The first is his desire to become a "minimalist of site." This minimalism is achieved by restraining, to the greatest degree possible the human desire to objectify the image, and thereby affects a more open dialogue with the world. The second of Lee's targets is to engineer works of art that derive from Eastern thought and at the same time rise above the conventions of Orientalism. He accomplishes this by adopting a picture plane that permits the encounter between brush and canvas that at the same time resists penetration by the paint. The following selection of Lee's works is a visual narrative of his artistic journey and is representative of each series.

REFERENCE

『Lee Ufan』, Hara Museum of Contemporary Art, 1991

李禹煥生於韓國，並在韓國生活了 20 年後移居日本 40 年。畫家用 30 年的時間遊歷世界各地尤其是歐洲，將既不屬於韓國日本，也不屬於西方等任何內部的“他人”定義的存在價值作為創作的核心理念。他的一生都在通過作品來展現與他人的關係，其繪畫作品大致上可以分為“點”、“線”、“風”和“照應”系列。

《始於點(From Point)》《始於線(From Line)》系列作品將點和線視為蘊藏東方氣息和生命力的基本要素，并以此進行創作。通過有序而均衡的動向來反復表現視覺空間中的生成與消亡過程，同時賦予作品以動感和韻律。最終畫家所追求的正是心靈的蕩滌并藉由此發現內在的本質意義，通過這一過程來展現與他人間的關聯性。

如果說李禹煥在 1970 年代的點、線系列作品中，通過水平或垂直方向動作的均勻和連續展現了有規律的秩序井然，那麼 80 年代后的《始於風(From Wind)》和《隨風(With Wind)》系列作品則更加自由和活潑。乍看之下感覺衝動的風其實並不是偶然的作用，而可以說是處於靜謐節奏之中穩定而細緻的行為產物。如果說初期“點”與“線”的創作都處於連續且可再現的時空之中的話，那麼“風”系列則基本上是通過詮釋聚集和余白的關係來構成空間效果。

“對我來說，促使我進行繪畫創作的是對於無限余白的追求，是無法用實際或意識的語言進行描繪的浩瀚，是難以捕捉的未知。《照應》的空白區域和繪畫區域互相影響，通過這種對立來超越畫布的限制。”

李禹煥

李禹煥自創作《照應》開始選用粗大的畫筆在畫布上留下最少的痕跡。由此形成的部分在與白色基底的畫布形成緊密關係的同時，又與雪白的牆壁即外部空間相融合，給人以無限開放的感覺，與白色畫布的寬闊平面形成鮮明對比，從而體現了空間的對峙性。

33

이우환
Lee UFan

바람과 함께 With Winds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116.8x91cm (50), 46x35.8inch

1991

signed on the lower right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180,000,000 - 350,000,000

USD 159,000 - 308,000

HKD 1,240,000 - 2,410,000



이우환 b.1936
Lee Ufan 李禹煥

조응 Correspondance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181.8×227.3cm (150), 71.6×89.5inch
1995
signed on the side and reverse

KRW 180,000,000 - 350,000,000
USD 159,000 - 308,000
HKD 1,240,000 - 2,410,000

PROVENANCE

Lisson Gallery, London

이우환은 이전의 선이나 점 연작과는 달리 〈조응〉 연작에 들어 넓은 봇을 선택하여 캔버스에 최소한의 봇 자국만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칠해진 부분은 하얀 바탕의 캔버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동시에 하얀 벽, 즉 바깥쪽 공간과도 융합하며 개방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제공하고, 하얀 캔버스의 넓은 평면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며 공간적인 대치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본 출품작 〈조응〉의 균형 잡힌 봇 자국은 이러한 개념적의 특징을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Correspondance
1995
Lee Ufan



35

이우환
Lee Ufan

선으로부터 No. 780145 From Line No. 780145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91x116.8cm (50), 35.8x46inch

1978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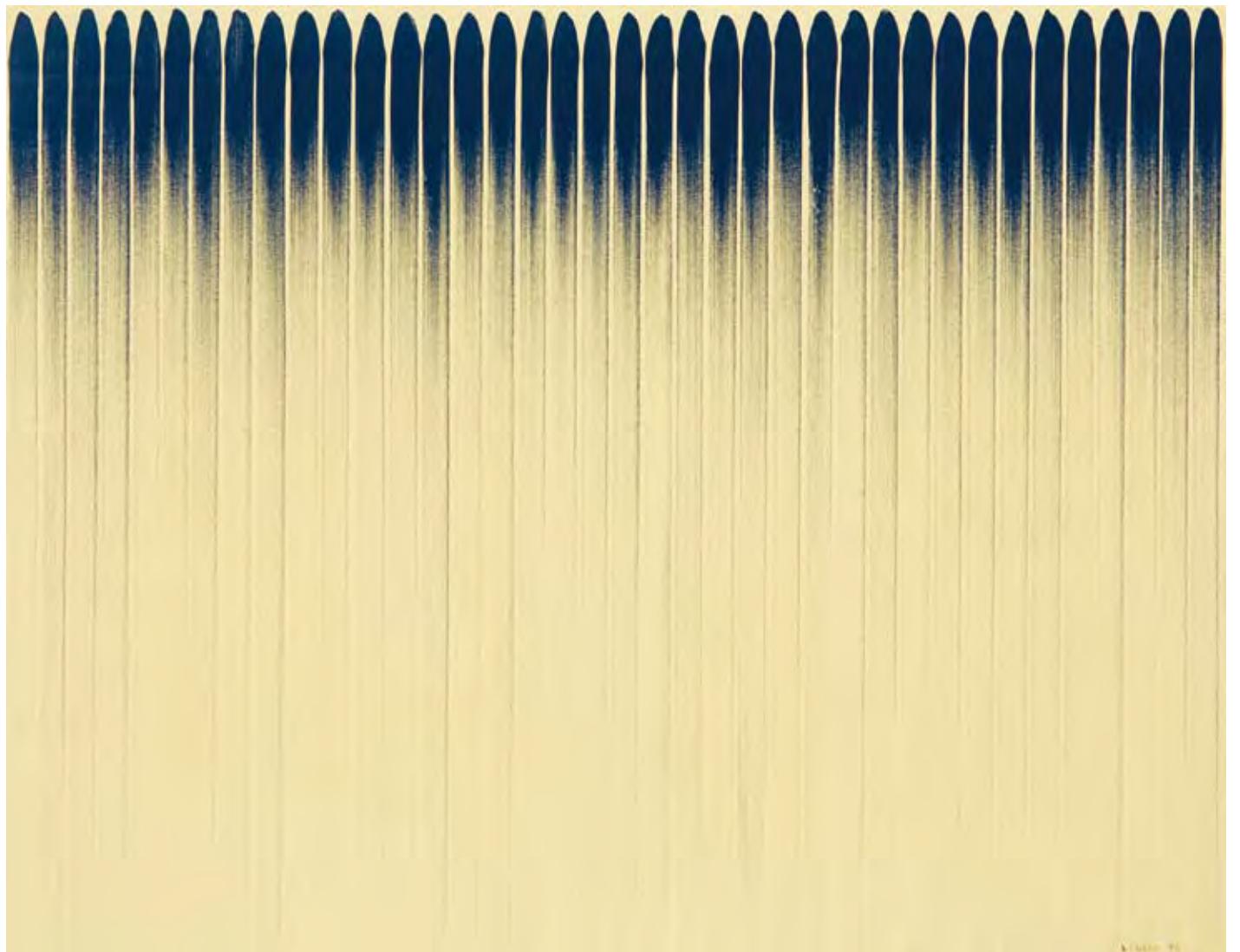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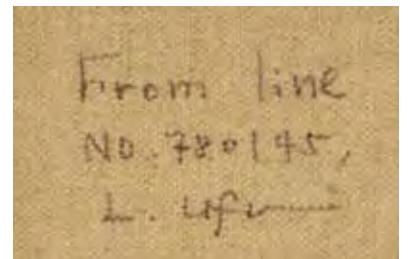
KRW 600,000,000 - 800,000,000

USD 529,000 - 705,000

HKD 4,140,000 - 5,520,000

PROVENANCE

Gallery Futaba, Tokyo



이우환 b.1936
Lee UFan 李禹煥

관계항 Relatum

stone, iron
250×120×50(h)cm, 98.4×47.2×19.7inch
1984

KRW 180,000,000 - 400,000,000
USD 159,000 - 352,000
HKD 1,240,000 - 2,760,000

지난 2014년 6월, 베르사유 궁전 야외에 전시되면서 세계적 호평을 받은 이우환의 〈관계항〉은
존재의 이유, 외부와의 관계 등의 회두를 제시하였다. 돌은 작가의 고심 끝에 자연 속에서 신중
하게 선택된 것이며 절삭된 철판은 인공적으로 가공된 산업재료이다. 자연석과 철판의 이 상이
한 만남은 70년대 일본의 전위운동 '모노하(物派)'에서 비롯되었다. 표현을 자제하고 안팎의 공
간과 여운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시도는 〈관계항〉에서 재현되어 시간과 장소, 인과관계 등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사물의 존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주목한다.



참고사진 Installation View – 〈Relatum〉
at the Palace of Versailles, 2014



37

이우환
Lee Ufan

조응 Correspondance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130.3×162.2cm (100), 51.3×63.9inch
2003
signed on the side and re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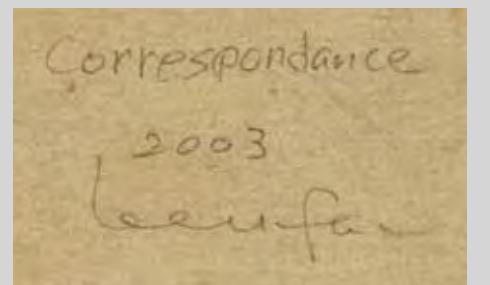
KRW 220,000,000 - 300,000,000
USD 194,000 - 264,000
HKD 1,520,000 - 2,070,000

EXHIBITED

Seoul, Gallery Hyundai, Lee Ufan, October 2003

LITERATURE

『Lee Ufan』, Gallery Hyundai, 2003, no. 8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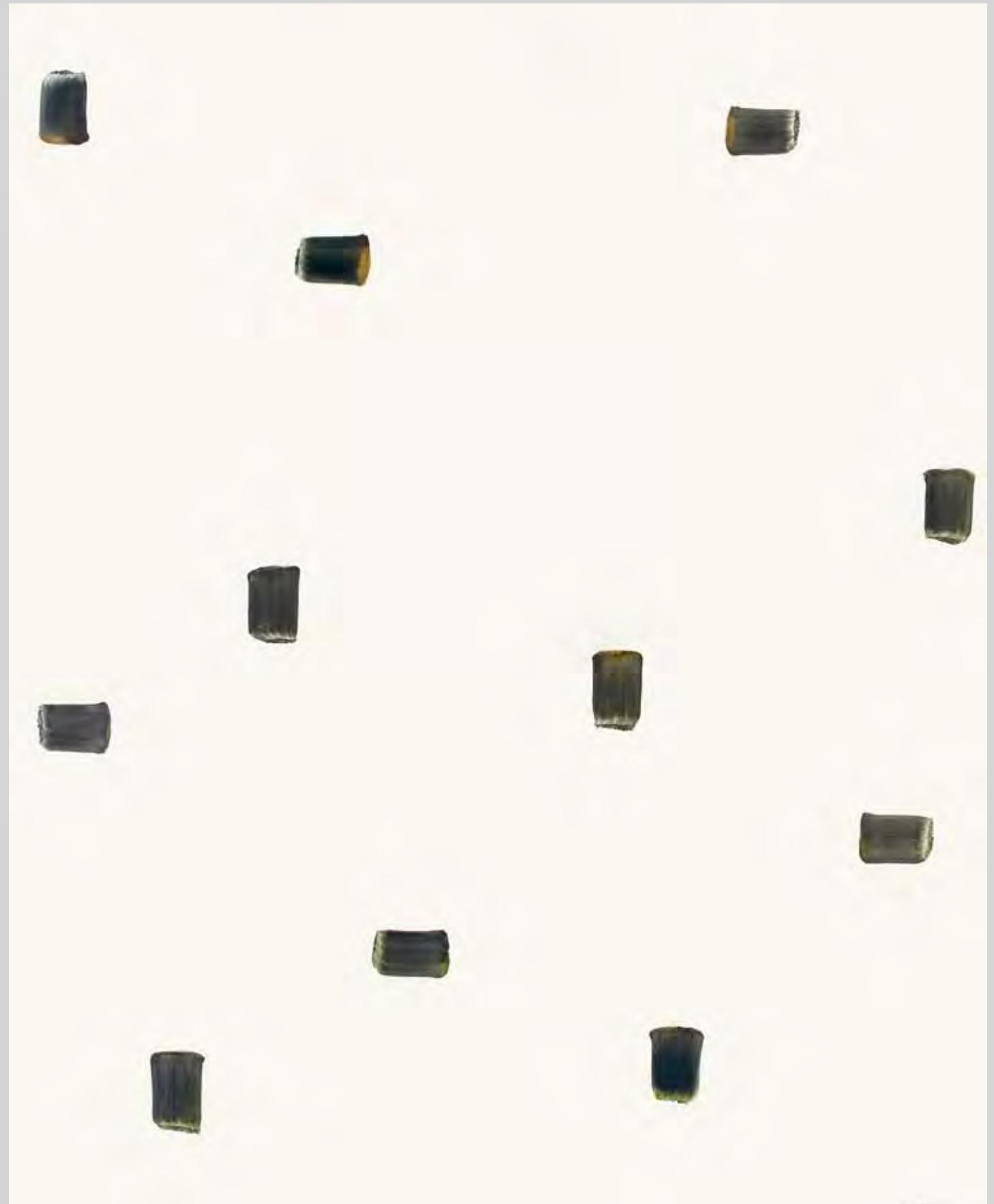
이우환
Lee Ufan

바람과 함께 With Winds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227.3×181.8cm (150), 89.5×71.6inch
1992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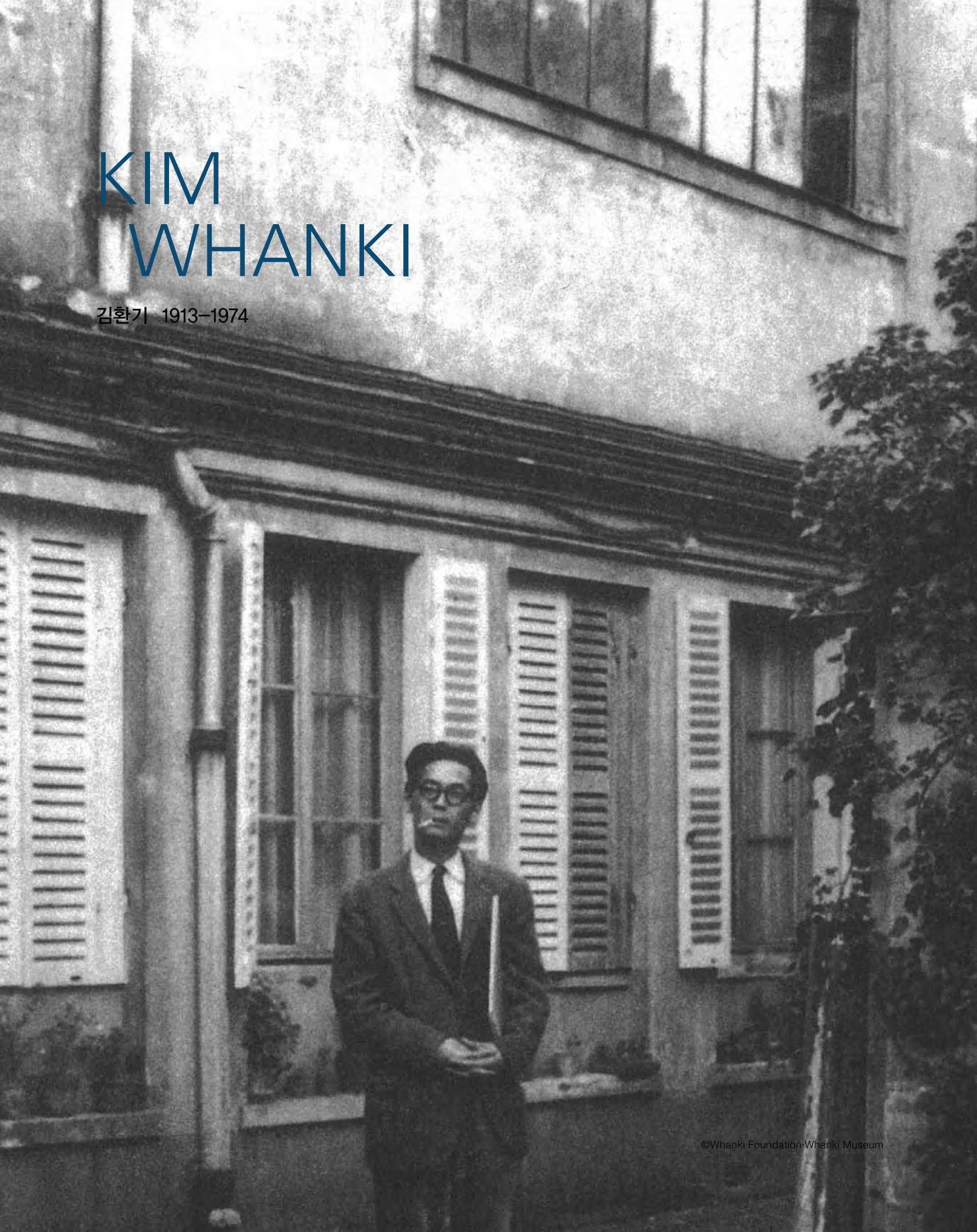
KRW 250,000,000 - 500,000,000
USD 220,000 - 441,000
HKD 1,720,000 - 3,450,000

im part 5
with winds
1992
Lee Ufan



KIM WHANKI

김환기 1913–1974



©Whanki Foundation-Whanki Museum



参考도판 1

参考도판 2

参考사진 1

“구구삼정(鳩鳩森亭)에 나오면 하늘도 보고 물 소리도 듣고 블란서 붉은 술에 대서양 농어에 인생을 쉬어 가는데 어쩌다 사랑이 병이 되어 노래는 못 부르고 목 쉰 소리 끝일 줄은 모르는가”

김환기 –작가일기에서, 1974. 7.11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침대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기 전, 미국 유나이티드 병원에서 남긴 수화 김환기의 마지막 시구이다. 이처럼 작가는 이국의 땅에서 뜻밖에 타계하기 직전까지도 고국의 자연과 정서를 그리워했다. 그 향수는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그의 회화세계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뉴욕후기 점묘를 끝으로 범자연주의적 서정으로 대변되는 한국 추상회화의 한 획을 그었다고 여겨진다.

‘김환기 인간 형성의 정신적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동양적 자연인의 풍취이다. ‘자연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자연과 풍정을 담백한 서정으로 그려냈다고 해서만은 아니다. 그것은 자연과 호흡을 같이하고 자연 앞에 자신의 가슴을 풀어헤치고, 그리하여 예술세계 또한 자연과의 내밀한 교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말하자면 ‘자연’이 바로 김환기의 모든 예술적 발상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일 (미술평론가)

参考도판 1 〈항아리와 날으는 새〉, oil on canvas, 72×52cm, 1958

参考도판 2 〈월광〉, oil on canvas, 92×60cm, 1959

参考사진 1 뉴욕 아틀리에, 1968

김환기 예술의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연은 작가의 1956년 프랑스 체류가 시작되면서 그 독자적 조형이 두드러지게 된다. 보다 격조 높은 독자적인 시와 자연으로 비춰지는 그의 도상들은 산과 달과 백자 있고 푸른 공간을 가로지르는 새가 있으며 반추상적 형식 역시 나타난다. 바로 그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산천과 풍정(風情)에 대한 애착과 민족의 슬기로운 귀를 기울이는 귀의(歸依) 정신의 소산물이었다. 파리에서 작품활동을 지속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 그리고 그 연장으로서의 자연은 김환기 자신의 정체성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갔다. 그가 그린 자연 도상은 상감청자의 운학문이나 병풍에 새겨진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림 속에서도 도자기와 풍경이 같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参考도판 1). 해방과 한국전쟁이라는 대 격변기를 경험하면서 강화된 원초적인 세계로의 회귀의 염원이 그림 속에 담기게 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산, 달, 강, 도자기 등이 조화로운 구성 속에 정돈된 그의 그림은 일종의 이상향으로, 먼 이국 땅에서 찾은 고국의 향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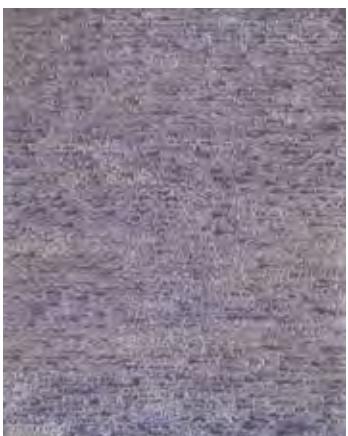
이처럼 김환기는 ‘한국적’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자 동양적 방언론인 절제와 여백을 동반한 직관적 표현방법을 통하여 독창적 화면을 구성해갔다. 그 작업은 실재 사물과 풍경, 내면의 실존적 율림이 명상을 통한 순화를 바탕으로 보다 단순화, 상징화 되었으며 예술의 숭고한 의미인 영원성의 추구로 자연스레 추상화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목적이었다(参考도판 2). 그것은 시대의 아픔을 겪고 넓은 세상에 나가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려 노력한 김환기의 자아탐구 노력과 그로부터 얻어진 예술적 초월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참고도판 3 (Untitled 20-II-69)
oil on cotton 178×127cm, 1969



참고도판 3

참고도판 4 (Untitled 01-VI-70#174)
oil on cotton, 233×177cm, 1970



참고도판 4

참고도판 5 (Untitled 27-XI-72)
oil on cotton, 178×127cm, 1972



참고도판 5

“어제 전체를 둘러보고 내 그림 앞에 가서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내 예술도 의미가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아름다운 세계다. 단지 나는 시골(한국)에서 살았다는 것 밖에 없다.”

김환기, 1963년 상파울로 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후 지인에게 보낸 편지 중

“봄내 신문지에 그리던 일 중에서 나는 나를 발견한다. 내 재산은 오직 ‘자신’ 뿐이었으나 갈수록 막막한 고생이었다. 이제 이 ‘자신’이 뜯 바로 섰다. 한눈 팔지 말고 나는 내일을 밀고 나가자. 그 길밖에 없다. 이 순간부터 막막한 생각이 무너지고 진실로 희망에 가득차다.”

김환기, 작가의 노트에서, 1967.10.13

64년 미국에 정착한 이후 ‘과거와 옛 것을 모조리 잊어버리려는 노력’으로 새출발한 김환기는 뉴욕이라는 문명적인 환경을 자신의 관조적 시각으로 여과시키며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초기 유화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참고사진 1). 그리고 이전의 구체적 모티프나 한국 고유의 도상들이 사라지고 점과 선에 의한 구성이 화면에 들어선 작품을 선보였다. 시원한 공간감, 수묵화처럼 얇게 번져나가는 화면은 마티에르의 두께에서 발현되어 왔던 절제된 조형적 화면을 대체하였다. 예전의 두터운 마띠에르는 담백한 색조의 모노크롬 또는 극히 제한된 색상의 평면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작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과도기적 노력을 기울여 68~69년에 분할적 화면구성을 가진 작품들을 대거 등장시켰다. 캔버스를 직선으로 양분한 뒤 영역의 색을 달리 하거나, 중앙 ‘십자분할’ 구도를 이용 하

여 두 개의 중심선이 교차하는 중앙을 기점으로 타원의 색면이 수목처럼 번져나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참고도판 3). 색면과 색띠에 의한 구성은 바로 점에 의한 전면 구성으로 진전되는 직전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음악이 흐르는 듯한 여유로운 점의 나열이 화면의 수평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선의 흐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나이가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김환기의 역작이라 평가 받는 전면점화(點面點畫)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일보사가 주최한 제 1회 한국미술대상 전람회(1970.6)에 출품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한국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며 대상을 수상한다. 동시에 뉴욕 포인텍스터 화랑에서 잇따른 개인전을 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를 기점으로 김환기는 소위 말하는 ‘점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참고도판 4). 이후 작품들은 절대적으로 단순화된 기본 조형요소로서 서술적 서정성이 사라지고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시적 화면을 구성한다. 하나 하나의 점(點)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핵의 모습처럼 전체 속에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우주 자체인 것이다(참고도판 5).

김환기의 점 작업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또는 끊임없이 거듭나는 미세한 세포들을 그린 것 같은 점화 그림들은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우주적 윤회를 시각화한다. 자연의 기에 자신을 맡기면서 한 점 한 점 찍어가는 작가의 흐름은 그대로 그림 자체의 고른 박동으로 살아나며, 이는 또한 삶과 만상을 꿰뚫는 생명 원리의 한 표상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Kim Whanki 1913-1974』, 마로니에북스, 2011

『KIM WHANKI』, 갤러리현대, 2015

『WHANKI New York 1966-69』, 갤러리현대, 1991

『김환기(뉴욕시대 1963-1974)와 그 예술』, 갤러리현대, 2006

『WHANKI(김환기 25주기 추모전)』, 갤러리현대, 1999

『김환기 20주기 회고전 –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환기미술관, 1994

Kim Whanki was a painter best known for his geometric, abstract paintings that reflect Korean cultural traditions. Born in Sinan County, South Korea, he studied at Nihon University in Japan, and expressed interest in European modernist painters, such as Pablo Picasso, Fernand Leger, and Mark Rothko. In the 1950s, while he was living in Paris, Kim turned to traditional Korean subject matter, such as mountains, plum blossoms, and Joseon dynasty porcelains. Kim began transforming his use of natural motifs into abstract compositions with simplified lines, dots and surfaces. The artist moved to New York in 1963 when he was 51, right after the seventh Sao Paulo Biennale, where he participated as a Korean commissioner and artist. Then Kim began a series of large-scale, abstract paintings that were composed of dots and lines. From 1970s Kim started to fill his canvases with dots. The artist pondered upon every dots he created on the canvas - which convey the universal language of nostalgia, life, and death. The process of creating dots allows the artist to become one with the nature, letting him to breathe evenly and devote himself. Most of Kim's New York paintings are designated with their dates of execution much as musical compositions labeled by key and number. Unlike most colorists working in acrylics, Kim used oil paint greatly thinned with turpentine, using it like ink and keeping it level with the picture plane. The large canvases of the 1970s have been seen as positive meditations on the universe in which curves and lines intersect without conflict within a canopy of color. Kim has described himself as a man at home with the stars and the dots in his paintings as "memories of a million things." Kim's work has been showing continuously in the Americas, Europe and East Asia for seven decades, including two special exhibitions at the Sao Paulo Biennale in 1965 and 1977 and retrospectives on the tenth, fifteenth, twentieth, twenty-fifth and thirtieth anniversaries of his death in 1974. As one of the first generation of abstract painters in Korea, Kim Whanki was at the forefront in the construction of Korean contemporary art.

金煥基是韓國現代藝術的代表抽象藝術家,被認為是最能運用抽象的手法表現韓國自然美的藝術家。金煥基為當時甚至連抽象畫的概念都不甚明確的韓國藝術界揭開了新的篇章,他將重點放在本源的色彩與線條、質感等而不是眼前的表象,因此他的作品也更貼近自然本質。

金煥基的藝術家生涯始於 30 年代到 45 年的東京留學時期。其創作早期的作品始終如一地具備抽象性導向。到了被稱為巴黎時代的 50 年代中期,畫家定居巴黎時,他的繪畫風格與當時風靡巴黎畫壇的非定形藝術氛圍和厚重的質感相一致甚至更加凸顯。與其說是畫家變換了形式和主題,還不如說是其首爾創作的延續和深化,展現出了更為密集的創作。他依舊堅持著月亮與雲朵、樹木與梅花、鹿與鶴以及白瓷的主題。畫家於之後的 63 年末移居紐約,自此開啟了紐約時代。從金煥基的紐約之前和在紐約時期我們可看出明顯的看到差異。紐約時代的金煥基選用線條、平面構成了純粹的抽象作品,其表現手法完全不同於以往注重質感上的厚重,而是呈現出輕盈透明的暈染效果;另外,藝術家在紐約初期的作品,以簡單化為代表。至 1964 年初,還存在著一部分山、月、雲的形象,但之後的作品逐漸簡化,結構趨向於色彩上單純的面、點和線的抽象化。正如金煥基日記中所說的“那簡單的構成,微妙的湛藍光澤,這是只有我能表現出的世界和事情。”這樣,從他在巴黎的那段時間開始,他的畫在色彩上便是一貫的藍色。他的畫中充滿了韓國的湛藍大海和疏朗山川的明亮色彩。他是聞名的白瓷愛好者,精通古代美術作品,因此他高尚的情操在美術作品中隱隱地綻放著光彩。由此金煥基的作品開始逐漸發生變化,1965 年後山川、月亮一類的具體自然主題已經消失不見,取而代之的是單純的色面與色點、色線所構成的抽象作品。進入 70 年代,他開始了被稱為“全面點畫”的用黑色的單色色點覆蓋在多彩的色調上,或是用多彩的色點覆蓋在黑白色調上,碩大的色點稀疏地排列在畫面上完成作品的創作。

本次的作品也屬於“全面點畫”,藝術家在 1973 年前後所作,作品構圖已呈現出了明顯的變化。金煥基擺脫了點描畫初期那單調的水平構圖,取而代之的是採用通過變換方向來賦予律動感或是使人聯想到波動的同心圓構圖等;從一點出發藝術家在畫幅上開始嘗試不同的變奏。這一時期的點畫逐漸轉向為探索沉思的冥想空間。這種轉變也可能是出於對故鄉的眷戀,也可能是出於對年華垂暮猶離索的感慨,遍佈整個畫面的圓點原本如祖國秋天天空一般的湛藍或深紅色消失不見了,取而代之的是深沉的藏青色。對金煥基而言,點雖然是他創新抽象造型的源泉,但這無窮無盡的點最終也映射出了他的內心世界。藝術家將夜空中的繁星比作是遺忘在故鄉的朋友,如同描畫下思緒著日思夜想的面孔一般地在畫布上不斷地描出圓點;由此可見他所描畫的圓點、他所勾畫的線條並不是無心之舉,每一個圓點都帶有其深刻的含義,那一個個的圓點不是別的正是藝術家的思緒。



*“Do the lines I draw go beyond the limit of the sky?
Do the dots I paint shine as brightly as the stars?
When I close my eyes I see the rivers and mountains of
my country more clearly than the rainbow”*

Whanki

Lot 39

©Whanki Foundation Whanki Museum

‘…그것은 마치 풀밭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어떤 것은 호(弧)와 같은 움직임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모든 그리한 구획은 다소간에 하나의 위안하는 서정적인 특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매일 매일 그 점들을 보고 항상 새로운 그 무엇을, 그것이 어떤 것이건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약간의 새로운 의지를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로렌스 캠벨(Lawrence Campbell), 아트뉴스(Art News) 1971. 09

1970년에 시작된 점의 색면화는 수평으로 점철되던 양상에서 1971년 이후 사선으로 흐르는 화면의 분할이 나타나면서 변화가 더욱 풍부해진다. 기법적으로도 선염 기법이 두드러지고 넓이로서의 패턴에 여운의 깊이가 더해진다. 작가는 이후 또 한 번의 점획의 변화를 시도하여 포인덱스터화랑 제 3회 개인전(1973.10-11)에 <10만개의 점 04-VI-73 #316>(참고도판 6), <하늘과 땅 24-IX-73 #320(참고도판 7)>과 같은 수작을 선보였다.

〈1973년 작가의 일기 중〉

4월 5일, 104" x 82" 시작. #310.

4월 10일. #310 3분의 2 끝낸다. 마지막 막음은 완전히 말린 다음에 하자. Picasso翁 떠난 후 이렇게도 적막감이 올까.

출품작 <Tranquillity 5-IV-73 #310>은 작가 일기에 작업기록이 남아 있듯이 위 개인전을 가지기 6개월 전에 제작된 것으로, 전시에 당시 출품된 작품들과 유사한 점획의 패턴양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하수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원형의 점철은 색점의 반복적 병치를 통해 정연한 리듬을 획득하고, 그것을 구획짓는 흰 색띠는 점의 흐름을 바꿔놓으며 단조로운 화면에 긴장과 생기를 부여한다. 색채에서도 한껏 밝고 환한 푸른빛을 띠고 있는데, 이후 화색 톤의 잿빛 점들로 변모하는 74년 임종 직전의 작품(참고도판 8)과 비교해 보면 출품작은 작가의 맑은 생명력과 서정성이 반영된 마지막 작품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참고도판 6
(Hundred Thousand Dots 04-VI-73 #316)
oil on cotton, 263×205cm, 1973

참고도판 7 <Sky and Earth 24-IX-73 #320>
oil on cotton, 270×205cm, 1973

참고도판 8 <Untitled 05-VI-74 #355>
oil on cotton, 121×85cm, 1974



참고도판 6



참고도판 7



참고도판 8

39

김환기 1913 - 1974
Kim WhanKi 金煥基

고요 5-IV-73 #310 Tranquillity 5-IV-73 #310

oil on cotton
261×205cm, 102.8×80.7inch
1973
signed on the reverse

KRW 5,500,000,000 - 7,0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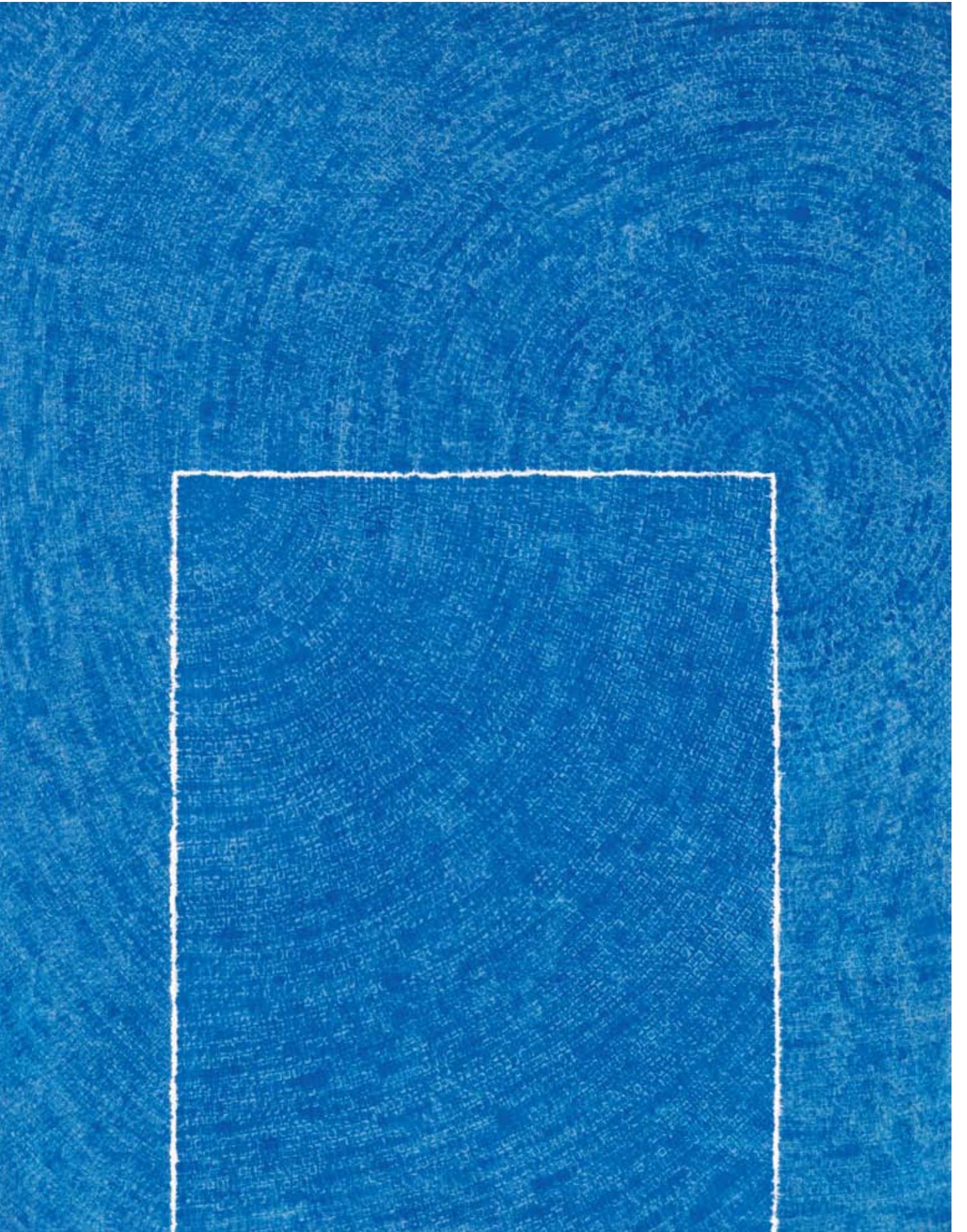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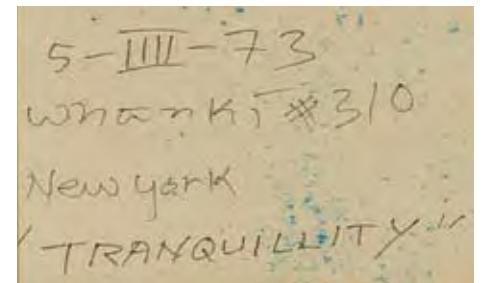
USD 4,850,000 - 6,170,000
HKD 37,930,000 - 48,280,000

LITERATURE

『Kim Whanki』, Maroniebooks, 2011, p. 289
『Kim Whanki』, Gallery Hyundai, 2015, p. 75
『Whanki Vie Et Oeuvre Life and Work』, Maeght Editeur, 1992, p. 148
『Whanki』, Hyundai Hwarang, 1977, p.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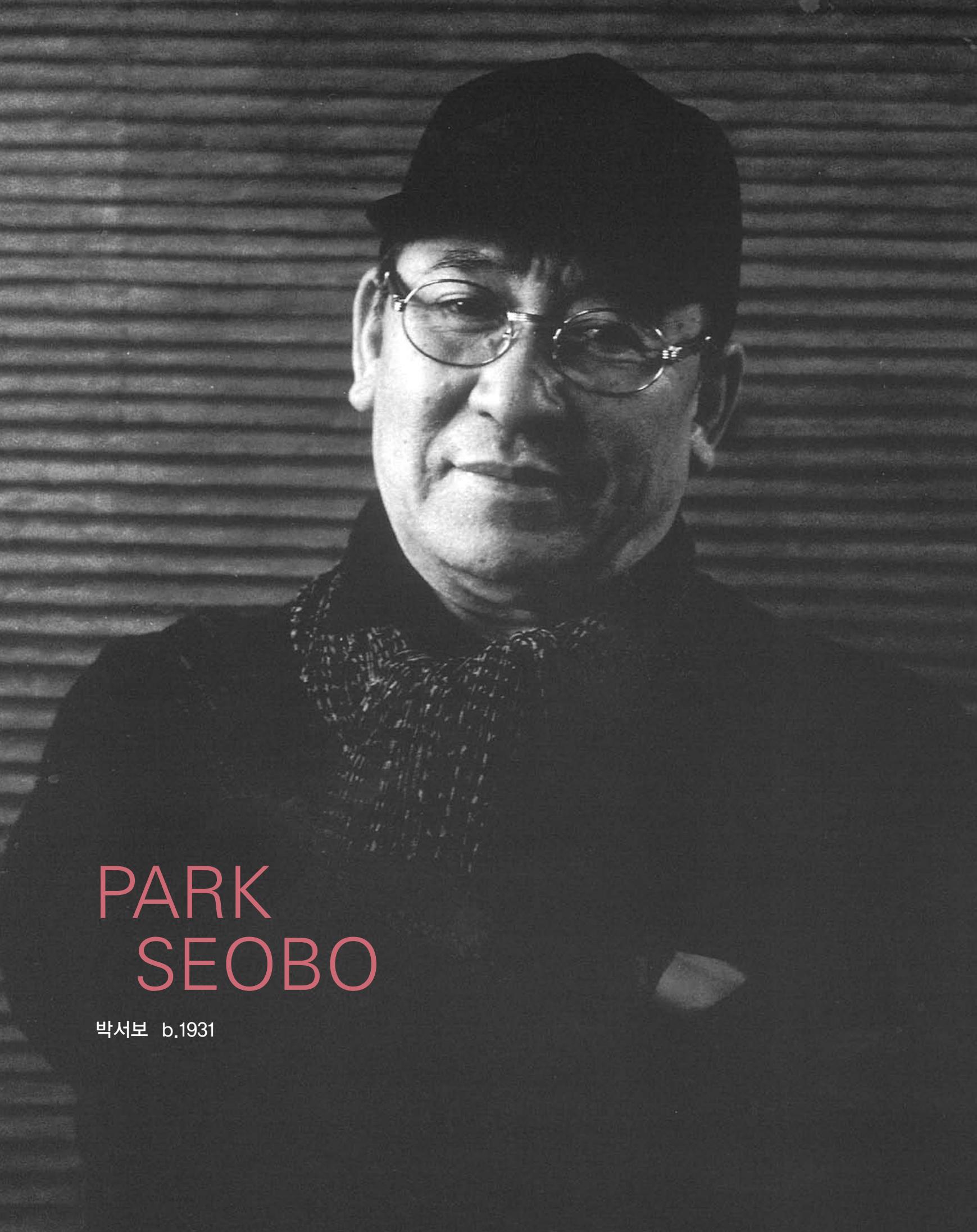
‘김환기는 그의 최만년에 해당되는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적으로 짙은 청색 모노크롬 회화에로 이행해 간다. 그러나 모노크롬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단일 색면이 아니라, 화면 전체를 뒤덮는 미세한 색점의 시각적 통합, 다시 말해서 색점의 색면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흔히 말하는 이른바 ‘색면회화’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환기의 모노크로미즘에 있어 화면 전체가 내재적인 은밀한 진동에 감싸여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그 화면 깊숙이 숨쉬고 있는 자연의 원천적 내재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01일 (미술평론가)



PARK SEOBO

박서보 b.1931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참고도판 4

앵포르멜에서 시작하여 단색화로 이어진 박서보의 행보는 한국 현대미술의 가장 혁신적인 흐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초기 〈묘법〉 시리즈에서 박서보는 캔버스에 백색 톤의 물감을 바르고 연필을 이용하여 기계적 혹은 반복적인 움직임을 옮기는 일에 몰두하였다(참고도판 1). 이러한 동일한 패턴의 선묘가 중심이 되었던 70년대 작품과는 다르게, 80년대에 들어온 박서보의 작품세계에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한지의 재발견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겹겹이 쌓인 한지를 복복 긁어내는 모습은 '그린다'라기 보다는 '지운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박서보는 굵기와 반복을 통해 '체념과 단념'을 묵묵히 수행하였고 이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자기수행과 다르지 않다는 작가의 신념이 녹아있는 것임을 보여준다(참고도판 2).

‘그가 유독 한지의 바탕을 지속해 보이고 있는 것은, 지지체로서의 한지의 발견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적지않은 현대작가들이 그들의 화면 속에 한지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박서보 만큼 한지가 갖는 정서의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한지가 단순히 지지체로서의 질료가 아니라 고유한 정서의 구체적인 매개라는 점의 확인에서 가능하다.’

오광수(미술평론가)

후기 묘법시대의 색면 공간은 역동적이며 회화적 요소가 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러가지 색조들로 덮인 바탕 임에도 아래 깔린 한지의 잔잔하지만 풍성한 화면이 독특한 평면 구조와 질감을 만

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닉종이를 사용한 후기작업에는 '여백'이라는 서예나 수묵화에나 주로 등장할 법한 요소도 등장하는데, 거대한 캔버스를 분할하고 있는 가로선과 캔버스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가느다란 수직선들이 그것이다. 이 띠의 윗부분 혹은 아랫부분에 물감이 한쪽으로 밀려나가 결국 얇은 이랑 같은 것이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박서보는 '숨 돌릴 틈'이라고 묘사한다(참고도판 3).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의 원색적인 박서보만의 색채는 전통 건축 장식기술인 단청을 활기시킨다. 단청의 특징을 꼽자면, 각각 동, 서, 남, 북 그리고 중앙을 가리키는 파랑, 하양, 빨강, 검정, 노랑 등 오방색(五方色)의 사용이다. 자신의 예술세계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매개체로서 그는 지극히 한국적인 것, 즉 전통성을 사용한 것이다. 전후 비서구권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탈식민지화라는 시대적 요청 하에서 살아가고 작업하면서, 어떻게 해야 보편적인 예술 담론을 앞서 나가면서도 그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민족적 기원의 특수성을 전달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딜레마에서 도출된 박서보만의 해답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앞서, 최근 박서보는 의례적으로 사용하던 회색 또는 검정 계열 혹은 오방색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담한 빨강색과 산뜻한 에메랄드 그린, 심지어 충격적인 핑크색 등을 실험하며 관람자가 다시금 이러한 전통성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참고도판 4).

참고문헌

『박서보』 갤러리현대, 1981

『박서보』 갤러리현대, 1997

『박서보』 재단법인 서보미술문화재단,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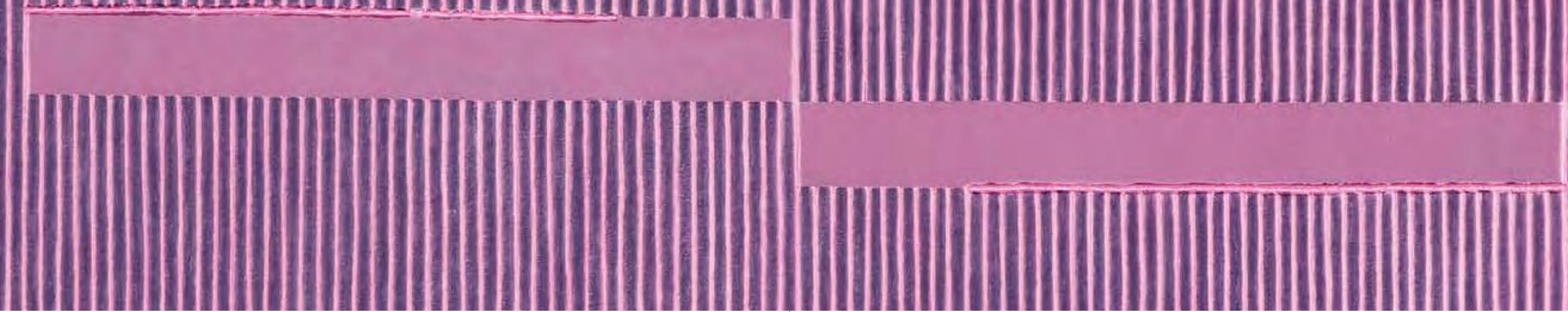
『박서보』 Galerie Bhak, 1994

참고도판 1 〈묘법 No.37-75-76〉, pencil and oil on canvas, 194.5x300cm

참고도판 2 〈묘법 No.352-86〉,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195x330cm, 1986

참고도판 3 〈묘법 No.930826〉,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16x23cm, 1993

참고도판 4 〈묘법 No.010510〉,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130x195cm



Lot 41

Starting with Art Informel and leading to Monochrome, the career of Park SeoBo is one of the most innovative trends in contemporary Korean art. In the early Ecriture series, Park SeoBo was engrossed in applying white-toned paints to the canvas and then using a pencil to put mechanical or repetitive movements on it. (plate 1) Unlike the works of the 1970s, Park SeoBo's work in the 80s shows a dramatic change. It was the result of rediscovery of Hanji (traditional Korean paper handmade from mulberry trees).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call the way he scrapes the piled up paper 'erase' rather than 'draw'. Through this process of scraping and repeating, the artist silently practiced 'resignation and surrender', which reflects his belief that the process of making the work itself is not different from spiritual self-discipline. (plate 2).

In the late Ecriture period, the color space is dynamic and the pictorial elements are more prominent than before. Despite the fact that the works of this period are covered with various hues, Hanji's calm but rich surface underneath creates a unique flat structure and texture. In the later works that use the mulberry paper, we find 'margin', an element that might be found in Eastern calligraphy or ink-and-wash painting: the horizontal lines dividing the huge canvas and the thin vertical lines running from the one end of the canvas to the other end. At the top or bottom of the band, the

paint is pushed to one side, and eventually things similar to furrows are created. The space thus created is described by Park SeoBo as "a space to catch breath." (plate 2).

Park SeoBo's unique colors of red, yellow, green, and blue reminds us of Dancheong, a traditional multicolored paintwork on wooden buildings. One feature of Dacheong is the use of five cardinal colors of blue, white, red, black, and yellow, pointing to east, west, south, north and center respectively. As a medium for his art, he used something very Korean. This can be the artist's own answer to the dilemma faced by many non-Western artists, who have to live and work in an age of 'decolonization', and as such, are required to produce works that comprehend contemporary art discourses and at the same time convey their own cultural distinctiveness, most importantly, the uniqueness of national origin. Taking a step further, Park SeoBo is trying a change from the traditional, moving away from the five cardinal colors and gray or black colors that he has used frequently, and experimenting with a bold red, a refreshing emerald green, or even a stunning pink. (plate 3)

REFERENCE

- 『Park SeoBo』, Gallery Hyundai, 1981
- 『Park SeoBo』, Gallery Hyundai, 1997
- 『Park SeoBo』, SeoBo Foundation, 1994

“朴栖甫堅信通過自身歸於無的精神修養能夠回歸到最為純潔的生命自然本性，這種信念雖然有些特立獨行但與東方的固有思維及行為高度一致。”

吳光洙

朴栖甫是韓國現代藝術的象征。他自抽象開始逐漸醉心于單色畫，將抽象藝術引入了正處於文化蠻荒時期的50年代的韓國。朴栖甫的作品風格可以分為幾段時期：早期《描法》時代的創作是在油畫布上塗上白色顏料通過用鉛筆反復“清除”顏料的方法而進行。雖然只存在用鉛筆畫線的過程，但他稱這種行為為“修行”的行為。正如畫家自己所說：“我不斷重複勾畫與清除如此令人難以置信的枯燥的行為。”那樣，畫家在畫布上塗顏料，反復“勾畫”——“清除”，再次塗抹和勾畫而實現作者自己的觀念。

朴栖甫的“描法”系列主要分為“早期描法”與“晚期描法”。從50年代慢慢開始直到了1970年代，可分為完整的“早期描法”，主要的創作特徵為傾斜的鉛筆描線，強調了反覆的行為。最初，如此的創作方式出發與朴栖甫小兒子練習寫字的單純行為。他看到了寫字還不熟練的幼子在方格本上照著格子練習寫字，寫不好的話就會發脾氣用鉛筆猛劃紙面。因此，朴栖甫在創作之時一向主張的“放空思想，傾空自身”的想法由反復用鉛筆勾勒、放空思想所依據的“描法”而實現，由此通過“描法”使他的觀念更加明確。

“我从不把鉛筆當成畫畫的工具，而是選擇鉛筆作為行為的道具。這是為了確保藝術的純淨狀態。我認

為最純淨的藝術的狀態也可稱作是“脫形象”狀態，其條件為必須要“無目的性”，也就是說要活在創作其本身。不去追逐畫面或者形象，或者某種想象的“脫形象”的無目的性與道家思想也是異曲同工的。所以也可以把它稱之為單純的無為行為或是無為的單純行為。畫家以此來規避近代美術所追求的對所謂形象的幻想，并從此獲得創作的解放，開始嘗到自由的真正滋味。在那裡不存在畫了什麼或是要意味著什麼的幻想。”

從1980年代起的作品分為“晚期描法”，主要的媒介為韓紙。朴栖甫在畫布上墊幾張韓紙利用水彩上色，之後在完全乾燥之前嘗試作畫。這就是後期描法與前期描法不同的一點。朴栖甫利用韓紙的基本性質使畫面上的“線雕”使得更加突出。他在繪畫的過程中在整個畫布上重疊韓紙後塗上水彩用手或工具反復留下刮痕。因此通過這反復的行為造成的畫面使作品更加含有生動感。

進入2000年畫家一改往日的單色畫開始用華麗的色彩填補畫作。能明顯看出明亮的色彩上佈滿垂直線的痕跡和構造。有形的層次覆蓋了畫面，推掉之後又形成了新的層次。如果說畫家在早期描法時代的“習作”超越了單純用筆進行刻畫及清除的境界的話，那麼近作就帶有維持色彩平衡的兩面性。用鉛筆刻畫，用傳統紙片處理，在畫面上反復進行的肢體行動的痕跡是朴栖甫畫家一輩子鑽研修行而得來的其作品創作方式的核心本質。

40

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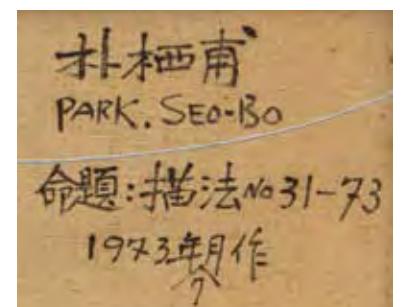
묘법 No.31-73 Ecriture No.31-73

oil and pencil on canvas
25×50cm, 9.8×19.7inch
1973
signed on the reverse

KRW 100,000,000 - 180,000,000
USD 88,000 - 159,000
HKD 690,000 - 1,240,000

“Art is no longer an act of fulfillment, but an act of emptying.”

Park SeoBo



41

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묘법 No.060330 Ecriture No.060330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162.1×259.1cm (200), 63.8×102i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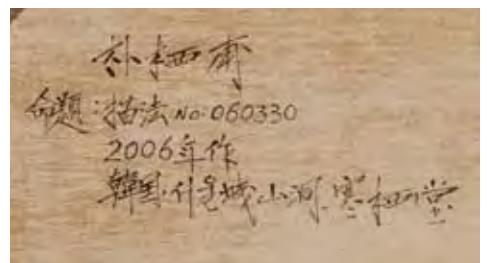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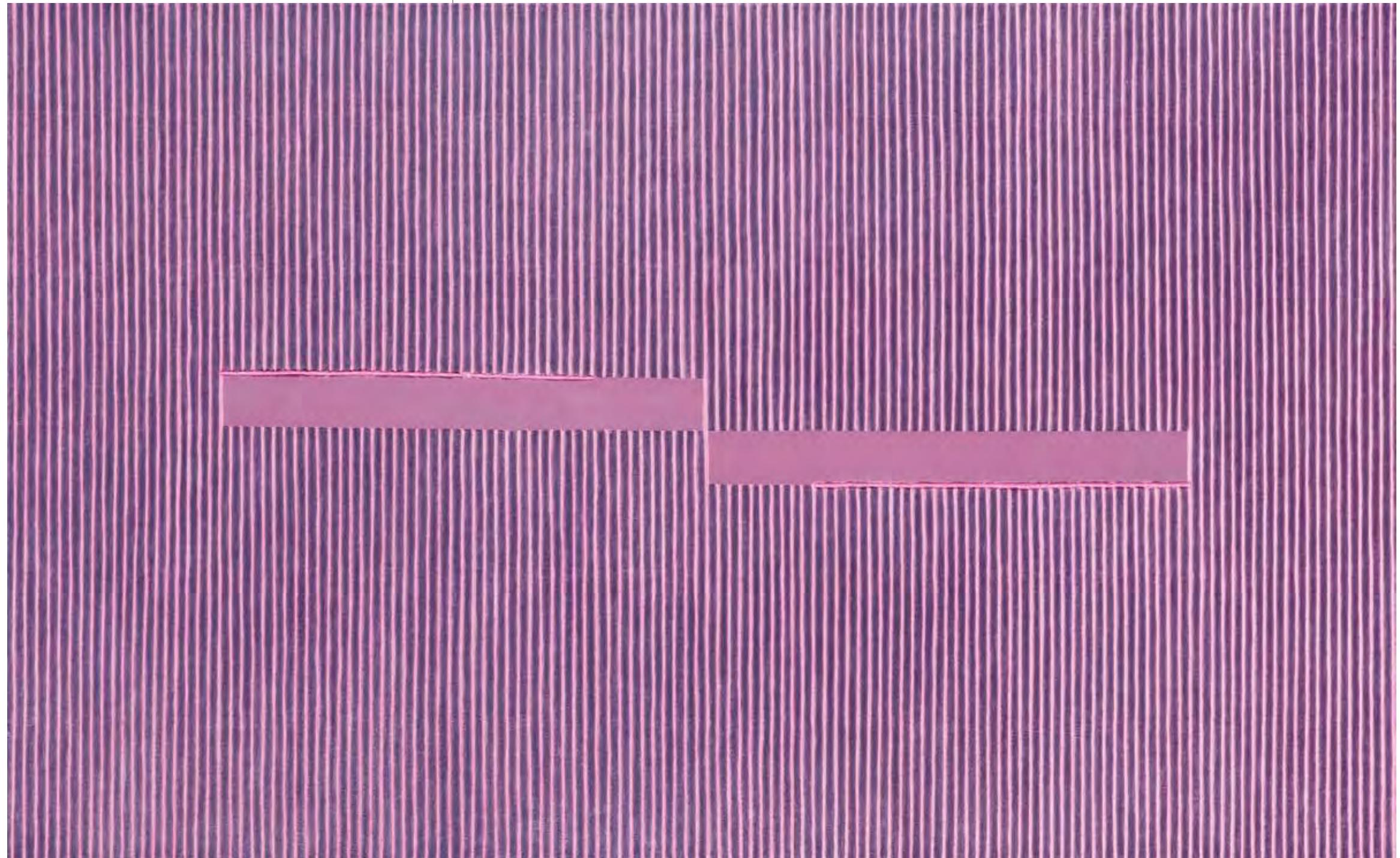
2006

signed on the reverse

KRW 220,000,000 - 500,000,000

USD 194,000 - 441,000

HKD 1,520,000 - 3,450,000



42

박서보 b.1931
Park SeoBo 朴栖甫

묘법 No.060512 Ecriture No.060512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laid on canvas
162x195cm, 63.8x76.8i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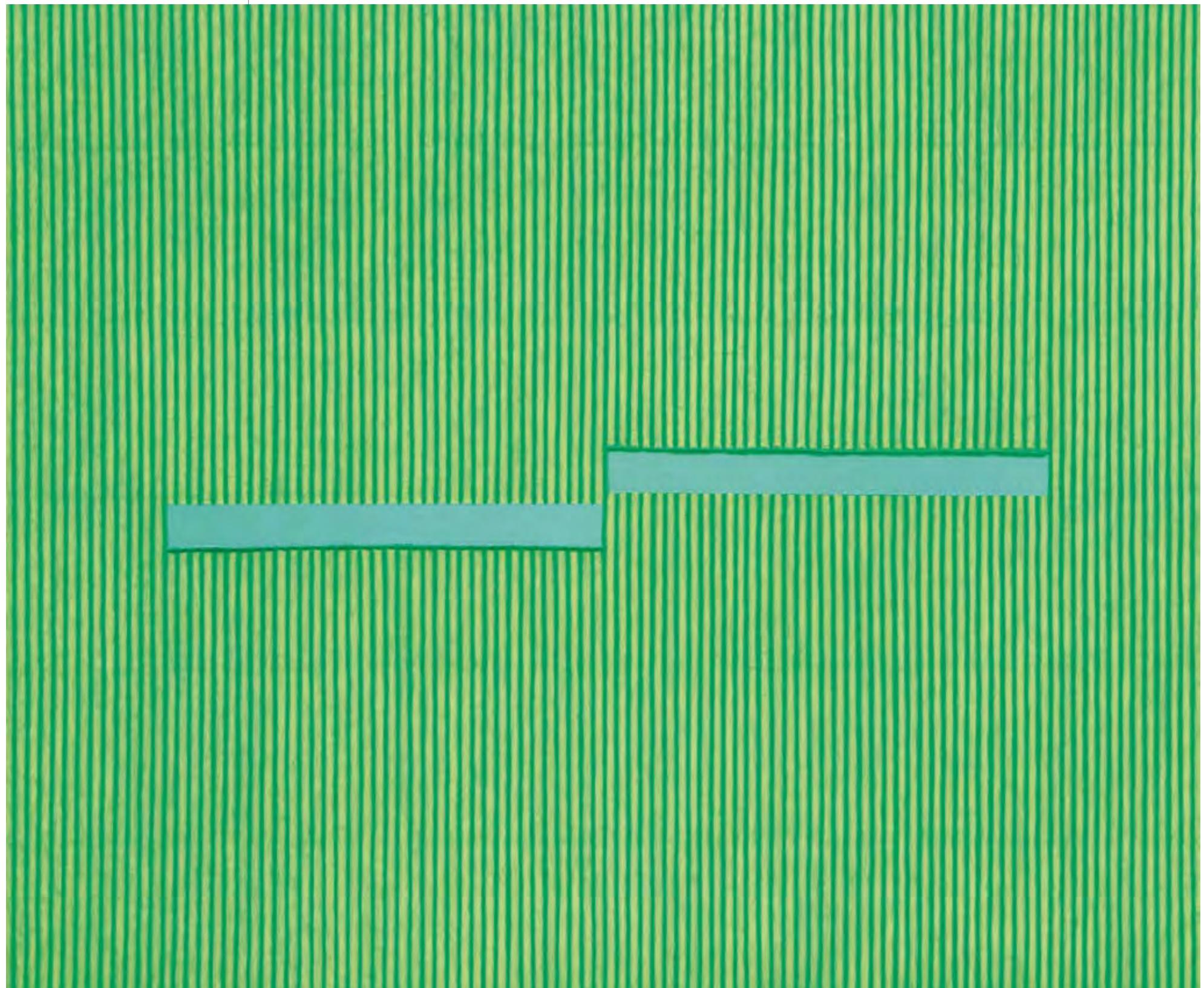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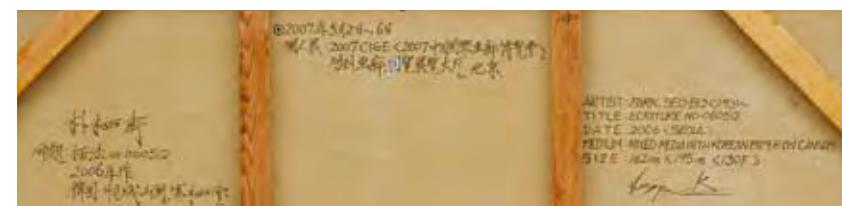
2006

signed on the reverse

KRW 160,000,000 - 4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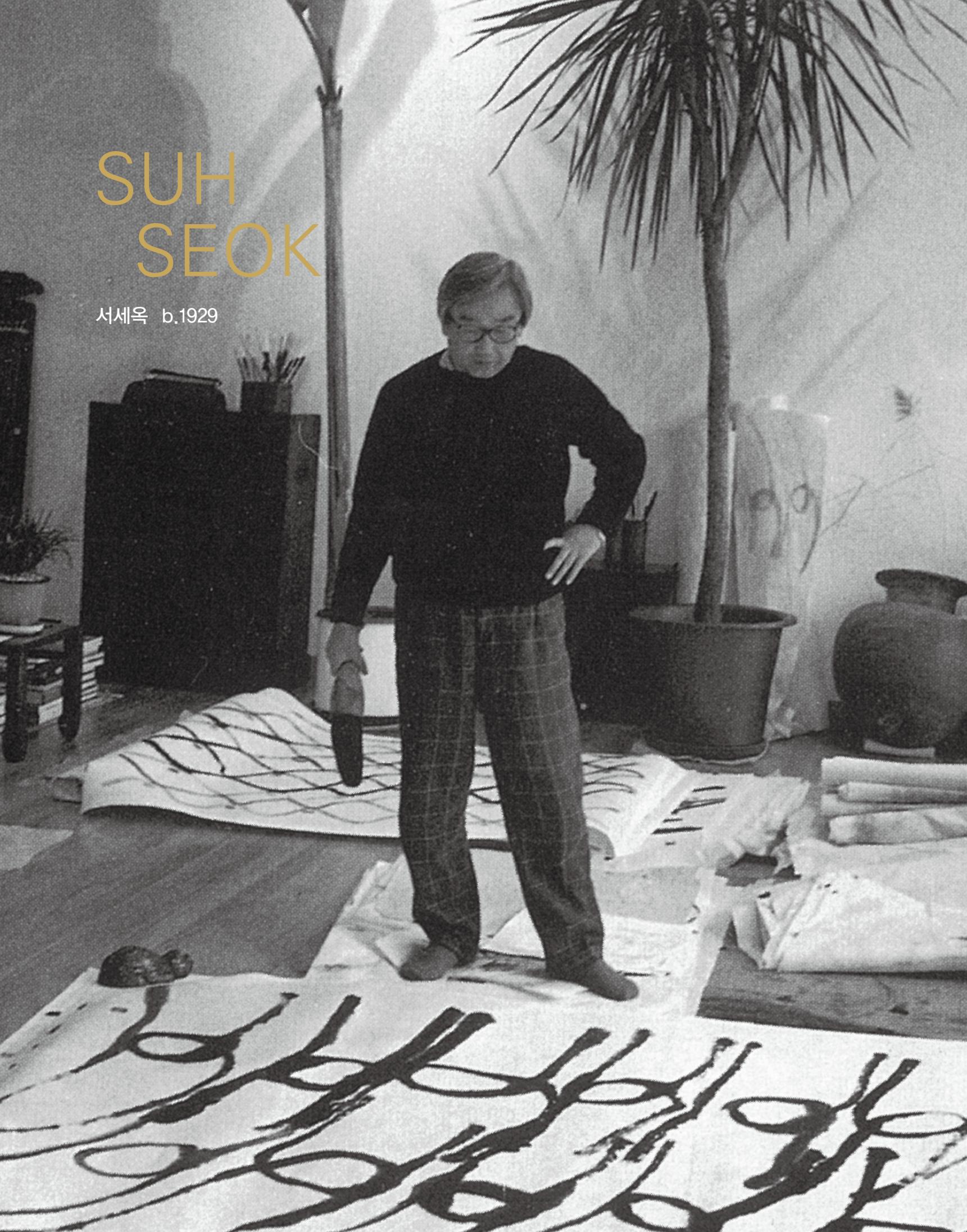
USD 141,000 - 352,000

HKD 1,100,000 - 2,760,000



SUH SEOK

서세옥 b.1929



‘사람이 재미있다. 외톨이기도하고, 무리지어 살기도 한다. 기뻐서 뛰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은가. 40여 년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려갈거다. 그래도 한번 그린 사람의 형태는 반복되지 않는다.’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 프랑스 미술평론가)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서세옥은 정통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회화를 시도하였다.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추상성과 단순성을 토대로 현대적 동양화를 개척했으며, 사람들의 모습을 높은 조형성으로 그려내 인간의 본질을 승화하였다고 평가 받는다.

1970년대 말 서세옥은 ‘인간’이라는 주제로 첫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점차 태초의 사람, 즉 인간의 본질을 표상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대표작 〈사람들〉 연작은 몇 개의 단순한 선으로 사람의 형상이 표현되었는데, 험축적이고 단순화된 인간의 형상과 묵법의 기운은 산정 특유의 공간구성을 보여준다(참고도판 1). 마디 마디로 분절되는 선과 선의 이음, 그리고 절제된 점과 점의 반복은 일률적이거나 일률적이지 않은 붓의 리듬이 된다. 이 리듬이 모이면 사람과 사람의 무리를 갖추게 되는데, 이는 정교히 계산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즉흥적인 붓질이 더해진 것으로 사람과 사람의 기운이 묵선 너머로 넘쳐나게 된다. 흐려지는 듯하다가도 짙어지고, 펼쳐지는 듯하다가도 수렴하는 반복안의 불규칙성, 이것이 바로 단순한 이미지의 패턴을 넘어서 흥겨운 리듬감을 형성하는 산정의 묘미라고 볼 수 있다(참고도판 2).

‘…작가 자신의 붓놀림의 흔적이자 인체를 그린 모습인 그 이미지는 주체의 분신이자 그가 대면하는 객체

의 상이다. 이러한 주객관계는 또한 인체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예컨대 그의 군상들에서 개개의 인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그 중 하나를 분리해낼 수 없다. 남의 몸이 곧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있는 이 형상들은 존재들의 연쇄 속에 있는 자아의 표상인 셈이다.’

윤난지 (미술평론가)

출품작 〈사람들〉에 나타난 산정의 사람들은 빠른 선들이 화면의 수평 수직으로 훑고 지나가는데, 작가의 힘찬 필력과 다채로운 먹의 농담으로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또한 선이 흘러가며 드러낸 사람의 모습은 그 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무위자연의 동양적 정신세계를 함축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대상을 그리지 않으면서 그려지는, 구상하지 않았으나 구성된 역설적 상황을 연출하며, 산정 본인만의 새로운 추상적 수묵회화를 구축하였다.

참고도판 1 〈Person〉, Ink on mulberry paper, 72.5 x 66cm, 1979

참고도판 2 〈People〉, Ink on mulberry paper, 163 x 132 cm, 1989

43

산정 서세옥 b.1929
Suh SeOk 山丁 徐世鉉

사람들 People

ink and color on paper
118x87cm, 46.5x34.3inch
signed on the lower center

KRW 28,000,000 - 80,000,000
USD 25,000 - 70,000
HKD 193,000 - 552,000

“나는 인간 형상을 다각적으로 표현해요. 외톨박이가 있고,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있죠.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는 모자상도, 어깨동무를 하거나, 서로 손잡고 춤추면서 환호하는 인간도 있어요. 수많은 인류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것이죠.”

서세옥



산정 서세옥 b.1929
Suh SeOk 山丁 徐世鈺

사람들 People

ink and color on paper
113×164cm, 44.5×64.6inch
2000
signed on the lower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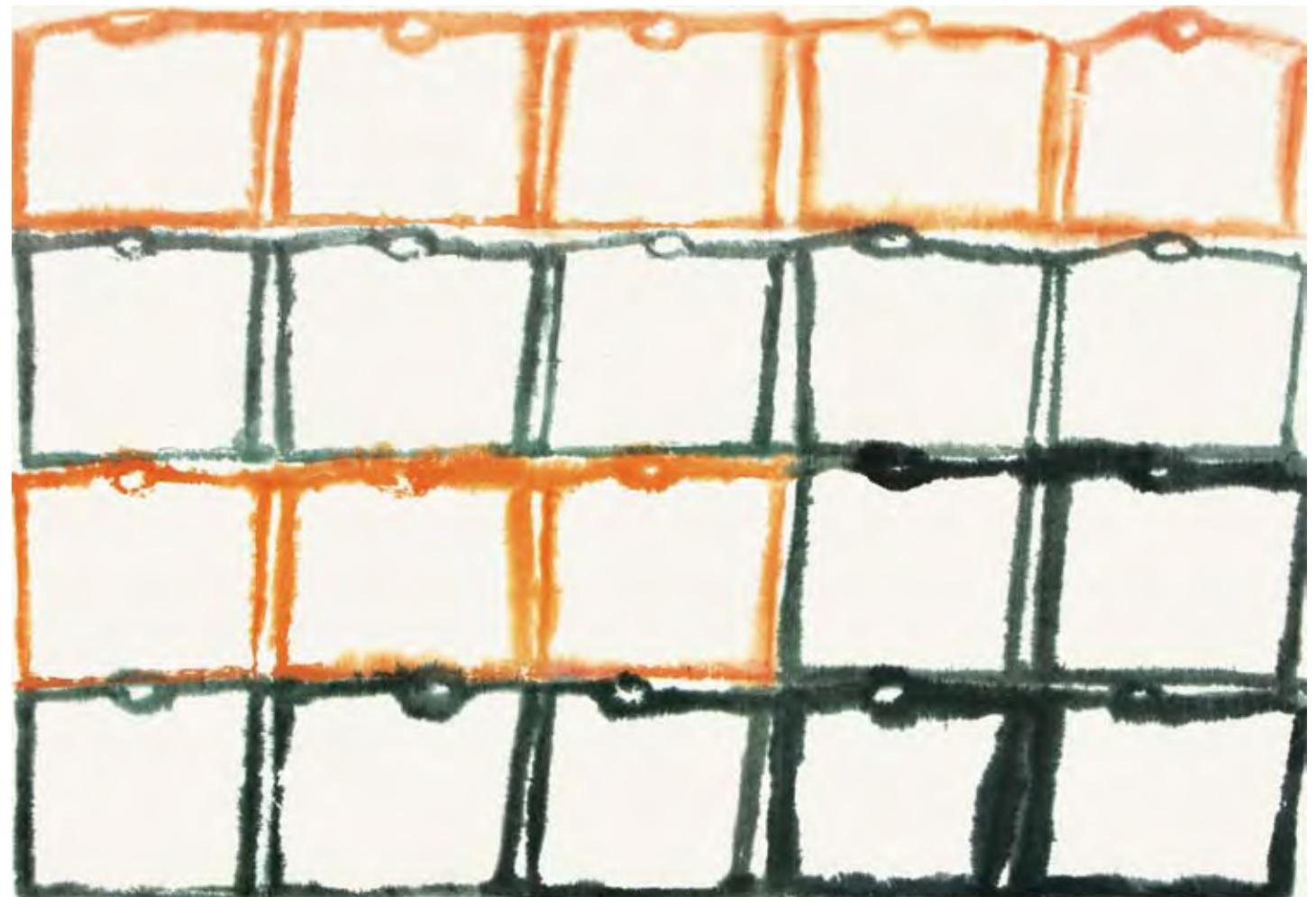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signed by the artist.

KRW 80,000,000 - 200,000,000

USD 70,000 - 176,000
HKD 552,000 - 1,380,000

“아무튼 나는 모든 인간, 거기에 국경이나 종족 따위는 아주 초월해버리는 인류라는 의미로 우리들의 모습을 무엇보다 즐겨 그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즐겁거나 슬프거나 무리지어 있거나 외톨박이거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한 텁줄 아닌가? 인류는 모두가 그 텁줄을 하나로 하고 있지 않은가? 많이 가진 사람. 굶주린 사람. 이들은 모두 우리 가족이 아닌가? 우리의 그림이란 말 표현은 그림자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 볼 때 참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와 내가 모두가 그림자… 그리고 보면 그림자들의 놀음판. 그래서 그 놀음판에서 그것들을 조명하면 역광으로, 실루엣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걸맞은 수묵이라는 매체를 통해 농담 표현만으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천의 얼굴, 만의 모습, 그 형태미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표현은 무궁무진해서 참 흥미롭습니다.”

서세옥



45

정창섭 1927 - 2011
Chung ChangSup 丁昌燮

묵고 No.99803 Meditation No.99803

tak fiber on cotton
200x100cm, 78.7x39.4inch
1999
signed on the re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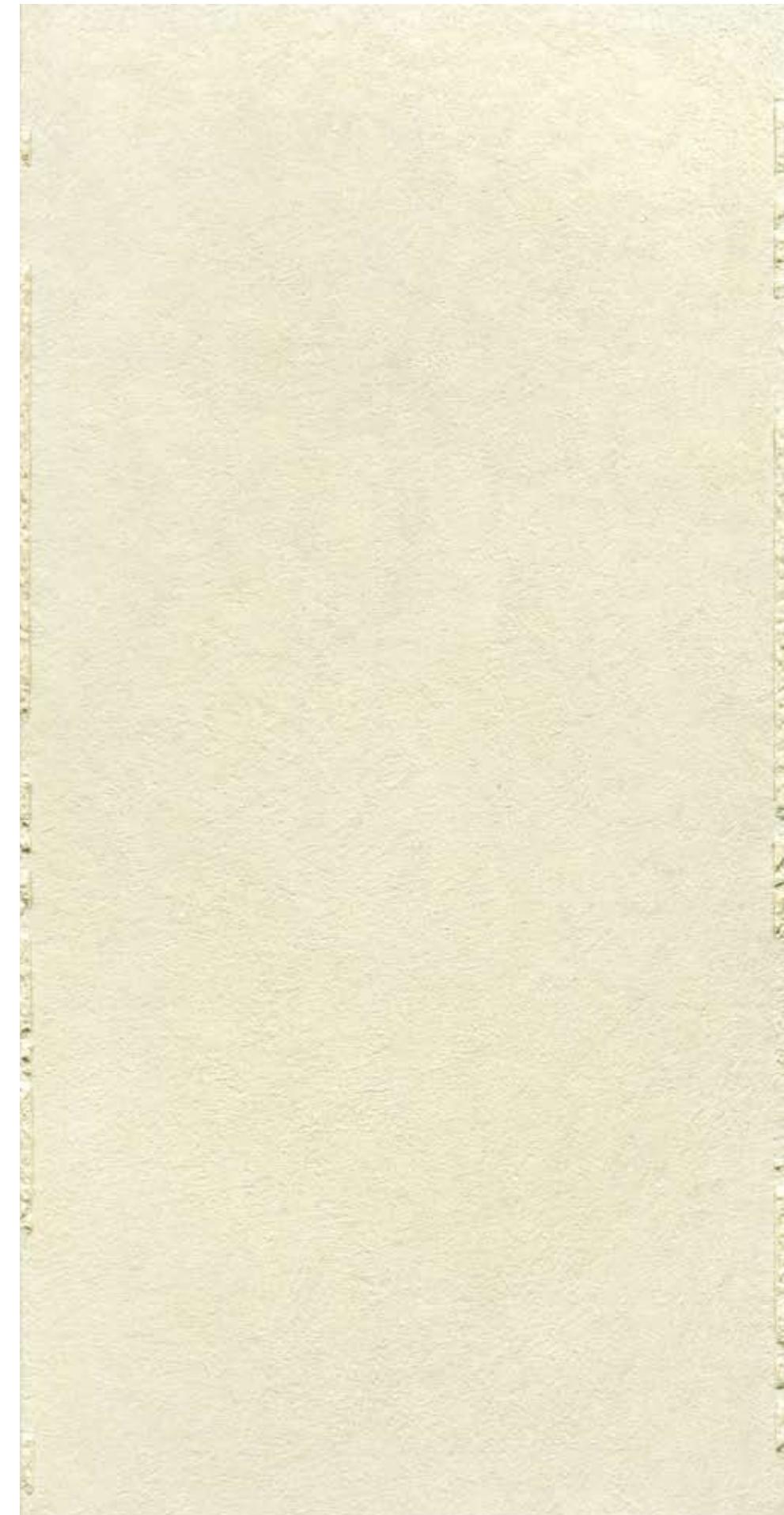
KRW 55,000,000 - 120,000,000

USD 48,000 - 106,000
HKD 379,000 - 828,000

“My work begins only once pre-existing methods, forms and norms have been totally eliminated. Just as an artisan reveals himself through his work, I reveal a world (the making of a painting) from which all (international) painting is absent, while appreciating the spiritual freedom linked to the abandoning of all knowledge, intentions, and memories of intentions, memories of my childhood and forgotten details. My hope and desire is that I will discover another me (through these activities).”

Chung ChangSup

默考
Meditation NO. 99803



하종현 b.1935
Ha ChongHyun 河鍾賢

접합 84-80 Conjunction 84-80

oil on hemp cloth
40x110cm, 15.7x43.3inch
1984
signed on the reverse

KRW 45,000,000 - 80,000,000
USD 40,000 - 70,000
HKD 310,000 - 552,000

“I had to approach the concept of painting the other way round. So I had to push the paint from the back of the woven burlap canvas against common sense. I had to make my canvas with burlap that used to be used to transport relief goods across war-stricken Korea as well as oil paint of the right viscosity in order to push the paint from behind. It all led to an unprecedented style”

Ha ChongHyun





47

정창섭 1927 - 2011
Chung ChangSup 丁昌燮

묵고 No.22305 Meditation No.22305

tak fiber on cotton
72.7×90.9cm (30), 28.6×35.8inch
2002
signed on the reverse

KRW 30,000,000 - 50,000,000
USD 26,000 - 44,000
HKD 207,000 - 345,000

丁昌燮 CHUNG, CHANG-SUP 默考 Meditation No.22305 91×73cm · TAK Fiber on Cotton · 2002



48

하종현 b.1935
Ha ChongHyun 河鍾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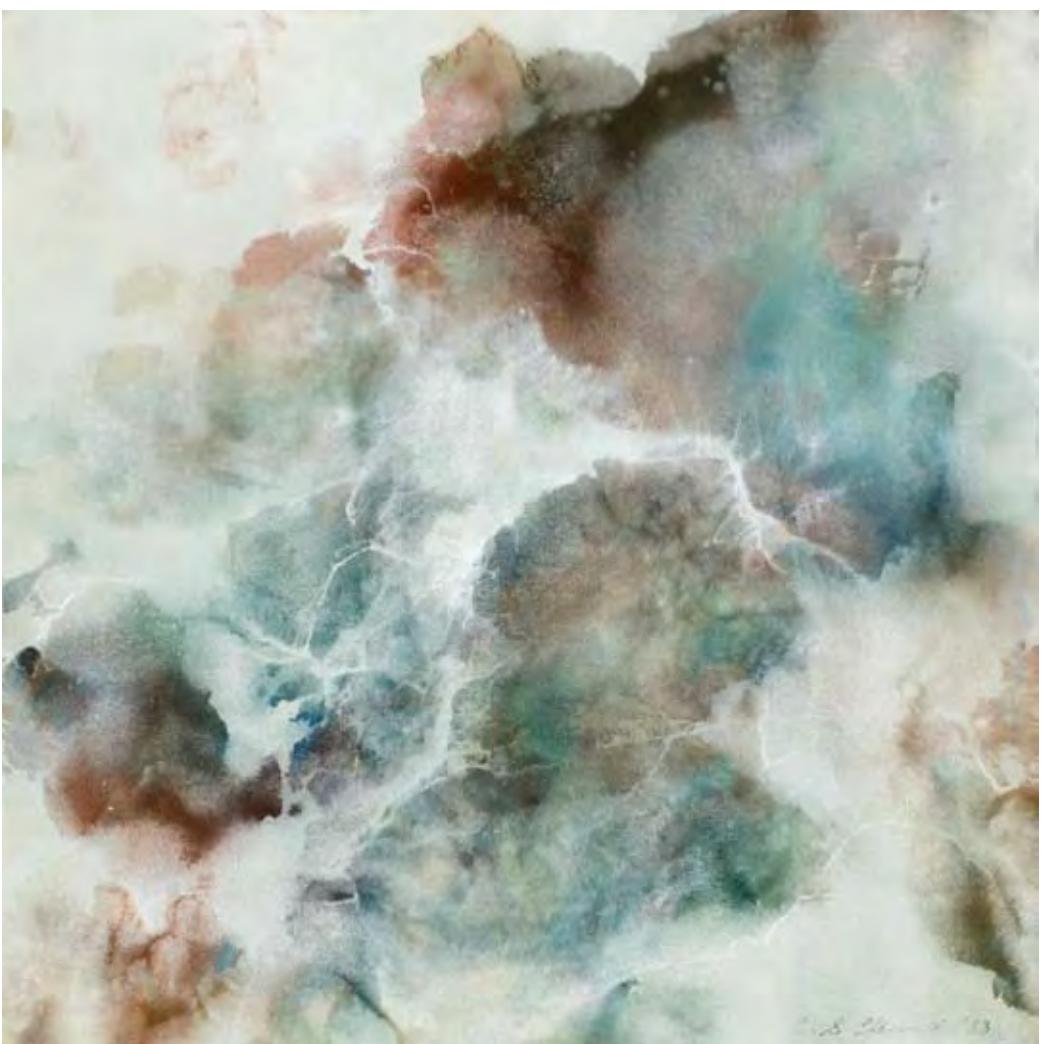
접합 91-57 Conjunction 91-57

oil on hemp cloth
80.3×100cm (40), 31.6×39.4inch
1991
signed on the reverse

KRW 38,000,000 - 80,000,000
USD 33,000 - 70,000
HKD 262,000 - 552,000

河鍾賢作
「接合 91-57」 1991年作
HA, CHONG-HYUN
「CONJUNCTION 91-57」

LITERATURE
『HA, CHONG-HYUN』, Kamakura Gallery, 1994, p. 19
『Ha Chong-Hyun』, Misoolsarang Publications Inc., 2001, p. 63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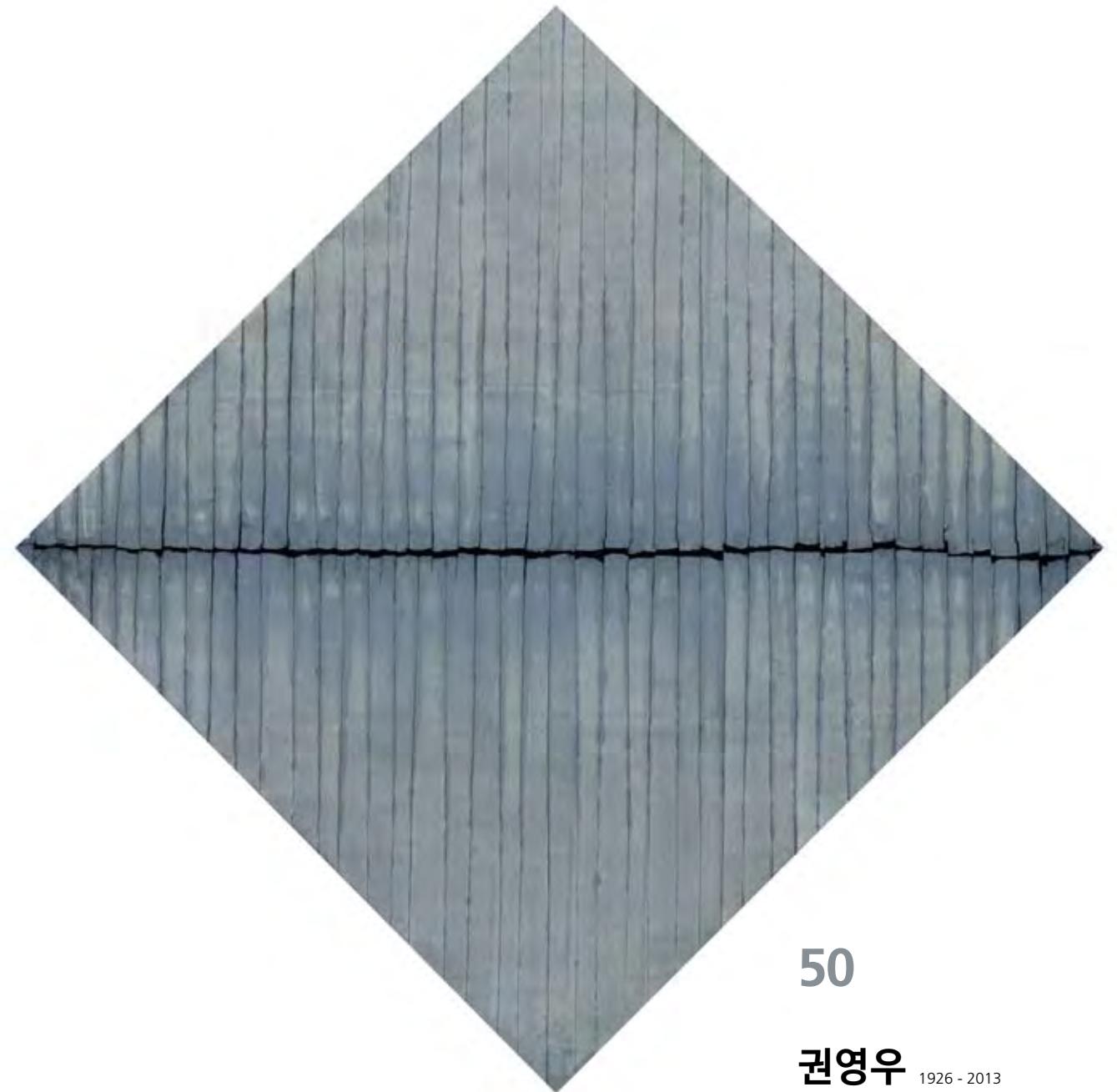
정창섭 1927 - 2011
Chung ChangSup 丁昌燮

심문 The Ripples in the Heart

oil on canvas
80x80cm, 31.5x31.5inch
1983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18,000,000 - 50,000,000
USD 16,000 - 44,000
HKD 124,000 - 345,000

希望 心紋
金鍾殷 博士 情鑑
一九八三年六月
丁昌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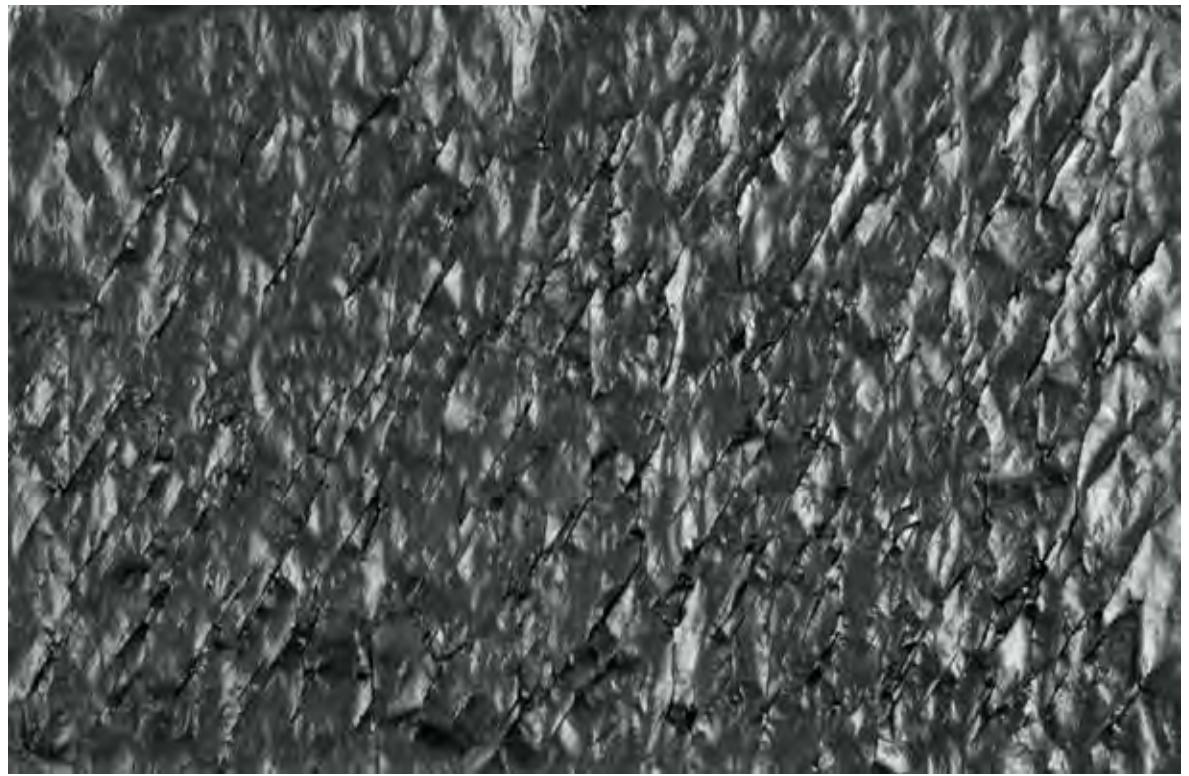
50

권영우 1926 - 2013
Kwon YoungWoo 權寧禹

무제 Untitled

gouache on paper laid on canvas
87x87cm, 34.3x34.3inch
signed on the lower center

KRW 34,000,000 - 70,000,000
USD 30,000 - 62,000
HKD 234,000 - 48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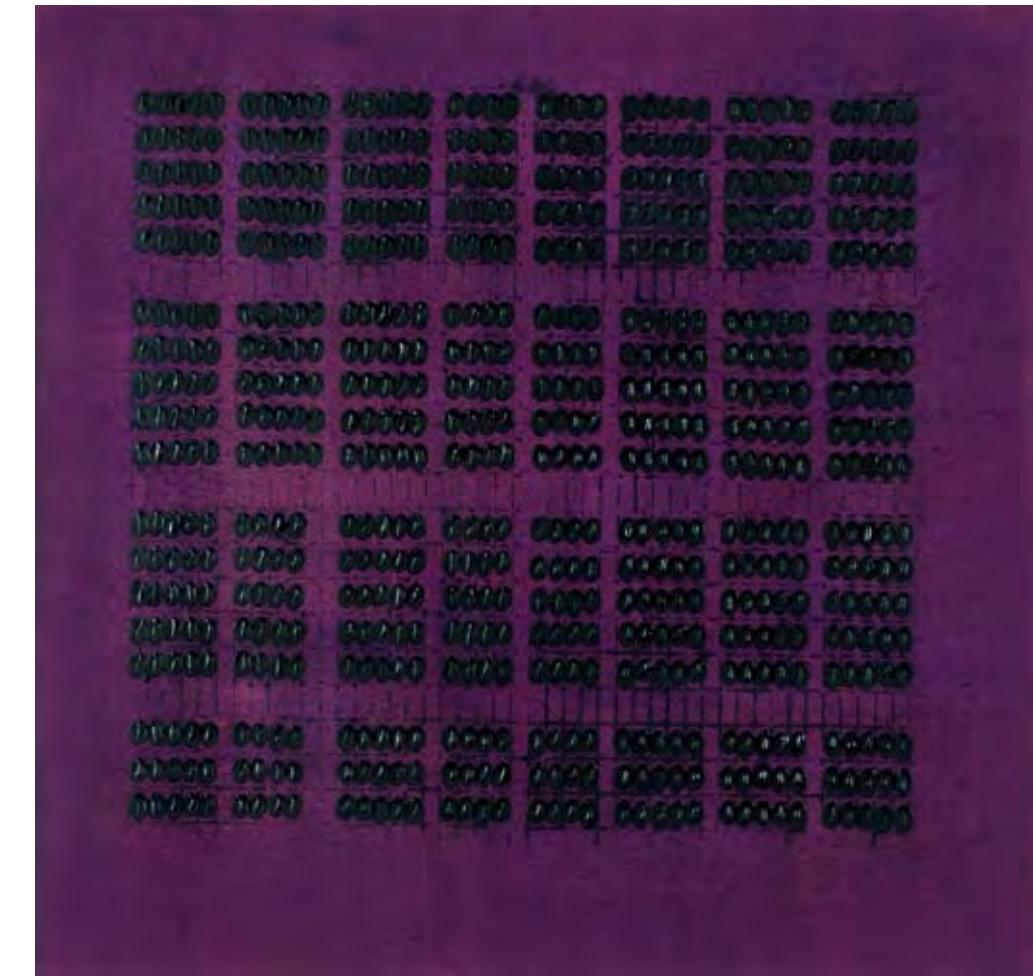
51

최병소 b. 1943
Choi ByungSo 崔秉昭

무제 Untitled

ballpoint pen and pencil on newspaper
53x83cm, 20.9x32.7inch
2006
signed on the reverse

KRW 10,000,000 - 20,000,000
USD 9,000 - 18,000
HKD 69,000 - 13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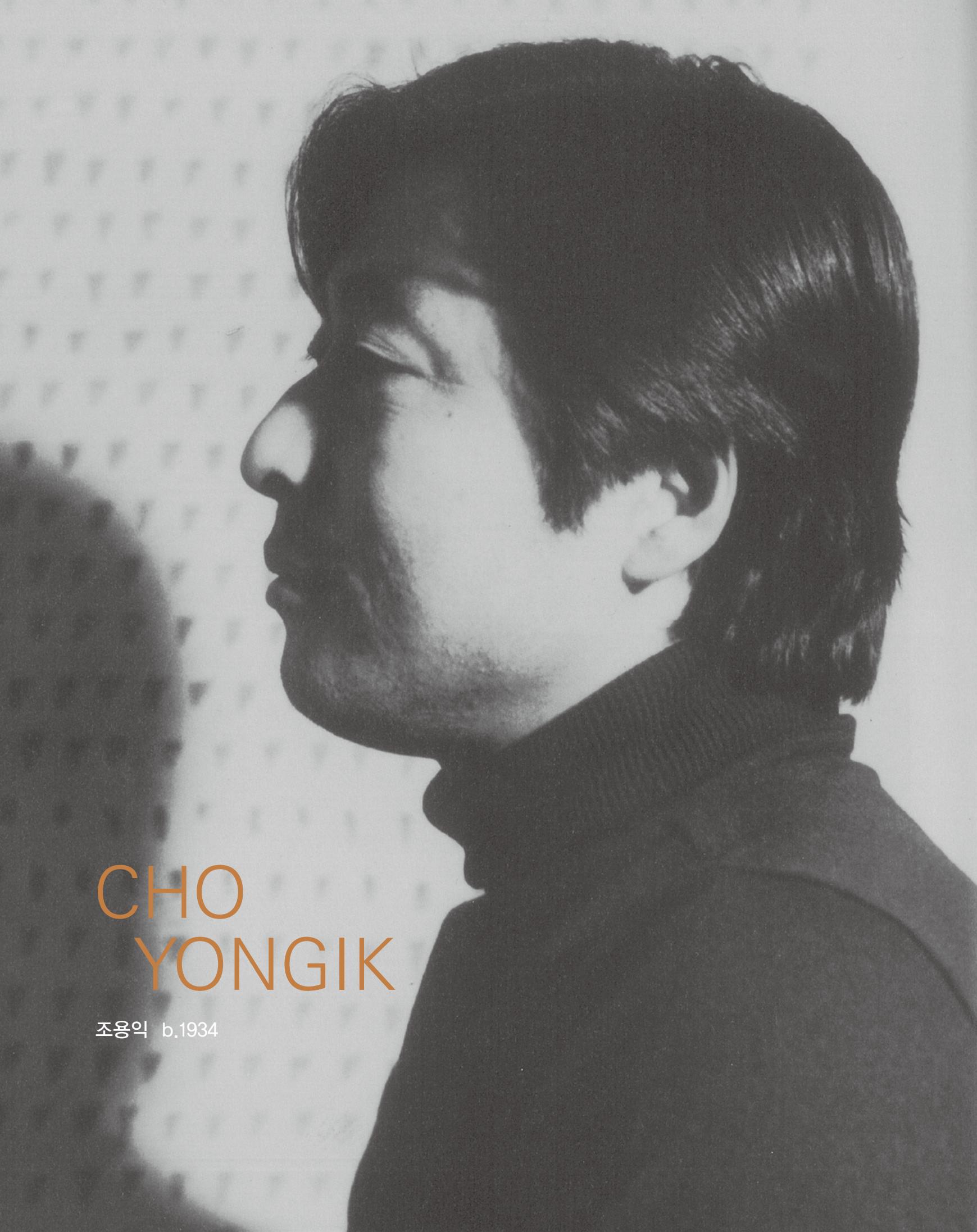


52

김기린 b.1936
Kim GuiLine 金麒麟

안과 밖 Inside, Outside
oil on paper
71x73cm, 28x28.7inch
2001
signed and sealed on the reverse

KRW 12,000,000 - 25,000,000
USD 11,000 - 22,000
HKD 83,000 - 172,000



CHO YONGIK

조용익 b.1934

조용익은 한국 단색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높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우환, 박서보 등과 함께 한국 현대 추상 회화를 이끌었던 단색화의 주역이지만 조용익은 아직 대중에게 낯선 작가이기도 하다. 2000년대 중반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가 종종으로 10여 년간의 오랜 투병생활을 하게 된 까닭이다.

신라 토기와 조선백자에서 영향을 받은 조용익의 화풍은 '지움의 비움' 미학으로 대변된다. "달향아리 혹은 오지 질그릇은 늘 미완(未完)의 대기(大器)이다. 조선의 그릇은 늘 그렇게 비움의 미학을 통해 전수되어 왔다. 그것은 채워질 날을 기대하지만 그 채움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가득함, 즉 충만은 비움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의 말은 조용익의 작품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단색화에 들어선 그는 단색 바탕을 손가락이나 나이프 등으로 지워내는 작업방식을 취한다. 유사한 형태의 흔적을 남기며 비움의 동양철학을 다루는 것은 다른 단색화 작가들과 조용익 화백의 차별점이다. 그의 작업은 시기별로 다양한 패턴을 형성했는데 이번 경매에서는 조용익의 1970년대 작품을 볼 수 있다. 1970년대의 짧은 터치<점화(點畫)>가 1980년대로 넘어가서는 긴 폭의 물결로 바뀌면서 화면은 더욱 리드미컬해진다. 이후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며 화면에 자취를 남기거나 바탕을 덜어내는 형태로 조용익만의 단색화 영역을 구축해나갔다.

참고문헌

『조용익 지움의 비움』 J&S international art project, 2016

"I don't intend for audiences to feel the exact same way that I do about it, but of course I hope that I can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hrough my work and if they feel what I'm trying to show, then I appreciate that. But I don't want to restrict audiences' feelings toward my work. Whatever they feel, that's up to them. I don't intend or force anybody to feel the same way. It has to be independent on both sides."

Cho Yongik

“我開始繪畫創作的契機可能就是翻看那些新羅陶器和韓國白瓷的相關畫冊，月亮罐或陶瓦罐一直都是不完整的大作。韓國的瓷盤總是呈現出空白的美感，彷彿等待著被填滿的那一天卻終究未能實現。我認為充盈，也就是充滿指的就是空白的整體……”

“到了這一時期(波浪時期，1980年代)，作為其第一期特征之一的——多種色彩的運用開始消失不見，取而代之的是普遍採用駝色、褐色、淺黃色、棕色等暖色系中性色，運筆幅度也逐漸增大。其形態好似將大碗倒扣過來的形式，又好似蓋著寬大面紗的玉米葉呈現出機具節奏感且又不斷重複的波浪。單色畫的特征就是行為的不斷重複，畫家不斷地重複突出的同時又進行擦除，以此來真正呈現出留在畫面上的‘擦除與空白’的美學。波浪系列作品中所彰顯的元素是呼吸。只有每一筆每一劃都不加任何修飾得安置在畫面上才算得上是作品的完成。由之前點畫中如同斷奏式短促跳音的節奏轉換為長篇的節奏，同時也使得畫面更加具備戲劇性。”

尹晋燮

53

조용익 b.1934
Cho YongIk 趙容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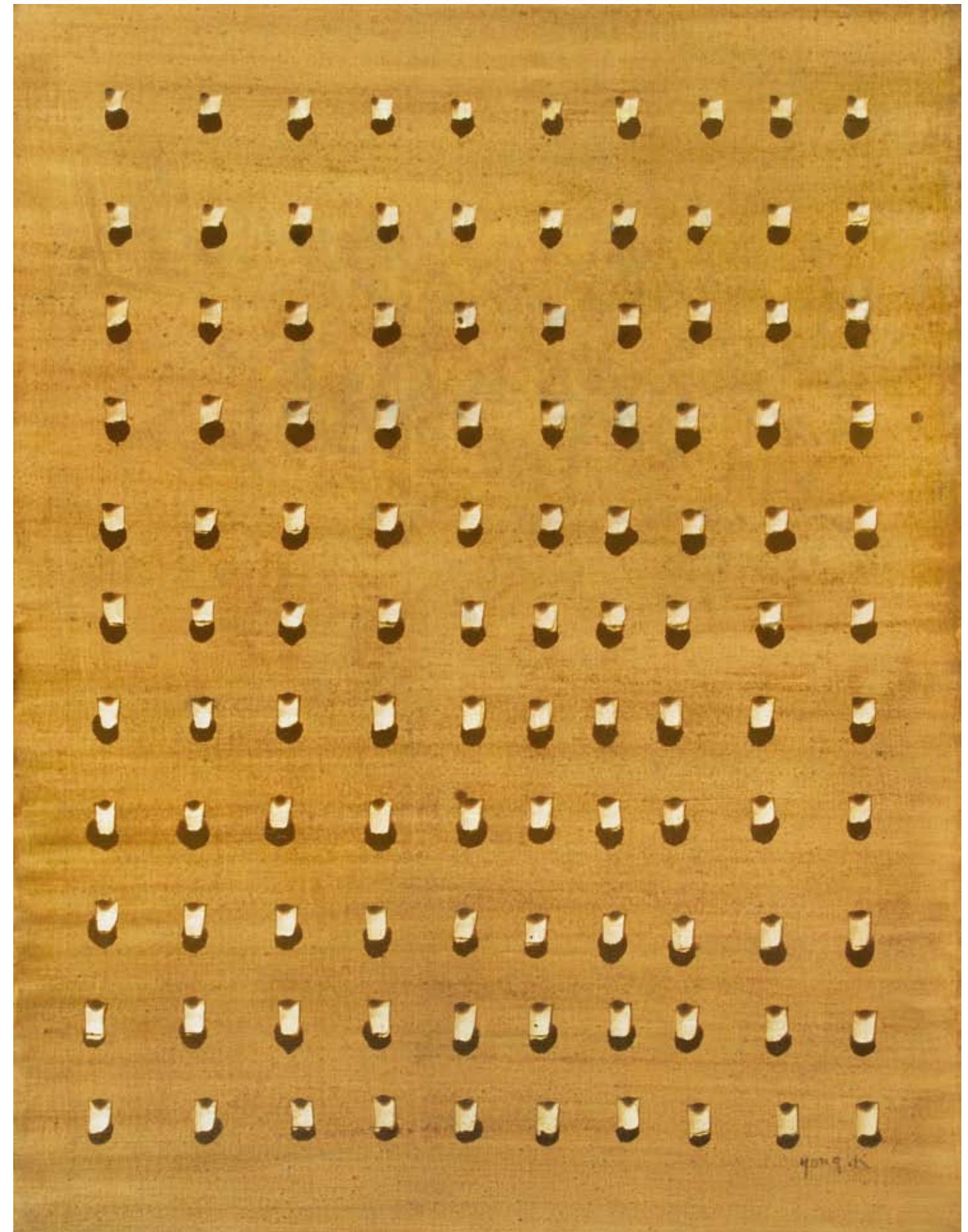
작품 76-807 Work 76-807

oil on canvas
145.5×112.1cm (80), 57.3×44.1inch
1976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60,000,000 - 100,000,000
USD 53,000 - 88,000
HKD 414,000 - 690,000

‘물감을 머금은 화필이 캔버스에 와 닿는 강약에 따라 화면에 다양한 리듬이 태어나며, 그 리듬이 화면 전체의 특이한 공간을 형성한다. 따라서 조용익의 경우, 붓 자국에 의한 리드미컬한 공간이 곧 화면을 이루며 동시에 붓 자국의 흔적들이 대개의 경우 바탕의 평면 속에 고루 통합되어 균일 색면의 효과를 낳고 있다.’

이 일 (미술평론가)



신성희 1948 - 2009
Shin SungHy 申成熙

공간별곡 Peinture Spati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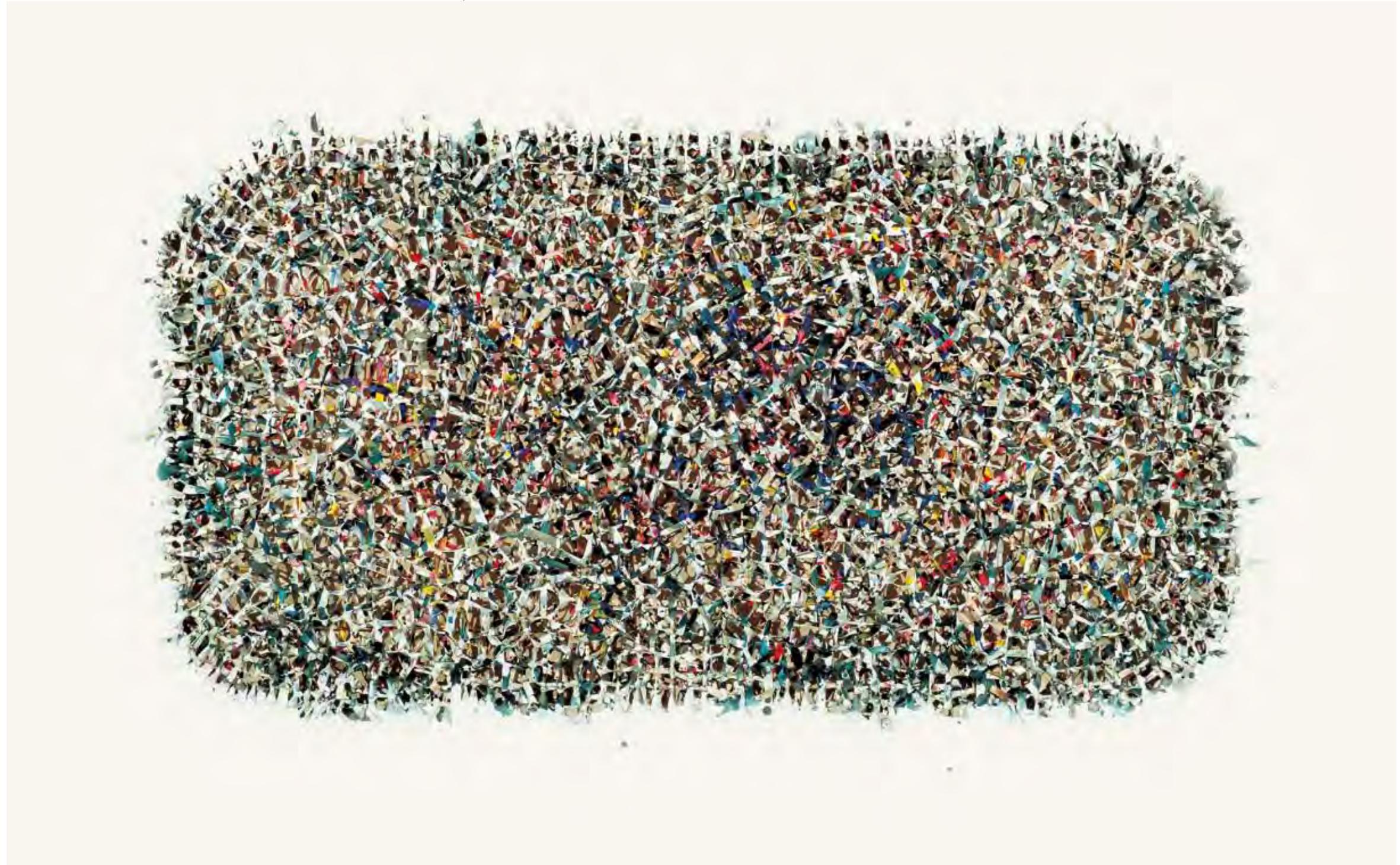
acrylic and mixed media on canvas
162.1×259.1cm (200), 63.8×102inch
2002
signed on the side

KRW 30,000,000 - 100,000,000
USD 26,000 - 88,000
HKD 207,000 - 690,000

“나와 너, 물질과 정신, 긍정과 부정, 변종의 대립을 통합하는 시각적 언어이다. 색의 점, 선, 면, 입체가 공간의 부피 안에서 종합된 사고로 증명하는 작업, 평면은 평면답고, 입체는 입체답고, 공간은 공간다운 화면에서 일하기 위하여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

신성희

뉴욕 허튼 갤러리, 취리히 푸아르타 갤러리, 파리 보두앵 르봉 갤러리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신성희 작가는 1997년부터 타계하기 전까지 누아주(nouage)를 주제로 작업했다. 불어로 “맺기, 잇기”의 뜻을 가진 ‘누아주’는, 캔버스 화면을 그림 띠들로 묶고 매듭지어 입체화시킨 단계를 지칭한다. 〈결합 Entrelacs〉, 〈공간을 향하여 Vers Un Espace〉, 〈공간별곡 Peinture Spatiale〉 등의 시리즈 제목으로 발표된 ‘누아주’ 연작은 묶인 색 띠 매듭과 그 사이사이 구멍들로 구성된 그물망이자, 질감 있는 부조로서 회화의 평면성을 탈피한다. 색 띠 선묘가 면을 만들고 그 면이 질감을 획득하면서 선, 면, 입체가 공존하는 회화적 조각, 또는 조각적 회화로 존립하는 것이다.



55

서승원 b.1941
Suh SeungWon 徐承元

동시성 14-722 Simultaneity 14-722

acrylic on canvas
130.3×162.2cm (100), 51.3×63.9inch
2014
signed on the reverse

KRW 50,000,000 - 100,000,000
USD 44,000 - 88,000
HKD 345,000 - 690,000

‘스스로를 개방하고 여백의 공간과 상호침투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네모꼴의 면과 바탕을 동질적인 평면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그의 회화는 보다 자유롭고 확산적인 공간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확산적인 공간이 여태까지의 서승원의 작품에 지녀 왔던 모더니즘적인 '탈회화 脫繪畫'의 규정적 규칙성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된 회화적 감성이 은은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일 (미술 평론가)



56

이영배(이배) b.1956

Lee Bae 李永培

05J2004

acrylic medium, charcoal black on canvas
162.2×130.3cm (100), 63.9×51.3inch

2004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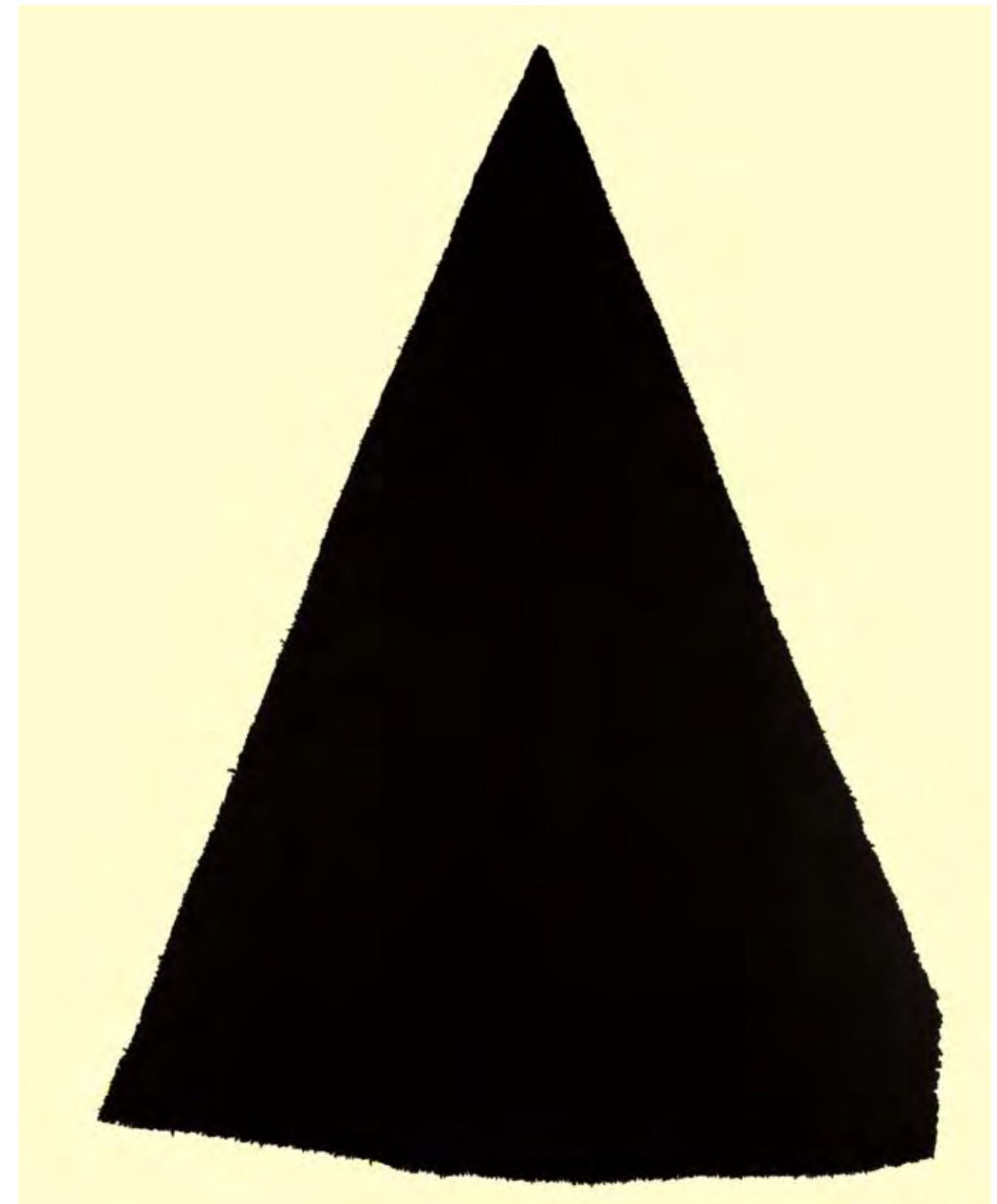
KRW 28,000,000 - 60,000,000

USD 25,000 - 53,000

HKD 193,000 - 414,000

LITERATURE

『Lee Bae』, Hakgojae, 2006, pp. 62~63



전광영 b.1944
Chun KwangYoung 全光榮

집합 12-JA006 Blue&Red Aggregation 12-JA006 Blue&Red

mixed media on Korean mulberry paper
130.3×162.2cm (100), 51.3×63.9inch
2012
signed on the reverse

KRW 52,000,000 - 100,000,000
USD 46,000 - 88,000
HKD 359,000 - 690,000

크고 작은 삼각형의 한지로 구성된 전광영의 〈집합〉 연작은 1995년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용되는 한지는 고서(古書)에서 나온 것으로, 주로 삼각의 스티로폼에 둘러 접어서 포장을 하거나 둘둘 말아 끈으로 묶어둔다. 여기에 핀셋으로 하나씩 고정하여 완성된 한지 조형물은 회화와 부조의 접목이자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땀이 깃든 삶의 응축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때로는 출품작과 같이 그는 웜푹 파인 웅덩이나 좁게 패인 골로 작품에 변화를 주었다. 험몰된 분화구는 현대인의 상처받은 내면을, 푸른색과 붉은색은 메마른 영혼에 희망적인 메시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출된 평면 속의 공간감은 한지의 명상적 향토색에서 초기 추상작업에서 보여주었던 빛과 색을 더해 '집합'의 세계를 다시금 풀어냈다.



58

전광영 b.1944
Chun KwangYoung 全光榮

집합 03-M123 Aggregation 03-M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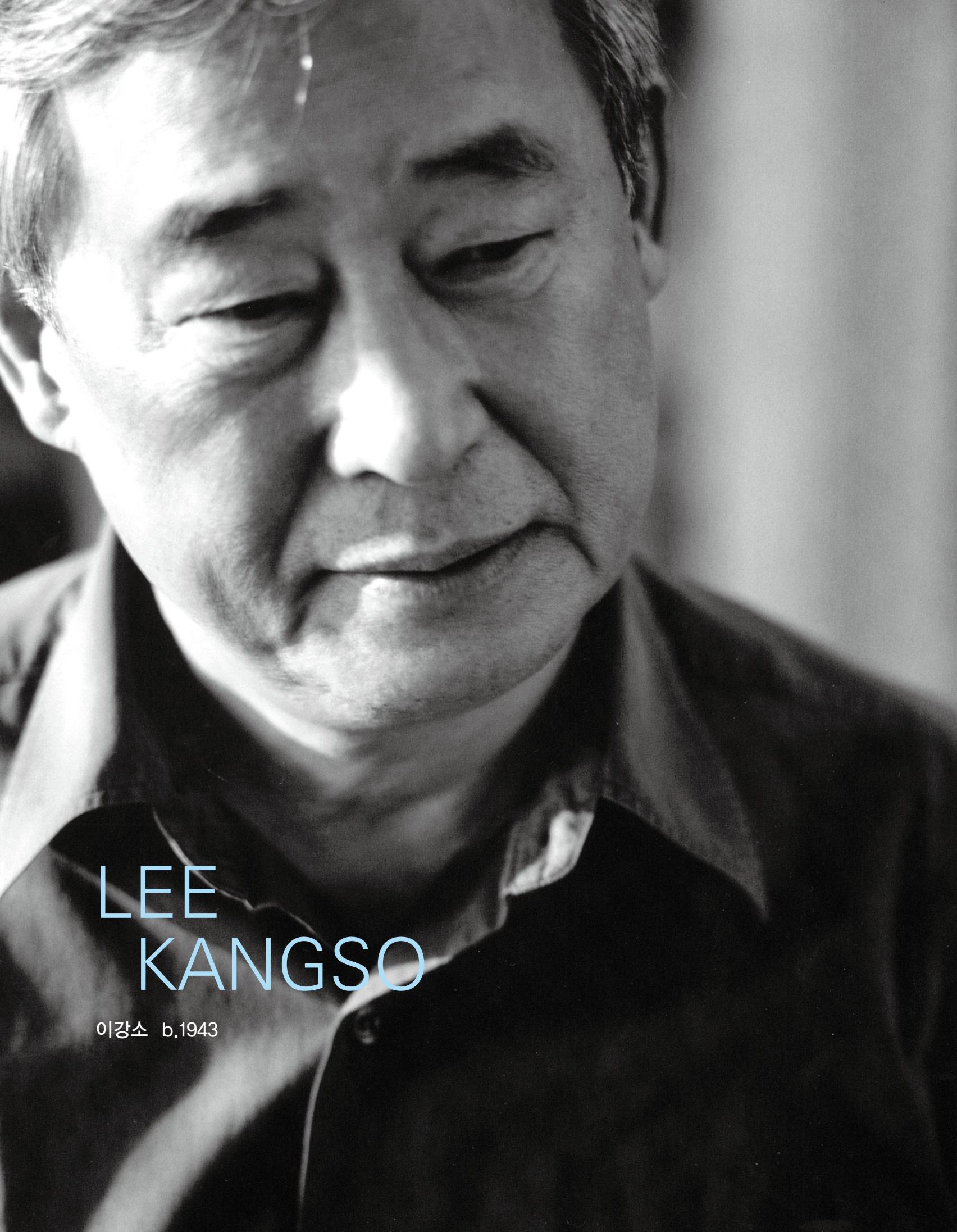
mixed media on Korean mulberry paper
112.1×162.2cm (100), 44.1×63.9inch
2003

KRW 45,000,000 - 1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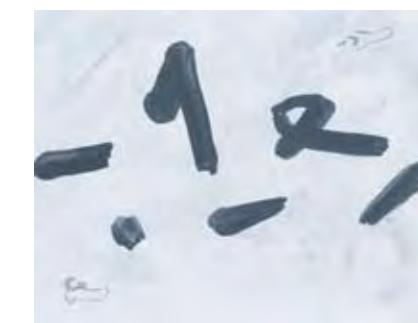
USD 40,000 - 88,000

HKD 310,000 - 6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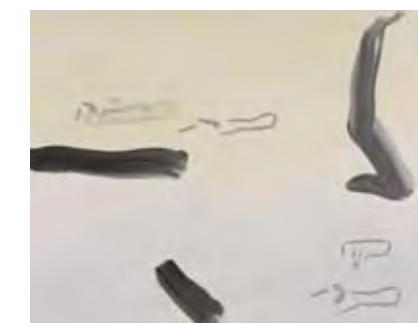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공기를 표현하고 싶다. 나와 대상 사이의 공기를.”

이강소

오리라는 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실험적 작품을 낳은 화가 이강소는 전통적 회화기법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미하여 늘 새로운 작품세계를 추구했다. 무채색에 가까운 색조만을 사용하면서 한 획을 아끼고 여백을 강조하는 그의 작품은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단조롭고도 때로는 복잡한 몇 획의 봇질은 오리와 같은 대상에 숨을 불어넣고, 획의 리듬이 화면 전체를 공명시키면서 여백은 자욱한 안개나 수면이 된다 (참고도판 1). 이러한 맥락에서 캔버스는 무한한 공간으로 변화한다. 이강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서정성을 질서와 균형 안에서 표현해내며 애써 채워 넣거나 그리려 하지 않는 동양적 미덕을 그대로 표출해내고 있다.

거기에 새롭고 다양한 필체를 가미하여 독자적인 미를 그려내었으며 미니멀리즘과 여백으로 표현된 그의 작품에서 안개에 싸인 듯한 고요함과 신비함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생명력과 양재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자연의 요소들과 부딪히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그의 그림은 추상화와 풍경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참고도판 2, 3). 그의 작품에서 가장 동양적인 면은 서양 회화에서와 같이 전체를 한눈에 보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마치 동양의 산수화처럼 시간을 가지고 보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즉 그림을 보는 사람이 한

부분을 보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서, 작품 속에 들어가 시상을 느끼고 참여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화가가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린 그 과정을 느끼며, 채색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들어나는 형상과 봇의 터치 등 의 예상치 못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주관을 강조하기보다는 보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연상을 유도하고 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완성시키는 그러한 통로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것은 마치 전통 산수화에서 변화무쌍하고 거대한 자연을 도저히 한 눈에 볼 수 없으므로 그림 속에 들어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다시 점을 통해 감상하는 구성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의 40여 년 화력에서, 이와 같은 1985년부터 최근까지의 회화작업은 한국 특유의 표현적 회화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는 현대미술의 중요한 화두인 '이미지와 실재'의 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이었다. 작가는 '그린다'는 행위를 부각함으로써 오리 등 작품에 등장하는 도상에 대한 고정적인 정의를 거부하며 이미지를 유동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미지와 이미지의 부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선한 파동은 관람객에게 무한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문헌

『이강소 1989-2009』, 갤러리현대, 2009

참고도판 1 〈Untitled - 90061〉, oil on canvas, 130.3x162cm (100호), 1990

참고도판 2 〈Emptiness - 09247〉, acrylic on canvas, 181.8x227.3cm (150호), 2009

참고도판 3 〈From an Island - 06083〉, oil on canvas, 130.3x162cm (100호), 2006

이강소 b.1943
Lee KangSo 李康昭

From an Island-99027

oil on canvas
130.3×162.2cm (100), 51.3×63.9inch
1999
signed on the side and reverse

KRW 40,000,000 - 150,000,000
USD 35,000 - 132,000
HKD 276,000 - 1,030,000

“내 그림의 표현은 내가 흥분해서 그린 희로애락이 아니다. 감정을 자제해 희로애락을 없앤 상태에서의, 그냥 즉각적인 제스처다.”

이강소

이강소는 1970년대부터 회화, 판화, 입체,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작업활동을 선보였다. 198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최근까지의 작업은 주로 평면작업에 집중하였으며 근래에 들어서도 사진, 세라믹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실험활동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강소 작가는 이상적이고 논리적인 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오리, 배, 사슴 등의 형상은 적극적인 사고를 배제한 자연스러운 감각과 호흡에 따라 만들어진다. 화폭 위에는 그저 봇과 안료와 캔버스가 서로 만나 비비고 밀리고 섞이는 물질의 빽빽함과 성김 그리고 엉킴이 만들어내는 형식만이 존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오리 등의 형상은 더는 오리로 인식될 필요가 없다. 그곳에는 존재하는 어떤 이미지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Lee Kang So 1989-2009』 갤러리 현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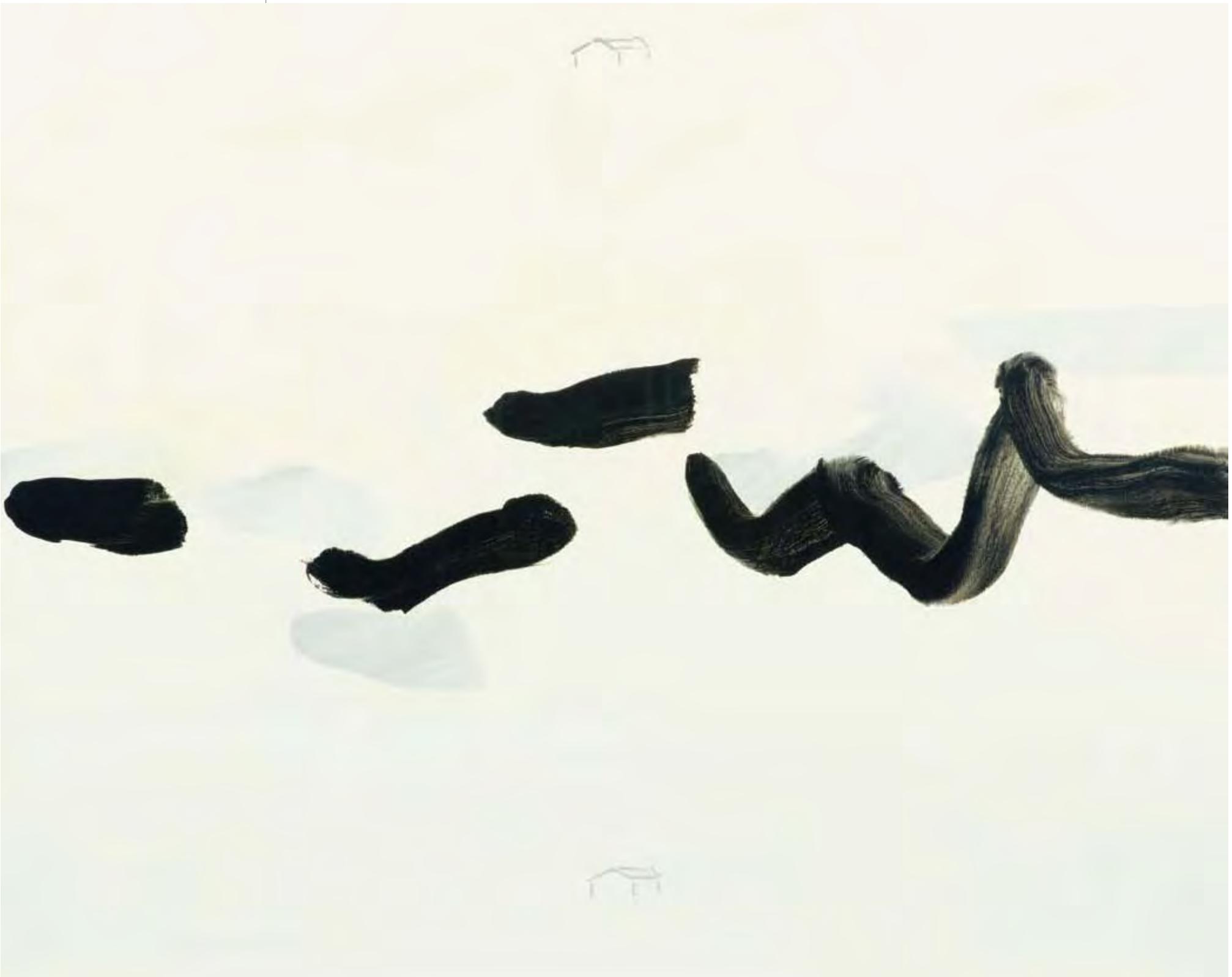
60

이강소 b.1943
Lee KangSo 李康昭

From an Island-06081

acrylic on canvas
181.8×227.3cm (150), 71.6×89.5inch
2006
signed on the side and reverse

KRW 48,000,000 - 150,000,000
USD 42,000 - 132,000
HKD 331,000 - 1,030,000



오치균 b.1956
Oh ChiGyun 吳治均

산 속 마을 Village in the Mountain

acrylic on canvas
100×100cm, 39.4×39.4inch
2007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60,000,000 - 90,000,000

USD 53,000 - 79,000
HKD 414,000 - 621,000

EXHIBITED

Seoul, Gallery Hyundai, Oh ChiGyun-Azaleas and Winter in Sabuk, September 2007

LITERATURE

『Oh ChiGyun-Sabuk』, Treebook, 2007, p. 49
『Oh ChiGyun-Azaleas and Winter in Sabuk』, Gallery Hyundai, 2007, no. 19
『Oh ChiGyun's Painting World Kim Woo Chang and Kim Hoon』, 2008, p. 210

오치균의 집요한 '사북 사랑'은 탄광촌의 잿빛 어둠의 땅에서 건강한 생명의 빛을 채집해내는 것이었다. 지식과 이성을 무장해제하고, 의식 저 밑바닥에 흐르는 동물적인 감각 혹은 근원 충동으로 보고 느끼는 것(아름다움 혹은 진실)에 흠뻑 빠져 든 것이다. 말하자면 사상의 보편적 법칙에 따르는 로고스적 인식보다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대로 맡겨버리는 파토스적 정념이 강한 태도다. 파토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즐거움과 괴로움의 정서다. 원천적으로 인간의 삶의 그늘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서려 있는 기운을 끄집어낼 줄 아는 '심미적인 폐시미스트'다. 그는 불안과 외로움까지도 즐긴다.

김복기(煎 아트인컬처 대표)



오치균 b.1956
Oh ChiGyun 吳治均

민들레 Dandel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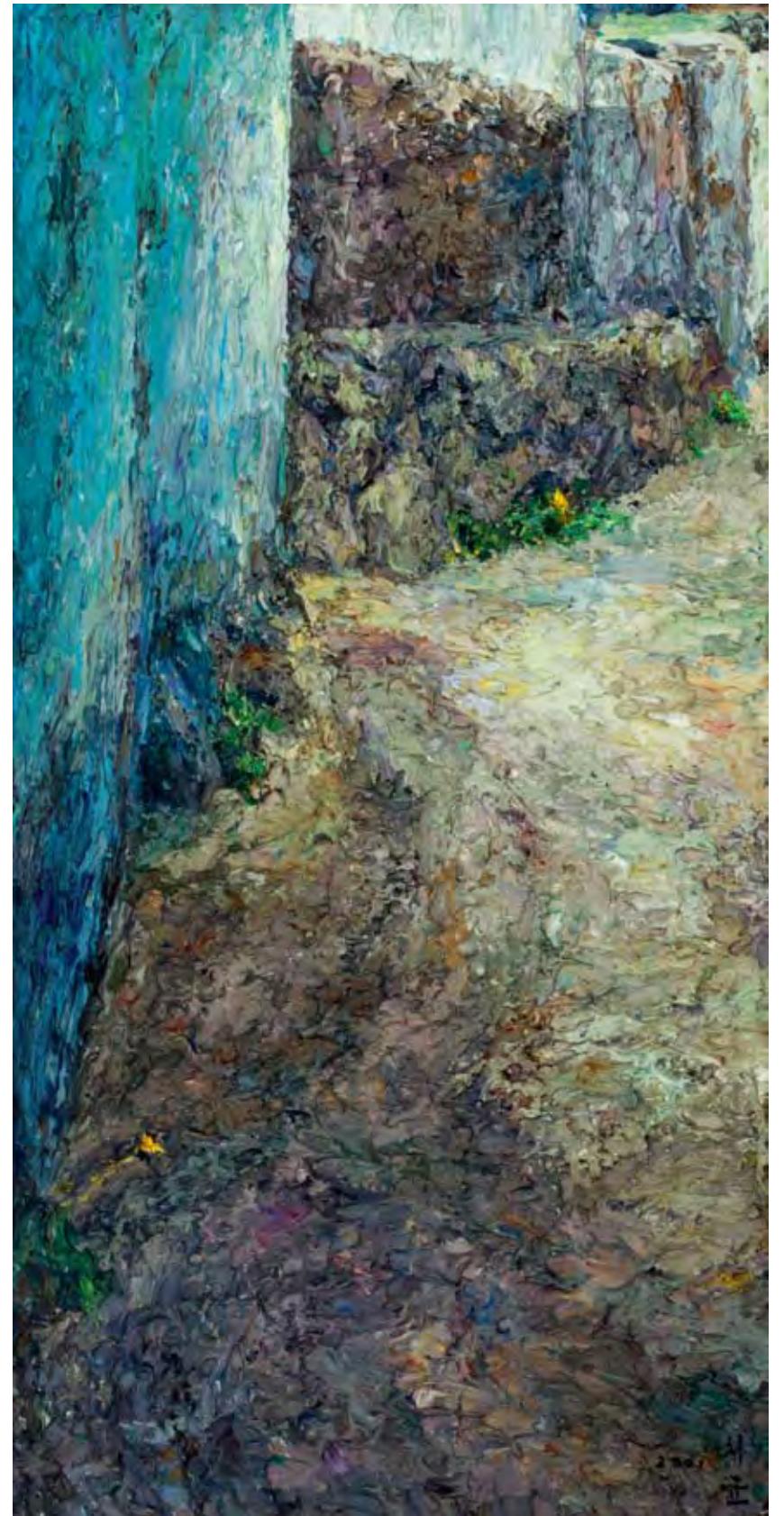
acrylic on canvas
85×45cm, 33.5×17.7inch
2001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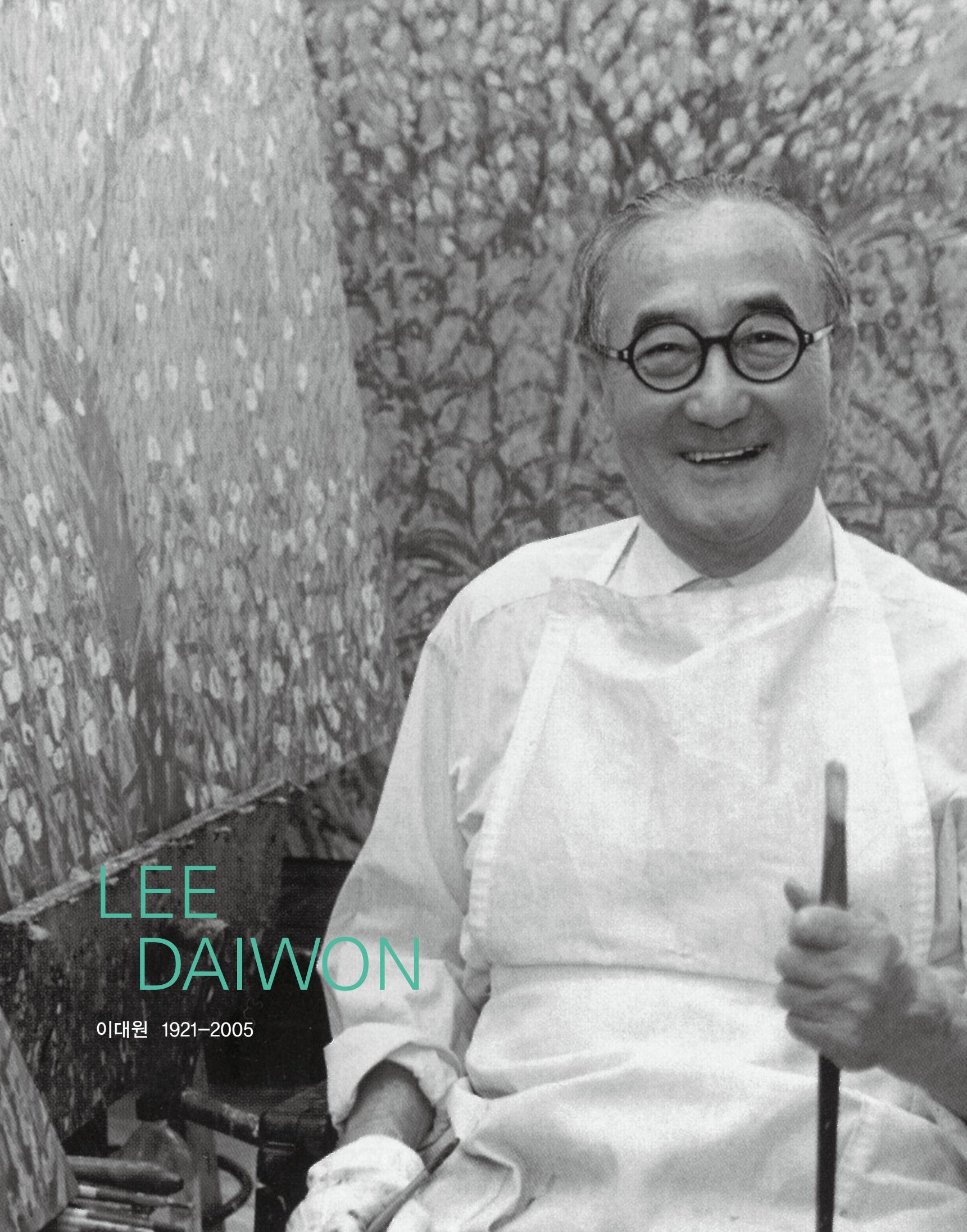
KRW 30,000,000 - 60,000,000

USD 26,000 - 53,000
HKD 207,000 - 414,000

‘오치균은 주로 풍경을 그린다. 작품에는 하늘의 구름, 나무와 관목, 끝이 보이지 않는 길, 도시의 거리, 작은 동네의 모습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형의 풍경들이 나타난다. 그는 대표적으로 뉴욕과 산타페, 한국의 서울과 사북을 반복적으로 그렸고, 각각의 장소는 다르더라도 작품에서 작가 특유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 나온다. 그의 풍경화에는 특이하게도 사람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마치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 훌로 나와 그린 듯이 인적이 드문 텅 빈 공간이 표현된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치균의 작품이 단순한 외부 세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풍경을 표현한 내면의 작업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리처드 바인 (Richard Vine, 미술평론가)





“이대원은 한국의 현대 화단에서 출중하고도 독창적인 인물이다. 그는 동시대 화가 중에서 서양미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며, 작품에는 그가 서양미술에서 발견한 기법과 영감이 담겨 있다. 이대원은 빛을 그린다기보다는 빛을 데생한다. 섬과 점의 조직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색채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낸다”

피에르 레스타니(Pierre Restany 프랑스 미술평론가)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참고도판 4

이대원의 작품은 화사하게 빛나는 색채의 향연이다. 원색과 보조색을 사용하는 색조판은 빛의 매혹감에 극치를 더하는 개성적인 표현으로, 빛발처럼 쏟아지는 색점과 색면 그리고 색선의 조화로 빛은 음률을 이룬다. 그 진원에는 오방색과 오방간색 그리고 필선에는 동양화의 준법이, 그리고 투시법을 사용하지 않은 대담한 구도에서는 수묵화의 영향이 느껴진다. 청전 이상범은 이런 이대원 작업에 대해 “이 그림은 서양화가 아니라 동양화야”라고 평했는데 이에 대해 작가는 미술대학이라는 정규교육 틀 바깥에 있었기에 자유분방한 화풍을 구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산 노수현에게 사군자와 서예에 배우기도 했던 이대원은 자유로운 봇 놀림 속에 묻어 나오는 필력과 화려함 속에 절제된 그의 색채감각, 그리고 동양화적 구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이 이대원의 초기 정물화나 풍경화 작품을 ‘유채로 그린 동양화’라는 느낌을 받게 만든다(참고도판 1, 2).

1950년대 후반부터 이대원의 예술은 뚜렷한 흑선, 윤곽과 색면의 평면적 처리, 구도의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단순화 등이 본격화됐다. 1957년 유럽 방문을 통해 한국화의 전통 위에서 독자적인 가능성을 자각한 그는 1950~60년대 동료들 대부분이 모노크롬이나 미니멀리즘 경향을 띤 추상회화의 길을 찾아갈 때도, 산과 들과 자연풍경의 소재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묵화의 산이나 나무 표현에 사용되는 점묘를 찍어내는 기법을 사용했다. 그전의 짧고 힘센 곡선들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길게 휘어지는 직선과 모난 산능

들이 화면을 주도하게 된다. 또 3차원과 색채의 톤을 거부하는 평면적이고 2차원적 구성을 선보였다. 투시법과 양감을 무시하고 정면에서 직접 바라보는 시점은 많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며, 단순 모티프에서 오는 넓은 공간감은 비어있으나 꽉 찬 동양적 공간개념을 이대원만의 빛나는 공간으로 전환한 것이다(참고도판 3).

1970년대에는 점묘가 본격화되고 제작과정은 판화 과정과 비슷해졌으며, 보색과 원색으로 눈부시고 강렬한 점들을 겹쳐 감각적인 색채의 풍경화로 화면을 엮어냈다. 또한 중기에서 후기로 이행할수록 원근법과 평면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색채와 형태의 세련미가 절정에 다다른다. 이대원의 순수하고 밀도 짙은 감정표현과 독특한 기법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더욱 생동감 넘치는 색채로 지향되어 그만의 독창적인 화법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대원은 과수원의 나무, 산과 농원, 그리고 들과 꽃을 춘하추동 연작으로 제작한 농원시리즈가 큰 인기몰이를 한 후 ‘농원의 화기’로 불렸다(참고도판 4). 이대원은 “늘 같은 것을 보아도 화가의 눈에는 항상 다르게 보입니다”라고 말을 하며 항상 새로운 조형적 사고와 표현방법을 모색했다. 끊임없이 자연을 바라보되, 새로운 시각으로 자연을 회화적으로 재발견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대원 화문집 혜화동 70년』 아트팩토리, 2005
『이대원』 이대원, 2000

참고도판 1 〈온정리 풍경〉, oil on canvas, 80x100cm, 1941
참고도판 2 〈정물〉, oil on canvas, 24x33cm, 1960
참고도판 3 〈산〉, oil on canvas, 130x80cm, 1966
참고도판 4 〈농원〉, oil on canvas, 112x162cm, 1998

이대원 1921 - 2005
Lee DaiWon 李大源

농원 Farm

oil on canvas
50×60.6cm (12), 19.7×23.9inch
1981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KRW 60,000,000 - 90,000,000
USD 53,000 - 79,000
HKD 414,000 - 621,000

LITERATURE

『Lee Dai Won』, Yon Art Printing, 2000, p. 91
『Lee Dai Won』, Sigongsa, 2008, p. 182

이대원은 항상 자신의 모티브는 “자연”이라고 말한다. 원근법에서 자유롭게 벗어난 간결하고 황홀한 화면과 불규칙한 듯 자유로운 색, 점으로 이루어진 그의 그림은 유화라는 점에서 구조적이지만, 구성과 색을 보면 색깔의 톤이 아니라 선으로 시점과 빛을 암시하는 완전히 동양적인 화법을 구사한다.

70~95년 시기에 집중된 농원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80년대 초반 작품인 이번 출품작은 점선으로 구성된 화려한 색채와 자유로운 봇 터치로 생동감 가득하고 감동적인 표현의 구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참고문헌

『이대원』, Yon Art Printing, 2000



이대원 1921 - 2005
Lee DaiWon 李大源

인왕산 Mt. Inwang

oil on canvas
45.5×53cm (10), 17.9×20.9inch
1976
signed on the lower left and reverse

KRW 55,000,000 - 100,000,000
USD 48,000 - 88,000
HKD 379,000 - 6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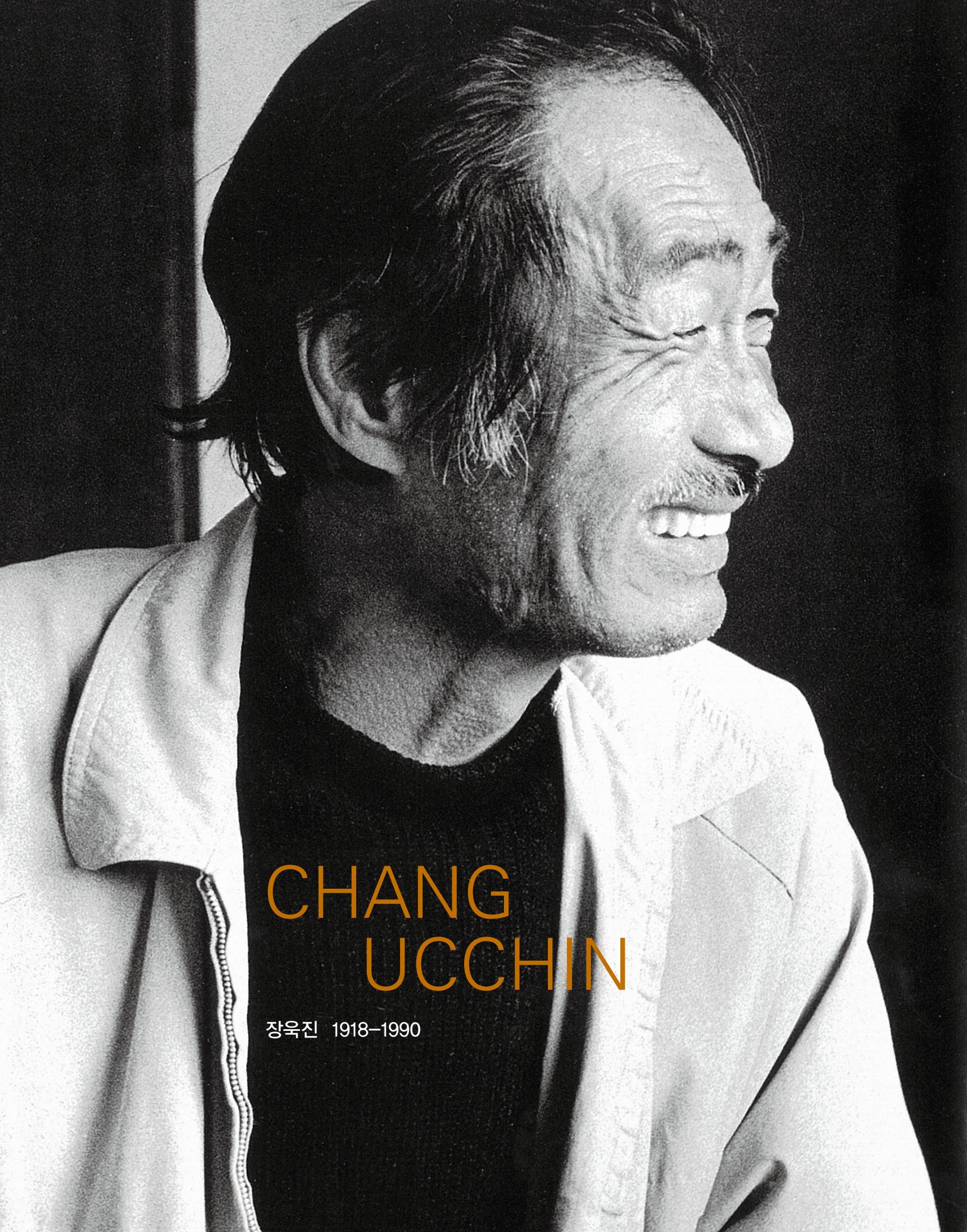
LITERATURE

『Lee Dai Won I』, Sigongsa, 2008, p. 100

'작가는 눈길 혹은 발길이 닿은 생활 주변과 어느 특정 지역의 평범한 풍경 일각, 또는 산야의 경경을 다감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이때 작가가 구사하는 수법이 인상파 계열인 점묘파의 모자이크식 색점 및 색선 병치와 그 시각의 혼합에 따른 순도 높은 신선하고 강렬한 색채 효과의 원용임은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법의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질서와 안정감은 대상 자연경의 단순한 인상파적 표현 이상의 조형적인 조화로 이루어진다.'

이구열 (미술평론가)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장육진은 일상의 해, 달, 나무, 인간, 새 등과 같이 친근한 소재를 주제로 하여 동양의 철학사상을 담은 작품을 만들어내었다(참고도판 1). 대담한 구성과 균형 잡힌 화면 배치, 수묵과 같은 유채의 사용은 장육진 화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들은 때로는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이어서 작가의 풍부한 상상력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나는 고요와 고독 속에서 그림을 그린다. 자기를 한 곳에 몰아세워 감각을 다스려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아무것도 욕망과 불신과 배타적 감정 등을 대수롭지 않게 하며, 괴로움의 눈물을 달콤하게 해주는 마력을 간직한 것이다. 회색빛 저녁이 강가에 번진다. 뒷산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강바람이 나의 전신을 시원하게 씻어준다. 석양의 정적이 저 멀리 산기슭을 타고 내려와 수면을 쓰다듬기 시작한다. 저 멀리 노을이 머지않아 달이 뜰 것이다. 나는 이런 시간의 쓸쓸함을 적막한 자연과 누릴 수 있게 마련해 준 미지의 배려에 감사한다. 내일은 마음을 모아 그림을 그려야겠다, 무엇인가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장육진

장육진은 자신의 그림과 같이 소탈하고 진솔한 삶을 살았다. '심풀하고 단순하다. 탈속적이다. 해학적이고 풍류적이다'라는 수식어는 그의 성품과 기질을 설명할 때 자주 붙는 말들이다. 화가의 이러한 기질은 그의 작품성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을 한 발자국 비켜선 세계에서 예술가의 고독한 길을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그러나 흔들거리며 바람처럼 생을 건너간 순진무구한 삶이 있었기에 그의 작품 또한 남다른 그림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참고도판 1 〈해와 달〉, oil on canvas, 45×26cm, 1962

참고도판 2 〈풍경〉, oil on canvas, 24×33cm, 1956

참고도판 3 〈가족도〉, oil on canvas, 15×15cm, 1974

'무엇보다도 세속의 사회적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작품의 자본주의적 경제 가치를 무시하며, 작품에 이입(移入)되어 풍기는 화가의 인성(人性)과 일상의 인성이 결코 다르지 않은 그 진지함과 진정성(眞情性)이야말로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든 그의 기질이다.'

정영목(미술평론가)

그가 남긴 대부분의 작품이 손에서 놀기 좋을 정도의 작은 크기이며, 놀라울 정도의 치밀하고 높은 밀도감을 뽑아내는 것 또한 그의 기질 때문이다. 평생을 응색하게 쪼그리고 앉아 작업에 임하는 자세는 이미 유학시절 다다미 하숙방에서부터 익숙해진 습관으로, 이젤에 캔버스를 세우고 의자에 앉거나 서서 화면에 빨려들 듯 응축함으로써 자신의 독창적인 그림을 창조해낸다.

그의 작품에 빈번이 등장하는 '집'은 장육진의 연대기적인 기술에 표명되는 덕소 시대, 명륜동 시대, 수안보 시대, 구성시대처럼 한결같이 자신의 집과 관련된 것이다(참고도판 2, 3). 농가나 고가를 사서 수리를 하는 것이나 새롭게 집을 설계하는 일들이 작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사뭇 간단한 메시지는 아니다. 즉, 그곳은 화가 자신의 몸과 예술을 맡겼던 거처이자 일터로 볼 수 있다. 자신이 꿈꾸 이상향의 구현이며 자신의 세계관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장소인 것이다. 따라서 그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과 그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렴되고 있다. 그 공간 안에서 장육진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예술 안에서 삶의 최소 조건을 허락 받게 되며 집은 그의 예술에서 의미망이 구성되는 실마리이다.

참고문헌

『해와 달·나무와 장육진』, 갤러리현대, 2000

『Chang Uc Chin 장육진 1917-1990』, 마로니에북스, 2011

장육진 1918 - 1990
Chang UcChin 張旭鎮

나무 위의 아이 A Child on the Tree

oil on canvas
14×25.8cm (2), 5.5×10.2inch
1975
signed on the lower center

KRW 90,000,000 - 200,000,000
USD 79,000 - 176,000
HKD 621,000 - 1,380,000

LITERATURE

『Chang UcChin. Catalogue Raisonné-Oil Paintings』, Hakgojae, 2001, p. 179
『Chang UcChin Art Book』, Hyundai Hwarang, 1972, p. 161

본 경매 출품작은 화가가 덕소에서 명륜동으로 화실을 옮긴 해에 완성된 작품으로 작은 캔버스 안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가득하다. 화면의 중앙에는 작가의 집이 커다랗게 위치해 있고, 양 옆으로는 나무가, 나무 위에는 장난끼 가득한 아이 한 명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작품의 곳곳에는 해, 달, 새, 고양이등이 익살스럽게 표현 됨으로써 작품의 조형미가 돋보인다. 화가의 서명은 화면의 균형을 위해 집 앞 마당의 빈 공간에 기입하였는데, 마치 바닥에 앉은 아이가 흙에 쓴 낙서 같아 작가의 재치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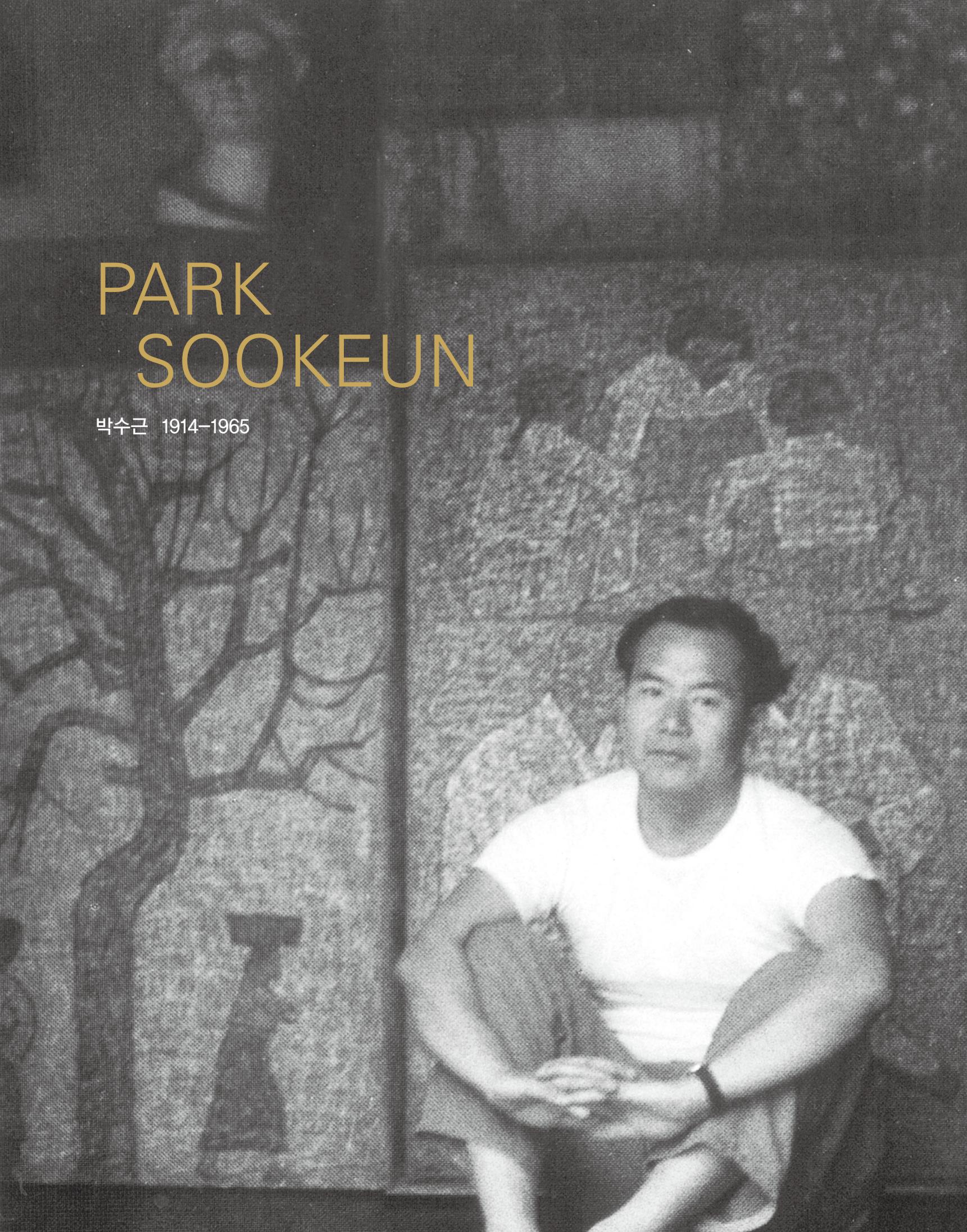
참고문헌

『장육진 Catalogue Raisonné 유화』, 학고재, 2001
『Chang Uc Chin 장육진 1917-1990』, 마로니에북스, 2011



PARK SOOKEUN

박수근 1914-1965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한국의 서정을 가장 한국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한 작가 박수근은 서민의 삶과 그들이 처했던 현실을 정감 어린 시선으로 화폭에 담아내었다. 그의 작품은 소재의 소박함과 더불어 간결한 구성을 기반으로 그려졌는데, 이와 같은 단출한 화면에 명징하고 밀도 높은 구성은 박수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14년 강원도 양구 태생인 그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비극적 상황을 모두 겪은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특히 화가로 활발히 활동하던 전후 50년대와 60년대는 나라 전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경제적 고난시대였으며 곤궁한 가정형편이었던 작가는 보통학교만 마치고 독학으로 그림을 배워야 했다. 당시 서화 미술회 또는 일본 유학을 통한 미술교육 과정을 밟은 다른 예술가들과 비교하여 아카데미즘 또는 양화 교육의 틀에서 벗어 날 수 있었던 성장 환경은 후에 박수근만의 독특한 회화양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 다만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대작을 많이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대신에 그는 소품을 많이 남겼는데, 이는 열악한 생활고 속에서도 화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그의 예술적 집념과 성실성을 밝혀준다.

박수근은 1930년대에 자연주의에 입각한 향토적 정서를 표현하다가 1940년대부터 작품에서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배제하고 대상을 짚은 윤곽선으로 단순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초기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굵고 거친 마티에르(matière)에서 점점 부드러운 표면적 질감과 간결한 선으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후 박수근은 1950년대 중반부터 화갈색 톤의 물감을 겹겹이 바른 뒤 몇 개의 선묘로 보다 평면성이 강조되는 양식에 도달한다(참고도판 1). 이때 발현되는 화강암과 같은 마티에르는 한국의 전통 석조에서 볼 수 있는 거칠고 소박한 느낌의 질

감으로, 작가가 작품에 담으려 했던 서민적 정서와 잘 어울린다. 박수근이 오늘날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독창적인 마티에르와 회색조의 무미한 색감을 통해 한국의 서민의 삶과 시대상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을 소재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즐겨 그렸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길거리에 앉은 사람들, 바로 노상이다(참고도판 2). 박수근의 작품에 있어 길이란 대단히 중요한 공간이다. 길은 단순히 통로로서의 기능 외에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작은 광장이 되기도 하고 놀이의 공간, 또는 쉬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실내 풍경이 거의 없는 박수근의 회화세계에 있어 길 위는 곧 박수근 공간 전체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길거리에는 길바닥에 앉아 있는 노점상과 곁들여 행인이 나오기도 하고, 군집을 이루어 담소를 나누는 남정네들도 등장한다.

본 출품작 〈노상- 관상 보는 사람〉은 소재 면에서도 매우 희귀한 작품이다. 아낙네와 아이들이 아닌 관상 보는 사람을 주제로 그린 작품은 본 출품작 외에 국내에 1~2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참고도판 3). 책을 펴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관상쟁이는 1960년대 전형적인 서민 옷차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작은 화면 안에서도 한 시대의 남성상과 풍속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지나간 시대에 대한 애틋한 정감을 불러 일으킨다.

참고문헌

『박수근』, 오광수, (주)시공사, 시공아트, 1989

『朴壽根』 1914-1965, 열화당, 1986

탄생 100주년 기념전 『박수근 Park Soo-Keun』, 가나아트, 2014

참고도판1 〈앉아있는 여인〉, oil on canvas, 65.1×53cm, 1963

참고도판2 〈노상〉, oil on hardboard, 20.2×36.2cm, 1960년대

참고도판3 〈나무 밑〉, oil on hardboard, 29.5×16cm, 1964

박수근 1914 - 1965
Park SooKeun 朴壽根

노상 - 관상 보는 사람 Face Reader

oil on hardboard
22×15.3cm, 8.7×6inch
1962
signed on the upper left

KRW 350,000,000 - 600,000,000
USD 308,000 - 529,000
HKD 2,410,000 - 4,1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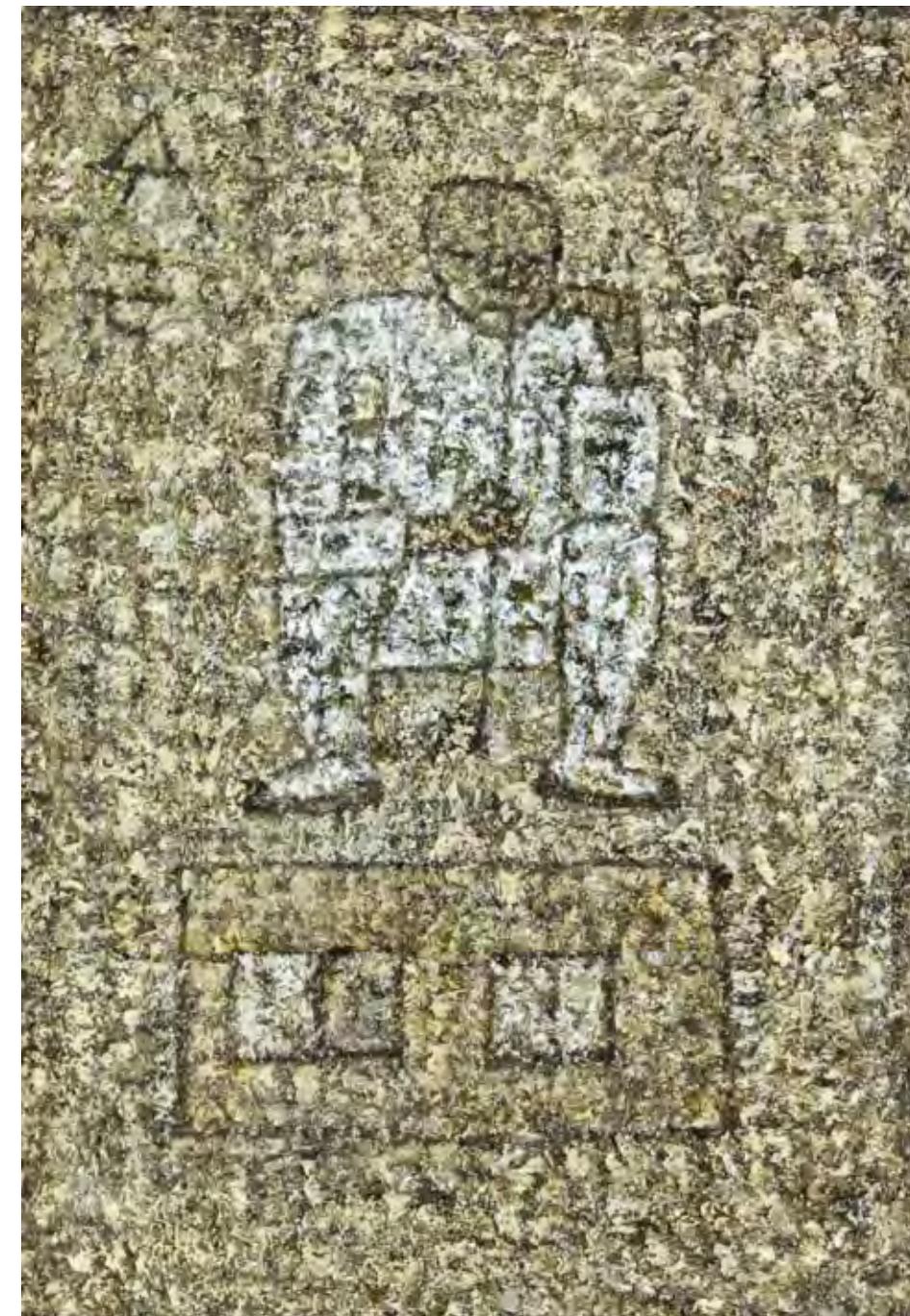
LITERATURE

『Park, Soo Keun』, Sigongsa, 1995, p. 104
『Park, Soo Keun』, Oh Kwang soo, Sigongsa, 2002, p. 74

“하나의 선을 남기기까지의 그 노력에 그저 숙연해질 따름이며, 종래의 생 각대로 데상이 밑그림의 성격을 떠나서 그 나름대로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근래의 미술사조로 볼 때 박수근은 이미 그 러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대원

본 출품작 〈노상- 관상 보는 사람〉은 소재 면에서 매우 희귀한 작품이다. 아낙네와 아이들이 아닌 관상 보는 사람을 주제로 그린 작품은 본 출품작 외에 국내에 1~2점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책을 펴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관상쟁이는 1960년대의 전형적인 서민 옷차림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작은 화면 안에서도 한 시대의 남성상과 풍속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지금까지도 박수근 작품은 우리에게 지나간 시대에 대한 애듯한 정감을 불러 일으킨다.



도상봉 1902 - 1977
To SangBong 都相鳳

정물 Still-Life

oil on canvas
24.2×33.4cm (4), 9.5×13.1inch
1976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50,000,000 - 80,000,000
USD 44,000 - 70,000
HKD 345,000 - 552,000

‘다른 대상도 그렇지만 특히 정물의 경우 대상과 대상과의 관계의 파악이야말로 정물화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이 대상의 관계는 형태와 크기 또는 색채의 상이함에서 더욱 극명해진다. 과일과 기타 오브제를 배열한 도상봉의 일련의 정물들에서 특히 이 같은 대상의 관계성이 형태와 크기와 색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각기 다른 형태와 크기를 적절히 배열함으로써 통일 속의 일탈을 꾀하는 점이나 색채의 밀도 있는 대비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단연 화면에 생채를 더해준다. 조화로우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을 수반한다.’

오광수(미술평론가)



오지호 1905 - 1982
Oh ChiHo 吳之湖

해경 Seascape

oil on canvas
33.4×45.5cm (8), 13.1×17.9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35,000,000 - 65,000,000
USD 31,000 - 57,000
HKD 241,000 - 448,000

“예술의 형식도 변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다. 예술형식은 왜 변하지 않는가. 예술의 원리는 ‘감성’이기 때문이다. 감성이란, 생명의 상태를 감각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이 감성의 표상인 감정 상태는 생명의 상태 그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은 늘 표현을 요구한다. 생명은 표현이기 때문에.”

오지호

한국 서양화의 1세대 화가인 오지호는 서양의 인상주의와 이후의 모던 아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적 인상주의 회화의 선구자로 자리잡았다. 해경이나 산맥, 고궁 등 우리의 풍경이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을 화폭에 담아내는 형식은 서양의 인상주의 회풍에 기초하지만 한국의 풍경을 특유의 서정적인 감성으로 재구성하며 자신만의 특색 있는 화풍을 구축했다. 오지호는 특히 절제된 붓터치로 바다의 풍경을 즐겨 그렸는데, 출품작 〈해경〉은 “색채 환희는 자연이 주는 기쁨”이라 자신이 늘 말했던 것처럼 바닷가가 발산하는 자연스러운 색채를 담고 있다. 거기에 한국의 실경에서 보고 느낀 파도, 바위 등의 자연적 요소를 유화 본연의 풍부한 질감으로 표현하며 그의 예술적 지향점인 감성이 잘 반영되었다.





69

천경자 1924 - 2015
Chun KyungJa 千鏡子

여인 Woman

ink on paper
25.5x12cm, 10x4.7inch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8,000,000 - 18,000,000

USD 7,000 - 16,000

HKD 55,000 - 124,000



참고도판 1 주부생활 1967년 3월호
연재소설 〈별이 숨은 호수〉 삽화



70

김종학 b.1937
Kim ChongHak 金宗學

여름 풍경 Summer Landscape

acrylic on canvas laid on wooden tray
total size: 46.5x34cm, 18.3x13.4inch
image size: 38x25.5cm, 15x10inch
2003
signed on the upper right and reverse

KRW 20,000,000 - 30,000,000

USD 18,000 - 26,000

HKD 138,000 - 207,000



71

전경자
1924 - 2015
Chun KyungJa 千鏡子

여인 Woman

marker on paper
34x25cm, 13.4x9.8inch

KRW 11,000,000 - 20,000,000

USD 10,000 - 18,000

HKD 76,000 - 138,000

EXHIBITED

Seoul, Gallery Hyundai, CHUN KYUNG JA - 82 Pages of My Beautiful Memory, March 2006

LITERATURE

『CHUN KYUNG JA - 82 Pages of My Beautiful Memory』, Gallery Hyundai, 2006, no. 21



72

김종학
b.1937
Kim ChongHak 金宗學

여름 설악 Summer Mt. Seorak

acrylic on canvas
53x72.7cm (20), 20.9x28.6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38,000,000 - 70,000,000

USD 33,000 - 62,000

HKD 262,000 - 483,000

이대원 1921 - 2005
Lee DaiWon 李大源

농원 Farm

oil on canvas
53x72.7cm (20), 20.9x28.6inch
1990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60,000,000 - 80,000,000
USD 53,000 - 70,000
HKD 414,000 - 552,000

“서양화 기법의 2대 원칙에는 명암법과 원근법이 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도 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싫다.”고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한 이대원 선생은 1950년대에 벌써 양화, 유채화에 동양화의 기법을 도입하는 일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는 화면에 점묘를 찍어내는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작품의 장식성이나 긴장감이 있는 그러한 점묘화적 기법은 아마도 수목화의 산이나 나무의 표현에 사용되는 점묘법의 응용에서 오는 것이라.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점묘법에서 더욱 역동적인 선의 표현으로 그림 그리는 기법이 바꾸었다. 동양화의 바위 표면을 그리는 준법을 연구했고, 이 연구를 통해 이대원 선생 독자의 기법이 발전한 것이다. 그것은 ‘동양화적인 추상화’라는 최초의 동기에 근거한 방식으로 처음 마음은 그대로이고 기법만 변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츠하사 료타(미술평론가)





74

김종학 b.1937
Kim ChongHak 金宗學

꽃 Flowers

acrylic and oil on canvas
45.5x53cm (10), 17.9x20.9inch
signed on the lower left

KRW 20,000,000 - 40,000,000
USD 18,000 - 35,000
HKD 138,000 - 276,000

PROVENANCE
Park RyuSook Gallery, Seoul



75

이왈종 b.1945
Lee WalChong 李日鍾

제주생활의 중도 Golden Mean of Jeju Living

mixed media on Korean paper
45.5x37.9cm, 17.9x14.9inch
2012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14,000,000 - 22,000,000
USD 12,000 - 19,000
HKD 97,000 - 152,000

LITERATURE
『Lee, Wal Chong』, Yon Art, 2012, p. 85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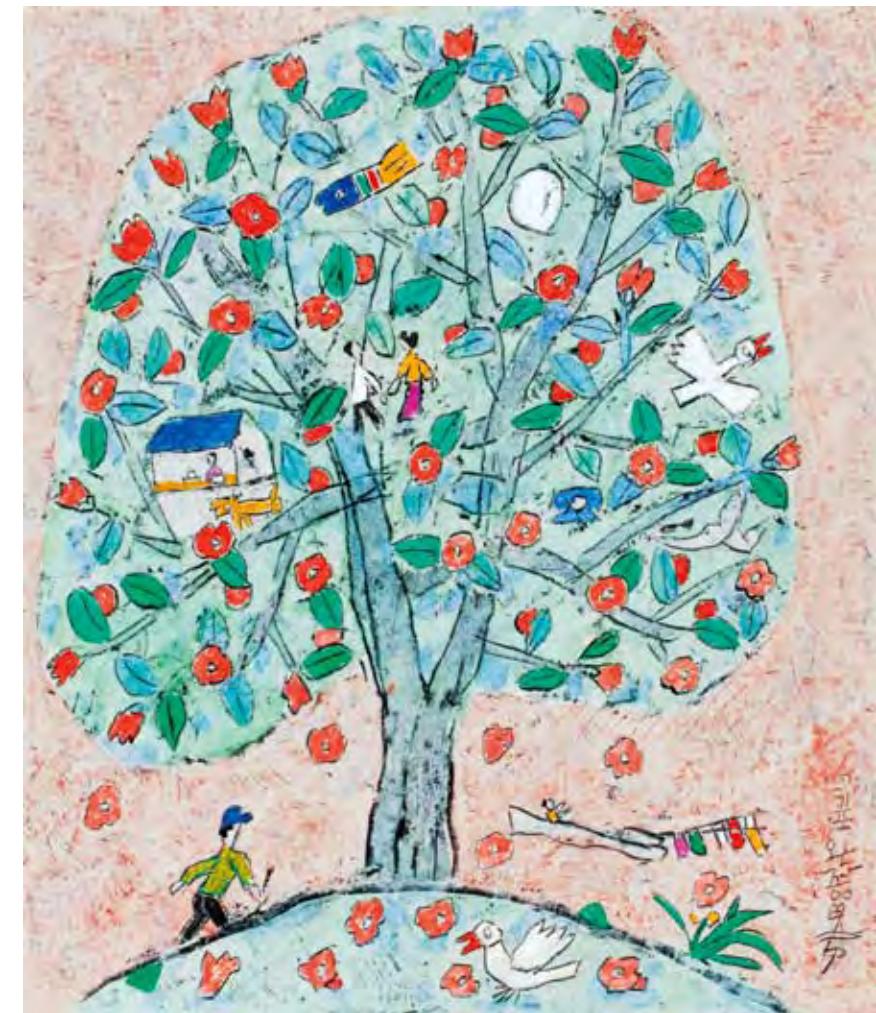
천경자 1924 - 2015
Chun KyungJa 千鏡子

꽃 Flowers

color on paper
34x69cm, 13.4x27.2inch
signed and sealed on the lower left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12,000,000 - 25,000,000
USD 11,000 - 22,000
HKD 83,000 - 172,000



77

이왈종 b.1945
Lee WalChong 李日鍾

제주생활의 중도 Golden Mean of Jeju Living

color on Korean paper
45.5x37.9cm, 17.9x14.9inch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13,000,000 - 22,000,000
USD 11,000 - 19,000
HKD 90,000 - 152,000

문신 1923 - 1995
Moon Shin 文信

화 (和) Harmony

bronze
84.5x28x68(h)cm, 33.3x11x26.8(h)inch
1981
signed on the sid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by the Korean Art Appraisal Board.

KRW 15,000,000 - 30,000,000

USD 13,000 - 26,000
HKD 103,000 - 207,000

PROVENANCE

Gallery YEH, Seoul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 형태들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며 궁극적으로 생명의 의미성을 가지게 되길 바랄 뿐이다.”

문신

‘문신 조각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적 특징은 대칭적 구조이다. 신에 의해 창조된 모든 유기체들도 대칭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문신이 추구한 대칭성은 절대적으로 순수한 추상적인 구조인 동시에 자연의 유기체적 형태의 구조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문신의 추상 조각이 신의 창조물인 자연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문신은 엄격한 기계적인 대칭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자연의 형태들이 약간은 불균형하고 오묘하리만큼 미세하게 대칭성에서 약간씩 벗어나듯이 문신은 작품의 대칭성에 자유롭고 불완전함이 스며들도록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기도 하였다. 문신의 조각은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되었다.’

김현화 (숙명여대 회화과 교수)



김홍주 b.1945
Kim HongJoo 金洪疇

무제 Untitled

acrylic on canvas
138×83cm, 54.3×32.7inch
2002

KRW 35,000,000 - 80,000,000
USD 31,000 - 70,000
HKD 241,000 - 552,000

PROV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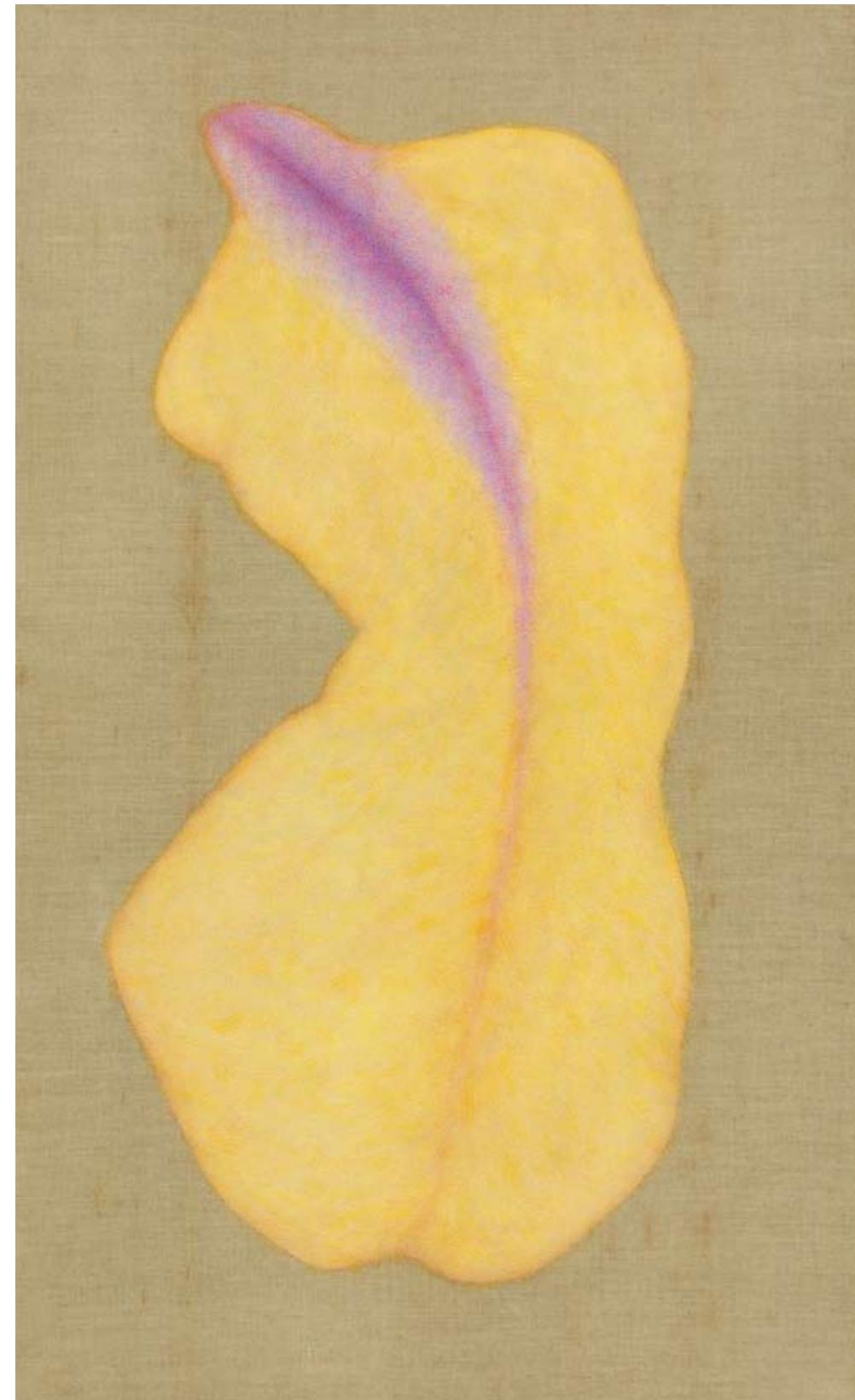
Kukje Gallery, Seoul

'작가는 무한히 반복적인 봇질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며 그것은 어느 순간 하나의 커다란 추상적 얼룩이 된다. 그것은 때로 꽃이 될 수도 있고, 이파리가 될 수도 있으며, 풍경이나 정확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얼룩이 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끝없이 반복하여 봇질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것은 서구적 회화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회화적 본질과는 다른, 그리는 행위를 통해 보는 이가 대상 앞에서 경험하는 몰아(沒我)의 상태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화가 보는 이의 시선 속에서 일으키는 추상적 영감으로서, 그것은 단순히 꽃이나 잎의 재현에 의거하는 것이 아닌 바로 눈의 초점 심도 훨씬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시계외(視界外) 입자들의 존재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유진상(미술평론가)

참고문헌

『KIM HONG JOO』, Kukje Gallery, 2010





80

권기수

b.1972

Kwon KiSoo 權奇秀

무제 Untitled

acrylic on canvas

130×130cm, 51.2×51.2i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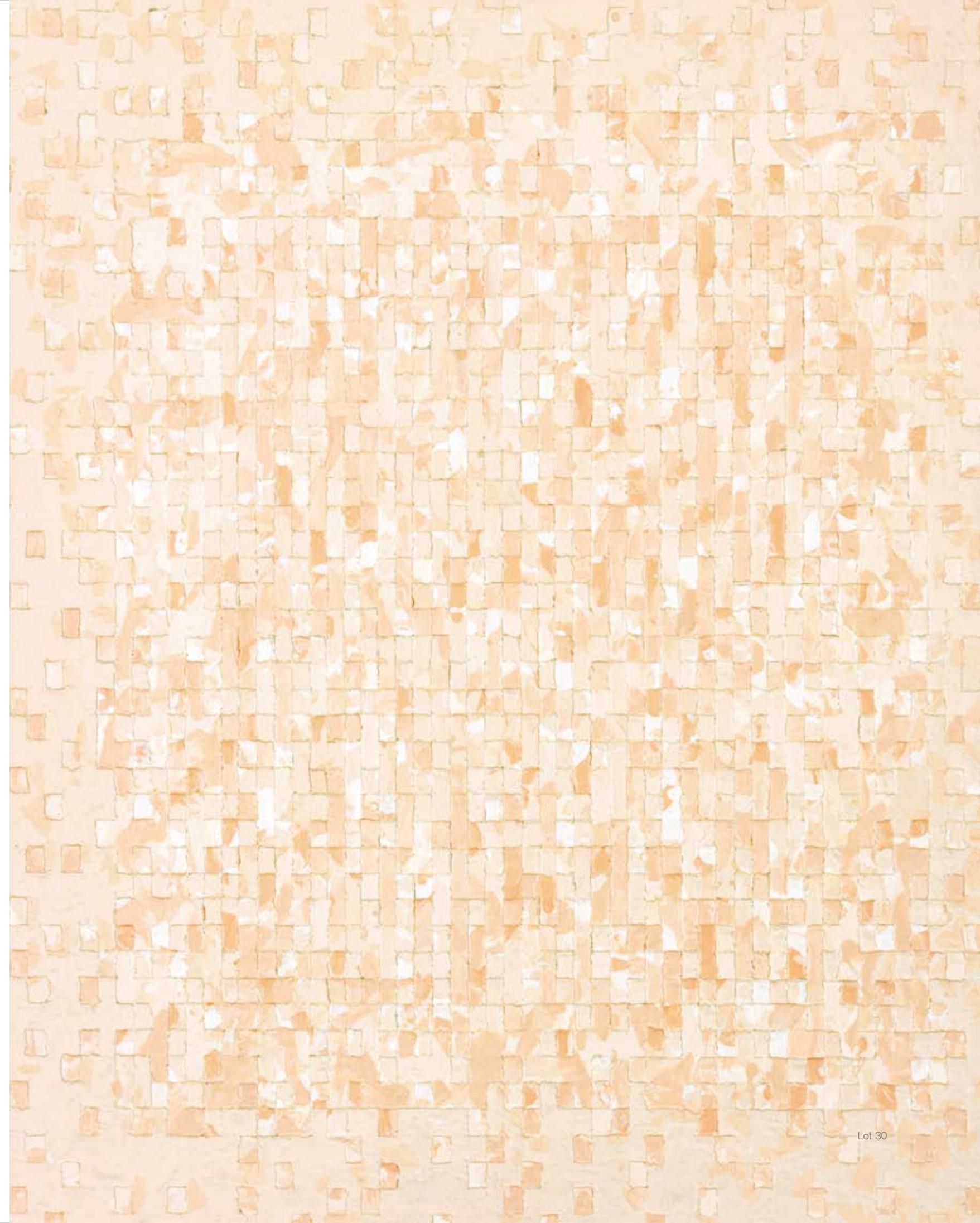
2009

signed on the reverse

KRW 15,000,000 - 35,000,000

USD 13,000 - 31,000

HKD 103,000 - 241,000



Lot 30



Lot 85

International
Modern & Contemporary
Art

해외 미술

LOT 81 - 98



81

야요이 쿠사마 b.1929 Japanese
Yayoi Kusama 草間彌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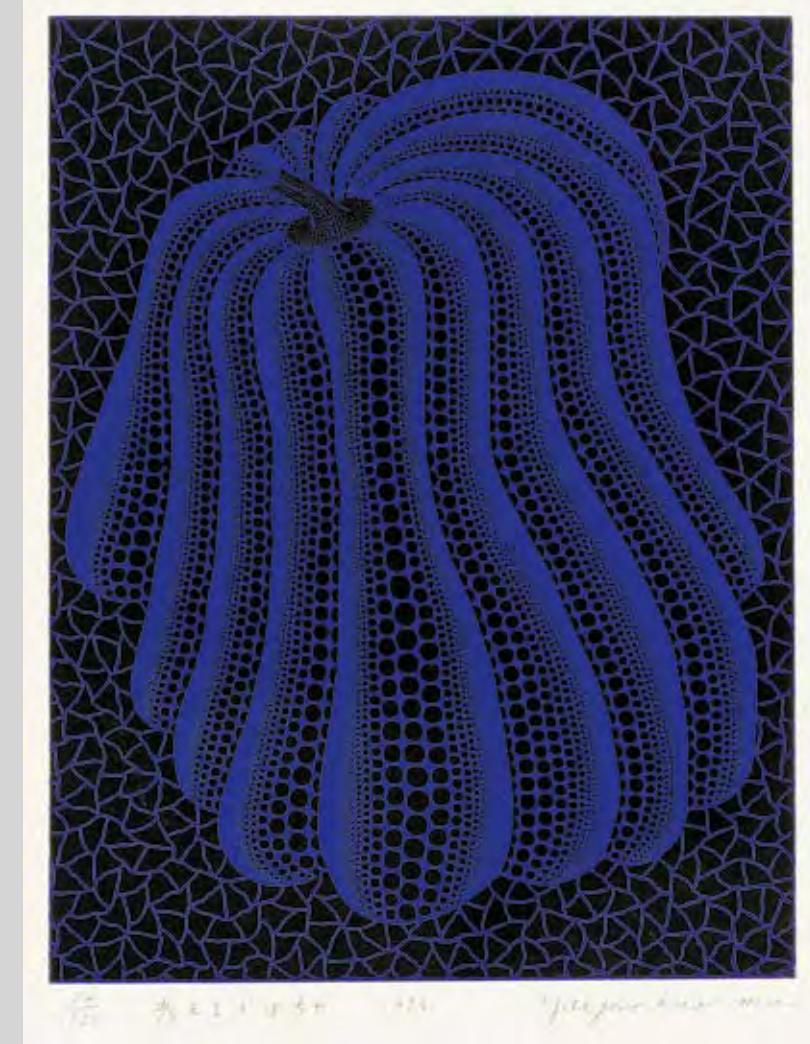
Pumpkin (RY)

screenprint
22.8x29.8cm, 9x11.6inch (edition 49/120)
1996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9,000,000 - 18,000,000
USD 8,000 - 16,000
HKD 62,000 - 124,000

LITERATURE

『All Prints of Kusama Yayoi 1979-2004』, Abe Publishing Ltd., 2005, no. 233



82

야요이 쿠사마 b.1929 Japanese
Yayoi Kusama 草間彌生

Thinking Pumpkin

screenprint
41x31.5cm, 16.1x12.4inch (edition 74/120)
1993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10,000,000 - 22,000,000
USD 9,000 - 19,000
HKD 69,000 - 152,000

LITERATURE

『Yayoi Kusama Prints 1979-2013』, Abe Publishing Ltd., 2013, p. 113

사라 모리스 b.1967 American
Sarah Morris 莎拉·莫里斯

Japanese Bend [Knots]

gloss household paint on canvas
214×214cm, 84.3×84.3inch
2010
signed

KRW 60,000,000 - 100,000,000

USD 53,000 - 88,000
HKD 414,000 - 690,000

EXHIBITED

Seoul, Gallery Hyundai, Sarah Morris: Clips Knts and 1972, September 2010

LITER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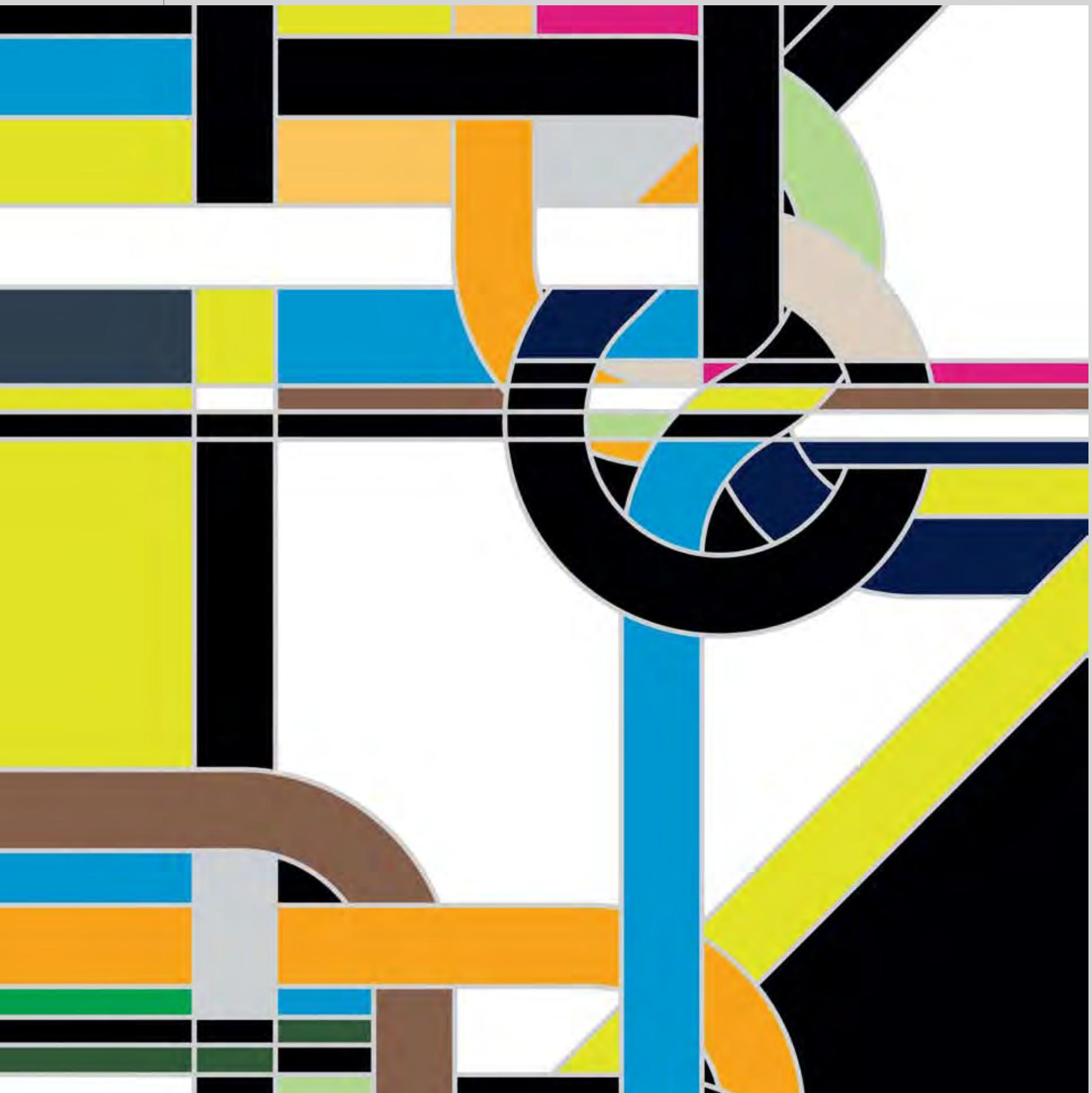
『Sarah Morris: Clips, Knots, and 1972』, Gallery Hyundai, 2010, pl.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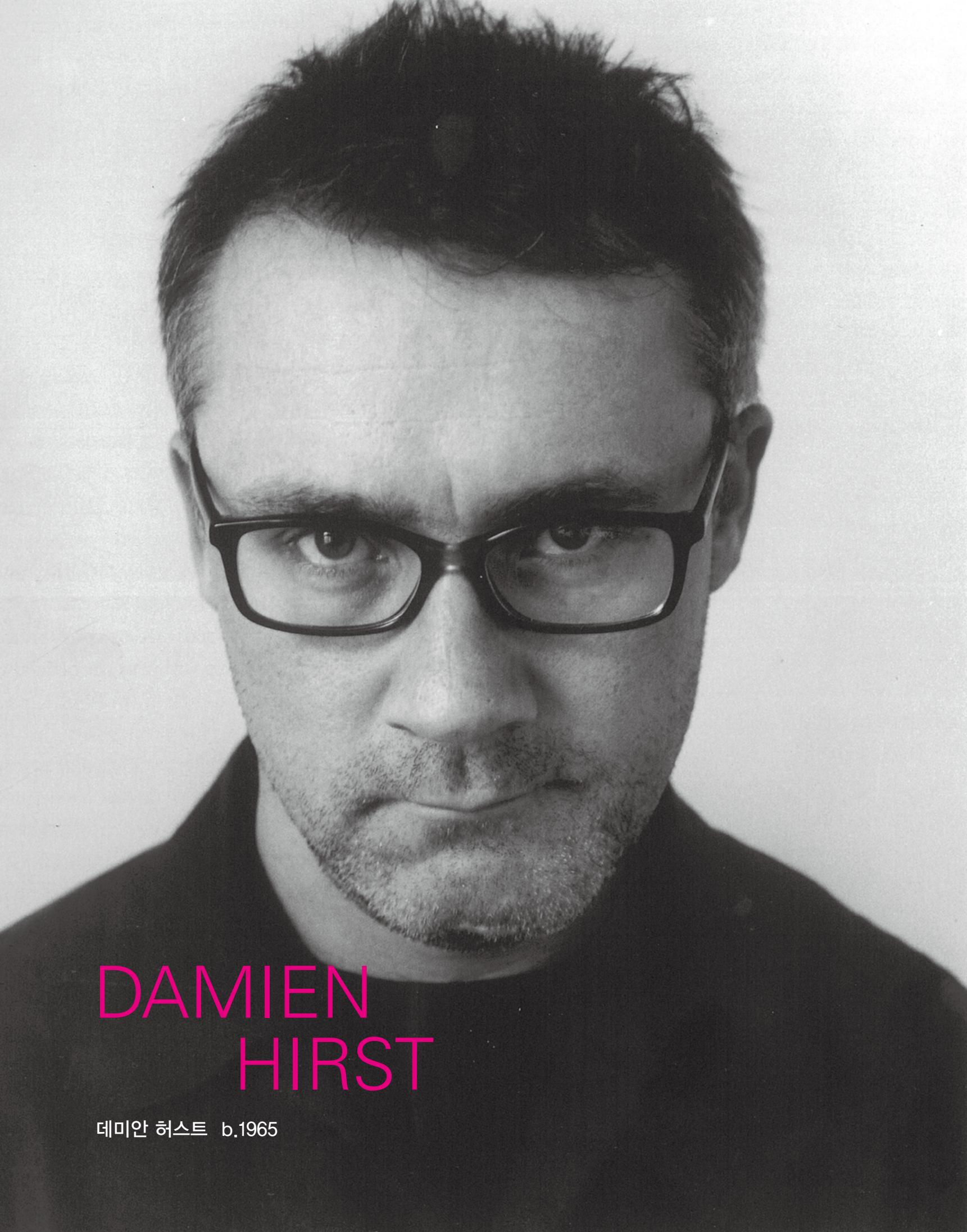
사라 모리스(Sarah Morris)는 회화, 설치, 영상, 디자인, 공공미술 등 매체에 구애 받지 않고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내는 작가이다. 모리스의 회화는 기본적으로 추상이지만 그 추상의 단초는 수직과 수평의 구조가 입체를 형성하는 건축이나 도시 공간에서 발견한 모티브에서 비롯된다. 작가가 직접 카메라로 찍은 무수한 도시의 풍경, 건물을 참조해서 색채, 형태 등을 추출한다.

본 작품은 〈클립과 매듭(Clips&Knots)〉 시리즈 중 하나로서 도시를 주제로 한 관심에서 나아가 도시풍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구조와 체계 그리고 돌발상황을 투영한다. 매듭이나 클립을 연상시키는 형상들이 뒤섞이는 이 작품은 단순하게 구부러진 구조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우연한 조합을 이룸과 동시에 끊임없이 변형되고 다양한 형태를 파생시킨다.

참고문헌

『SARAH MORRIS: Clips, Knots, and 1972』, Gallery Hyundai,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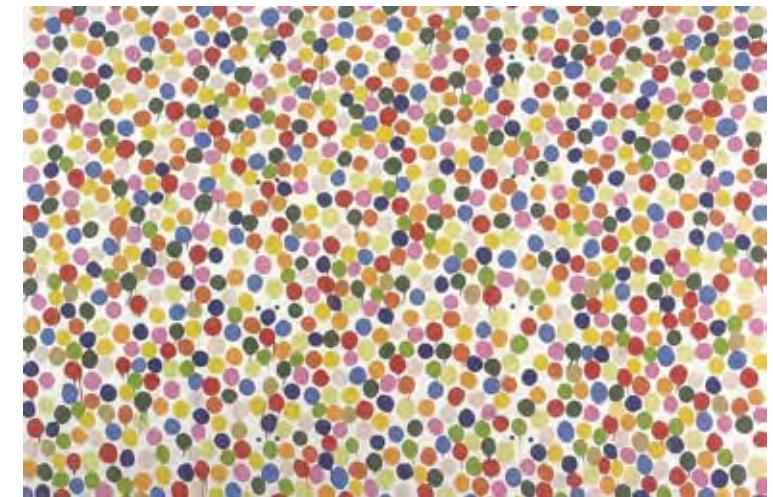


DAMIEN HIRST

데미안 허스트 b.1965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데미안 허스트는 1990년대에 급격히 부상하여 영국 현대미술을 이끌어 나간 YBA(Young British Artists)의 대표 작가이다. 당시 미술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작가 중 한 명이다. 골드스미스 칼리지(Goldsmith College)에 재학 중이던 1988년에 <프리즈(Freeze)>라는 전시를 직접 기획했는데(참고도판 1) 사라 루카스(Sarah Lucas), 게리 험(Gary Hume), 피오나 레이(Fiona Rae) 등도 참여한 이 전시는 유명 컬렉터 찰스 사치의 지원을 받으며 그의 성공적인 작품활동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나는 스팟 페인팅(Spot Painting)이 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 어떤 종류의 예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색상들이 상호작용하며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조화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Damien Hirst

그의 작품은 회화, 포름알데하이드 용액에 동물의 절단된 신체를 담은 수조 설치 작품, 약국 설치 작품 등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절단된 상어를 수조에 띄운 설치작품인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으로 허스트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허스트는 사체, 해골, 알약 등 죽음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재들을 사용하여 예술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를 중

심으로 예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과연 예술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은 데미안 허스트의 대표적 시리즈 스팟 페인팅(Spot Painting) 중 한 점이다. 임의로 선택한 다양하고 독특한 색조의 원형색점들이 격자 배열로 화면 가득 차 있다(참고도판 2). 한 캔버스 안에서는 같은 색이 반복되지 않고 원과 원 사이의 간격은 항상 원의 지름과 일치한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작가들이 보통 사용하는 유화물감이 아닌 가정용 유광 페인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제목들은 모두 약품명으로 되어있는데 <L-Lyxose>, <Hexafluorobenzene> 등 한 제약회사의 카탈로그에서 무작위로 약품의 이름을 골라서 쓰고 있다. 제약회사가 생명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치료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팟 페인팅은 작가의 회화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다채로운 명도와 채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스팟 시리즈는 삶과 죽음에 대해 보다 은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 어떤 시리즈 보다 복합적이고 역설적이다.

참고문헌

“Damien Hirst, I wan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everywhere, with everyone, one to one, always, forever, now.”, London 1997

“Damien Hirst: Spot Paintings”, 신세계 갤러리, 2012

“Damien Hirst: The Complete Spot Paintings, 1986–2011”, Gagosian Gallery, 2012

“Damien Hirst”, Tate Modern, 2012

참고도판1 Ian Davenport helping Hirst to install Boxes at Freeze, 1988 (painting against the wall by Angus Fairhurst)

참고도판2 <Spot Painting>, household gloss on board, 243.8x365.8cm, 1986

데미안 허스트 b.1965 British
Damien Hirst 达明安 · 赫斯特

6-Hydroxymelatonin

household gloss on canvas
137.2×127cm, 54×50inch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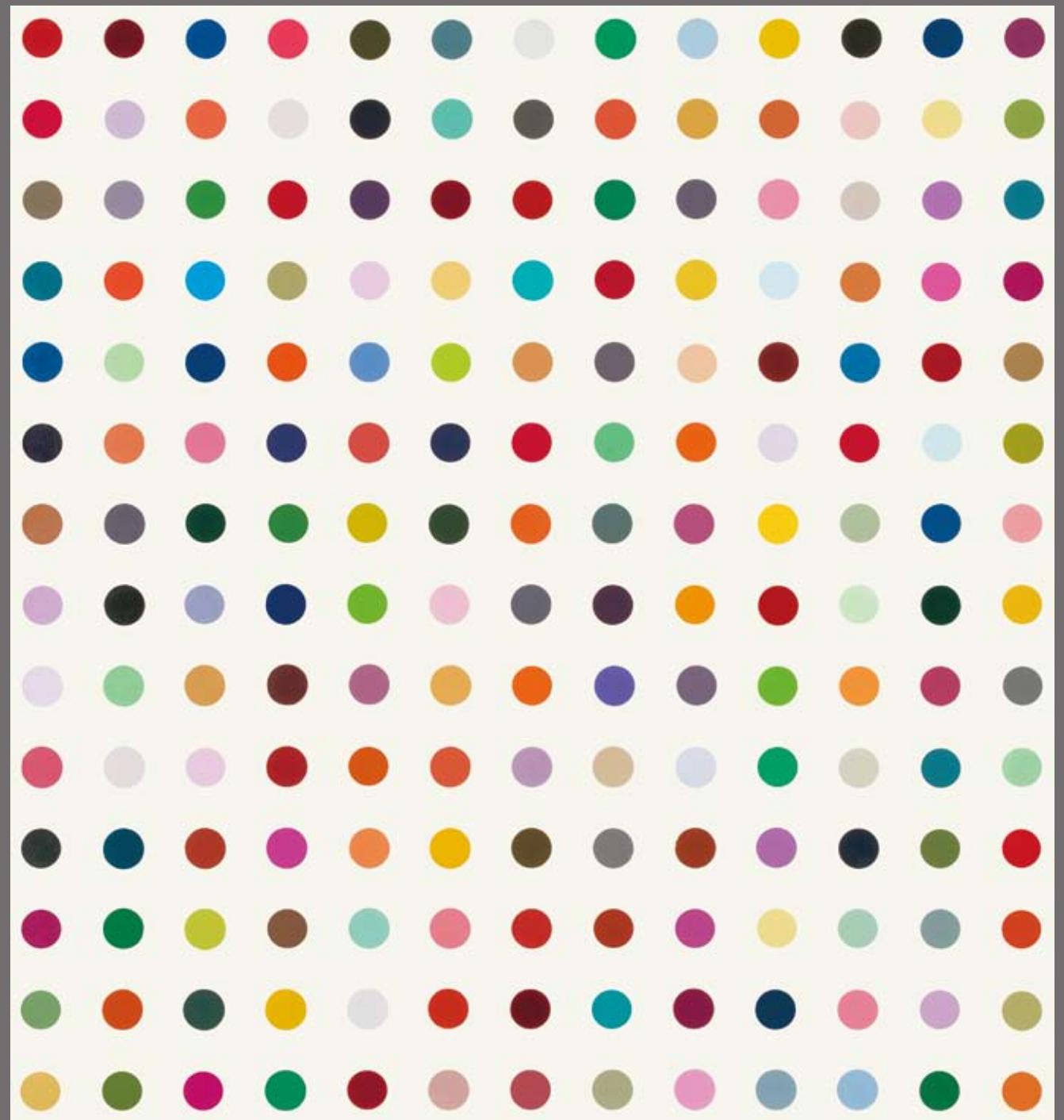
KRW 450,000,000 - 600,000,000
USD 396,000 - 529,000
HKD 3,100,000 - 4,1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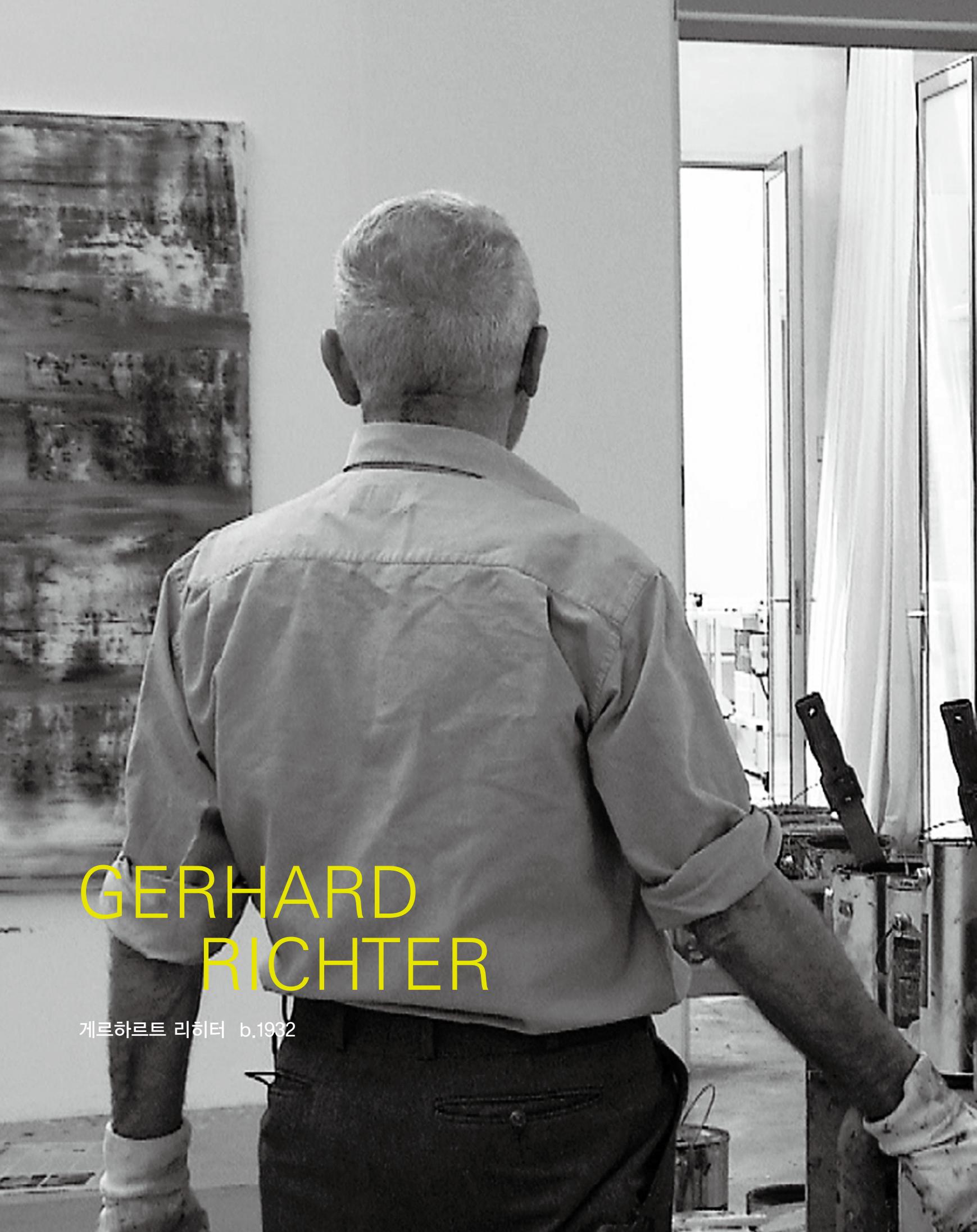
PROVENANCE

Tina Kim Gallery, New York

LITERATURE

『The Complete Spot Paintings 1986-2011 Damien Hirst』, Other Criteria / Gagosian Gallery, 2013, p. 345





GERHARD RICHTER

게르하르트 리히터 b.1932

“회화는 죽지 않았다. 지금보다 더 완성되어야 한다.”

게르하르트 리히터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참고도판 4

전후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이자 현대 미술의 거장인 리히터는 1932년 옛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전쟁의 참상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이는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빠대만 양상하게 남은 프라우엔 키르히 앞을 지나며 리히터는 폭격기들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고향 드레스덴(Dresden)에서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리히터는 1959년에 열린 카셀 도큐멘타 2를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과 루치오 폰타나 (Lucio Fontana 1899-1968)와 같은 서구 현대미술 작품들을 처음 접하게 된다. 이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 그는 공산주의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자신의 작업에 본질적인 회의를 품고, 1961년 자본주의로의 탈출을 감행한다.

“1961년 뒤셀도르프(Düsseldorf)로 수학하러 왔을 때, 나를 자유롭게 한 것은 플럭서스(Fluxus)와 팝 아트(Pop Art)였다.”

자신의 작업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파악한 리히터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양식들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회화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무엇을 그려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한다. 그러던 중, 그는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의 작품 <키친 스토브 1961-62>에서 일상과 미술 즉, 사진과 회화가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게 된다(참고도판 1). 즉, 리히텐슈타인의 공허하면서도 장식적인 단순한 형태의 작품에서 일상과 미술이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제까지 사진과 회화가 베타적이라고 보았던 리히터에게 이러한 사실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이로써 그의 작품은 스타일에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그는 사진의 잠재성에 주목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기존의 틀에서 해방시키는 새

로운 탈출구로 여겼다.

1976년 리히터는 자신의 최초의 추상화인 <구성>(참고도판 2)에 착수하게 된다. 갈색 배경으로 폭발하듯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삼은 이 그림은 갈색 배경이 파열되는 곳에 빛을 내뿜는 노란색-빨간색 부분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어두움과 대조되어 극적인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후 80년대 초로 이어지는 추상화는 비록 리히터가 자신의 그림 처리 방식이나 이론에 근거한 기법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구성>이나 이전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띄게 된다. 다시 말해, 그는 비구상적이며 가시적인 실제와 관련을 맺지 않은 그림들을 그리기로 결정하고, 초반에는 형상적인 요소들을 암시적으로 넣다가 나중에는 애매모호하고 기하학적이며 자유로운, 우연에 기인하는 요소들을 집어넣었던 것이다(참고도판 3, 4). 이렇게 탄생한 작품은 즉흥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사실 작가가 캔버스 앞에서 오랫동안 숙고한 결과물이었다. 추상화를 그리는 일은 리히터가 이전의 양식을 취함으로써 규칙적으로 중단되었지만, 90년대와 2000년대로 꾸준히 이어져 갔다.

이번 경매에 출품된 추상화 <Abstraktes Bild 817-2>는 1994년 작(作)으로, 투명한 색으로 세심하게 칠해진 층 위에서 다양한 색들이 움직이고 반응하며 기본 색채와의 상호 유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하여 나타난 축소되고 이동된 색채의 충돌은 혼돈 속에서도 구도를 만들며 화면에 윤곽을 부여한다. 본 작품은 뉴욕과 프랑스 유수의 갤러리들에서 전시된 적이 있으며, 리히터의 Catalogue Raisonné에 817-2로 등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Dieter Schwarz, "Gerhard Richter Survey", ifa, 2000
Nicholas Serota (Director of the Tate), "I Have Nothing to Say and I'm Saying It", "Gerhard Richter : Panorama", Tate Publishing, 2011
Robert Storr, "Gerhard Richter Forty Years of Painting",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2002

참고도판 1 Roy Lichtenstein, <Kitchen Stove>, oil on canvas, 173x173cm, 1967-1962

참고도판 2 <Construction>, oil on canvas, 250x300cm, 1976

참고도판 3 <Abstract Painting>, oil on canvas, 100 x100cm, 1981

참고도판 4 <Abstract Painting>, oil on canvas, 250x350cm, 1984



Lot 85

Gerhard Richter's lifelong experimentation with diverse subjects and methods — and his sophisticated questioning of their meanings — derives in part from his personal experience of modern Germany's tumultuous history. Richter's childhood coincided almost precisely with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born in Dresden in 1932, just one year before Adolf Hitler came to power, Richter began his artistic career twenty years later within the academic system of East Germany. Richter trained as a muralist, painting realistic imagery that espoused socialist themes. From the mid 1980s, Richter began to use a home-made squeegee to rub and scrape the paint that he had applied in large bands across his canvases. This spread the paint over the surface and integrated the various colours with each other. In the 1990s the artist began to run his squeegee up and down the canvas in an ordered fashion to produce vertical columns that take on the look of a wall of planks. 'Abstraktes Bild 817-1' is typical of these paintings. One effect of the use of the squeegee was to create a blurring of one area of colour into another — similar to the blurring in Richter's earlier photo-paintings — so that one has the feeling of looking at an out of focus image, that lies tantalisingly beyond decipherment. Be it a rural landscape, a colorful gestural abstraction, or a black-and-white painting based on a family snapshot or image from the newspaper, a certain set of tensions consistently drives Richter's work: belief versus skepticism, gesture versus erasure, planning versus chance, personal engagement versus objective neutrality. In Richter's paintings one can identify many of the marks, methods, and forms that have driven the development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ince the 1950s. But the often discordant way in which the artist brings them together on the canvas cools their rhetorical intensity. The restless quality of these works, in which different modes of painting collide, reflects Richter's simultaneous hope and uncertainty that painting can faithfully assess contemporary reality.

“繪畫不是一潭死水，要比現在更加完善。”

格哈德·里希特

戰後德國的代表性畫家，現代美術的巨匠——格哈德·里希特生於1932年東德地區的德累斯頓(Dresden)。童年對殘酷戰爭的陰霾一直持續到其成人以後。經過因炮擊而只剩下骨架的Frauen-kirche，里希特認為遭受戰火完全毀於一旦的故鄉——德累斯頓(Dresden)已毫無希望。

後來，里希特參加了於1959年舉辦的第二屆卡塞爾文獻展(Kassel Documenta)，在那裡他第一次接觸到了傑克遜·波洛克(Jackson Pollock)和盧齊歐·封塔納(Lucio Fontana)等西方現代美術作品，並受到巨大衝擊，他開始對本國共產主義統治下其自身作品的本質開始產生懷疑，最終於1961年果斷地逃向了資本主義。

里希特在1976開始著手創作個人的首幅抽象畫——《構成》。褐色的底色如爆發一般得佔據核心，整幅作品在褐色龜裂處滲出金黃色—紅色的光芒，與包裹在周圍的暗沉形成強烈對比，機具緊張和刺激感。此後80年代初的抽象畫作品雖然是屬於里希特自己特有的繪畫處理方式，其實並不符合理論上的繪畫技法，但還是展現出了與《構成》或其他之前作品完全不同的風格而備受關注。總的來說，畫家決定尋求的是抽象與視覺感知的實物無關的繪畫風格，起初是將形象要素以暗示的形式進行展示，後來演變為模糊的幾何形態，他將源於自由與偶然的要素融入繪畫作品之中。由此誕生的作品雖然乍看之下像是即興而來，但其實是畫家在畫布前耗費了大量心血的結晶。繪製抽象畫的里希特沉迷於以往的風格未能有規律地進行創作，不過在90年代到2000年代一直延續了下來。

게르하르트 리히터

b.1932 German
Gerhard Richter 格哈德·裏希特

Abstraktes Bild 817-2

oil on canvas
51×56cm, 20.1×22inch
1994
signed on the reverse

KRW 1,200,000,000 - 1,700,000,000

USD 1,060,000 - 1,500,000
HKD 8,280,000 - 11,720,000

EXHIBITED

New York, Marian Goodman Gallery, Gerhard Richter, Oct-Nov 1996
Nîmes, Musée d'Art Contemporain de Nîmes, Gerhard Richter. 100 Bilder, June-Sept 1996

LITER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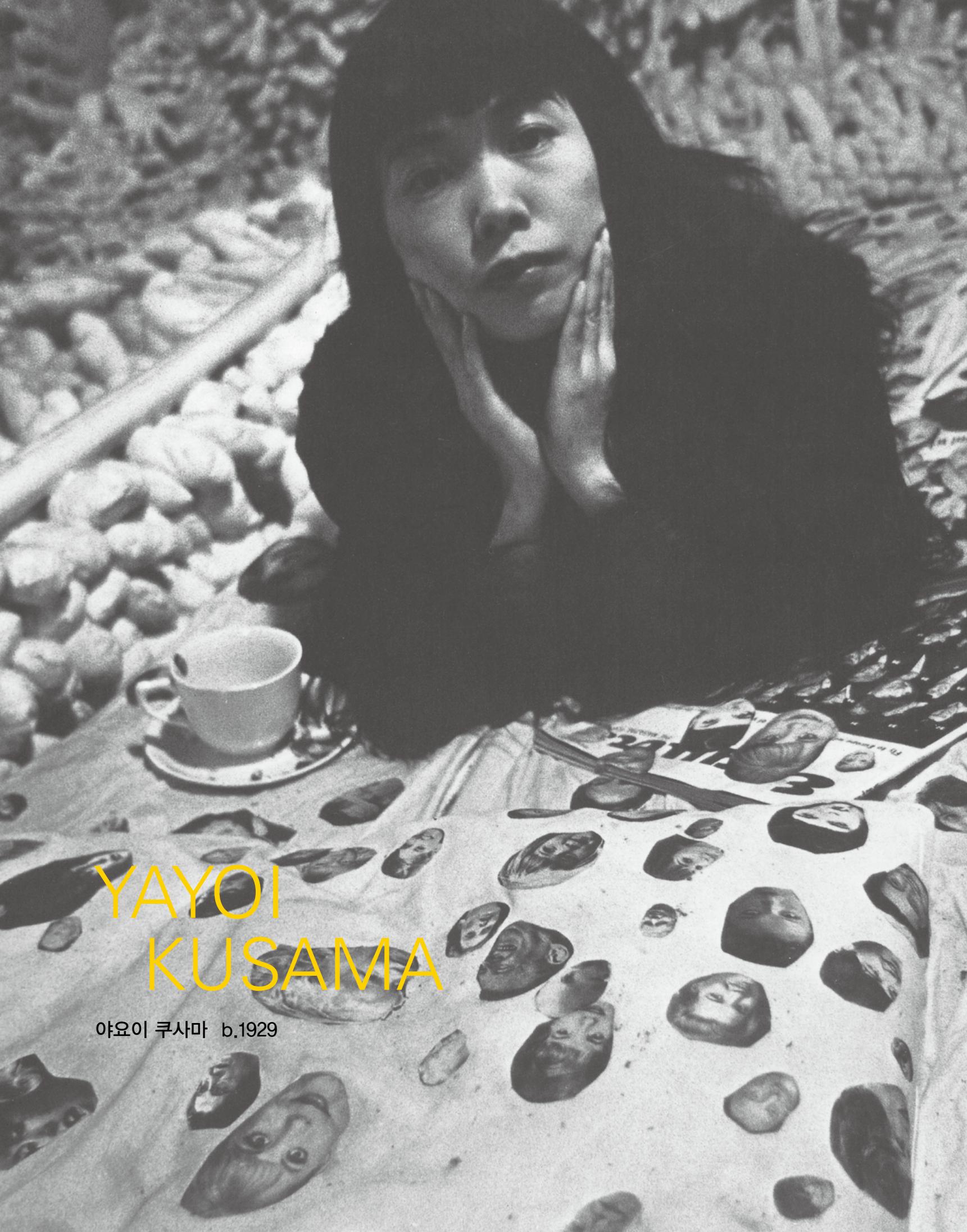
『Gerhard Richter 1998』, Anthony d'Offay Gallery, 1998, p. 90
『Gerhard Richter. 100 Pictures』, Hatje Cantz, Ostfildern-Ruit, 1996, p. 71

“나는 어떤 목표도, 어떤 체계도, 어떤 경향도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강령도, 어떤 양식도, 어떤 방향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어떤 명확한 정의를 피한다. 애매하고, 변덕스럽고, 무한한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끝없는 불확실성을 좋아한다.”

게르하르트 리히터

“I pursue no objectives, no systems, no tendency; I have no program, no style, no direction.... I steer clear of definitions. I don't know what I want. I am inconsistent, non-committal, passive; I like the indefinite, the boundless; I like continual uncertainty.”





YAYOI
KUS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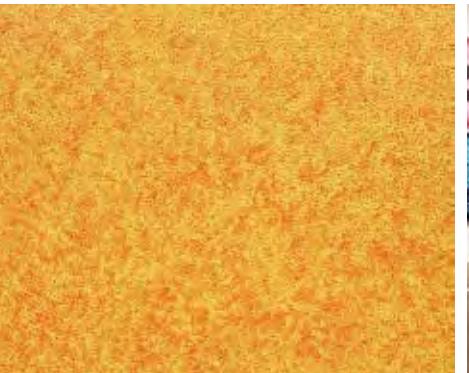
야요이 쿠사마 b.1929

“Polka dot takes the shape of the Sun. It symbolizes our lives and the energy of the entire universe. In addition, this also resembles the shape of round, smooth and tranquil Moon which represents the unknown world. And this pattern at some point spreads out all over, covering the entire universe, starting to move into the infinite time and space.”

Yayoi Kusama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약 70년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야요이 쿠사마의 예술은 그 동안 다양한 미술 장르와 연관 지어져 왔는데, 그녀의 작품들은 작가의 편집적 강박증과 그에 따른 환각 증세를 이겨내기 위해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이다. 그녀는 10살 때부터 식탁보의 빨간 꽃무늬가 공간 전체를 뒤덮는 환영을 보게 되는데, 이런 어렸을적 고통스러웠던 환영들이 그녀의 예술세계의 기본 바탕이 된다. 그녀의 전형적인 트레이드 마크인 〈Polka Dots〉와 〈Infinity Nets〉로 시작된 회화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 설치작품, 퍼포먼스, 헤프닝으로 점차 발전해왔다(참고도판 1).

1929년 마초모토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1957년 미국으로 처음 건너오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태평양 바다의 물결과 물마루를 보며 작업에 대한 영감을 느꼈다. 이것이 초기 〈Infinity Nets〉 시리즈의 탄생 모티프가 되어, 1959년 미국 브라타 갤러리(Brata Gallery)에서 첫 개인전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처음으로 〈Infinity Nets〉 시리즈를 선보였다(참고도판 2). 초기에 보이던 단색조의 점과 그물들은 다소 기계적이고 빽빽한 반면 80년대는 그녀의 화면이 좀 더 여유 있는 봇놀림을 보이며 이후 2000년 대에 들어서 밝고 경쾌한 색깔들을 사용까지 가미되어 점차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는 동심의 세계를 그리며 그녀 스스로 강박관념을 치유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참고도판 3).

본 출품작인 Universe(CGTS)는 기존의 작가가 자주 사용하는 화려하고 컬러풀한 백그라운드대신 새하얀 배경이 사이키델릭한 5가지 사이

즈와 색상의 폴카닷을 더욱 부각시키는 점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캔버스안에 있는 다채로운 점들 또한 멀티플 소실점과 같은 역할을 하며 관객을 앞으로 뒤로 밀고 당기며 작가 평생동안 경험한 환각과 우주의 무한함을 느끼게 한다.

“폴카 닷(polka dot 땡땡이 무늬)은 태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의 삶과 온 우주의 에너지를 상징한다. 또한 이것은 둥글고 부드러우며 미지의 세계를 나타내는 듯한 고요한 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양은 어느 순간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온 우주를 뒤덮음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무한함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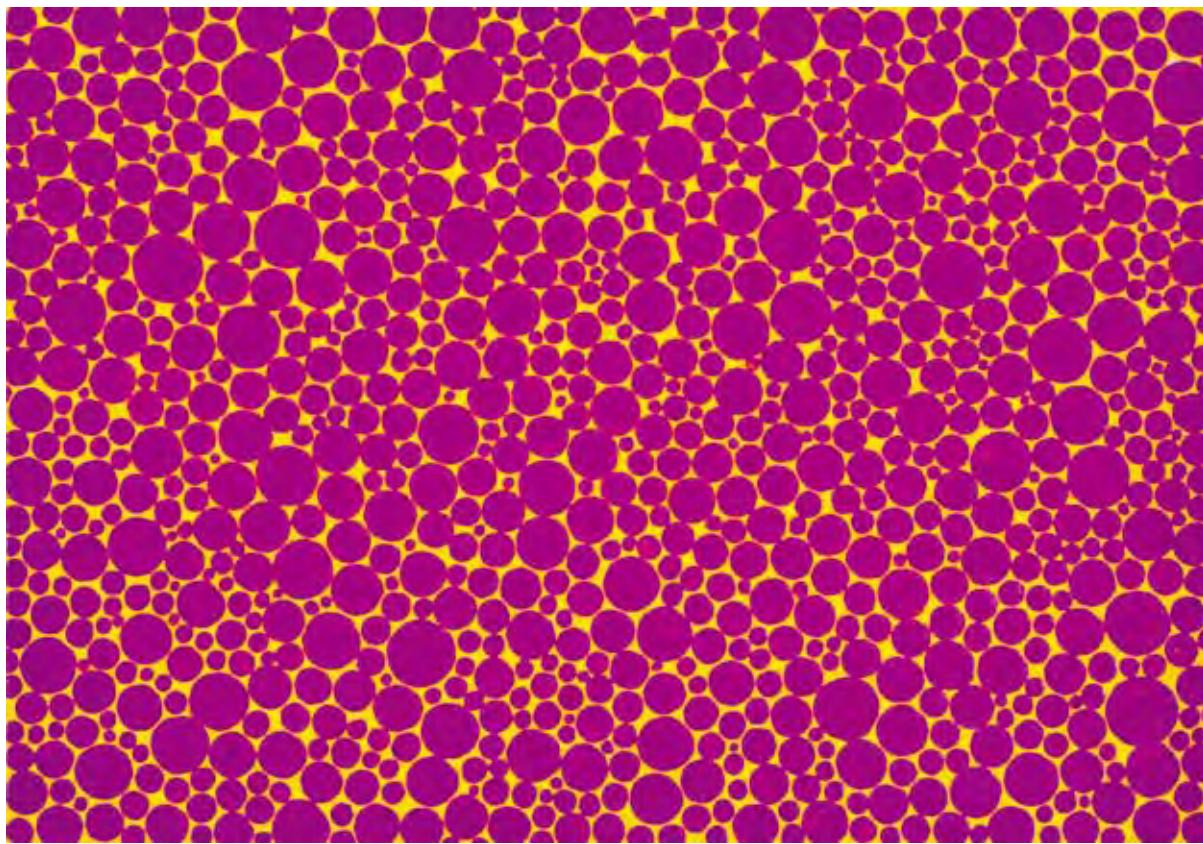
야요이 쿠사마

쿠사마는 1993년 45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일본관을 대표하였으며 현재 도쿄에서 거주하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에 시작된 Hirsc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의 〈Infinity Mirror Rooms〉전시는 2017-2018년 전미를 순회할 예정이며 Tokyo National Art Center에서도 오는 5월 22일까지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도판 1 〈My Flower Bed〉, 1962

참고도판 2 〈Infinity Nets〉, acrylic on canvas, 130.3×162.2cm, 2006

참고도판 3 exhibition view



86

야요이 쿠사마 b.1929 Japanese
Yayoi Kusama 草間彌生

Dots

acrylic on canvas
15.8×22.7cm, 6.2×8.9inch
1990
signed on the revers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registration card from the Kusama Studio.

KRW 55,000,000 - 80,000,000
USD 48,000 - 70,000
HKD 379,000 - 552,000



87

야요이 쿠사마 b.1929 Japanese
Yayoi Kusama 草間彌生

Fruits

acrylic on canvas
14x18cm, 5.5×7.1inch
1995
signed on the reverse

This work is registered under the registration No. 1523 by the Kusama Studio.

KRW 80,000,000 - 150,000,000
USD 70,000 - 132,000
HKD 552,000 - 1,0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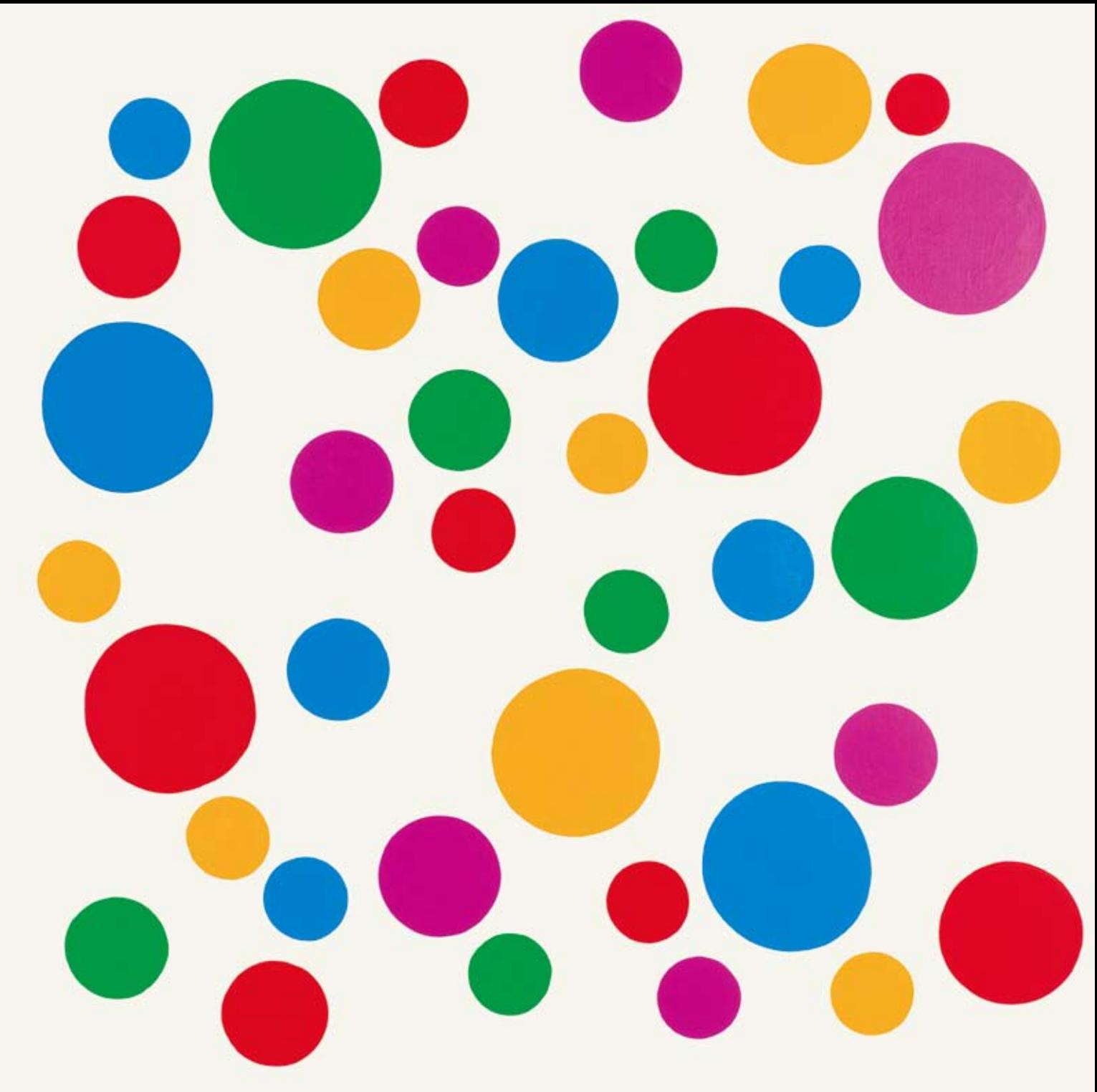
야요이 쿠사마 b.1929 Japanese
Yayoi Kusama 草間彌生

Universe (CGTS)

acrylic on canvas
162×162cm, 63.8×63.8inch
2013
signed on the re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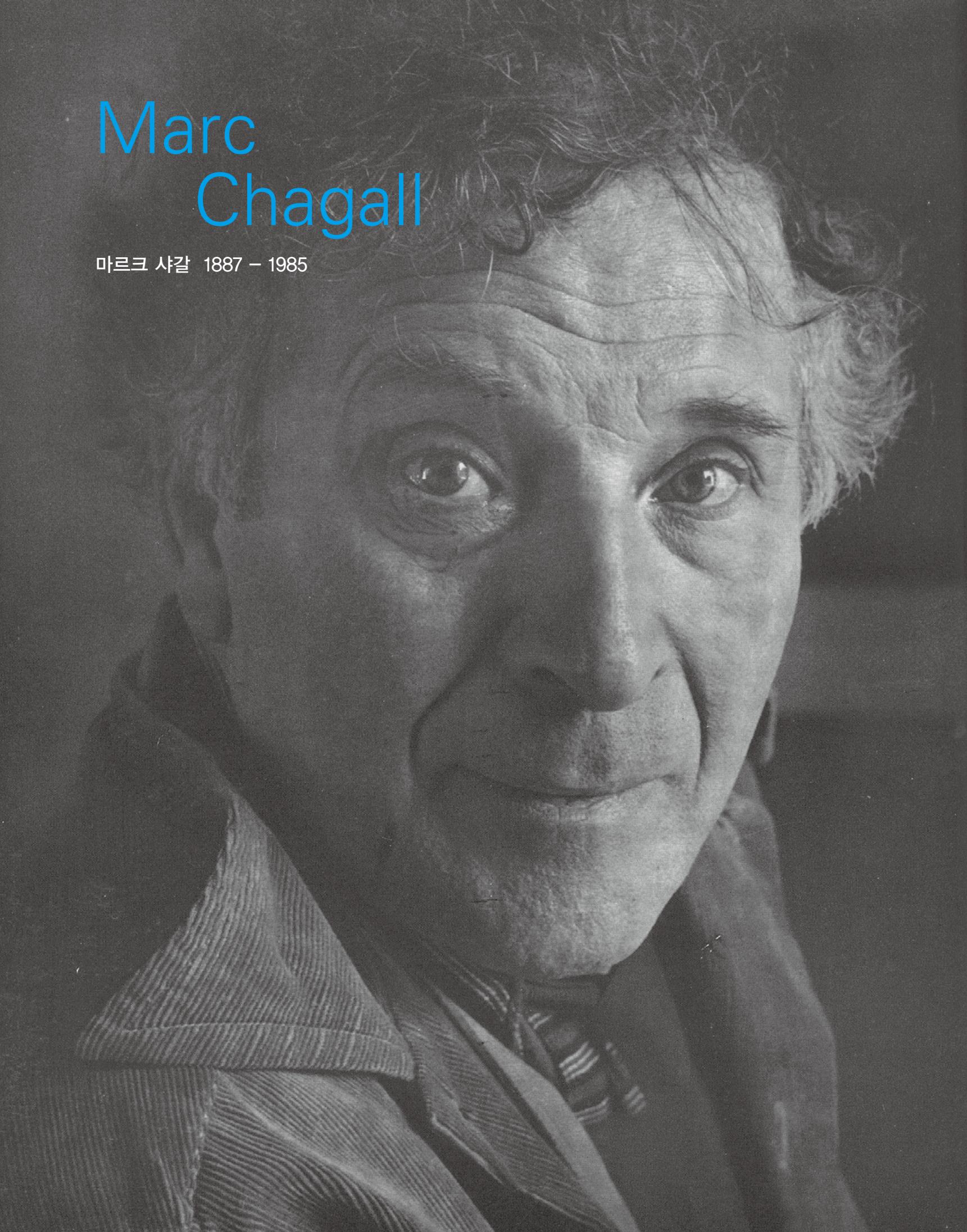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registration card from the Kusama Studio.

KRW 550,000,000 - 1,200,000,000
USD 485,000 - 1,060,000
HKD 3,790,000 - 8,2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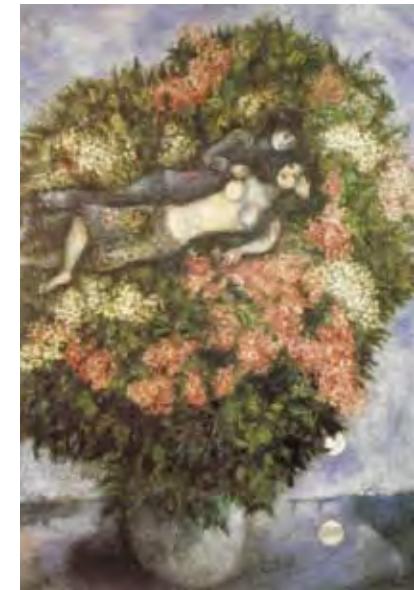
Marc Chagall

마르크 샤갈 1887 –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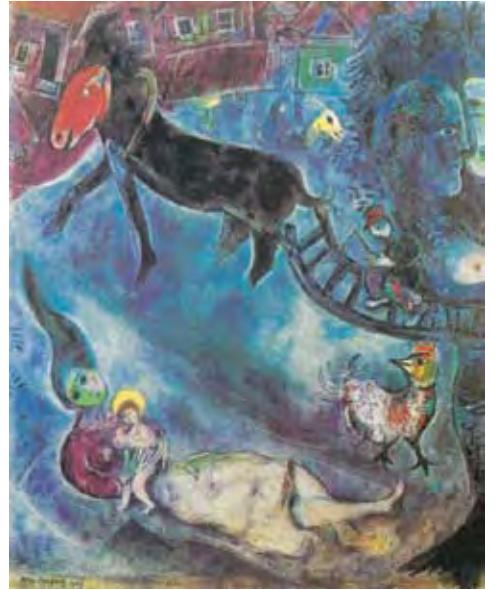


“진정한 예술은 사랑 안에서 존재한다. 그것이 나의 기교이고, 나의 종교이다.”

마르크 샤갈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시인이자 동상가이며 이국적인 환영을 주로 그린 마르크 샤갈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술가 중 한 명이자 어떠한 미술 양식에도 해당되지 않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지녔다. 샤갈은 1887년 러시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1910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러시아를 떠나 파리에 정착한다. 그는 주로 파리를 무대로 활동했으며 거대 화상인 볼라르(A.Vollard)를 만나 재능을 인정받게 되었다.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했던 샤갈은 '야수파(Fauvism)'의 강렬한 색채와 '입체주의(Cubism)'의 새로운 공간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민속적 주제와 유대인의 성서에서 영감을 받아 낭만적이고 순수한 표현을 발전시켰다. 그의 환상적인 작품들은 초현실주의의 태동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 받았으나 동시대 어떤 미술 사조에도 속하지 않는 가장 독창적이고 신비스러운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샤갈의 대부분 작품에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대개 성서 속 사람들이나거나 추억 속에 존재하는 고향마을 사람들, 서커스 하는 사람들, 자화상과 연인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 연인들은 젊은 시절 느낀 사랑의 감정이 샤갈의 예술을 언제나 환희와 희망에 들뜨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술의 참다운 정신이 사랑에 있다 믿으며, 언제나 삶 속에 존재하는 사랑에 집중해왔던 샤갈은 작품 안에 연인, 부부생활의 행복과 사랑 등을 담아냈다(참고도

판 1). 이 같은 사랑의 템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결혼이다. 결혼은 그가 유대인 문화에 보이는 집착의 표현이며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행복과 일체성의 흔적이기도 하다. 또한 성서는 샤갈에게 있어 일종의 실험적 예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는 삶과 예술에서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다. 샤갈은 현실의 대상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풍부한 색채와 상상력을 중요시했다. 작품 속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무시되고 상식을 넘어 대상 자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한다(참고도판 2).

샤갈은 오랜 생애 동안 힘이 넘치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화려한 색채와 친근한 이미지들로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반복해 온 종교 공동체와 이데올로기, 특히 예술적 이데올로기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으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소재들로 인간들이 늘 꿈꾸어왔던 평화로운 세계를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 왔다. 혁명과 전쟁이라는 시대의 소용돌이를 거치며 내면의 이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샤갈은 양식과 유파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꿈과 순수성,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Chagall』, The Hankook Ilbo, 2010

참고도판 1 〈라일락 속의 연인들〉, oil on canvas, 1930, 128x87cm
참고도판 2 〈성모와 셸매〉, oil on canvas, 1947, 97x80cm



Lot 89

Marc Chagall's poetic, figurative style made him one of most popular modern artists, while his long life and varied output made him one of the most internationally recognized. While many of his peers pursued ambitious experiments that led often to abstraction, Chagall's distinction lies in his steady faith in the power of figurative art, one that he maintained despite absorbing ideas from Fauvism and Cubism. Born in Russia, Chagall moved to France in 1910 and became a prominent figure within the so-called Ecole de Paris. Later he spent tim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Middle East, travels which reaffirmed his self-image as an archetypal "wandering Jew." Love and marriage are central to Chagall's work and stand as the most prominent theme in the rich tapestry of life and human emotion that is woven through his oeuvre. He married his first love, Bella Rosenfeld, in 1915. He had been immediately struck by this young Belarusian writer, declaring after their first meeting 'Her silence is mine, her eyes are mine. It is as if she knows everything about my childhood, my present, my future, as if she can see right through me.'

“我們的內心世界就是真實，可能還比外面的世界更加真實。把一切不合邏輯的事稱為幻想、神話和怪誕，實際是承認自己不理解自然。”

馬克·夏加爾

馬克·夏加爾是白俄羅斯裔法國畫家、版畫家和設計師。夏加爾的作品依靠內在詩意力量而非繪畫邏輯規則把來自個人經驗的意象與形式上的象征和美學因素結合到一起。馬克·夏加爾的藝術創作生涯幾乎與 20 世紀的歷史相互重疊，但在他的畫面中，只有飛翔的馬、綠色的牛、躺在紫丁香花叢中的愛侶、同時向左和向右的兩幅面孔、倒立或飛走的頭顱、中世紀的雕塑……這些充滿了青春歡樂氣息的作品是猶太人夏加爾對待這個世界的方式，也是後來的世界熱愛他的緣由。他的風格兼有老練和童稚，並將真實與夢幻融合在色彩的構成中。由於他的國家要求某有壹種類型的藝術，他被迫遠走他鄉，在美國和法國之間來回。夏加爾是個高產畫家，作品範圍包括繪畫、鑲嵌畫、舞臺設計、織錦畫等，許多公共建築物，如巴黎歌劇院及紐約聯合國總部等都有他的作品。夏加爾是壹位追求天真純樸，從俄國鄉下猶太居民到巴黎的畫家。他歷經立體派、超現實主義等現代藝術實驗與洗禮，發展出獨特個人風格，在現代繪畫史上占有重要的地位。

마르크 샤갈

1887 - 1985 Russian/French
Marc Chagall 马克·夏加爾

Les Mariés du Cirque

oil on canvas
80.3×60.6cm, 31.6×23.9inch
circa 1980
signed on the lower right and reverse

This work is accompanied by a certificate of authenticity issued from the Comité Marc Chagall.

KRW 1,600,000,000 - 2,000,000,000

USD 1,410,000 - 1,760,000

HKD 11,030,000 - 13,790,000

샤갈의 작품은 만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톤을 유지하는데 본 출품작은 그의 작품 속에 꾸준히 등장했던 소재들의 총 집결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은 그의 고향에 대한 향수이며 꽃다발은 이상에 대한 탐구 속에서 인간존재의 정신적 상태를 표현한 소재이다. 신랑, 신부의 등장은 그가 생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었던 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늘을 나는 동물은 그의 작품 속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방식으로 사람과 동물이 하나가 되어 관계를 맺는 범신론적 유대교의 특징을 보여준다.



GEORGE CONDO

조지 콘도 b.1957



참고도판 1



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조지 콘도는 1957년 뉴햄프셔 콩코드에서 태어나 매사추세츠 로威尔 대학교에서 미술사 및 음악 이론을 전공했다. 콘도는 1980년대 미국미술의 부흥을 이끌었던 작가 중 한 명으로, 그 후 30년 동안 예술 세계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점하고 있다. 콘도의 대표적인 작품 이미지는 유머러스하고 왜곡된 형상의 인물 초상화, 초상화 외에도 드로잉, 판화, 조각 작품 등을 선보여왔다(참고도판 1).

그의 1980년대 작품부터 리얼리즘과 큐비즘이 혼합된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작가는 그로테스크하지만 전통적인 회화작업으로 인물을 해체한 후 재구성한다(참고도판 2). 콘도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인공적 현실주의(Artificial Realism)'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는 인공적인 것의 현실적인 표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고야, 벨라스케즈, 마네, 피카소 등 미술사학적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인물을 인용하여 새로운 상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점에서 콘도는 예술가들이 도용이 아닌 방식으로 미술사를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인물로 평가된다.

때때로 콘도의 작품 속 인물은 유머러스한 만화를 상기시키지만, 그들은 어딘가 과장되어 있고, 괴기스러우며, 왜곡된 모습을 가진다. 본 출품작 〈Abstract Composition Portrait〉과 같이 작품 속 인물의 얼굴, 이목구비, 몸통 등이 괴이하게 배치된 형상을 통해 입체주의(Cubism)

의 영향도 느낄 수 있는데(참고도판 3), 콘도는 자신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형상을 심리적 입체주의(Psychological Cubism)라 일컫는다. 피카소의 입체주의가 대상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목적 자체로 기능한다면, 콘도의 입체주의는 작가의 상상력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들은 고전적인 배경과 화면 안에 다양한 형태로 배치되어 코미디와 비극, 괴기함과 고전적인 아름다움 사이를 미묘하게 오간다. 작가는 이를 통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상을 포착하고, 그 순간의 진실을 인공적인 현실 안에서 냉정하고 직설적이지만, 인간적인 공감대와 연민을 잊지 않는 선에서 담아낸다.

조지 콘도는 컬럼비아대학교, 예일대학교, 패서디나 아트센터, 샌프란시스코 MOMA,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다수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강연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현대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휴트니 미술관, 뉴욕 올브라이트 녹스 아트 갤러리 등의 영구 컬렉션으로 있다. 현재 미국 최초의 현대미술관 필립스 컬렉션(The Phillips Collection)에서 'The Way I Think' 회고전과 베를린 국립미술관(Museum Berggruen)에서 'Confrontation'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진밀한 낯설음』 아라리오 갤러리, 2013

참고도판 1 〈Big John〉, oil on canvas, 176.5×153.7 cm, 2006

참고도판 2 〈Multi-Colored Farmer〉, oil on canvas, 127x102cm, 2007

참고도판 3 〈Family Reunion〉, oil on linen, 121.9x111.7 cm, 2009

90

조지 콘도 b.1957 American
George Condo 喬治 · 康多

Abstract Portrait Composition

oil on linen
152.4×132cm, 60×52inch
2008
signed on the reverse

KRW 450,000,000 - 700,000,000

USD 396,000 - 617,000
HKD 3,100,000 - 4,830,000

PROVENANCE

Xavier Hufkens, Brussels
Simon Lee Gallery, London
Private Asian Collection



패트릭 휴즈 b.1939 British
Patrick Hughes 派特裏克 · 休斯

Philosopherspective

oil on board construction
100x230x40(d)cm, 39.4x90.6x15.7(d)inch
2004
signed on the reverse

KRW 57,000,000 - 120,000,000
USD 50,000 - 106,000
HKD 393,000 - 828,000

“정말로 아름다운 순간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라볼 때, 움직일 때 그리고
생각하고 궁금해할 때이다.”

패트릭 휴즈



패트릭 휴즈는 영국의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작가로, 회화에 3차원 구조를 접목해 만든 역원근법 회화의 창시자이다. 역원근법이란 그림에서 가장 먼 곳이 관람자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역발상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관람자에게 특별한 공간적·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작가의 미술적 의도는 전시 제목에서 확인해 드러난다. Superspective, Reverspective, Perverspective, Deeperspective, Inverspective, Converspective 등 50여 년간 모두 Perspective라는 단어의 변형을 사용했다. 또한, 작가의 공간 속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람자를 자신의 공간 속으로 끌어들여 상호작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작품 앞을 지나가며 직접 경험할 때, 관람자의 공간적 감각이 극대화된다. 단순히 3차원의 회화를 넘어선 인간과 예술, 공간과 시각의 결합인 것이다.

나티 우타릿 b.1970 Thai
Natee Utarit 纳提 · 尤塔瑞

In Vino Veritas

oil on linen
60x80cm, 23.6x31.5inch
2013
signed on the reverse

KRW 25,000,000 - 35,000,000

USD 22,000 - 31,000
HKD 172,000 - 241,000

EXHIBITION

Seoul, Gallery Hyundai, Natee Utarit: Optimism is Ridiculous, October 2013

“나는 예술이라는 대화에서 다양한 언어를 시험해서 가장 적절한 언어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려고 한다.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사회의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을 표현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유럽 17세기 회화는 구상적이면서 상징과 알레고리로 가득한 점이 마음에 든다. 즉, 그들 회화의 스타일은 사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징적이기에 그것을 응용한다.”

나티 우타릿

본 출품작은 2013년 처음 등장한 '우스꽝스러운 낙천주의(Optimism is Ridiculous)' 연작 중 하나로 17세기 바로크 회화 양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현실과 허구 사이를 진동하는 철학적 회화작품이다. 우타릿은 특히 틸식민주의적 태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동남아시아 지역 미술계의 특징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외부적 조건들 보다는 자신 내부의 심정적 혼란과 모순들에 집중하는 태도로 일견 온건하지만 한편으로 분명 단순하지 않은 여운을 남긴다.



스테판 발肯홀

b.1957 German

Stephan Balkenhol 史蒂芬·巴爾肯霍爾

Relief Man

relief in painted poplar wood
 120×101×14(d)cm, 47.2×39.8×5.5(d)inch
 2000
 signed on the reverse

KRW 40,000,000 - 70,000,000

USD 35,000 - 62,000

HKD 276,000 - 483,000

“나의 조각은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신비로운 무언가를 숨겨 놓는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스테판 발肯홀 (Stephan Balkenhol)

나무를 조각하여 사람 형상의 작품을 제작하는 스테판 발肯홀(Stephan Balkenhol)은 독일의 대표적인 현대 조각가이다. 일상의 평범한 인물들을 주인공 삼아 인체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하는 발肯홀은 나무의 자연스러운 질감과 결을 살려 그것을 깎아낸 후 그 위에 채색을 더한다. 거친 질감과는 대조를 이루는 무표정의 인물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들이 전하는 숨겨진 메시지에 귀 기울이게 한다.

본 경매 출품작은 작가가 평소 즐겨 사용하던 포플러 나무 판을 순수 파내는 방식으로 조각한 '릴리프(relief)' 작품으로,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듯한 미묘한 표정의 젊은 남자는 친근하게 느껴진다. 나무를 주재료로 활용하면서도 인물의 섬세한 감정표현은 물론 옷의 작은 구김까지도 놓치지 않는 발肯홀의 세밀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팀 아이텔 b.1971 German
Tim Eitel 蒂姆·艾特爾

Untitled (Gray Eyes)

oil on panel
22.9×22.9cm, 9×9inch
2009
signed on the reverse

KRW 18,000,000 - 3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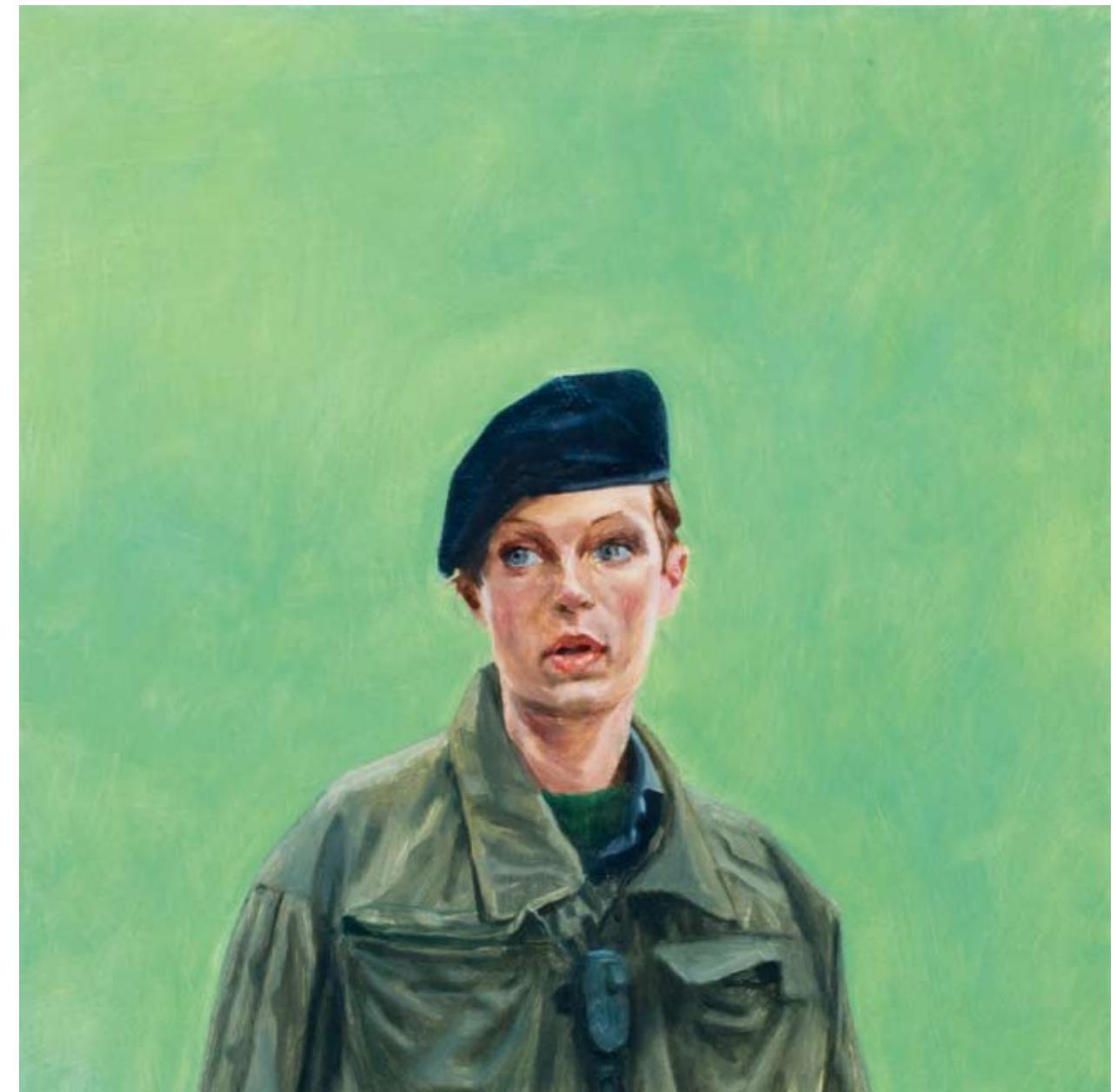
USD 16,000 - 26,000
HKD 124,000 - 207,000

PROVENANCE

Pace Wildenstein, New York

팀 아이텔은 네오 라우흐(Neo Rauch), 안나 테센노우(Anna Tessenow)등과 더불어 독일의 대표적인 뉴-라이프치히파 화가이다. 뉴-라이프치히파는 20세기 말 독일의 통일과 함께 등장한 라이프치히 시각예술학교 출신의 작가군을 칭하는 말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진재와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불안의 심리는 이들의 작업에 흐르는 지배적인 정서다. 영국의 YBA(Young British Artist)와 더불어 세계 미술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뉴-라이프찌히 그룹은 YGA(Young German Artist)라고도 불리는데, YBA가 충격가치(shock value)나, 감각주의(sensationalism)로 설명되는 자극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에 치중 한데 비해 이들은 '구성적인 엄격함'과 '장인적 완벽함'을 중요시하는 순수한 구상화화를 선보인다.

팀 아이텔은 주로 방황하는 여행자, 망연자실해 있는 청년, 지치고 낙담한 노동자 등 현대 도시의 인물들을 사실적인 회화 기법으로 화면에 담아낸다. 출품작《Untitled (Gray Eyes)》속 인물은 단색의 녹색 배경 안에서 허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처럼 최소한의 인물과 사물, 모호한 배경이 어우러진 작품에서 현대인의 고독과 공허함을 작가는 개개인의 개별적 이야기로 만드는 동시에 '누군가'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보편적 상황으로 전환시킨다.





95

요시토모 나라

b.1959 Japanese
Yoshitomo Nara 奈良美智

Mellow Girl

woodcut
diameter 30cm, diameter 11.8inch (edition 13/50)
2009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18,000,000 - 25,000,000

USD 16,000 - 22,000
HKD 124,000 - 172,000

PROVENANCE

Tomio Koyama Gallery, Japan

LITERATURE

『Yoshitomo Nara: The Complete Works - Volume 1: Paintings, sculptures, editions, photographs』, Chronicle Books LLC, 2011, p. 314



96

야요이 쿠사마

b.1929 Japanese
Yayoi Kusama 草間彌生

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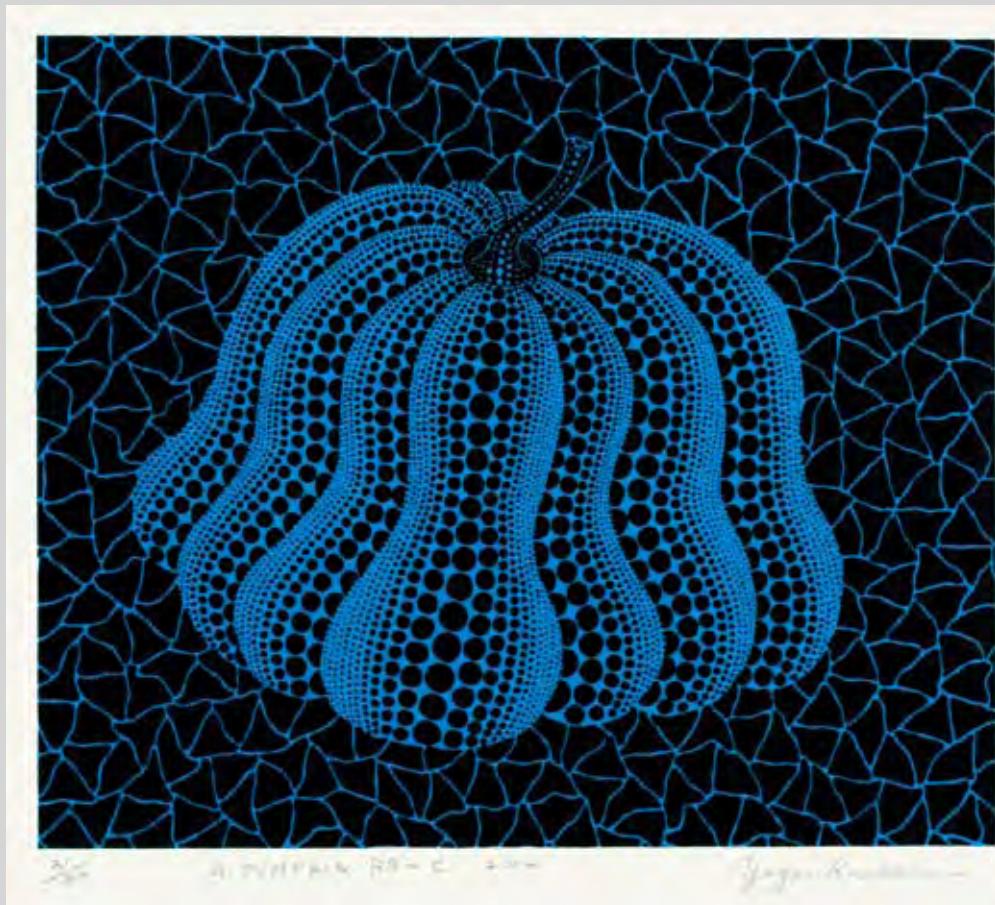
screenprint
46x53.5cm, 18.1x21.1inch (edition 35/75)
1986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23,000,000 - 30,000,000

USD 20,000 - 26,000
HKD 159,000 - 207,000

LITERATURE

『Yayoi Kusama Prints 1979-2013』, Abe Publishing Ltd., 2013, p. 60



97

야요이 쿠사마
Yayoi Kusama 草間彌生

Pumpkin BB-C

screenprint
24x28.5cm, 9.45x11.2inch (edition 31/80)
2004
signed on the lower right

KRW 7,000,000 - 15,000,000
USD 6,000 - 13,000
HKD 48,000 - 103,000

LITERATURE

『Yayoi Kusama Prints 1979-2013』, Abe Publishing Ltd., 2013, p. 189



98

마이클 크레이그-마틴
Michael Craig-Martin 邁克爾·克雷格·馬丁

Fragments (6 works)

screenprint
each 90x90cm, 35.4x35.4inch, 6works (edition AP 10/10)
2015
each signed on the reverse

KRW 26,000,000 - 40,000,000
USD 23,000 - 35,000
HKD 179,000 - 276,000

PROVENANCE
Alan Cristea Gallery, London

AUCTION TERMS (for auctions held by K Auction in Korea)

Article 1 Purpose

- 1.1 These terms and conditions of auction (these "Auction Terms") and the Important Notices (the "Important Notices") contained in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defined below) contain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n which:
 - 1.1.1 K Auction Inc. ("K Auction") shall conduct an Auction (defined below);
 - 1.1.2 prospective Bidders shall register and/or apply to place, and Bidders shall place, bids in such Auction; and
 - 1.1.3 K Auction and the Seller (including Consignor) shall contract with the Buyer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any lot in such Auction ("Consignment Agreement"). K Auction and the Consignor shall have a separate Consignment Agreement containing additional terms between both parties.

Article 2 Definition

- 2.1 "Auction" means an offline auction conducted by K Auction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 2.2 "Auction Catalogue" means, in relation to an Auction, the catalogue (including e-catalogue) published by K Auction containing descriptions and information on the lots scheduled to be sold at such Auction.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means but not restricted to, every material produced by K auction (including materials on the K Auction official website, web mail, SMS, smartphone application, listbook, brochure, condition report, lot recommendation, research study, screen display at Auction, marketing and promotional printouts).
- 2.3 "Auction Dat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date on which such lot is scheduled to be sold at an Auction.
- 2.4 "Auction Period" means, in relation to an Auction, the date(s) on which such Auction is held.
- 2.5 "Bidder" means, in relation to an Auction, any person who has applied to K Auction to place bids in such Auction and accepted by K Auction or, if applicable, has received written confirmation of such application from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 2.6 "Business Day" means a calendar day which is not a Saturday, a Sunday or a public holiday in Korea.
- 2.7 "Buyer"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Bidder who is declared by the auctioneer to be the Bidder who has made the highest bid for such lot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 2.8 "Buyer Withdrawal Fe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an amount equal to 30% of the Hammer Price of such lot.
- 2.9 "Buyer's Expenses" means, in respect of any lot, any taxes,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currency conversion costs, storage charges, packaging, delivery and transit insurance costs, incurred by any of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such lot pursuant to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and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2.10 "Buyer's Premium"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premium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in connection with the Consignment Agreement and such lot.

2.11 "Consignor"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person who has consigned such lot to K Auction to be sold at an Auction by entering into a consignment agreement with K Auction prior to the start date of such Auction.

2.12 "Estimate Pric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estimated value of such lot as determined by K Auction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2.13 "Starting Pric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start price of such lot, determined by K Auction or the Auctioneer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2.14 "Hammer Pric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sale price of such lot, being the amount equal to the highest bid accepted by the auctioneer by striking his/her hammer and calling the paddle number of the relevant Bidder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2.15 "Purchase Pric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an amount equal to the sum of the Hammer Price and the Buyer's Premium of such lot.

2.16 "Reserve Price"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minimum selling price of such lot agreed in writing between the Seller and K Auction (if the Consignor is the Seller), or determined by K Auction (if K Auction is the Seller), as the case may be, prior to the sale of such lot.

2.17 "Seller" means, in respect of any lot, the counterparty to the contract of sale of such lot, which shall be K Auction or the Consignor.

Article 3 K Auction as agent or as the Seller

Except in respect of any lot of which K Auction is the Seller, K Auction shall act as agent of the Consignor (being the Seller) in selling the Consignor's lot in an Auction. The contract for the a lot shall be made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Article 4 Previews

- 4.1 K Auction will hold preview(s) of lots scheduled to be sold at an Auction which will be open to the public and free of charge,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require proof of identity satisfactory to it before admitting any person to any preview and/or refuse admission of any person to any preview.
- 4.2 K Auction may give notice of the place, date, time and duration of any preview in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cancel, or change the place, date, time and/or duration of, any preview

without prior notice.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determine not to sell any lot exhibited at a preview in the relevant Auction or any Auction at all.

Article 5 Bidder registr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with K Auction prior to the start date of the relevant Auction Period, prospective Bidders, including first-time prospective Bidders, shall register and/or apply to place bids in an Auction by completing and sending to K Auction the relevant registration form and any supplementary document specified in such registration form and/or requested by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mportant Notices. Registration of prospective Bidders and application to place bids in writing or by telephone will be conducted as prescribed in the relevant Important Notices. K Auction shall use reasonable endeavours to process any registration and/or any application to place bids,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failure to do so or delay in doing so, or for any error and/or omission by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placing such bid, howsoever caused.

Article 6 Estimate Price and Starting Price

6.1 K Auction may provide a lower Estimate Price, a higher Estimate Price and/or a Starting Price for each lot in Korean Won, US Dollar, Hong Kong Dollar and/or Chinese Yuan in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during the relevant Auction Period.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change at any time before and up to the time of the sale of any lot the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of such lot without prior notice.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will not include the Buyer's Premium and/or any Buyer's Expense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provided by K Auction will be for reference only and shall not be an indication of the value or the Hammer Price of the relevant lot.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being quoted in the public.

6.2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the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shown in US Dollar, Hong Kong Dollar or Chinese Yuan in any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will be for reference only and all bids and payment shall be in Korean Won. In respect of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provided in an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the relevant Important Notices will contain the rates of exchange used for converting the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expressed in Korean Won into US Dollar, Hong Kong Dollar or Chinese Yuan. Such rates of exchange will be obtained on practicable date prior to the printing of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and may change at any time thereafter. No representation is made that any of the US Dollar, Hong Kong Dollar or Chinese Yuan amounts shown in any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could

have been or could be converted into Korean Won (or vice versa) at the specified rates, at any particular rates or at all.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error or omission, however caused,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conversion of Estimate Price or Starting Price expressed in Korean Won into US Dollar, Hong Kong Dollar or Chinese Yuan.

Article 7 Conduct of Auction and conclusion of the sale of a lot

- 7.1 K Auction may give notice of the scheduled date, time, duration and place of an Auction in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cancel, or change the date, time, duration and/or place of, any Auction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 7.2 Each of K Auction and the auctioneer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refuse admission of any person to any Auction and/or reject any bid (whether made in person, in writing or by telephone) placed in any Auction.
- 7.3 Each lot shall be sold subject to the Reserve Price of such lot and the auctioneer shall not accept any bid below such Reserve Price in principle. The auctioneer shall keep the Reserve Price confidential. The auctioneer may place bids on behalf of the Seller below the Reserve Price or Starting Price by either placing consecutive bids or entering bids in response to bids placed in person, in writing or by telephone (as the case may be). The auctioneer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start the bidding of any lot below the Reserve Price or Starting Price of such lot, and may accept bids below the Reserve Price or Starting Price without prior consent from the Consignor. The auctioneer shall not place any bid on behalf of the Seller at or above the Reserve Price. The auctioneer shall not be obliged to specifically identify bids placed on behalf of the Seller.

- 7.4 A Bidder may place bids in person, in writing or by telephone,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All Bids placed may be recorded or documented and Bidders sha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the recording and documentation of their conversations by placing bids.

7.5 Subject to Clauses 7.6 and 7.7:

- 7.5.1 in the case of bids placed in person, the Bidder shall place his/her bid by raising his/her paddle after the auctioneer's call in the auction hall;
- 7.5.2 in the case of written bids, the auctioneer will call out such bids in the auction hall before commencing to receive bids placed in person or by telephone; and/or
- 7.5.3 in the case of bids placed by telephone, K Auction's staff will place bids on behalf of the Bidder in the auction hall.

- 7.6 In respect of a lot, K Auction shall use reasonable endeavours to receive any written bid or telephone bid,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failure to do so or delay in doing so, or for any error and/or omission by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receiving such bid, howsoever caused.

- 7.7 If, in respect of a lot, any written bid or telephone bid is received by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K Auction shall use reasonable endeavours to place such bid,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failure to do so or delay in doing so, or for any error and/or omission by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placing such bid, howsoever caused.

- 7.8 In respect of a lot, if a written bid, bid in person, bid by telephone have the same price, bidder has priority in the order of written bid, bid in person and bid by telephone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If two written bids for a lot have the same bid price, the Bidder of the written bid first received by K Auction will be declared the Buyer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 7.9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i) withdraw any lot at any time before the scheduled time of sale of such lot without prior notice; (ii) combine any two or more lots without prior notice; (iii) re-commence during the relevant Auction Period, the auction of any lot which was previously put up for sale during such Auction Period but not sold without prior notice; (iv) in the event of any error arising in relation to, or any dispute among the Bidders over the validity of, bids placed in respect of a lot, determine the Buyer of, continue the bidding process of, cancel the sale of, and/or put up for resale, such lot; and/or (v) in the event that any dispute over the authenticity of any lot, or the validity of the sale of any lot, has arisen or may, in K Auction's sole opinion, arise, refuse to place such lot in an Auction, discontinue the bidding process and/or cancel the sale. In the event that the bidding process or the sale of a lot is discontinued or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7.9, the Buyer's sole and exclusive remedy against K Auction and/or the Seller, as the case may be, shall be the refund of the Purchase Price paid by the Buyer for such lot (if any). Neither K Auction nor the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special,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profits or loss of interest. For the avoidance of doubt,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to pay any interest or indemnify any loss incurred as a result of any foreign exchange rate fluctuation or otherwise.

- 7.10 Without prejudice to Clause 7.2, the contract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for any lot shall occur immediately upon the auctioneer accepting the highest bid by striking his/her hammer and calling out the paddle number of the relevant Bidder. The Buyer shall sign a Successful Bidding Confirmation confirming the purchase by him/her of a lot on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where the Buyer made his/her bid in person and is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or as soon as practicable (where the Buyer did not make his/her bid in person or is not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 (i) in person on the day of the sale of the lot(s) (where the Buyer made his/her bid in person and is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or

- (ii) by fax, email or by post to the billing address or email address provided by the Buyer in his/her registration form as soon as practicable (where the Buyer did not make his/her bid in person or is not present in the auction hall on the date of the sale).

- 10.2 In respect of lot(s) purchased by the Buyer, the Buyer shall pay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Article 8 Marketing materials

K Auction holds the right to use any lot for any business purpose of K Auction including posting images and/or information relating to any lot in any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The copyright in all images, illustrations and/or written material produced by or for K Auction relating to any lot, including the contents of any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shall be and shall remain at all times the property of K Auction and shall not be used by the Buyer, nor by any other person, at any time without K Auction's prior written consent. Neither K Auction nor the Seller makes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that the Buyer of a lot will acquire any copyright or other reproduction rights in it.

Article 9 Buyer's Premium

- 9.1 In respect of any lot, the Buyer's Premium shall be 15% (excluding VAT) of the Hammer Price.
- 9.2 The Buyer's Premium shall be exclusive of any Buyer's Expense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Article 10 Payments of the Purchase Price and Delivery of lots

10.1 K Auction will provide to the Buyer an invoice or invoices of the amounts due from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listing the lot(s) purchased by the Buyer in an Auction, the Hammer Price, the Buyer's Premium, VAT and/or any Buyer's Expenses:

10.2.1 the full invoiced amount; and 10.2.2 any other Buyer's Expenses incurred after the invoice(s) has/have been sent to the Buyer,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the lot(s). K Auction and a Buyer may, prior to the sale of the relevant lot, agree in writing for the Purchase Price of such lot to be paid in instalments.

10.3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etween the Buyer and K Auction: (i) the Buyer shall be personally liable to pay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the Purchase Price and/or any Buyer's Expenses payable by the Buyer in respect of any lot; and (ii) K Auction will not accept any payment due to it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from any other party other than the relevant Buyer.

10.4 If, in respect of any lot,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does not receive the full amounts payable by the Buyer under this Clause 10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K Auction may,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and unless agreed in writing between the Buyer and K Auction:

10.4.1 cancel the sale of such lot and charge the Buyer the Buyer Withdrawal Fee which shall be due and payable by the Buyer on demand;

10.4.2 put up such lot for resale in another Auction;

10.4.3 disclose any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uyer to the relevant Consignor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at Consignor to claim against the Buyer;

10.4.4 set off against any amounts which K Auction or any of its Affiliate (defined in Clause 17) may owe the Buyer in any other transactions, the outstanding amount remaining unpaid by the Buyer; and/or

10.4.5 take such other action as K Auction deems necessary or appropriat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or remedies available to K Auction by law.

10.5 The Buyer may cancel his/her purchase of any lot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the Sale date, if agreed previously by K Auction in writing;

10.5.1 by giving written notice of cancellation to K Auction; and

10.5.2 paying to K Auction the Buyer Withdrawal Fee,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The sale will be cancelled immediately upon receipt by K Auction of such written notice and the Buyer Withdrawal Fee.

10.6 Unles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etween K Auction and the Buyer, K Auction will only release the lot(s) purchased by the Buyer to the Buyer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10.6. The Buyer shall collect, or procure the collection of, the lot(s) purchased by him/her at his/her risk and expense within seven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the

lot(s),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shall not be obliged to release any lot:

10.6.1 until full payment of all amount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pursuant to this Clause 10 is duly received by K Auction; or

10.6.2 without being provided with proof of identity of the collector and (in the case of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proof of authorisation, satisfactory to K Auction.

10.7 If agreed in writing between the Buyer and K Auction, K Auction will arrange packaging, delivery and transit insurance of the lot(s) purchased by the Buyer at the Buyer's expense and risk. K Auction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 to, or the loss of, such lot during packaging and/or the transit period of such lot, howsoever caused.

10.8 K Auction will keep the lot(s) sold in an Auction at no charge until the expiry of seven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s), after which the lot(s) will be stored by K Auction at the Buyer's risk. If the Buyer fails to collect any lot within such time period regardless of whether such failure is caused by K Auction's refusal to release such lot due to not having received from the Buyer the full amounts due from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in respect of such lot or not having received proof of identity and/or authorisation pursuant to Clause 10.6, the Buyer shall pay to K Auction a daily storage charge of KRW30,000 per lot.

10.9 If any lot is not collected by the Buyer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within 21 calendar day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for whatever reason,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 to, or the loss of, such lot(s), howsoever caused.

Article 11 Export and/or import licences

The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obtaining any relevant export/import licences and/or permits (the "Licences") required for the export/import of the purchased lot(s). K Auction may, at the written request of the Buyer, introduce to Buyer a shipper to assist in obtaining the necessary Licences at the Buyer's expense and risk. K Auction does not accept any responsibility whatsoever in respect of such introduction. Denial of the Licences and/or delay in obtaining the Licences in respect of any lot shall not be a ground for the Buyer to cancel the sale of such lot or refuse or delay payment of the full amount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pursuant to Clause 10.

In particular, bidders bidding on the lots considered to be traditional Korean relics and treasures must fully understand the terms of Korea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Protection Law, which prohibits exportation of traditional Korean relics and treasures.

Article 12 Sale after the Auction

12.1 If any lot (an "After Sale Lot") is not sold in an

Auction because no bid matched or exceeded the Reserve Price at such Auction, K Auction may:

12.1.1 receive bids in writing for such After Sale Lot subject to the relevant Reserve Price (including the revised Reserve Price after the sale); and

12.1.2 accept the highest bid placed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12, provided however, that K Auction shall not be obliged to accept any bid if it deems,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that the relevant Bidder has not provided all documents as may be requested by K Auction pursuant to Clause 12.2 to its satisfaction.

12.2 A Bidder shall, when placing bids for any After Sale Lot, send to K Auction any supplementary document as may be requested by K Auction in written notice from time to time within the time specified by K Auction in such notice.

12.3 The sale contract for any After Sale Lot shall occur on the date of the invoice from K Auction to the Bidder notifying K Auction's acceptance of his/her bid. The invoice will list the lot(s) purchased by the Buyer, the Hammer Price, the Buyer's Premium, VAT and/or any Buyer's Expenses, due from the Buyer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12.4 Clauses 1, 2, 3, 6, 7.2, 7.3, 7.6 to 7.9, 7.11, 7.12, 8, 9, 10.2 to 10.9, 11, 13 to 19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Important Notice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sale of any After Sale Lot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12 as applicable and with the necessary amendments.

Article 13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liabilities

13.1 A Consignor and/or Bidder agrees and acknowledges that all statements in respect of any lo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atements on authorship, title, medium and/or size, contained in any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in writing or made orally by any of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and/or the Seller at any time, are statements of opinion and not statements of fact. So far as is permitted by law and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Clause 13, Clause 14 and/or Clause 15, all representations, warranties, conditions, guarantees and stipulations, express or implied, statutory, customary or otherwise in respect of any lot are and shall be expressly excluded (including, but without limitation, warranties, conditions as to title, rights to dispose, quiet possession, freedom from encumbrances, merchantable or satisfactory quality, fitness for purpose, description, size, quality, attribution, authenticity, medium, provenance or whether such lot is subject to copyright and/or whether the Consignor and/or the Buyer acquires copyright in such lot).

13.2 So far as is permitted by law, the lots shall be sold on an "as is" basis as at the time of sale of the lots (whether or not the Buyers are in attendance in

person at the Auction). Descriptions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may on occasion make reference to particular defects or deficiencies of a lot but the absence of any such description in respect of any lot shall not mean that such lot is without defects or deficiencies. The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his/her own research and satisfying himself/herself of the condition of the lo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 and/or restoration of the lots and in respect of any entries provided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K Auction will only accept a bid from a Bidder in respect of a lot on the assumption that the Bidder has satisfied himself/herself of the condition of such lot and in respect of any entries provided in the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13.3 So far as is permitted by law and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neither K Auction nor the Seller shall be liable to any Consignor, Bidder or Buyer for:

13.3.1 errors or omissions in information, whether oral or written, provided by any of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and/or the Seller, howsoever caused;

13.3.2 acts or omissions by any of K Auction, its director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and/or the Seller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any Auction and/or for any matter relating to the sale of any lot, howsoever caused.

Article 14 Limited Warranty

14.1 In respect of any lot, K Auction warrants that the headline printed in **BOLD BLACK** in respect of such lot on the first line in the Auction Catalogue (the "Headline") (as may be amended by any sale room notice displayed in the auction hall or K Auction official website during the relevant Auction Period) is true and accurate as at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Auction Catalogue (as may be amended by any sale room notice displayed in the auction hall or K Auction official website during the relevant Auction Period) (the "Limited Warranty").

14.2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for breach of the Limited Warranty in respect of any lot unless a Claim Letter (defined below) in respect of such lot is given by the Buyer to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14 before the expiry of three year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the "Warranty Period").

14.3 Subject to Clause 14.2, any Buyer wishing to claim under the Limited Warranty in respect of any lot shall (i) send to K Auction a letter (the "Claim Letter") stipulating the date of the sale of such lot, the lot number and the grounds for his/her claim under the Limited Warranty within three months from, but not including, the date on which he/she became aware of a possible/actual breach of the Limited Warranty; and (ii) return to K Auction the relevant lot in the same condition as at the time of the sale of such lot.

14.4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Buyer and K Auction in respect of the grounds of the Buyer's claim under the Limited Warranty, K Auction may require the Buyer to obtain, at the Buyer's expense, written opinions of two experts in the field mutually acceptable to K Auction and the Buyer. K Auction shall not be bound by such written opinions provided by the Buyer and may seek additional advice from other experts in the field at its own cost.

14.5 The Buyer shall not be entitled to claim under the Limited Warranty in respect of any lot if:

14.5.1 the relevant Headline corresponded to the generally accepted opinion of scholars or experts at the time of the sale of such lot;

14.5.2 the catalogue description, sale room notice or K Auction official website indicated that there were possibilities of dissenting opinion(s) from scholar(s) or a group of experts on the relevant Headline; or

14.5.3 the breach of the Limited Warranty can be proved only by means of either a scientific process not generally accepted for use until after publication of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or a process which at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relevant Auction Catalogue was unreasonably expensive or impractical or likely to have caused damage to the lot.

14.6 In the case of a breach of the Limited Warranty in respect of a lot, K Auction shall cancel the sale of such lot and refund to the Buyer the Purchase Price paid by the Buyer in relation to the lot.

14.7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e Limited Warranty in respect of a lot, the Buyer's sole and exclusive remedy against K Auction and/or the Seller shall be the cancellation of the sale and refund of the Purchase Price paid by the Buyer for such lot. Neither K Auction nor the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special, indirect, consequential lo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profits or loss of interest. For the avoidance of doubt,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to pay any interest or indemnify any loss incurred as a result of any foreign exchange rate fluctuation or otherwise.

14.8 The Buyer shall not assign or transfer the benefits of the Limited Warranty. Unless agreed in writing between K Auction and the Buyer, only the Buyer of the relevant lot as shown on the invoice issued by K Auction shall be eligible to claim under the Limited Warranty, provided that such Buyer must have remained the owner of the lot without disposing of any interest in it to any third party.

Article 15 Limited Liability

15.1 Without prejudice to Clauses 13 and/or 14 above, a Bidder's or Buyer's sole and exclusive remedy to any claim made by it against K Auction and/or the Seller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in respect of any lot shall be damages up to the

Purchase Price of such lot. Neither K Auction nor the Seller shall be liable for any special, indirect, consequential lo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profits or loss of interest. For the avoidance of doubt,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to pay any interest or indemnify any loss incurred as a result of any foreign exchange rate fluctuation or otherwise.

15.2 Nothing under these Auction Terms shall exclude or limit K Auction's liability in respect of any fraud, death or personal injury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of K Auction, its officers, employees and/or agents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any Auction and/or sale of lots.

Article 16 Amendment to these Auction Terms and the Auction Catalogue

16.1 K Auction may, at any time, and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amend the provisions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neither K Auction nor the Seller shall be liable to any Consignor, Bidder or Buyer for:

16.2 K Auction may, at any time, and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amend any information in an Auction Catalogue and/or elsewhe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ortant Notices and any such amendments shall be posted in a sale room notice or K Auction official website during the relevant Auction Period.

Article 17 Data Protection

17.1 Consignors, Prospective Bidders, Bidders and/or Buyers may be required to supply personal data in connection with placing bids for, and purchasing of, lots at the Auction. All personal data may be us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i) all matters connected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K Auction's business and the marketing and supply of K Auction's services; (ii) the transfer of such data to any place in and outside of Korea; and/or (iii) any purpose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compliance with any law, regulation, court order or order of a regulatory body.

17.2 All personal data will be kept confidential but, subject to the provision of any applicable law, may be disclosed to or used by any of the following companies or persons, whether in or outside of Korea: (i) K Auction and/or any of its branches, subsidiaries, holding company, associated companies or affiliates of, or companies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K Auction (each an "Affiliate") (together the "Group"); (ii) any director, officer or employee of the Group, but only when carrying out the business of the Group; (iii) any agent, contractor, third party service provider or other person authorised by the Group to provide administrative, telecommunications, computer or insurance, shipping, or any other services to the Group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its business; (iv) credit reference agencies and, in the

event of default, debt collection agencies; (v) any other person under a duty of confidentiality to the Group; and/or (vi) any person to whom the Group is under an obligation to make disclosure under the requirements of any law, regulation, court order or order of a regulatory body.

17.3 In general, and subject to certain exemptions, Consignors, Prospective Bidders, Bidders and/or Buyers shall be entitled to: (i) request access to his/her personal data, which shall be provided within 40 days; (ii) request the correction of his/her personal data, which shall be made within 40 days; and/or (iii) be given reasons if a request for access or correction is refused or unable to be complied with within 40 days.

17.4 Any request for access to and/or correction of Consignors, Prospective Bidders, Bidders and/or Buyers' personal data, or for information regarding K Auction's data protection policies and practices and the kinds of personal data K Auction hold, shall be sent to K Auction in accordance with Clause 18.6. K Auction will have the right to charge a reasonable fee for the processing of any data access request.

17.5 If a Consignor, Prospective Bidder, Bidder or Buyer is a corporate entity, K Auction shall not use the personal data of such entity's data subjects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s for which such entity notified its data subjects at the time of the collection of the data by such entity or a purpose directly related to that purpose (except where K Auction has obtained the written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e corporate prospective Bidder, Bidder or Buyer by signing the relevant registration form, confirms that (i) it has notified its data subjects that their personal data may be used for the purposes specified in Clause 17.1 and (ii) it agrees to indemnify K Auction in relation to any loss or damage suffered by K Auction as a result of its failure to notify its data subjects as set out in (i) above.

Article 18 Miscellaneous

18.1 In the case of any failure by the Buyer to pay to K Auction any amount due to it (for itself 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by the relevant due date, an interest of up to 2% per month (as determined from time to time by K Auction in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shall accrue to the default amount on a daily basis from, but excluding, the date such payment is due to, and including, the date of actual payment of the default amount and any interest accrued.

18.2 Any and all payments due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shall be payable in Korean Won. If the Buyer and K Auction agrees in writing for the Buyer to pay any amount due to K Auction (for itself and/or on behalf of the Consignor), or for K Auction to pay any amount due to it, in any currency other than Korean Won, the Buyer shall be liable to pay any currency co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ank commissions and/or charges incurred by K Auction in converting the Korean Won amounts into such other currency. Any currency

conversion shall be determined by K Auction based on the rate for Korean Won provided by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 on the date of payment or the specific date determined by K Auction and K Auction's decision as to such rate will be conclusive. For the avoidance of doubt, K Auction shall not be liable to indemnify any loss incurred as a result of any foreign exchange rate fluctuation or otherwise.

18.3 Any and all payments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Important Notices shall be made in cash or equivalent, including electronic remittance, cashier cheques and/or bank money orders in good cleared funds and in accordance with the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In respect of any payment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if the payment due date is not a Business Day, then the immediately following Business Day will be deemed to be the payment due date.

18.4 All sums payable by the Buyer to K Auction are exclusive of any relevant tax owed by the Buyer. The Buyer shall be responsible for paying such tax at the rate and time as required by the relevant law.

18.5 If any part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is found by any court to be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that part may be discounted and the rest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shall continue to be valid and enforceab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18.6 All notices, requests, claims, demands and other communications to K Auction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shall be in Korean or English in writing and shall be given or made (an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duly given or made upon receipt) by delivery in person, by courier service, by facsimile with receipt confirmed (followed by delivery of an original via registered mail), by email with receipt confirmed by K Auction (followed by delivery of an original via registered mail) or by registered mail to K Auction at the following address:

K Auction Inc.

Art Tower, 23, Eonju-ro 172-gil, Gangnam-gu, Seoul, 06017, South Korea
Tel 82.2.3479.8888
Fax 82.2.3479.8800
Email art@k-auction.com

Notices to Consignors, Bidders and Buyers shall be addressed to the address or email address specified by them in the relevant registration form.

18.7 Time shall be of the essence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both as regards any dates, times and periods mentioned and as regards any dates, times and periods which may be substituted for them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or by agreement in writing between the parties.

18.8 No waiver by or on behalf of K Auction of any requirement of or any rights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shall release any other party(ies) from the full performance of its/ their remaining obligations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No single or partial exercise of or failure or delay in exercising, on the part of K Auction, any right, power or remedy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or the granting of time by K Auction shall prejudice, affect or restrict the rights, powers and remedies of K Auction under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nor shall any waiver by K Auction of any breach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operate as a waiver of or in relation to any subsequent or any continuing breach of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18.9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set out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to the exclusion of any terms implied by law which may be excluded by contract and supersedes any previous written or or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relation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se Auction Terms (except in respect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signor and K Auction against each other in relation to the consignment of lots by the Consignor to K Auction which shall be regulated by the relevant Consignment Agreement). It is agreed that no party has been induced to enter into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by any representation, warranty or undertaking not expressly incorporated in. 18.10 In the case of any ambiguity or discrepancy between the English, Chinese and/or Korean version of these Auction Term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Article 19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These Auction Term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Korea.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to settle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se Auction Terms and/or the Important Notices and the parties to these Auction Terms (except K Auction) irrevocably submits to the jurisdiction of such courts and waive any objection to proceedings in any such court on the ground of venue or on the ground that proceedings have been brought in an inconvenient forum. K Auction shall have the right to bring proceedings in any court other tha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ll Consignors, Bidders and Buyers irrevocably consent to the service of process or any other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proceedings in any court by facsimile transmission, delivery in person, delivery by mail or in any other manner permitted by Korean law, at the law of the place of service or the law of jurisdiction where proceedings are instituted, at the last address of the Consignors, Bidders or the Buyers known to K Auction or any other usual address.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필수동의] (주)케이옥션은 미술품경매 등과 관련하여 (주)케이옥션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회원가입 및 관리, 경매위탁 및 낙찰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 필수사항을 서면 (회원가입신청서, 응찰등록신청서, 위탁계약서, 도록서비스신청서) 또는 인터넷 회원가입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합니다. • 회원관리(본인여부확인, 불량회원의 부정이용방지,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 서비스 제공, 경매응찰 및 낙찰, 약관의 이행, 미술품 위탁계약의 이행 /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 · 이용할 항목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가입시 가입일로부터 탈퇴 후 한달 이내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 경매참여, 작품위탁, 경매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미술품운송업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미술품운송업체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미술품 및 물품 운송
제공하는 정보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구매(낙찰)작품 혹은 물품 정보, 위탁작품 혹은 물품정보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에 명시된 모든 개인정보 수집 · 이용(필수)에 전체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선택적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선택동의]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의 선택적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자 / 응찰등록 신청자 / 도록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작품운송,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하여 이용합니다.
수집 · 이용할 항목	직업, 직장명, 직장주소, 배송주소, 미술관심분야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주)갤러리현대, 현대화랑(주), 아트큐브플러스(주), 주)다영, 주)원일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우편물 및 홍보물 발송, 마케팅관련 정보 전달, 신규서비스
제공하는 정보	성명,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구매(낙찰)작품 혹은 물품 정보, 위탁작품 혹은 물품정보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제공 완료 후 한달 이내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계정보, 전시정보, 작품운송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셨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또는 당사에 전화하여 철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당사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정보이용

목적	회사 또는 회사제휴사의 서비스 제공 / 사온풀, 기타 홍보/마케팅 자료
제공하는 정보	귀하는 위와 당사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경매정보 제공서비스, 경매일정 안내, 경매이력조회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케이옥션의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함 [모두 동의() | SMS문자() / 전화() / 이메일() / 주소()]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에 명시된 모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선택)에 전체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이름(신청인) / 전화번호

날짜 / 서명

BIDDER REGISTRATION FORM

K Auction 케이옥션

K Auction Inc.
(Company Registration No. 101-86-17910)

AUCTION DETAILS

Written Bid Telephone Bid

Tel 82.2.3479.8888 | Fax 82.2.3479.8800 | E-mail info@k-auction.com
Postal Address 1Fl. Art Tower, 23 Eonju-ro 172-gil, Gangnam-gu, Seoul, 06017, Korea
Official Website www.k-auction.com

* K Auction Staff in charge should check, confirm and copy Photo ID or passport and/or all necessary personal and credit documents of perspective bidders.

BIDDER'S DETAILS

Name * 이름 / **Company Name *** 법인명

Email Address

Date of Birth * 생년월

Company Registration No. * 사업자번호

Mobile No. * 휴대전화번호

Telephone No. Fax No.

LOTS FOR WRITTEN BID AND/OR TELEPHONE BID

DECLARATIONS

I request K Auction, without legal obligations of any kind on its part, to bid the Lots above up to the Maximum Bid Price. I understand that K Auction staff will attempt to execute a written bid at the lowest possible price taking the Reserve Price into account and subject to the Maximum Bid Price. I understand that K Auction provides this service for the convenience of myself and that K Auction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failing to execute bids.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 없이, 본인은 케이옥션의 해상 경매 물품에 대하여 최대응찰 가격(Maximum Bid Price)까지 응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케이옥션의 담당자가 최대응찰가격 한도 내에서 내정가를 감안하여 최대한 낮은 가격에 서면응찰 실행을 노력할 것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케이옥션의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케이옥션은 응찰 실행의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이해합니다.

I understand that if my bid is successful, the Purchase Price will be the sum of the Hammer Price and the Buyer's Premium.

I understand that if I have signed up for both Written Bid and Telephone Bid, once the telephone line is disconnected, K Auction staff will attempt to execute bids up to Maximum Bid Price. I understand that if identical written bids are received for the same Lot, the written bid received first by K Auction will take precedence.

본인은 경매물품이 낙찰될 경우, 경매물품의 구매가는 낙찰가와 구매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임을 이해합니다. 서면응찰과 전화응찰을 모두 신청한 경우 전화 연결이 안되면 케이옥션 담당자가 최대응찰가격 한도 내에서 서면응찰 실행을 노력할 것을 이해합니다. 동일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응찰가의 서면응찰이 접수된 경우 K옥션에 먼저 접수된 서면응찰이 유효하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is form, "Auction Terms" and "Important
Information for Buyers". I acknowledge that I have read and understoo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uction.

Notices in the Auction Catalogue and agree to be bound by them.

본인은 경매도록에 기재된 본 양식, 경매약관 및 유의사항을 읽었고 이해했으며 그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케이옥션 오프라인 경매 참가를 위해 본 응찰등록서를 작성 후 케이옥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IPIN 본인인증문서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자동저장하시기 바랍니다.

Date (Day/Month/Year)

Signature

작품 속 또 다른 금융세상 케이옥션이 함께합니다

미술품담보대출 케이아트대부

케이아트대부의 미술품담보대출은 경매에 거래가 가능한 미술품을 소장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간편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금리 연12%(월1% 선취)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케이아트대부가 제공하는
합리적인
미술품담보대출

- 동종 대부업계 대비 연12%의 낮은 금리 적용
- 오직 미술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
- 케이옥션의 100% 자회사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관리시스템
-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심되는 담보대출

금리 연12% (연체금리 연24% 이내)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없으며, 증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케이아트대부(주) 대부업 2015-서울강남-0108

대부업등록서명장 강남구청 02-3423-5114 | 06017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23(신사동 640-6) 아트타워
대출신청 전화상담 02.3479.8866 | 온라인 간편접수 www.kartloan.com



SUITE 2901
SUNSET VIEWS OVER GWANGAN BRIDGE
SINGLE MALT SCOTCH WITH LIVE JAZZ MUSIC
OVERSIZED SOAKING TUB
MORNING WALK ON DONGBAEK ISLAND

WHAT'S ON YOUR LUXURY LIST?
#LUXURYISPERSONAL

ONE OF MORE THAN 30 EXQUISITE HOTELS WORLDWIDE.
FOR RESERVATIONS PLEASE VISIT PARKHYATTBUSAN.COM OR CALL
+82 51 990 1234.

PARK HYATT BUSAN™



케이옥션 위클리 온라인

K AUCTION WEEKLY ONLINE

www.k-auction.com

4월 위클리 온라인경매 일정

경매시작
매주 수요일
3월 29일
4월 05일
4월 12일
4월 19일



4월 04일
4월 11일
4월 18일
4월 25일

경매마감
매주 화요일

온라인경매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공지사항은 www.k-auction.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 Auction



당신을 설레게 하거나
때로 미소 짓게 하는
일상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삶은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Lovely Life



Who insures you doesn't matter. Until it does.



Chubb보험그룹
페더럴 인슈런스 컴퍼니 한국지점

100-2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5길 19 (수하동) 페럼타워빌딩 12층
대표번호 02-3705-9700

This catalogue is published by K Auction
to accompany the following auctio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PRIL AUCTION

WEDNESDAY 12 APRIL 2017

Head of Department

Jihyun Lee, Senior Specialist

Cataloguer

Hyunjin Kim, Dongnam Park, Seungmin Lee

Senior Specialists

JeongJa Lee

KyungMi Jung

MiHee Kim

SunHee Choi

MinKyung Song

MinHee Suh

JeongAe Im

Specialists

InKyung Cho

EunJung Park

Sophia EJ Lee

PyeongCheol Cha

Hana Yoon

Catalogue Design

Designstudio Rang

Photography

Paul Heo

Jiwon Seo

Print

Yon Art Printing

Published by K Auction

Catalogue © K A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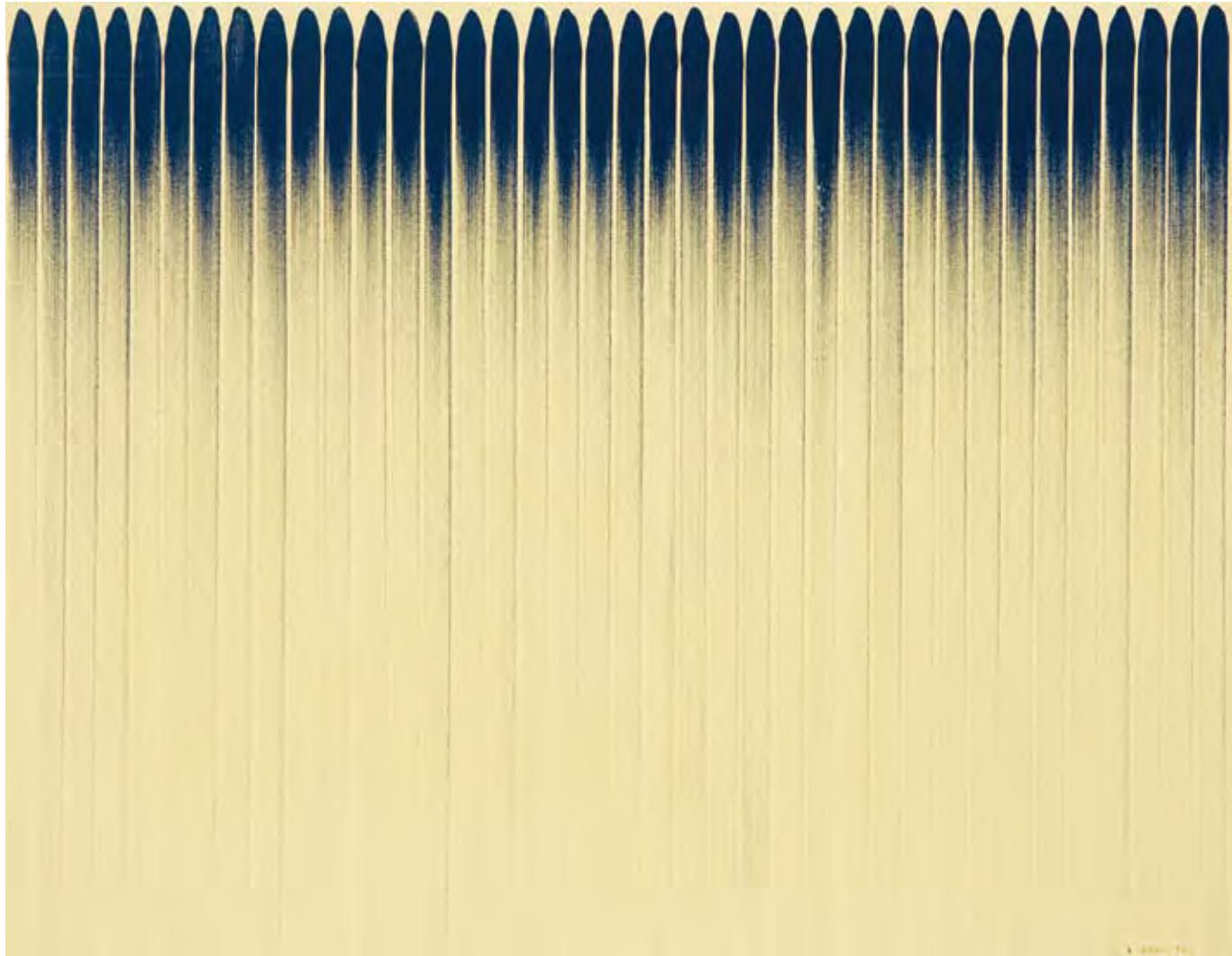
Artworks © Artist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K Auction





K Auction

06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23(신사동 640-6) 아트타워
TEL 02.3479.8888 | FAX 02.3479.8800 | www.k-auction.com